

Report of the Committee to Articulate a Foundation-laying Biblical Theology of Human Sexuality	인간의 성에 관한 성경신학적 기본개념 연구위원회 보고서
I. Introduction	I. 서론
Synod 2016, in response to multiple overtures, adopted the following:	2016 년 총회는 여러가지 안건에 대한 응답으로써 다음을 채택합니다.
That synod appoint a new study committee to articulate a foundation-laying biblical theology of human sexuality that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biblical conceptions of gender and sexuality. The central aim of this theological task will be to provide concise yet clear ethical guidance for what constitutes a holy and healthy Christian sexual life, and in light of this to serve the church with pastoral, ecclesial, and missional guidance that explains how the gospel provides redemptive affirmation and hope for those experiencing sexual questioning, temptation, and sin.	총회는 인간의 성에 관한 성경신학적 기본개념을 설명하는 연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젠더와 성의 성경적 개념에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 신학적 과업의 주된 목표는 거룩하고 건강한 기독교인의 성생활을 위한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윤리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런 견지에서 복음이 어떻게 구속적인 확신을 주고, 성적인 질문을 가지며 성적 유혹 및 죄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지 목양적, 범교회적, 선교적으로 안내하여 교회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a. In addition to these broad outlines, the study will include the following three components:	a. 위의 광범위한 개요와 더불어 이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합니다.
1) Discussion outlining how a Reformed hermeneutic does or does not comport with readings of Scripture being employed to endorse what are, for the historic church, ground-breaking conclusions regarding human sexual behavior and identification.	1) 인간의 성적 행동과 정체성 확인에 관한 획기적인 결론들을 지지하는 성경 읽기와 개혁주의 해석학이 어떻게 어울리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에 관한 개략적인 논의.

2) Dialogue with, and potential critique of, untraditional conclusions arising from arguments about a new movement of the Spirit (e.g., Acts 15), as well as conclusions arising from scientific and social scientific studies.	2) 과학적 혹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나온 결론과 성령의 새 운동에 관한 논쟁에서 비롯된 대화, 잠재적인 비판, 비전통적 결론들.
3) Reflection and evaluation of whether or not, with respect to same-sex behavior and other issues identified in the study, it will be advisable for future synods to consider	3) 동성애 행위 및 이 연구에서 진단한 기타 문제에 관하여 미래 총회가 참고할 만한지 아닌지에 관한 검토 및 평가.
- changing the main text of Church Order Article 69 (see Overtures 18, 19, 20, 21, 31, 38).	- 교회헌법 69 조의 본문 내용 수정 (안건 18, 19, 20, 21, 31, 38)
- declaring a <i>status confessionis</i> (see Overture 16).	- 교단의 신학적 입장(status confessionis) 발표 (안건 16)
- appointing a team of individuals to draft a statement of faith, perhaps in the style of the Contemporary Testimony, on human embodiment and sexuality that reflects and secures the teachings and conclusions of the report (see Overture 28).	- 연구보고서의 가르침과 결론을 반영하고 확고히 하는 인간의 확신과 성에 대해서 신앙선언문을 작성할 (아마도 현대어 신앙고백 양식으로) 사람들로 이루어진 팀을 정함 (안건 28)
(Acts of Synod 2016, pp. 919-20)	(2016 총회회의록, 919-20 쪽)
b. The committee will be constituted of up to twelve individuals, CRC members who represent diversity in gender, ethnicity, binationality, and ministry location, and who adhere to the CRC's biblical view on marriage and same-sex relationships. These individuals will be gifted and suited for this task. . . .	b. 연구위원회는 12 인으로 구성될 것이며 성, 인종, 양국 국적의 균형, 사역 소재지의 다양성을 대표하고, 북미주 개혁신교회의 결혼과 동성애 관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견지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 사람들은 이 과업에 재능이 있고 적합한 개인들이며... (2016 총회회의록, 919-20 쪽)
c. That synod provide the study committee with a five-year window to complete their task, such that the committee will present their final report to Synod 2021. In consideration of this extended time frame, a written summary of the committee's work will be provided by February 1, 2019, for inclusion in the <i>Agenda for Synod 2019</i> in order for Synod 2019 to dialogue with and provide feedback to the committee.	c. 총회는 연구위원회가 이 과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5 년의 시간을 허락합니다. 따라서 연구위원회는 2021 년 총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이렇게 넉넉한 시간을 고려할 때 연구위원회 과업에 관한 서면 보고서는 2019 년 2 월 1 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2019 년 총회가 연구위원회와 대화하고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19 총회안건집에 포함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i>Grounds:</i>	<i>근거:</i>
1) The scope of the task assigned to the committee needs more time to be completed than the typical three-year window allows.	1) 연구위원회가 맡은 이 과업의 범위를 완수하기 위해서 보통 주어지는 3 년 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2) The consideration of <i>status confessionis</i> is a weighty matter that requires extended and careful deliberation.	2) 교단의 신학적 입장(<i>status confessionis</i>)을 고려하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고 세심한 심의를 필요로 합니다.
(Acts of Synod 2016, pp. 926-27)	(2016 총회회의록, 926-27 쪽)
The following people were appointed to the committee: Rev. Mary-Lee Bouma, Pastor Charles Kim, Rev. Jose Rayas, Rev. Paula Seales, Dr. Matthew Tuininga, Dr. Mary Stewart Van Leeuwen (as <i>promotor fidei</i>), Dr. Mary Vanden Berg, Dr. Jim Vanderwoerd, Mr. Rick Van Manen, Dr. Jeff Weima, and Dr. Al Wolters. In an effort to represent the types of diversity noted in section b of the mandate, these eleven members include persons from the following groups: an African American pastor, a Hispanic pastor, a Korean pastor, three faculty members from Calvin Theological Seminary, a same-sex attracted person, a chaplain, a philosopher, and a social scientist.	다음 사람들이 위원회의 위원들로 임명되었습니다: 매리 리 보우마 목사, 찰스 킴 목사, 호세 라야스 목사, 파울라 실즈 목사, 매튜 튜이닝가 박사, (선언의 비판자로서) 매리 스튜어트 밴 리우원 박사, 매리 밴덴버그 박사, 짐 밴더워드 박사, 릭 밴 매넨 씨, 제프 와이마 박사, 알버트 월터스 박사. (b) 항목에서 밝혔듯이 다양성을 대표하기 위해서 이 11 명의 위원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목사, 히스패닉 목사, 한국인 목사, 칼빈 신학교 교수 3 명, 동성애에 끌리는 사람, 기관 목사, 철학자, 사회과학자 중에서 선정했습니다.
At its first meeting in October 2016, the committee chose Drs. Weima and Wolters as cochairs, Dr. Tuininga as reporter, and Dr. Vanderwoerd as recording secretary. Mr. Van Manen resigned from the committee in February 2018 after accepting an academic position in South Korea. After consultation with the denominational executive director, the committee decided not to replace him.	2016 년 10 월 첫 미팅에서 연구위원회는 와이마 박사와 월터스 박사를 공동의장으로 선정했고 튜이닝가 박사를 보고자로, 밴더워드 박사를 서기로 지정했습니다. 밴 매넨은 한국에서의 교수직을 받아들이면서 2018 년 2 월에 위원회에서 사임했습니다. 교단대표와의 상의 끝에 위원회는 그를 대체할 사람을 뽑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p>In carrying out its mandate, the committee as a whole met on the following dates: October 21-22, 2016; February 3-4, June 2-3, October 20-21, 2017; February 16-17, June 15-16, October 19-20, 2018; February 1-2, June 21-22, October 25-26, 2019; January 31-February 1, 2020. With two exceptions, these meetings took place at Calvin Theological Seminary until February 2020. After the onset of the COVID-19 pandemic, the committee met by Zoom on June 13, July 30, August 20, and September 11, 2020.</p>	<p>주어진 임무를 행사하기 위해 연구위원회는 다음의 날짜에 다함께 모였습니다: 2016 년 10 월 21-22 일, 2017 년 2 월 3-4 일, 6 월 2-3 일, 10 월 20-21 일, 2018 년 2 월 16-17 일, 6 월 15-16 일, 10 월 19-20 일, 2019 년 2 월 1-2 일, 6 월 21-22, 10 월 25-26 일, 2020 년 1 월 31 일-2 월 1 일. 두 번을 제외하면 이 모든 회의들은 칼빈 신학교에서 2020 년 2 월까지 모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연구위원회는 줌으로 2020 년 6 월 13 일, 7 월 30 일, 8 월 20 일, 9 월 11 일에 각각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p>
<p>At four of our meetings we set aside time to interact with people in specialized ministries or life situations whose input we sought. On October 21, 2017, we spoke with three CRC-related members of sexual minorities, as well as with Dr. Wendy VanderWal-Gritter, executive director of Generous Space Ministries. On June 18, 2018, we spoke with two representatives of the CRC's Chaplaincy and Care Ministry, and on October 20, 2018, with two CRC university chaplains. On May 28, 2020, we met via Zoom with a FtM (female to male) transgender person and his father.</p>	<p>네 번의 회의에서 우리는 시간을 따로 내어 사역 혹은 삶의 현장의 전문적인 사람들과 교제했습니다. 2017 년 10 월 21 일, 세 명의 북미주 개척교회와 관련된 성적 소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i>Generous Space Ministries</i> 의 대표인 웬디 밴더월그리터 박사와의 대화했습니다. 2018 년 6 월 18 일, 우리는 북미주 개척교회 원목사역부의 대표 2 인과 대화를 했고, 2018 년 10 월 20 일에는 북미주 개척교회 교목 2 인과 대화를 했습니다. 2020 년 5 월 28 일 우리는 줌으로 한 성전환자(FtM, 여성에서 남성으로)와 그의 아버지와 만났습니다.</p>
<p>In fulfillment of item (c) of our mandate, we submitted an interim report to Synod 2019 (see <i>Agenda for Synod 2019</i>, pp. 403-44; <i>Acts of Synod 2019</i>, pp. 716-17). Three of our members (Mary-Lee Bouma, Matt Tuininga, and Jeff Weima) were present to facilitate discussions at table groups to solicit feedback. Each table group provided written feedback, which was collected and sent to our committee. In addition, we received email feedback from</p>	<p>말겨진 임무 중 (c) 항목을 완수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2019 총회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019 총회 안건집 403-44 쪽, 2019 총회 안건집 716-17 쪽 참고). 위원회의 세 위원들은 (매리 리 보우마, 매트 튜닝가, 제프 와이마) 피드백을 받기 위해 각 테이블마다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각각의 테이블은 서면 피드백을 모아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이메일로 약 45 명의 피드백을 받았고 우리</p>

approximately forty-five persons. We reviewed this feedback as part of our work on the final report.	위원회는 우리의 임무대로 이 피드백을 검토하여 최종 보고서에 올렸습니다.
Dr. Tuininga participated extensively in the committee's work, but he withdrew from the committee before that work was complete. He affirms that the sections of the report summarizing biblical teaching on human sexuality and its confessional status are accurate. However, he believes the pastoral care sections fail to provide the church with much-needed guidance on how to discipline erring members with love and grace and incorporate them into the sacramental community of the body of Christ.	튜이닝가 박사는 이 연구위원회 과업에 광범위하게 참여했으나 완성되기 전에 연구위원회에서 사임했습니다. 그는 연구 보고서에서 인간의 성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요약한 부분과 성경의 고백적인 입장은 정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양적 돌봄의 부분에서 교회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멤버들을 어떻게 사랑과 은혜로 훈련할 것인지에 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성찬 공동체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훨씬 더 많은 지침을 제공하는데는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I. Preamble	II. 전문 (Preamble)
The following are specific stories of actual people in our churches, whose names have been changed to protect identity.	다음은 실제 교인들의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명을 사용합니다.
During Sunday worship, Lisa, ^{1*} 45, wonders how church members would react if they knew she and her husband, Andrew, [*] each have deep personal relationships with other people that include sexual intimacy, now that they practice polyamory. She and Andrew know that many biblical figures were polygamous, and the couple believe Jesus preached an ethic of love. They realize they cannot meet all of each other's needs and are happy to have discovered deeper love with more people.	주일 예배 동안, 리사, ^{1*} (45 세)는 자신과 자기의 남편 앤드류가 각각 다른 사람들과 성적 친밀함을 포함하는 깊은 개인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다자간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교인들이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해합니다. 리사와 앤드류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다자간 연애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사랑의 윤리를 설교했다고 믿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가 상대방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없고, 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깊은 사랑을 발견하는

^{1*} The names of the people in these stories have been changed to protect identity.

	것을 기뻐함을 깨달았습니다.
<p>In another CRC congregation Rebecca,* 36, thanks God that her pastor is preaching a sermon series on sex. She had heard only silence from the church about how to follow Jesus as a sexually healthy woman who is not married. Through seeing a counselor, Rebecca has finally experienced some healing from the shame she's felt about a strange childhood experience and her subsequent use of porn. Many of her single Christian friends of all ages are sexually active, whether never married, divorced, or in serially monogamous relationships. She wishes these things had been talked about in her CRC congregations.</p>	<p>다른 북미주 개척교회의 레베카 (36 세)는 성에 대해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 합니다. 그녀는 성적으로 건강한 미혼 여성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할지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한다고 했습니다. 카운슬러와의 만남을 통해서 마침내 레베카는 어린시절의 이상한 경험과 그후의 포르노 이용으로 인한 수치심을 치료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의 많은 그리스도인 미혼 친구들은 나이, 결혼 여부, 이혼, 아니면 차례차례 이성 파트너가 있든지 무관하게 성적으로 활발했습니다. 레베카는 이러한 성적인 부분들이 북미주 개척교회 내에서 언급되었더라면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p>
<p>From childhood Joshua,* 13 (or Jessica,* as Joshua identifies internally), liked dancing, singing, and pretty colors; found the games, clothes, and aggressiveness of most other boys unappealing; and was hurt by their mockery. People in church often separate boys from girls in activities and groups and seem nervous about Joshua's differences. Joshua/Jessica thinks God might have created the wrong body.</p>	<p>조슈아 (13 세, 또는 내적 정체성 식별에 따라 제시카)는 어렸을 때부터 춤, 노래, 예쁜 색깔을 좋아했고 대부분의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옷, 공격성에 매력을 느끼지 못했고 아이들의 조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그룹 모임이나 행사를 할 때 종종 남자와 여자 아이들을 구별했고, 조슈아의 다름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조슈아/제시카는 하나님이 잘못된 몸을 만드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p>
<p>Olivia,* 19, believes that most people in her church assume she is gay and knows that some are supportive of gay marriage. She would like to have a sexual relationship with a woman, but so far she has not done so because she has read Bible passages that seem to condemn it. She is confused about what the church and the Bible teach. She loves Jesus and wants to do the right thing. She has never met another gay Christian who is celibate.</p>	<p>올리비아(19 세)는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녀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몇몇은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여성과 성적 관계를 맺고 싶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런 관계를 비난하는 것으로 보이는 성경 구절들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교회와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순결을 지키는 다른 동성애자 크리스천을 만나본</p>

	적이 없습니다.
Tomas,* 48, is one of the few Christian men he knows who never use porn. Deeply respectful of his wife and daughter as fellow imagebearers of God, Tomas longs for the church to help his brothers in Christ reject the cultural expectation to treat women as objects for sexual pleasure.	토마스 (48 세)는 포르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극소수의 크리스천 남성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아내와 딸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같은 크리스천으로서 존중합니다. 토마스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이 성적 쾌락을 위해 여성을 대상화하는 문화적 기대를 거부하도록 교회가 돕기를 바랍니다.
Noah,* 26, has always been sexually attracted to men. Most of his Christian university friends were not gay, but they supported each other to live faithfully with their sexuality. Noah discovered that these believers were also ashamed of many of their desires, and he had felt joy in encouraging them and in their praying for each other. Together they had learned about suffering for obedience. But it doesn't feel comfortable to talk about his sexuality in his new church, even though Noah chooses to be celibate. He thinks he could be helpful to other younger believers as they struggle with their sexual identity and hopes that will soon be possible.	노아(26 세)는 항상 남자에게 성적으로 끌려왔습니다. 그의 기독교 대학의 친구들 대부분은 게이가 아니었지만, 자신의 성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도록 서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노아는 이러한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가지는 여러 욕망들에 대해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함께 순종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독신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새로운 교회에서는 그의 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적 정체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다른 어린 크리스천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Madison,* 16, wants to have a boyfriend. But all the girls she knows who have boyfriends get pressured to send naked selfies and to have sex with them. One classmate has started threatening her that he will spread rumors about her if she does not give him a blow job. He is the one the parents like best because he is a leader in the church youth group. She knows that her teachers suspect some of these things, but her parents have no idea what these teens are doing or thinking.	매디슨 (16 세)은 남자친구를 갖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는 친구들 중 남자 친구가 있는 모든 소녀들은 나체 사진을 보내고 그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 받습니다. 같은 반의 한 남자아이는 구강섹스를 해 주지 않으면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여자친구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 아이는 교회 청소년 부서에서 리더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여자 아이의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그녀는 선생님들이 이런 몇몇 사실들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십대 청소년들이 무엇을 하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A. <i>Good sex</i>	A. 바람직한 성 <i>Good sex</i>
<p>God made sex, and, like everything God made, sexual intimacy was designed as a very good thing. The two accounts in the Genesis creation narrative, along with the passionate Song of Songs, reveal God's intention for women and men to come together sexually to populate the earth and to enjoy each other deeply in exclusive physical intimacy.</p>	<p>하나님은 성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모든 것들처럼 성적 친밀감은 매우 좋은 것으로 지어졌습니다. 열정적인 아가서와 함께 창세기 창조 내러티브의 두 가지 이야기는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함께 세상을 번성하게 하고 배타적인 육체적 친밀감을 깊이 즐기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냅니다.</p>
<p>We are physical creatures, and good sex is full of pleasure and play. Our desire for sexual satisfaction draws us to another, and God fashioned our bodies to respond to a lover's touch with delight, enjoyment, and amusement. In sex, our senses of sight, sound, taste, smell, and touch are all engaged, and the intensity of arousal and release is unique to sex. The strongly positive response of our bodies to desired sexual stimulus is clear evidence that God meant for sex to feel good. In distinction from some other religious traditions, the Bible highlights the goodness of the body. After creating the earth and the first human beings, God proclaimed his creation very good. Jesus was born human, and in his glorified body he sits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as the incarnate God. The Bible teache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church has confessed it ever since. God intended the physical sexual act to bring pleasure, and we can assume that God takes joy in our enjoyment of it.</p>	<p>우리는 육체적인 창조물이며 바람직한 성은 기쁨과 놀이로 가득 찬 것입니다. 성적인 만족감을 위한 우리의 욕망은 우리를 서로 가깝게 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에 기쁨, 즐거움, 유희로 반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성관계에서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이 모두 연루되며 흥분과 발산의 강도는 성에만 있는 독특한 것입니다. 성적 자극에 대해 우리 몸이 긍정적으로 강력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관계를 우리가 좋게 느끼도록 만드셨다는 증거입니다. 여타 다른 종교의 전통과 달리 성경은 우리 몸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그의 영광스러운 육체 안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서 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성경은 몸의 부활을 가르치고 교회는 그 이후로 그것을 고백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성적 행위를 기쁨을 유발하는 것으로 고안하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p>

<p>Because God constructed human beings as body and spirit, the sexual act also has spiritual significance and emotional weight. Sex always creates a bond between those participating in it, whether they intend it to or not. This is why good sex is exclusive sex. Couples can open themselves fully to each other when there is no need for self-protection and no fear of abandonment or rejection. The vulnerability of exposing the naked body during sex creates trust and draws a couple into intimacy. An appreciative gaze and gentle caress heals the shame individuals might feel about their bodies or past sexual experiences. The response of a thrilled or welcoming lover encourages the exposure of the naked self. Mutually enjoyable sex helps in the rebuilding of broken relationships. Sexual release even brings relaxation and can result in renewed energy for work.</p>	<p>하나님이 인간을 육체와 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성적 행위에도 영적인 의미와 정서적 무게를 지닙니다. 성관계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항상 그것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성관계가 배타적인 이유입니다. 커플은 자기 보호가 필요 없고 버림받거나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스스로를 온전히 개방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중 나체를 공개하는 취약성은 신뢰를 형성하고 커플을 친밀감으로 이끕니다. 감사하는 눈빛과 부드러운 애무는 자신의 몸이나 과거의 성경험에서 오는 수치심을 치유해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전율과 환대는 별거벗은 자아의 노출을 격려합니다. 상호간의 기쁨을 느끼는 성관계는 깨어진 관계를 다시 세우도록 돕습니다. 성적인 발산은 휴식을 가져오기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기도 합니다.</p>
<p>The exclusive bond that sexual activity engenders explains why God analogizes his relationship with Israel to that of a lover with the beloved and compares the marriage of a man and a woman to the union of Christ as the bridegroom of the church, his bride. Just as we are God's beloved and God is ours, so a woman and man in marriage are meant to belong to each other and only to each other.</p>	<p>성적 행위가 낳는 배타적인 유대감은 왜 하나님께서 그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연인의 관계에 비유하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신랑 그리스도와 신부 교회와의 연합과 비교하셨는지를 설명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결혼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속하는 데 배타적으로 속하는 것입니다.</p>
<p>B. Current context</p>	<p>B. 현재의 상황 Current context</p>
<p>But in a sinful world God's good gift of sexuality is tainted. Although God created women and men to be physically attracted to each other, throughout history humans have sinned and been sinned against sexually. Our selfish treatment of others or their treatment of us</p>	<p>하지만 죄로 얼룩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좋은 선물인 성은 더럽혀졌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서로에게 끌리도록 창조하셨지만 역사를 통틀어 인간은 성적으로 죄를 짓고 상처를 입어왔습니다. 타인을 대하는 우리의 이기심 혹은 우리를 대하는</p>

leaves us with shame, anger, hurt, or fear of intimacy, or it causes us to withdraw.	타인의 이기심이 우리에게 수치, 분노, 상처, 혹은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을 남겼거나 우리를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As powerful as sex is, its misuses can be brutally destructive. The past few years include ongoing international scandals of the Roman Catholic Church covering up for sexually abusive priests; the emergence of the #MeToo movement as women have begun to speak openly about violent assault and constant low-key sexual harassment in every arena; a #ChurchToo response in which prominent pastors are accused of sexual misconduct and systemic abuse of power; and a multibillion-dollar sex industry built on global sex trafficking that is steadily increasing, largely due to the ubiquitous use of online porn.	성관계가 강력한 만큼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잔혹하며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지난 수 년간 계속되는 사제의 성폭력을 은폐하려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국제적 스캔들, 성폭력 및 모든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은밀한 성추행에 대해 여성들이 공공연하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미투 운동, 유명 목회자들의 성적 비행과 조직적인 권력 남용에 대한 고발인 교회투 반응, 어디에서나 접속 가능한 온라인 포르노 사용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글로벌 불법 성거래로 세워진 수십 억대에 육박하는 성산업이 그 예입니다.
Perhaps nothing in North American culture has changed more rapidly and dramatically than sexual mores. The now common language of “hooking up” and “friends with benefits” testifies to the common occurrence of casual sex between friends or acquaintances. The use of pornography by younger people is assumed, couples who marry without having had sex beforehand are deemed unusual, and most couples live together before marriage, if they marry at all. Gay relationships are accepted, and nearly everyone has friends or family members who are gay. Gay, lesbian, and transgender characters in TV and film are standard. Adults and children identify as transgender. Even the vocabulary describing sexuality and gender has changed from <i>biological sex</i> , to <i>sex</i> and <i>gender</i> , to <i>gender</i> only, with biological sex negotiable. New federal laws permit same-sex marriage (Canada, 2005; United States, 2015) and prohibit discrimination based on	어쩌면 북미지역의 문화에서 성적 관습보다 더 빠르고 극적으로 변한 것은 없을 지도 모릅니다. “처음 만난 사이에 갖는 성관계 (hooking up)”나 “성적 관계만 갖는 친구 사이 (friends with benefits)” 같은, 이제는 흔하게 된 용어들이 친구나 지인 사이의 캐주얼 섹스가 일반적으로 벌어짐을 보여줍니다. 점점 더 어린 연령대가 포르노를 접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결혼 전에 성관계를 전혀 갖지 않고 결혼을 하는 것은 매우 색다른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약 결혼을 한다면 대부분의 커플들은 결혼 전에 동거를 합니다. 동성애 관계는 받아들여지고,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친구나 가족 중에 게이/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캐릭터는 일반적입니다. 어른이나 아이가 트랜스젠더로 확인됩니다. 성과 젠더를 묘사하는 어휘조차도 생물학적 성에서 성과 젠더로, 젠더만으로 바뀌며 생물학적 성은 타협가능한 것으로

gender expression or identity (Canada, 2017). News constantly breaks regarding school policies, local laws, and personal stories from and about transgender children and adults.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연방법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켰으며 (캐나다, 2005; 미국, 2015) 젠더 표현 혹은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시켰습니다(캐나다, 2017). 학교 정책, 지방 법, 트랜스 젠더 아동과 어른들의 개인적 이야기들에 관한 뉴스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At the same time, we swim in an ocean of sexual images. Sexual imagery, sexual language, and sexual comedy surround us. Wave after wave of sexual expectation and promise washes over us. The movies we watch, the books we read, and the media we consume feed expectations and assumptions about the enviable sex lives of others. They tell us that single people are having lots of sex and that married people constantly struggle to improve their sex lives. Yet some research shows that young people are having less sex than previous generations did, while numerous studies indicate that fully wired 21st-century humans feel increasingly lonely. ²	이와 동시에 우리는 성적 이미지의 바다에서 헤엄치며 살아갑니다. 성적 심상, 성적 언어, 성적 코미디가 우리를 둘러 싸고 있습니다. 성적 기대와 약속의 파도가 우리를 끊임 없이 덮칩니다. 우리가 보는 영화, 우리가 읽는 책, 우리가 소비하는 미디어는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성생활에 관한 기대와 추측을 충족시켜 줍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싱글인 사람들이 수많은 성관계를 하고 있고 결혼한 사람들은 끊임 없이 성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연구 보고서는 요즘 젊은 세대가 과거의 젊은 세대보다 더 적은 성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21 세기 세상과 완전히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²
In consequence, many of us have questions about sexuality or about the church's response to changing realities: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성 또는 이렇게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교회의 반응에 대해 의문을 가집니다.
- Why is the church so uptight about sex?	- 교회는 왜 성에 대해 꼭 막혔는가?
- If my boy/girlfriend and I are committed to each other, why do we need the church's blessing on our relationship before we live together?	- 남자/여자친구와 내가 왜 동거하기 전에 우리의 관계에 대해 교회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가?

² J. M. Twenge, R. A. Sherman, and B. E. Wells, "Declines in Sexual Frequency among American Adults, 1989-2014,"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6.8 (Nov. 2017), pp. 433-40.

- Why doesn't the church talk about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since the news is full of it?	-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뉴스가 연일 쏟아지는데 왜 교회는 이에 대해 침묵하는가?
- How do I help my daughter, who says she is really a boy? Does the Bible say anything about being transgender?	- 사실은 자신이 남자라고 말하는 딸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성경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 Can we trust church leaders about sex when the church has as much sexual abuse as every other organization?	- 다른 모든 기관만큼이나 교회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는데 성에 관한 한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들을 신뢰할 수 있을까?
- The gay couples I know seem happier than most of the straight couples I know, so how can their love not be from God?	- 내가 아는 대부분의 이성 커플들보다 동성 커플들이 더 행복해 보이는데 그들의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을 수 있는가?
- Why can't the church just be loving and accepting, the way God is?	- 왜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듯이 그저 사랑하고 포용하지 못하는가?
<i>C. The church's response</i>	C. 교회의 응답 The church's response
Instead of being salt and light to the world, embodying for our neighbors joyful sexual wholeness in communities of loving marriages and friendships, we in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have been as susceptible to the lures of the evil one as has the rest of the Western church. The more that culture disconnects sexual activity from marriage, the more quaint or even bizarre Jesus' teaching on celibate singleness or lifelong monogamous marriage seems to us. The historic teaching of the church feels unnecessarily restrictive or difficult. Sexual relationships outside of marriage have become common in the church, whether before marriage or after divorce or widowhood. Divorce, sexual abuse, and pornography use are only marginally less common in the church than they are outside.	우리 북미주 개혁교회는 사랑의 결혼 관계와 우정의 공동체에서 우리 이웃들이 누리는 성적인 기쁨을 구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대신, 다른 여느 서구의 교회들처럼 악의 유혹에 물들어 왔습니다. 문화적으로 성생활과 결혼과의 연결이 느슨해질 수록 순결한 독신 혹은 평생 일부일처제를 유지하는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점점 더 진기하고 기이한 것이 됩니다. 교회의 역사적 가르침은 불필요하게 제한적이거나 어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결혼 전이든, 이혼 한 다음이든, 혹은 미망인 상태이든 결혼의 범주 밖에서의 성적 관계는 교회 내에서도 흔한 것이 되었습니다. 교회 내에서의 이혼, 성폭력, 포르노그래피 사용은 교회 밖과 비교해서 아주 조금만 적을 뿐입니다.

<p>Tragically, the church's response to the confusion, questions, and sexual turbulence of a desperate world, and even of its hurting members, has often been silence. Whether because we are caught in our own hidden sexual sins, unsure whether God's grace actually has power, or we are afraid to speak unpopular or unaffirming words, we have not offered the healing words of the gospel of grace to fellow sinners.</p>	<p>비극적이게도 세상의 혼란, 의문, 성적 격변, 심지어 상처받은 성도의 간절함에 대한 교회의 응답은 대부분 침묵입니다. 우리의 숨겨진 성적 죄가 걸렸기 때문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지 확신이 없어서든지, 인기가 없는 말이나 확실치 않은 말을 하기 두렵기 때문이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의 치유하는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다.</p>
<p>Although John 1:14 tells us that “grace <i>and</i> truth” came with Jesus Christ, when the church <i>does</i> speak about sex, it often abandons one or the other. Jesus told the judgmental and hypocritical Pharisees to go and learn mercy, saying, “I have come to call not the righteous but sinners” (Mark 2:17, NRSV). With words and by consistent example, Jesus taught his followers to seek out sinners and to welcome all who came to him to be his followers. Tragically, many in the church loudly denounce certain less-common sexual sins while overlooking those sexual sins commonly committed by the majority. Others of us show kindness and welcome to all, humbly acknowledging that all alike need God's forgiving grace, yet without calling confused and needy sinners to repent and follow Jesus in sexual holiness. Sometimes we then condemn one another for failing to demonstrate love or speak truth as we understand it. Our sin leads to division.</p>	<p>비록 요한복음 1:14 에서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에 대해서 말할 때는 종종 둘 중 하나를 포기합니다. 예수님은 비판적이고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자비를 배우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가복음 2:17). 예수님은 말씀과 여러 일관성 있는 예를 통해서 죄인들을 찾고 누구든지 그를 따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성 관련 죄들은 간과하면서도 그다지 흔치 않은 성적 죄들에 대해 소리 높여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편으로 교회 내의 또 다른 사람들은 친절할 태도로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며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필요로 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점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혼란에 빠져 있고 힘든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성적 거룩함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라고 촉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다며 혹은 우리가 이해한대로 진리를 말하지 못했다며 서로를 비난합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를 분열하게 합니다.</p>
<p>1. Yes, we have failed each other.</p>	<p>1.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실망시킵니다.</p>
<p>a. We have not helped each other to “lay aside</p>	<p>a.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p>

<p>every weight and the sin that clings so closely, and . . . run with perseverance the race that is set before us, looking to Jesus . . . who for the sake of the joy that was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Heb. 12:1-2). We have neglected to confess our sins “to one another, and pray for one another,” that we might be healed (James 5:16). We have forgotten to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us] richly” and to “teach and admonish one another in all wisdom” (Col. 3:16). The old have not modeled glorifying God with their bodies or taught the young how and why to resist temptation in their bodies. We have privileged sex and marriage, failing to encourage, support, or offer models of kingdom service to those of us who are single or called to celibacy.</p>	<p>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서로 돕지 않아 왔습니다 (히브리서 12:1-2). 우리는 우리 죄를 서로 고하며 서로 기도하는 것을 등한시했습니다 (야고보서 5:16).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을 잊고 지냈습니다 (골로새서 3:16). 이전 세대는 육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델을 보여주거나 젊은 세대에게 어떻게 그리고 왜 육체의 유혹을 떨쳐내는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과 결혼을 우선시하며 독신으로 살거나 독신에 소명을 받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거나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지 못해 왔습니다.</p>
<p>b. Instead, in our sexual practices, the church has frequently been indistinguishable from the world around us. Rather than honoring marriage and keeping “the marriage bed . . . undefiled” (Heb. 13:4), we have taken sexual partners casually or have not married those with whom we live in sexually intimate relationships. We have not helped the young reject the cultural norm of treating sexual intimacy as a skill to be practiced in dating relationships. We have ignored our ubiquitous pornography use, treating it as a personal problem for individuals, failing to see its complicity in systemic commercial endeavors that degrade and exploit women, denigrate the human body, and destroy the possibility of sexual intimacy. Not daring to ask difficult questions of estranged spouses, nor caring enough to walk with couples experiencing marital struggles, we have made divorce common.</p>	<p>b. 대신에 교회는 실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종종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결혼을 영예롭게 여기며 부부의 침상이 더럽히지 않게 하는 대신 (히브리서 13:4) 우리는 성적 파트너를 쉽게 생각하거나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갖고 함께 사는 상대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성적 친밀함을 데이트 관계에서 행해지는 기술의 하나로써 여기는 문화적 규범을 거절하도록 젊은 세대를 돕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나 즐비한(ubiquitous) 포르노그래피 사용을 간과하며 개인들 각자의 문제인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여성을 비하하고 부당하게 이용하며, 인간의 몸을 폄하하고, 성적 친밀함의 가능성을 파괴하는 체계적인 상업적 시도의 공모를 인식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어려운 질문을 당당하게 하지 못했거나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과 함께 걸을 만큼 보살피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혼이 너무 흔해졌습니다.</p>

<p>c. Meanwhile, the wider community has sinned against the few. Out of fear, discomfort or self-righteousness, we have grossly mistreated persons among us who identify as gay, lesbian, or transgender with mockery, derision, or harsh denunciation. These attitudes and actions have driven many brothers and sisters out of the church. Much like the culture around us, the church has alternated between derision and condemnation toward these believers, making it impossible for those of us who are same-sex attracted or who experience gender dysphoria to learn how to follow Jesus while openly sharing our struggles. The time has come to publicly and privately admit the pain and the alienation that have resulted from these sinful actions and attitudes.</p>	<p>c. 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두려움, 불편함 혹은 독선 때문에 우리는 지독히도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라고 스스로를 일컫는 사람들에게 조롱, 조소, 가혹한 비난 등을 가하는 등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러한 태도와 행동은 많은 형제자매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버렸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문화와 다를 바 없이 교회는 이러한 신자들을 조롱과 비난 사이를 왔다갔다하며 잘못 대해왔기에 동성에게 끌리거나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을 느끼는 사람들이 고충을 토로하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할지 배우게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제 공격 및 사적으로 이러한 죄 된 행동과 태도로 인한 고통과 소외를 인정할 때가 되었습니다.</p>
<p>The church is facing a crisis of gospel proportions. Our failure to be salt and light through love, sexuality, marriage, friendship, and mutual accountability has deeply compromised our witness to the gospel. We are not facing just one problem, or even two or three. Our whole way of life has fallen out of step with the Spirit and with the teaching of Scripture, and all of us must be called to account. And yet in this very realization we have the opportunity, together, to repent. We have the opportunity to reexamine our lives and our communities, to confess the sins we have committed against each other, and to call one another back to the costly path of loving discipleship. By following this path, we once again can find hope and offer hope to a desperate, broken world.</p>	<p>교회는 지금 복음의 균형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성, 결혼, 우정, 상호 신뢰를 통해 빛과 소금이 되는 것에 실패한 것은 복음에 대한 증인이라는 우리의 신분을 크게 손상시켰습니다. 우리는 단지 한 가지 문제, 혹은 두 세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전체적인 모든 방식이 성령과 함께 걷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걷는 것에서 떨어져 나왔고, 우리는 모두 이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깨달음에서부터 우리는 함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돌아보아 서로를 향해 지었던 죄를 고백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걷는 사랑의 제자도로 돌아가도록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 길을 따라 걷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소망을 발견하고, 간절한 필요가 있는 깨어진 세상에 소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p>
<p>Indeed, let us confess our sin together:</p>	<p>그러므로, 우리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p>

<i>Merciful God, we confess that we have sinned against you with our bodies, our hearts, and our minds, by what we have done and what we have left undone. We are truly sorry, and we humbly repent.</i>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몸, 마음, 생각으로 우리가 한 일들과 앞으로 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겸손하게 회개합니다.
<i>God, our Righteousness, we devalue the bodies you have created, and we exploit those made in your image for our own pleasure. We foster the lust that comes from our hearts by using pornography and closing our eyes to its use among others. We defile our bodies, which are your temple, Holy Spirit, by uniting sexually with those to whom we are not married. We have not fled sexual immorality, as you have commanded us.</i>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몸의 가치를 깎아 내리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들을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착취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포르노그래피를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못 본 척함으로써 우리 마음에서 비롯되는 욕정을 강화했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배우자가 아닌 타인과 성적으로 연합하여 성령의 전이 되는 우리의 몸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대로 성적 부도덕으로부터 피하지 않았습니다.
<i>We do not trust in your power, generous God, to reconcile our broken marriages, giving up on our spouses and on one another through divorce and remarriage. We refuse to deny ourselves sexually, unwilling to undergo the cost of discipleship as you transform us by the renewal of our minds. We forget, Jesus, that you sympathize with us because you were tempted in all ways as we are and yet were without sin. We neglect to remind each other to go boldly to your throne of grace to receive mercy in our time of need. We do not hold one another accountable.</i>	너그러우신 하나님, 우리는 이혼과 재혼을 통해 배우자를 혹은 서로를 포기함으로써 깨어진 결혼을 받아들이도록 하실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킨 것처럼 제자도의 대가를 겪는 것을 꺼려하며 성적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면에서 유혹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 필요한 시기에 자비를 받도록 서로를 상기시켜주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i>Formed by the culture around us, we put our individual selves, our careers, and our families above the kingdom of God. We make marriage a mechanism for our own pursuit of happiness rather than submitting to it as a calling from you for a man and a woman to unite together in reflection of Christ's union with his church. We neglect</i>	우리를 둘러싼 문화에 의해 영향받은 우리는 우리 개인, 직업, 가족을 하나님 나라보다 더 우선 순위에 두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와 연합하신 것을 반영함으로써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하도록 부르신 것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p><i>the good gift of community you have given us. Instead of being true family, we offer little or no support to single people, whether straight or gay, in living celibate lives. Instead of confessing our sins and praying for each other, we live in unrepentant sin. Good Shepherd, we have let the little ones fall. We have not lived as one body.</i></p>	<p>주신 공동체라는 선한 선물을 도외시켰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는 대신 우리는 이성애자이든 동성애자이든 순결을 지키며 사는 독신의 사람들에게 거의 아무런 도움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대신에 우리는 뉘우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선하신 목자여, 우리는 어린 양들을 타락하게 그냥 두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몸으로 살지 않았습니다.</p>
<p><i>Omniscient God, who sees what is done in secret, we recognize that we ridicule and fear the LGBTQ among us. We admit that we drive our sisters and brothers away. We acknowledge that, like the Pharisee with the tax collector, we scorn and criticize the temptations that are not ours. We confess that we overlook the sexual sins of the majority while harshly judging those of the lesbian and gay minority. We do not show the love and hospitality of Jesus to people whom we deem worse sinners.</i></p>	<p>은밀하게 행한 모든 일을 다 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 중의 소수성애자들을 조롱하고 두려워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내쫓았음을 고백합니다. 세리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가 겪지 않는 유혹을 경멸하고 비난한 것을 인정합니다. 대다수가 짓는 성적인 죄를 등한시하고 소수의 레즈비언과 게이를 가혹하게 판단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보다 더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환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p>
<p><i>Light of the world, teach us to walk from darkness into the light of communion with each other and with you. Take away our shame as you show us how to live in honesty and in mutual dependence. Enable us to unite truth and grace together once again.</i></p>	<p>세상의 빛 되신 주님, 어둠에서 주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서로 함께 하는 성찬의 빛으로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정직과 상호 의존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셔서 우리의 수치를 거두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진리와 은혜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p>
<p><i>Resurrected Christ, thank you for advocating for us with the Father. Thank you, Redeemer, that you repair the broken and you use repentant sinners to show others your ways. Will you now give us joy, Creator, in the goodness of the bodies you made?</i></p>	<p>부활하신 주님,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자 되신 주님, 깨어진 자를 싸매어 주시고 회개하는 죄인들을 사용하여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길을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 주 하나님, 이제 당신이 만드신 선한 몸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습니까?</p>

<p><i>Cornerstone of the church, we ask you to build these living stones into a family who love one another deeply from the heart, who remind each other of your commands and your rich promises, and who reflect your glory to the world. Heal our divisions. Make us one body.</i></p>	<p>교회의 모퉁이 돌 되시는 주님, 살아 있는 돌들로 하여금 서로서로 깊이 사랑하는 가족으로 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명령과 풍성한 약속을 서로에게 상기시켜 주며 당신의 영광을 세상에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분열을 하나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p>
<p>2. Historic opportunity</p>	<p>2. 역사적 기회 (Historic opportunity)</p>
<p>God assures his people, “See, I am doing a new thing!” (Isa. 43:19, NIV). In today’s historic moment of great change and of questioning old realities, standards, and teachings, God’s Spirit can lead us as a pillar of fire in the darkness. When we are weak, vulnerable, or weary, the Shepherd tenderly picks up the lambs and “carries them close to his heart” while gently leading “those that have young” (Isa. 40:11).</p>	<p>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사야 43:19) 라고 확언하십니다. 이전의 현실, 기준, 가르침에 의문을 갖고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의 역사적 순간에 하나님의 영은 어둠 속에서 불기둥이 되어 우리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상처 받기 쉽고, 지쳤을 때, 목자는 부드럽게 양을 돌보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0:11).</p>
<p><i>A new-old way.</i> It turns out that the new way is also the way of our spiritual ancestors. “Stand at the crossroads and look; ask for the ancient paths, ask where the good way lies, and walk in i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Jer. 6:16). What are the next steps as we journey toward sexual wholeness?</p>	<p>새로운 옛 방식 (A new-old way). 새로운 방식은 또한 우리 영적 조상의 방식이기도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예레미야 6:16). 우리가 성적 온전함을 향한 여정을 떠날 때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p>
<p>a. If we intend to journey with all of our Christian Reformed brothers and sisters, the church will have to learn from those of us who are not attracted to the opposite sex or do not fit culturally determined gender roles.</p>	<p>a. 모든 북미주 개혁신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여정을 걸어가고 한다면 교회는 이성에 끌리지 않거나 문화적으로 결정된 성역할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p>

<p>These believers can often alert the church to the unbiblical notion that marriages and families are the core of the church. The first-century writers tell us that Christ's church is not a collection of biological families but a new family of Jesus' followers. Since more gay and lesbian people spend at least some portion of their adult lives single, they can help us live into this reality.</p>	<p>이러한 신자들은 종종 결혼과 가족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이 비성경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환기시켜 주곤 합니다. 1세기 저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생물학적 가족들의 집합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가족이라고 말해 줍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성인의 삶에서 적어도 얼마 간은 싱글로 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이러한 현실에서 사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p>
<p>Helpfully, too, those who do not fit culturally prescribed male and female roles are more able to point out the falseness of the polarity our world assumes between men and women. They can help the whole church see where it wrongly follows the world in setting women and men against each other and slotting people into stereotypical gender roles. Implicitly or explicitly, the church often teaches unbiblical models of manhood or womanhood, while God commands all to pattern themselves after Jesus, the one who is tender, strong, humble, bold, sacrificial, and courageous. Those who differ from the cultural norms have had to struggle to discover this on their own. Having learned to concentrate on following Jesus' example, they can now help the church be reminded of this truth.</p>	<p>문화적으로 규정된 남성 및 여성의 역할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제하는 양극화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의 오류를 더 잘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전체가 여성과 남성을 서로 대적하고 사람들을 고정관념적인 성역할로 몰아넣는 데 있어 세상을 잘못 따르는 부분을 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예수님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고, 헌신적이고 용감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교회는 노골적으로 또는 은근하게 종종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비성경적 모델을 가르쳤습니다. 문화적 규범과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스스로 발견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데 집중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그들은 이제 교회로 하여금 이 진리를 기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p>
<p>b. Affirm our primary identity as brothers and sisters.</p>	<p>b. 형제와 자매로인 우리의 일차적 정체성을 확인하라.</p>
<p>One body in Christ, we are united with each other in a bond of family. Our life circumstances vary significantly, and we are indeed poor and wealthy, wives and husbands, gay and straight, and of many different</p>	<p>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우리는 가족이라는 유대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은 매우 다양하며 우리는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아내와 남편, 동성애자와 이성애자,</p>

ethnicities. Yet, by the cross, “in his flesh,” Jesus has “broken down the dividing wall . . . between us” (Eph. 2:14, NRSV), and we must live into our fundamental identity as saints, sisters and brothers, fellow citizens in God’s kingdom. We must treat this family as family. Every believer must defend, help, assist, endure, and suffer with our spiritual sisters and brothers as we would with our family of origin.	그리고 여러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로써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나누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에베소서 2:14, 새번역).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이자 형제 자매이며 하나님 나라의 같은 시민이라는 근본적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가족을 가족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신자는 각자의 출신 가족들에게 하듯이 우리의 영적 형제 자매들을 변호하고, 돕고, 보조하며 참고, 어려움을 함께 겪어야 합니다.
c. Live as forgiven and forgiving sinners.	c. 용서받고 용서하는 죄인들처럼 살라.
In his teaching about forgiveness in the prayer he taught us to pray, Jesus made clear that sisters and brothers would continue to be both sinners and sinned against, and that we should offer grace as freely as we receive it. As Reformed believers who confess the depravity of our natures, we know that every believer will not only be tempted but also succumb to temptation and sin. While supporting each other in the “holiness without which no one will see the Lord” (Heb. 12:14), we should also treat each other as fellow sinners in constant need of encouragement, forgiveness, and mercy.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용서에 관한 부분에서 예수님은 형제자매들이 계속 해서 죄인으로 살며 서로에게 죄를 지을 것이며, 우리가 거저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성의 타락을 고백하는 개혁주의 신자로서 우리는 모든 신자들이 단지 유혹을 받을 뿐 아니라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뵈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한편 (히브리서 12:14, 새번역), 우리는 지속적인 격려, 용서, 자비를 필요로 하는 같은 죄인으로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d. Take up the cross.	d. 십자가를 지라.
The narrow way that leads to life is the way of the cross, which means death to self. Peter, John, and Paul remind their hearers that although they once lived like the nations around them in sexual indulgence and abandonment, they have been made new. Repeatedly the apostles encourage the early church in a radical new way	생명에 이르는 좁은 길은 십자가의 방법인데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청중들에게 비록 그들이 한 때 그들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처럼 성적 방종과 포기 가운데 살았으나 이제는 새롭게 지어졌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를 향해 우리와 같은 그 당시

of living that was clearly just as baffling to their contemporaries as it is to ours. Choosing to carry the cross means choosing actions that are countercultural and frequently scorned or despised by the world around us. Doing what is right, whether standing up against injustice or being celibate except within the covenant of marriage, is risky and often costly.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급진적이고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도록 초대교회를 향해 반복해서 격려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로 선택한 것은 반문화적이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의해 종종 비난 당하거나 경멸받는 행동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의에 대항하든지 아니면 결혼의 언약 밖에서는 순결하게 사는 것이든지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고 종종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e. Be physically present.	e. 실제로 함께 해주라. (Be physically present.)
The church has erred, fallen, and failed. Wonderfully, however, it is through the church that God's healing power flows. The community of those being saved—variously pictured as the good shepherd's flock, living stones built on the cornerstone into a spiritual house, and the family of God—is one body. None of us follows Jesus alone but as a member of the family. And because the corporate body of Christ is also the corporeal family of God, sinners damaged by sexual sin done in or to their bodies can be healed as fellow sinners comfort, feed, house, embrace, or simply play with them on a regular basis. Spiritually exploring sinners can walk with recovering sinners who follow Jesus as they volunteer in the neighborhood, pray before their dinner, or play with their children.	교회는 실수를 했고, 타락했으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기막히게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흐르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선한 목자의 양 무리로, 모퉁이 돌 위에 영적인 집으로 지어진 산 돌들로, 하나님의 가족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는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가족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 우리 중 누구도 혼자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연합된 몸은 하나님의 유형의 가족이기 때문에 성적인 죄로 인해 손상된 몸은 같은 죄인들의 위로, 돌봄, 포용을 통해서 또한 거처를 제공하거나 단순히 그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노는 것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영적 구도자인 죄인들은 회복된 죄인들이 이웃들과 저녁 식사 전 기도를 하거나 그들의 아이들과 놀아주는 등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섬길 때 서로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3. Hope	3. 소망 (Hope)
Since the Jesus way is the way of the cross, and it is the narrow way that leads to life, it is only in regular physical community that we can trust each other enough to be honest about our weaknesses and care enough for	예수님의 방식은 십자가의 방식이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입니다. 정기적인 실제 만남이 있는 공동체 내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약점에 대해 솔직할 수 있도록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서로 도울

<p>each other to help. Across the continent, CRC communities of Jesus-followers are supporting each other in following Jesus as celibate singles or monogamous married couples. Here are a few of their stories.</p>	<p>수 있는 정도가 되도록 서로를 생각합니다. 복미 전체에 걸쳐 예수님을 따르는 복미주 개척교회 공동체들은 순결한 독신 혹은 일부일처제의 결혼 관계의 부부들로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서로를 지지합니다. 이들 중 몇몇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p>
<p>Brittany,^{3*} 29 (white), loves her Christian roommates but feels a bit lonely and baffled as they each begin to have sex with their boyfriends. A serious Christian, Brittany is also generous and spontaneous, and her work colleagues love to hang out with her. Her church encourages its members to spend time with friends and neighbors who are not yet Christians. With some church friends, she hosts dinners and invites friends from different religious traditions, and she encourages conversations about Jesus and life's questions. Her new friends respect her sexual ethics and often ask her to pray for them and give them advice. To stay spiritually strong, she finds herself gratefully relying on times of intimate prayer in pairs during Sunday worship and the close friendships she has built with other believers.</p>	<p>브리타니 ^{3*} (29 세, 백인)는 그녀의 룸메이트들을 좋아하지만 그 룸메이트들이 각각 남자친구들과 성관계를 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외로워지고 당황스러움을 느낍니다. 진지한 기독교인인 브리타니는 관대하고 자발적이라 직장 동료들이 그녀와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브리타니의 교회는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 친구나 이웃들과 시간을 보내라고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몇몇 교회 친구들과 브리타니는 저녁식사를 준비해서 타종교 전통의 친구들을 초대하며 예수님과 인생의 질문들에 관해 대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녀의 새로운 친구들은 그녀의 성적 윤리를 우러러 보고 종종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며 그녀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주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함을 유지하기 위해 주일 예배 때 짝을 지어 친밀한 기도를 하는 시간에 기꺼이 의지하고 그녀가 쌓아온 다른 믿는 친구들과의 가까운 관계에 의존합니다.</p>
<p>Newly divorced, William,[*] 65 (white), is drawn to escorts whom he sometimes picks up when he drives for Uber to make some extra cash. He cares for them and prays for them but also gradually acknowledges that he really wants to have sex with them. In his church, people honestly share their temptations and struggles with each other during worship, in small groups, and when they are serving in their neighborhood. It is not easy for William to</p>	<p>최근에 이혼한 윌리엄* (65 세, 백인)은 용돈 벌이를 위해 우버를 운전하면서 승객을 운송하는 일에 매력을 느낍니다. 윌리엄은 승객들에게 신경을 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점점 더 그 승객들과 성관계를 맺고 싶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겪는 유혹이나 어려움을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서,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 봉사를 할 때 솔직하게 나누곤 합니다.</p>

^{3*} Name changed to protect identity.

<p>be honest about this, but when he is, other sisters and brothers pray for him and begin to call and text to support him. His church also raises money to stop human trafficking, and he learns to see how the women he has met on the street were groomed for the sex industry.</p>	<p>윌리엄이 자신의 느낌을 나누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다른 형제자매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를 돕기 위해 전화와 문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의 교회는 또한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기금을 모으는 한편, 윌리엄은 그가 길거리에서 만나는 여성들이 어떻게 성산업에 들어서게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p>
<p>Various lesbian and gay individuals and couples (white, Asian, and Latino) participate in New Life CRC.* Some are Jesus-followers; others are spiritually seeking. Meanwhile, longtime church member Michelle, 45 (white), has quietly lived with a female lover—a member of a different church. Michelle becomes friends with a new church member who left her own lover to follow Jesus. Amazed at the honest conversations they have about life and sexuality, Michelle finds herself cultivating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Jesus. To participate more fully in church life, Michelle rearranges her work travel schedule as a regional nurse; she begins introducing the pastor and others from church to friends and colleagues. Some months later, she tells her life partner that she can no longer be her lover but plans to stay in the relationship since her partner is now elderly.</p>	<p>다양한 레즈비언 및 게이 동성애자들과 동성애 커플들이 (백인, 아시아계, 라틴계) 뉴라이프 CRC*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 중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어떤 이들은 영적 구도자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성도로 살아 온 미셸 (45 세, 백인)은 여성인 애인(다른 교회 성도)과 조용히 동거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미셸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애인을 떠났다는 새로운 교인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삶과 성에 대한 정직한 대화에 놀란 미셸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생활에 좀더 참여하기 위해 미셸은 지역 간호사 근무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교회의 목사님과 친구들을 자기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 미셸은 애인에게 더 이상 애인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애인이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관계는 유지할 계획입니다.</p>
<p>When Walter,* 61 (black), was in his thirties and one of the most faithful members of the church choir and the church adult education program, he dared tell only one person in church that he deeply longed for sexual intimacy with a man. Over the years, this woman listened as he expressed his rage, grief, and hopelessness. A few times, discouragement and hopelessness overtook him. Although</p>	<p>윌터* (61 세, 흑인)은 삼십 대 시절을 신앙심이 깊은 교회 성가대원 중 한 사람이었고, 교회 성인교육의 일원이었습니다. 그 때 그는 교회의 단 한 분에게만 용기 내어 자신이 남자와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 맺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수 년 간, 그녀는 그의 분노, 슬픔, 좌절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낙심과 절망이 그를 엄습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의 절망의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가</p>

<p>not knowing the reason for his despair, friends from his Christian community brought him food and helped him shower when he was isolated in his house, too depressed to cope. Finally, Walter decided to move to a bigger city, to find a Christian man to marry. In that new city, where he joined another CRC, he instead found a woman who delighted in him and who chose to share his life. After good counseling, they married, and they surrounded themselves with other Jesus-followers with whom they share honestly but also reach out as others have reached out to them.</p>	<p>너무 우울한 나머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나오지 못했을 때, 기독교 공동체의 친구들이 그에게 음식도 가져다주고 샤워도 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월터는 더 큰 도시로 이사해서 기독교인 남성을 찾아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도시에서 그는 한 CRC 교회의 멤버가 되었고, 거기에서 그를 좋아하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그녀와 삶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 둘은 상담을 받은 후 결혼을 했고, 솔직하게 삶을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으며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와 주었던 것처럼 그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삶을 살았습니다.</p>
<p>Desperate for someone to understand, and scared to death, new believer Emily,* 22 (white), tells her pastor she wants to transition to being a man but doesn't know how she could fit into the church. Knowing that Emily has very little money and is looking for work, her pastor, Amanda,* takes her to the thrift store to buy some pants and jackets she would feel more comfortable wearing. Some months later, Emily announces that she wants to go back to living as a woman. Amanda is puzzled and is not sure what Emily's future holds, but is glad that the church's acceptance of Emily communicated to her God's unconditional love and respect.</p>	<p>누군가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고 무서워 죽을 것만 같았던 새신자 에밀리* (22 세, 백인)는 남자로 성전환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녀의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사님인 아만다 목사는 에밀리가 돈이 거의 없고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밀리를 중고 옷가게로 데려가서 그녀가 좀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와 자켓 몇 벌을 사주었습니다. 몇 달 후 에밀리는 여성으로서 사는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만다 목사는 얼떨떨했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교회가 에밀리를 품은 것이 에밀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존중을 느끼게 했다는 점이 기뻐했습니다.</p>
<p>Joshua* and Chloe,* Korean Americans and new believers, were not raised in Christian families. But now that they are planning to marry, they want to live the Jesus Way together. It has not been easy remaining celibate before marriage or dealing with Joshua's ongoing commitment to resist the pornography that formerly dominated his life. But every year their church spends time</p>	<p>조슈아*와 클로이*는 기독교인 가정에서 자라지 않은 한국계 미국인이며 새신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결혼을 계획하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기 원했습니다. 결혼 전 순결하게 지내는 것도 쉽지 않고, 과거에 자신의 삶을 지배했던 음란물을 끊겠다는 결심을 지속하며 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교회는 매년 돈, 섹스, 권력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p>

<p>in Sunday sermons and in more intimate settings discussing what it means to follow Jesus with regard to money, sex, and power. These discussions are lively because their church gatherings, large or small, are usually an interesting mix of believers, serious spiritual seekers, and people who just love the food and community. Unbelievers are initially surprised and baffled that Chloe and Joshua are not living together and in fact are not sexually involved with each other. But people are drawn to them, and Joshua and Chloe find that unbelievers are eager to talk with them about Jesus. Impressed by their openness for others, the trust between them, and their honesty about their own weaknesses, a few of their friends accept Jesus' invitation and join the Christian community.</p>	<p>의미인지 주일 설교에서 다룰 뿐 아니라 좀더 친밀한 세팅에서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이 토론들은 굉장히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모임은 크든 작든 신자들과 진지한 영적 구도자들뿐 아니라 그저 먹는 것과 모임을 좋아하는 사람 등 흥미로운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처음에 다 조슈아와 클로이가 동거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 성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듣고 놀라워하며 당황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곧 이 둘에게 끌렸으며 조슈아와 클로이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둘의 솔직함과 서로 간의 신뢰 및 그들 자신의 약점에 대한 정직함에 감명을 받았으며 그들 중 몇몇 친구들은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기독교 공동체에 합류했습니다.</p>
<p>4. Mutual need</p>	<p>4. 서로의 필요 (Mutual need)</p>
<p>As individuals, as congregations, and as a denomination, the entire Christian Reformed Church has something in common. Despite the hurt, anger, division, and failure of the church, despite differences in perspectives and difficulties understanding and trusting each other, we have a mutual need for deep healing. The sexuality the Creator gave us, beautiful and intended for good, has brought sinful humans great pain. In great compassion, Almighty God, our Wonderful Counselor, offers us not only forgiveness but also freedom from shame and restoration in holiness.</p>	<p>개인으로서, 교회로서, 교단으로서 북미주개혁교회 전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의 상처, 분노, 분열,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한 관점의 차이와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깊은 치유를 위해 서로가 필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름답고 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은 죄로 가득한 인간들에게 크나큰 아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의 훌륭한 상담가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은 크나큰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수치에서 자유롭게 하시며 거룩 안에서 회복시키십니다.</p>
<p>God provides that healing primarily through communities of people. By the God who lives in eternal loving community, we were created for the deep joy of</p>	<p>하나님은 일차적으로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영속적인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에 의해,</p>

<p>physical human community. The whole Bible is a story of a community of people, whose God calls them to show the world God's nature by living in just and loving relationships with God and each other. The Bible's writers reveal first to the nation of Israel and then later to their spiritual descendants how to live well in human community so as to reflect God to each other and the world.</p>	<p>우리는 실제 사람간 공동체의 깊은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이웃과 나누는 의와 사랑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보여주도록 부름 받은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저자들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그 다음에는 영적 후손들에게 사람과 세상에 하나님을 반영하기 위해서 인간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록했습니다.</p>
<p>For our own healing and for the sake of the world, God designed the church as a group of people who meet regularly to eat, play, and pray; who are honest about their failures and sins; and who therefore can sharpen each other "as iron sharpens iron" (Prov. 27:17, NIV). As the church, we need to be people who meet not in homogeneous, segregated little groups but as single and married people together, young and old, rich and poor.</p>	<p>우리 자신의 치유와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정기적으로 만나서 먹고 놀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실패와 죄에 대해 솔직하게 내어 놓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잠언 27:17) 서로를 단련할 수 있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비슷한 사람끼리 분리된 작은 모임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독신과 결혼한 사람들, 젊은이와 노인,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p>
<p>Mutually we need forgiveness and grace. Every one of us has been sinned against and has sinned sexually. All of us have exploited others and have been exploited sexually in some ways, whether through word, thought, or deed. Mutually we need sister-brother love to heal us of our distance and mistrust of each other. Mutually we need physical touch. Alienated from our bodies by living in the virtual reality of attention to our technological devices, we need the ordinary physical connections of eating, playing with, and being affectionately touched by human sisters and brothers.</p>	<p>우리는 상호간에 용서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남에게 죄를 지었고, 성적으로도 죄를 지은 바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말과 생각으로 혹은 행동으로,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성적으로 이용을 당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상호 간에 사람들과의 거리와 불신의 상처를 치유할 형제자매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상호 간에 신체적인 접촉이 필요합니다. 전자기기에 빠져서 가상 현실을 살아감으로써 신체에서 소외된 우리는, 먹고 놀고 형제자매의 애정 어린 손길을 받는 등 일반적인 신체적 접촉이 필요합니다.</p>
<p>5. Mission together</p>	<p>5. 함께 사명을 따라 살기 (Mission together)</p>

<p>Just as we have mutual need, the members of the CRC also have a mutual mission. Our physical communities are meant not only to heal the sin, shame, grief, and loneliness of believers but also to offer hope to skeptical and curious unbelievers. In a world where reconciliation is all too rare, the church should be filled with people in messy relationships with stories of hurt and forgiveness. In a culture of individualism, our churches can offer the hope of a different way, a way in which the older mentor the younger, single people and families enjoy one another, the poor and rich serve and learn together, and different ethnic groups seek to understand and appreciate one another. These relationships are unusual in our deeply divided world, and they model God's love to a world that yearns to believe true human community is possible.</p>	<p>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북미주 개혁신교회의 성도들은 함께 완수할 사명 또한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공동체는 신자들의 죄, 수치, 슬픔, 외로움을 치유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회의적이고 호기심 많은 불신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화해가 너무나 흔치 않은 이 세상에서 교회는 상처와 용서의 삶의 스토리들과 골치 아픈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개인주의 문화에서 우리 교회들은 노인이 젊은이들에게 멘토가 되어 주고, 독신자들과 가족들이 서로 잘 지내며,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이 서로 섬기고 배우며, 서로 다른 인종 그룹들이 서로 이해하고 제대로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등의 남다른 방식의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분열된 세상에서 이러한 관계들은 흔치 않으며, 사람들이 진정한 인간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소망을 갖도록 이러한 관계들이 하나님 사랑의 모델이 됩니다.</p>
<p>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has much to offer the millions who do not yet know Jesus. We are rooted in a tradition that gladly acknowledges the need to learn from the historic and global church as we seek to obey God in our sexuality. In each of our congregations, in various ethnic and economic contexts,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has a living tradition of deep love for the Scriptures coupled with a willingness to engage courageously with the ideas of our time. Because we know the creator who made all things and the reconciler who brings all things together, we can create nurturing spaces for people wrestling with sexual identity, deep brokenness, long-term patterns of sin, and disconcerting cultural changes. Resting in Jesus, our peace, we can provide safe harbor for restless explorers both within and outside the church.</p>	<p>북미주 개혁신교회는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성 문제에 있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할 때, 역사적 교회와 전세계 교회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는 전통에 뿌리를 박고 있습니다. 우리 각각의 교회와 다양한 인종적, 경제적 상황에서 북미주 개혁신교회는 성경을 향한 깊은 사랑의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현 시대 정신과 용감하게 마주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하나되게 하시는 중재자이신 주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성적 정체성, 깊은 깨어짐, 장기간 습관으로 굳어진 죄, 그리고 당황스러운 문화적 변화와 씨름하는 사람들을 위해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쉬며 우리는 교회 안과 밖의 분주한 탐험가들에게 안전한 항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p>

<p>The Holy Spirit leads. God pours out love and grace. May our desire to love one another and our neighbors increase, grounded in confidence that we “belong—body and soul . . . —to [our] faithful Savior, Jesus Christ” (Heidelberg Catechism, Q&A 1). May we learn anew to follow our Servant-King in the way of the cross, continually receiving and offering hope and healing.</p>	<p>성령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열망이 더욱 커지고 그 열망이 영과 육이 우리의 신실하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확신에 근거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Q&A 1). 우리가 계속해서 소망과 치유를 주고받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섬김의 왕을 따르는 법을 새롭게 배우기를 기도합니다.</p>
<p>III. A biblical theology of human sexuality</p>	<p>III. 인간 성에 관한 성경적 신학</p>
<p><i>A. Introduction: Matthew 19</i></p>	<p>A. 서론: 마태복음 19 장</p>
<p>Reformed theology reminds us that a good biblical theology follows the outline of the great moments of redemptive history: creation, fall, redemption, consummation. Our Lord himself took this approach when the Pharisees asked him about what in their day was one of the divisive questions of sexual ethics. They asked him, “Is it lawful for a man to divorce his wife for any and every reason?” (Matt. 19:3, NIV).</p>	<p>바람직한 성경 신학은 구속사의 중요한 순간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을 따른다는 것을 개혁주의 신학이 상기시켜줍니다.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성적 윤리에 관해 분열을 조장하는 질문 중 하나를 물어봤을 때 이런 접근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마 19:3, 개역개정).</p>
<p>They were looking, perhaps, for a rule or a set of criteria. But Jesus’ response moved the discussion in an entirely different direction. He turned their attention to the creation account of Genesis 1-2: “Haven’t you read . . . that at the beginning the Creator ‘made them male and female,’ and said, ‘For this reason a man wi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be united to his wife, and the two will become one flesh’? So they are no longer two, but one flesh. Therefore what God has joined together, let no one separate” (Matt. 19:4-6).</p>	<p>어쩌면 그들은 어떤 규칙이나 일련의 기준을 찾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응답은 이 논의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1-2 장의 창조의 이야기로 그들의 주의를 돌리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태복음 19:4-6).</p>

<p>Jesus' perspective, interestingly, does not begin with humanity in its fallen state. His mindset is not, first and foremost, one of accommodation of human sexual weakness. Rather, he grounds the ethic of marriage in the purposes of God from creation. It is just as significant that Jesus does not immediately point his hearers to the nature of human sexuality in the new creation. He understands sexuality in creational terms.</p>	<p>흥미롭게도 예수님의 관점은 타락한 상태의 인간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인간의 성적인 약점에 타협하는 관점이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결혼 윤리를 창조 때의 하나님의 목적에서 찾으십니다.</p>
<p>In fact, the Pharisees seem surprised by Jesus' response. "Why then,' they asked, 'did Moses command that a man give his wife a certificate of divorce and send her away?'" (19:7). Jesus' rejection of divorce rooted in his theology of creation seemed to call for a sexual ethic much more rigorous than that of the law. And he affirmed that this is, in fact, the case: "Moses permitted you to divorce your wives because your hearts were hard. But it was not this way from the beginning. I tell you that anyone who divorces his wife, except for sexual immorality, and marries another woman commits adultery" (19:8-9).</p>	<p>사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마태복음 19:7)." 창조신학에 근거한 예수님의 이혼 반대는 율법보다 더 철저한 성적 윤리를 촉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를 입증하셨습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마태복음 19:8-9)."</p>
<p>Jesus' approach here is striking. He concedes that the law tolerated sinful behavior because of the <i>fall</i>. But he calls his disciples to a higher standard rooted in creation and redemption. The appeal to <i>creation</i> is found in his reference to the way it was at "the beginning." The appeal to <i>redemption</i> comes in the form of Jesus' assertion of his own messianic authority: "I tell you. . . ." The Lord of redemption and the Lord of creation are one and the same Lord.</p>	<p>여기 예수님의 접근법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예수님은 타락때문에 율법이 죄 된 행동들을 용인했다고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창조와 구속에 근거한 더 높은 기준에 따라 살라고 부르십니다....</p>

<p>The disciples, of course, quickly grasp that Jesus is calling them to practice a very difficult ethic. “If this is the situation between a husband and wife, it is better not to marry,” they reason (19:10). And Jesus does not dispute the point. The cost of discipleship is high. The way of the cross is difficult. It requires <i>grace</i>. He replies, “Not everyone can accept this word, but only those to whom it has been given” (19:11).</p>	<p>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이 매우 어려운 수준의 윤리를 실천하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금세 파악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마태복음 19:10).” 그리고 예수님은 더 이상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도를 위해 치뤄야 할 대가가 큼니다. 십자가의 도는 어렵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19:11)” 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p>
<p>Jesus’ teaching here, it must immediately be observed, is difficult for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alike. There is no deference to traditional ways of life. Jesus is not lifting up culturally accepted practices of marriage and family as the ideal for his disciples. On the contrary, he is calling his disciples to a kingdom ethic that is no less radical in the area of sexuality than it is in the area of wealth and poverty (see the story of the rich man in 19:16-26). But the reward—and here Jesus points to that ultimate moment of redemptive history, the <i>consummation</i>—is great. As he goes on to say later, “Everyone who has left houses or brothers or sisters or father or mother or wife or children or fields for my sake will receive a hundred times as much and will inherit eternal life. But many who are first will be last, and many who are last will be first” (19:29-30).</p>	<p>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보수나 진보 양쪽 모두에게 어렵다는 것을 즉각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전통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존중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문화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결혼과 가족제도를 그의 제자들에게 이상적인 것으로 올려 세우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성적 영역에서는 빈부의 영역보다는 덜 급진적인 하나님 나라의 윤리대로 살도록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19:16-26 에서 보라). 하지만 그 보상은- 예수님이 구속사가 완성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가리키시는 것- 상당히 큼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19:29-30).”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p>
<p>Who is willing to walk this path? All who would be Jesus’ disciples must count the cost. But we will not always have the luxury of choice. “For there are eunuchs who were born that way, and there are eunuchs who have been made eunuchs by others—and there are those who choose to live like eunuchs for the sake of the kingdom of</p>	<p>누가 이 길을 기꺼이 가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치러야 할 대가를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선택할 수 있는 사치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p>

<p>heaven. The one who can accept this should accept it” (19:12). The life of singleness—whether freely chosen or not—like that of marriage, requires one to depend on the grace of Christ.</p>	<p>받을지어다(마태복음 19:12).” 결혼의 삶과 같이 독신의 삶은-스스로 선택했든 아니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p>
<p>Matthew 19 provides us with the outline of a biblical theology of human sexuality that comes from the lips of Jesus himself. It reveals the mind of Christ on a host of powerfully relevant questions ranging from the place of eunuchs (traditionally deemed sexually unclean) in the kingdom of Go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sis 1:1-2:3 and 2:4-25 (which Jesus explicitly treats as one interdependent unit). It offers us a pattern for the renewing of our own minds, that we may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Rom. 12:2).</p>	<p>마태복음 19 장은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으로 인간의 성에 관한 성경적 신학의 뼈대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고자 (전통적으로 성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에서부터 창세기 1:1-2:3 과 2:4-25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상호의존적인 단위로 다루시는) 사이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매우 관련이 깊은 여러 질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본을 제공합니다 (롬 12:2).</p>
<p><i>B. Creation: Genesis 1-2</i></p>	<p>B. 창조: 창세기 1-2 장</p>
<p>The New Testament consistently points to Genesis 1-2 as the paradigm for human sexuality (see Matt. 19; 1 Cor. 6; Rom. 1; Eph. 5). Contemporary debates about evolution, the age of the earth, and the length of the days of creation often distract us from the central focus of the text, which is on God’s creative work of establishing order in the cosmos. By his word God divides those things that do not belong together: light from darkness, the waters above from the waters below, water and dry land. The result is a creation that is good because it is orderly.</p>	<p>신약성경은 일관되게 창세기 1-2 장을 인간 성의 패러다임으로 가리킵니다 (마 19, 고전 6, 롬 1, 엡 5 를 보라). 진화, 지구의 나이, 창조의 기간에 관한 현대의 논쟁은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는 텍스트의 핵심에서 우리의 관심을 흐트러뜨립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함께 속하지 않는 것들을 나누셨습니다. 즉, 빛을 어둠에서, 궁창 아래의 물을 위의 물에서 구별했으며 물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창조의 결과가 선한 것은 질서가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p>

By his word God goes on to fill the heavens, the seas, and the dry land with governing lights, birds and fish, plants and animals. Ultimately he subjects all of this order to human beings, whom he calls to govern it on his behalf.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바다와 땅을 그가 통치하시는 빛과 새와 물고기, 식물과 동물들로 채우셨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를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인간에게 이 모든 질서를 맡기셨습니다.
It is of the utmost significance that from the very beginning human beings are described in sexual terms as "male and female." None of the animals are described in such terms. Within one sentence of God's decision to create human beings in his image, that they might govern over his creation, we are told, "So God created mankind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them;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Gen. 1:27).	태초부터 인간은 "남자와 여자"라는 성적 용어로 묘사되었다는 점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동물들도 이렇게 묘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 1:27)."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신 이 한 문장 안에서, 우리는 인간이 그의 창조물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듣습니다.
The poetic structure of Genesis 1:27 indicates that humanity's creation as male and female is inextricably linked with humanity's creation in God's image. We image God not simply as generic human beings, who happen to be male and female, but as male and female human beings.	창세기 1:27의 시적인 구조는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는 유전적 인간이 아닌, 남자이며 여자인 인간 존재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합니다.
Indeed the designation of male and female points forward to the following verse: "God blessed them and said to them,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fill the earth and subdue it. Rule over the fish in the sea and the birds in the sky and over every living creature that moves on the ground'" (Gen. 1:28). Here the humans are blessed with fertility and instructed to multiply, fill, and subdue. The humans a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for the purpose of ruling the earth. The blessing of God will enable the realization of that rule.	사실상 남자와 여자로의 지정은 다음의 구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 1:28)." 여기서 인간은 번식하는 축복을 받으며 번성하고 땅을 가득 채우고 정복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이 땅을 지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 원칙을 깨닫게 합니다.

<p>It should be noted that the terms <i>male</i> and <i>female</i> clearly refer to biological sexuality, not merely to gender, although it is safe to say that the very distinction between sex and gender would be alien to the text in its ancient Near Eastern context. The point is that to be male is to possess male sexuality and to be female is to possess female sexuality, and that to exercise one or the other through procreation is essential to fulfilling God's creation mandate. In other words, it is quite clear, contrary to what some have more recently asserted, that God created human beings with binary, procreative sexuality. The suggestion that God created sexuality as a spectrum, with some human beings falling somewhere <i>in between</i> male and female, is not only foreign to the text but also contradicts the obvious meaning and significance of sexuality in the text. To read the notion of sexuality as a spectrum into Genesis 1:27 is to isolate that verse and rip it from its context.</p>	<p>비록 성과 젠더의 구별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문서에서는 생소하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하겠지만 남성과 여성이라는 용어가 단지 젠더가 아니라 분명히 생물학적 성을 뜻한다는 것은 인지해야 합니다. 핵심은 남성이 된다는 것은 남성의 성을 갖는다는 것이고 여성이 된다는 것은 여성의 성을 갖는다는 것이며 이 두 가지 성 중의 어떤 쪽이든 생식을 통해 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분법적이고 생식력이 있는 성을 갖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이 꽤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의 중간 어딘가에 속하는 성 정체성을 가진다는 식으로 스펙트럼과 같이 하나님이 성을 만드셨다는 주장은 고대 문서에서 생소할 뿐 아니라 문서에 분명하게 드러난 성의 뜻과 의미와도 충돌합니다. 창세기 1:27 을 읽을 때 성의 개념을 스펙트럼으로 읽는 것은 이 구절을 문맥에서 떼어내 고립시키는 것입니다.</p>
<p>While many biblical scholars point out that Genesis 1:1-2:3 and Genesis 2:4-25 are separate creation accounts, their placement together at the beginning of Genesis requires us to interpret them in interaction with one another. Indeed, were we in doubt about this, Jesus' appeal to the two passages as one unit should lay our doubts to rest. It is not simply that Jesus quotes from Genesis 1:27 and 2:24 in the same sentence. It is that he explains the meaning of Genesis 2:24 by virtue of its relationship to Genesis 1:27. In Jesus' words, "At the beginning the Creator 'made them male and female' [Gen. 1:27] and said, 'For this reason a man wi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be united to his wife, and the two will become one flesh' [Gen. 2:24]" (Matt. 19:4-5). Scripture</p>	<p>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창세기 1:1-2:3 과 창세기 2:4-25 이 따로 떨어진 창조 내러티브라고 지적하지만 이 두 파트가 창세기 시작부분에 배치된 것으로 볼 때 이 둘을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의심한다면 예수님이 이 두 파트를 하나의 셋트로 보시는 것을 기억하며 의심을 내려 놓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창세기 1:27 과 2:24 을 한 문장에서 인용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창세기 2:24 의 의미를 1:27 과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창 1:27)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창 2:24)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마 19:4-</p>

interprets Scripture, and this is all the more the case when dealing with the same book of Scripture.	5).”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특히 성경의 같은 책 안에서의 해석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p>Human sexuality receives even more attention in Genesis 2 than it does in Genesis 1. God creates an isolated human being, <i>adam</i>. In contrast to the repeated “it is good” in Genesis 1, after placing the man in the garden in Genesis 2 God says,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Gen. 2:18a). Drawing on Genesis 1, at least part of the problem is that on his own, the man cannot be fruitful, multiply, and fill the earth. So God determines to “make a helper suitable for him” (Gen. 2:18b). The word <i>helper</i> does not denote any sort of inferiority. God is quite often described as his people’s helper with just this word. The word <i>suitable</i>, for its part, is a translation of the Hebrew word <i>kenegdo</i>, which is a compound of words meaning “like” and “opposite.” In other words, the man needs a partner who is “like-his-opposite”—or <i>complementary</i>—to him.</p>	<p>창세기 1 장에서보다 창세기 2 장에서 인간의 성은 더 큰 주목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라는 구별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 장의 “좋았더라”라는 반복되는 구절과 달리, 하나님은 창세기 2 장에서 동산에 사람을 두신 후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창 2:18 전, 새번역)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 장에 근거하면 사실 최소한 문제의 일부는 인간 자신에게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생산적이거나 번성하며 이 땅을 가득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창 2:18 후, 새번역)고 결심하셨습니다. 돕는 사람이란 말은 어떤 종류의 열등함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돕는 사람으로 종종 묘사되곤 합니다. 알맞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케네그도(kenegdo)를 번역한 말인데 “비슷한” 그리고 “반대인”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남자는 “비슷하면서도 반대인” –혹은 상호보완적인– 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p>
<p>While some prefer to emphasize the similarity of the partner, and others the difference, the text emphasizes both, and neither can be abandoned without doing damage to its basic purpose. Some scholars argue that the reason why it wa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was that he lacked intimate companionship.⁴ Genesis 2 certainly seems to strongly imply that need. But in the context of Genesis 1, the man is clearly lacking more than</p>	<p>몇몇 사람들은 짝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것을 더 선호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차이점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둘 다 강조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목적에 손상을 가하지 않고는 둘 중에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은 이유가 친밀한 교제의 부족이라고 주장합니다.⁴ 창세기 2 장은 분명히 이러한 필요를 강력하게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 장의 문맥에서</p>

⁴ See, for example, James V. Brownson, *Bible, Gender, Sexuality: Reframing the Church’s Debate on Same-Sex Relationships* (Grand Rapids, Mich.: Eerdmans, 2013), pp. 29-31.

<p>this. He cannot fulfill the creation mandate. Unlike the animals, he cannot procreate. He needs someone who is sexually “like-opposite” to him. Hence God creates the woman.</p>	<p>보면 남자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부족합니다. 그는 창조 명령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동물과 달리 그는 번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p>
<p>It is interesting that at this point, the Hebrew text first uses the gendered terms for <i>man</i> and <i>woman</i>. Now the man is <i>ish</i>, and the woman is <i>ishah</i>. The very words communicate similarity and difference, and the man exults when he sees the woman: “This is now bone of my bones and flesh of my flesh; she shall be called ‘woman’ [<i>ishah</i>], for she was taken out of man [<i>ish</i>]” (Gen. 2:23). This exultation appears in the context of the man and woman’s unabashed sexuality. The text goes out of its way to point out that they “were both naked, and they felt no shame” (2:25). Sexuality is good and rightly leads to exultation. It is only the fall that has rendered it a matter of shame, abuse, and suffering.</p>	<p>여기에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 남자와 여자라는 성을 구별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다는 것이 꽤 흥미로워집니다. 이제 남자는 잇쉬이며 여자는 잇샤입니다. 유사성과 차이점을 소통하는 바로 그 단어들이고, 남자는 여자를 볼 때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잇쉬)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잇샤)라 부르리라 (창 2:23).”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은 남자와 여자의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이라는 컨텍스트에서 나타납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2:25)”라고 지적하기까지 합니다. 성은 좋은 것이며 최고의 기쁨으로 잘 이끌어 줍니다. 수치, 오남용, 고통의 문제로 만드는 타락이 문제일 뿐입니다.</p>
<p>The text comments on Adam’s joyful exclamation with an explanatory verse that is quoted no less than three times in the New Testament (Matt. 19:5; 1 Cor. 6:16; Eph. 5:31): “That is why a man leaves his father and mother and is united to his wife, and they become one flesh” (Gen. 2:24). Sexual intimacy is intended for marriage. Just as a man is born from the marital union of his father and mother, so the man must now leave his parents in order to establish a new marital union of man and woman. This will be the ordinary means of propagating human life.</p>	<p>성경은 아담의 환희에 찬 반응에 대해 신약에서 세 번 인용된 구절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 19:5, 고전 6:16, 엡 5:31).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 2:24). 성적 친밀함은 결혼을 위해 의도된 것입니다. 사람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 관계의 연합으로 태어난 것처럼 사람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을 통한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그의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을 번식하게 하는 보통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p>

<p>A few scholars have argued that the “one-flesh” union referred to in the text need not require sexual complementarity. At least one scholar claims that two partners might experience a one-flesh union in the sense of kinship rather than sexual complementarity. In other words, it is claimed that the text is merely saying that two persons might unite as one family.⁵ However, this novel interpretation seems to be based on a misreading of the lexicographical and exegetical evidence.⁶</p>	<p>몇몇 학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한 몸”의 연합이 성적 상호 보완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두 파트너가 한 몸의 연합을 경험한다는 것이 성적 상호보완성이 아니라 혈연관계라고 말하는 학자도 최소한 한 명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단순히 두 사람이 하나의 가족으로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⁵ 그러나 이러한 참신한 해석은 단어해석 혹은 해석상의 증거에 대한 오독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⁶</p>
<p>Significantly, the text does not say that the woman will leave her father and mother and be joined to her husband as part of his clan. That would reflect common ancient Near Eastern practice. Rather, Genesis 2:24 highlights the man as the one who leaves his family behind, and it emphasizes that the man and his wife will now constitute a new one-flesh union. In marriage, it would appear that the man and woman find a new identity and a new purpose.</p>	<p>의미심장하게도 성경은 여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남편의 가족의 일부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고대근동사회의 흔한 관습을 반영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창세기 2:24 는 가족을 떠나는 것은 오히려 남자이고, 남자와 그의 아내는 이제 새로운 한 몸의 연합을 세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혼에서 남자와 여자는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p>
<p>The theological significance of Genesis 2:24 runs far beyond its reference to the nature of marriage, however. As we shall see from the apostle Paul’s discussion of marriage in Ephesians 5, “in Genesis 2:24 lies an unknown or not fully known intention of God which is now revealed in the relationship of Christ and his church.”⁷ Just as the</p>	<p>그러나 창세기 2:24 의 신학적 중요성은 결혼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을 훨씬 더 넘어섭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 장에서 결혼에 관해 말했던 것처럼 “창세기 2:24 은 이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사이의 관계에서 드러난 밝혀지지 않은 혹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하나님의</p>

⁵ See Brownson, *Bible, Gender, Sexuality*, pp. 32-34, 85-109.

⁶ Brownson bases his exegetical proposal on two authorities: the Hebrew lexicon of Brown, Driver, and Briggs and the Genesis commentary of Gordon Wenham. The first refers to “flesh” (Hebrew *basar*) as meaning “kindred” in the sense of “blood relations,” but this does not apply to married couples after the first few generations following Adam and Eve. The second states that “just as blood relations are one’s flesh and bone, so marriage creates a similar

relation between man and wife.” To say that the marriage relationship is in some ways *similar* to that of blood relations is not to say that it itself *is* such a relationship. It should also be pointed out that Wenham here explicitly speaks of the marriage relationship as one between man and wife.

⁷ “Marriage Guidelines,” *Acts of Synod 1980* (Grand Rapids, Mich.: Christian Reformed Church, 1980), p. 470.

significance of human sexuality is rooted in God's creation of human beings in his image, so human sexuality finds ultimate meaning in God's plan for human beings to be united in communion with him.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⁷ 인간의 성의 중요성이 그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한 것과 같이 인간의 성의 궁극적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과 성찬을 통해 연합하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C. <i>Fall: Genesis 3</i>	C. 타락: 창세기 3 장
Genesis 3 describes the fall of the first man and woman into sin in terms of temptation, disobedience against the direct command of God, and the violation of boundaries established by God. The serpent, we are told, challenged the woman about her understanding of God's word. The initial challenge, “Did God really say . . . ?” (3:1) was followed by a stronger challenge, “You will not certainly die” (3:4). The temptation held out to Eve was that of becoming “like God, knowing good and evil” (3:5). The way to get there, however, was by disobeying God's direct command not to eat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2:17), thereby violating the boundary established by God at creation.	창세기 3 장은 첫 남자와 여자가 유혹,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었다는 측면에서 죄에 빠지는 타락을 묘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자의 이해에 대해서 뱀이 여자에게 도전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말씀하셨느냐?” (3:1, 새번역)라는 첫 도전은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3:4)라는 그 다음 도전으로 이어집니다. 이브에게 주어진 유혹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 (3:5)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방법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불순종하여 (2:17) 창조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넘는 것입니다.
Given this rebellion against the created order and against God's commands received at creation, it is no surprise that the very first sign that creation has fallen from its first purpose is the corruption of sexuality. “Then the eyes of both of them were opened, and they realized they were naked; so they sewed fig leaves together and made coverings for themselves” (3:7). Sin immediately turns what was a source of joy and exultation into a source of shame and fear. Alienation from God immediately turns into the alienation of the man and woman from one another. The vulnerability of nakedness ceases to be a	창조 질서와 창조 때에 받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항한 반역을 생각해볼 때, 창조가 그 첫 번째 목적으로부터 타락했다는 첫 번째 신호가 성의 부패였다는 점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3:7). 죄는 즉각적으로 기쁨과 환희의 근원이었던 것을 수치와 두려움의 근원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는 남자와 여자가 각각 상대방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벗은 몸의 취약성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gift. Instead it becomes a threat. “I was afraid because I was naked; so I hid” (3:10).	이제 그것은 위협이 되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3:10).
Fascinatingly, as it appears in the narrative, God draws the conclusion that the man has disobeyed his command from the fact that the man knows he is naked. “Who told you that you were naked? Have you eaten from the tree that I commanded you not to eat from?” (3:11). The connection between disordered sexuality and the curse of disobedience runs like a thread throughout the passage.	내러티브에서 보이는 것처럼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남자가 자신이 벗었다는 사실로부터 남자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3:11). 무질서한 성과 불순종의 저주를 잇는 연결점은 이 성경 본문 전체를 실처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The significance of sexuality also permeates the promises and curses that God begins to declare in verse 14. The enmity that stems from the curse will extend to the “offspring” of both the serpent and the woman, but the offspring of the woman would one day crush the serpent’s head (3:15). From this time forward God-fearing men and women would be self-conscious of the way in which their participation in the bringing forth of children would be central to God’s purposes for redemption.	성의 중요성은 또한 하나님이 14 절부터 선포하시는 약속과 저주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저주에서 비롯되는 적대감은 뱀과 여자의 “후손”에게까지 연장됩니다.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언젠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3:15). 이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자와 여자는 그들이 후손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On the other hand, childbearing would take place in the context of severe and painful labor. The intimat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would give way to conflict and domineering. Sexuality after the fall would always be plagued with suffering and conflict, unfulfilled desires and exploitation. Oppressive patriarchy would take the place of purposeful marital communion. “Your desire will be for your husband, and he will rule over you” (3:16).	한편, 출산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친밀한 관계는 갈등과 지배의 관계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타락 이후의 성은 언제나 고통과 갈등,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착취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억압적인 가부장제는 의도적인 결혼의 연합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3:16).

<p>This is precisely the picture that we get in the rest of the book of Genesis and, indeed, in the rest of the Old Testament. In the lives of the patriarchs we see polygamy (including the favoring of one wife over another), the sexual exploitation of slaves (including servants made to serve as concubines), incest, rape, spousal abuse, adultery, divorce, prostitution, sexual harassment, and all manner of conflict, jealousy, and violence stemming from such sexual immorality. Neither the lives of the patriarchs nor the kings of Israel offer Christians a model of God's purpose for sexuality as it was "from the beginning." Indeed, as we have seen, the law of Moses itself permitted such abuse due to the hardness of human hearts, "but it was not this way from the beginning," Jesus said (Matt. 19:8).</p>	<p>이것이 바로 창세기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가 보는 그림이며 사실상 구약 전체에서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가부장제 하의 삶에서 우리는 일부다처제 (한 아내를 다른 아내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여), 근친상간, 성폭행, 배우자 학대, 간음, 이혼, 매춘, 성희롱 및 모든 종류의 갈등, 질투, 폭력 등이 이 성적 부도덕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태초부터" 그랬듯이 가부장들이나 이스라엘의 왕들 중 누구도 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의 모델을 기독교인들에게 제시하지 못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보아 왔듯이 모세의 율법 자체는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그러한 학대를 용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19:8)</p>
<p>Just as it was immoral for the patriarchs to treat women in accord with the conventions of their culture, so it is immoral when Christians abandon God's will from creation by acting in accord with the sexual conventions of our own culture. Premarital sex, cohabitation, divorce, sexual assault, polyamory, and a host of other sexual practices increasingly tolerated by our culture are symptoms of a fallen world that is under the curse of sin. Christians are called to flee all such sexual immorality as we walk not according to the mind of this world but according to the mind of Christ.</p>	<p>그들의 문화적 관습에 맞게 족장들이 여자를 비도덕적으로 대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창조 때의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지금 우리 시대의 문화적 관습에 따라 행동하는 것도한 부도덕한 일입니다. 혼전 성관계, 동거, 이혼, 성폭력, 일부다처제 및 다수의 성과 관련된 관습들이 점점 더 용인되는 것은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타락한 세상의 증상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모든 성적 부도덕에서 떠나 이 시대의 정신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p>
<p><i>D. Redemption: The Old Testament</i></p>	<p>D. 구속: 구약</p>
<p>1. The law</p>	<p>1. 율법</p>

<p>For all of the corruption and misery that mars human sexuality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from Genesis 3:16 forward sexuality is also the focal point of the hope of salvation. Every man and every woman is still expected to marry, to be fruitful and to multiply. Men and women seek to propagate godly children, that their descendants might share in the future hope of God's people. Fruitfulness and salvation go hand in hand. Women who struggle to conceive children (such as Sarah, Rachel, and Hannah) virtually equate the blessing of children with salvation itself. It is no overstatement to say that in the Old Testament the failure to produce descendants is the greatest possible curse upon a man or woman. Indeed, a central part of the crisis facing the oppressed Israelites in Egypt was the Pharaoh's policy of forced infanticide.</p>	<p>인간의 성을 손상시키는 모든 부패와 고통을 유발하는 것들에 대하여 창세기 3:16 이후부터 성은 구원의 소망에 핵심적인 지점이기도 합니다. 모든 남자와 여자는 결혼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기대 받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들을 낳아 기르고자 하며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의 소망을 나눠 갖기를 바랍니다. 풍성함과 구원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힘든 여자 (사라, 라헬, 한나와 같이)는 아이를 갖는 축복을 구원과 동일시합니다. 구약에서는 후손을 낳지 못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에게 가장 큰 저주였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억압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했던 위기의 핵심도 영아 살해를 강요한 바로의 정책이었습니다.</p>
<p>After God delivered his people from the oppression of Egypt, he gave them the law of Moses, which included an extensive sexual code and an array of regulations governing marriage and sexuality.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between regulations that permitted various immoral practices due to the hardness of human hearts (such as divorce [Deut. 24:1-4], polygamy [Deut. 21:15-17], forced marriage of captive women [Deut. 21:10-14], and other practices of ancient Near Eastern patriarchy [i.e., Lev. 19:20-22]), which are not normative for Christians called to follow God's purpose "from the beginning" (Matt. 19:8), and the sexual code that prohibited practices that the law declares to be "detestable" (Lev. 18:29) and therefore alien to God's purpose from creation.</p>	<p>애굽의 억압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후,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범위한 성적 규범과 결혼과 성에 관한 일련의 규칙들을 포함하는 모세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여러 규율들과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허용하는 부도덕한 관습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신명기 24:1-4], 일부다처제[신명기 21:15-17], 포로로 붙잡힌 여자와의 강제 결혼 [신명기 21:10-14] 및 기타 고대근동 가부장제의 관습들 [예, 레위기 19:20-22] 은 "태초부터" (마 19:8) 시작된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기독교인들에게 규범적이지 않은 것들입니다....</p>

<p>Scholars have debated the purpose and significance of the Mosaic sexual code. The key, most agree, is to view God's purposes for Israel as being a sort of microcosm of his purposes for creation. If Genesis 1-2 teaches that human beings are called to be rulers and priests within the temple of creation, Exodus and Leviticus were given to teach the people of Israel how to be rulers and priests within the promised land of Canaan. Thus the people of Israel were commanded to observe proper creational boundaries and so to be holy in reflection of their creator. Much like God's work of dividing and ordering during the six days of creation, the Levitical sexual codes reminded the people to observe the separations established by God that are essential to the goodness of the creation order.</p>	<p>학자들은 모세의 성적 규범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 규범의 핵심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축소판과 같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만약 창세기 1-2 장이 인간이 창조의 성전 안의 통치자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가르친다면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어떻게 통치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창조자의 거룩하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창조의 경계를 지키라고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옛세의 창조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역에 분할과 질서가 있었던 것처럼 레위기의 성적 규범은 선한 창조 질서에 필수적인 하나님이 세우신 구별됨을 준수하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p>
<p>Further, just as Genesis 1-2 called men and women to be fruitful and multiply, to fill the earth and subdue it, so the Levitical sexual code called men and women to engage only in forms of sexual activity that had the potential to result in the procreation of godly children. This helps to explain why the prohibition of child sacrifice is mixed in with prohibitions of homosexuality, bestiality, and having sex with a woman during her period, as well as prohibitions of incest (which produces illicit offspring).</p>	<p>나아가 창세기 1-2 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고 지배하라고 부르신 것처럼 레위기의 성적 규범은 남자와 여자를 경건한 자녀를 낳는 잠재성과 관련이 있는 성적 행동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왜 어린 아이 희생이 동성애, 수간, 생리 중인 여자와의 성관계, 근친상간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후손을 만들어내는)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지 설명하는 것을 도와줍니다.</p>
<p>The law warns the people that it was for these sorts of "detestable" practices that the Canaanites were purged from the land of Canaan. The Israelites were to be different from other nations. They were to be holy because their God was holy. "Do not defile yourselves in any of these ways, because this is how the nations that I am going to drive out before you became defiled. Even the</p>	<p>율법은 "가증스러운" 관습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부터 숙청한다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p>

<p>land was defiled; so I punished it for its sin, and the land vomited out its inhabitants” (Lev. 18:24-25). The laws were to apply to both native-born and foreigners. “Everyone who does any of these detestable things—such persons must be cut off from their people” (18:29). Hence already in Leviticus we have the clear association of sexual immorality with the idolatry of the nations who do not know God.</p>	<p>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레위기 18:24-25). 율법은 토착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18:29). 그러므로 레위기에서는 이미 성적 부도덕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의 우상숭배와의 명백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p>
<p>The integral connection between sexuality, fruitfulness, and holiness is also reflected in the law’s declaration that bodily discharges associated with the reproductive system rendered a person unclean. Men or women experiencing such discharges had to undergo rites of purification (Lev. 12 and 15). Further, eunuchs and males with defective genitals were prohibited from entering the temple (Lev. 21:20; 22:24; Deut. 23:1). Because Israel was to be a microcosm of creation, Israelites were called to be orderly and fruitful in their sexual activity in reflection of the orderliness and fruitfulness of creation.</p>	<p>성과 많은 후손 그리고 거룩함 사이의 필요불가결한 연결점들은 생식기관과 관련된 배출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율법의 선포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남자 혹은 여자가 경험하는 이러한 배출은 정화의 의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레위기 12,15 장). 더 나아가 고자와 고환 상한 남자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레위기 21:20; 22:24; 신명기 23:1). 이스라엘은 창조세계의 축소판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의 질서와 풍성함을 반영하여 성적 활동에서 질서 있고 생산적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p>
<p>2. The prophets</p>	<p>2. 선지서</p>
<p>While the law called the people to engage only in sexual relationships that were orderly and fruitful, the prophets highlighted the significance of human sexuality in an altogether different way. They used marriage as a metaphor for the covenant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his people. For example, Isaiah 54:5-6 declares, ““For your Maker is your husband—the LORD Almighty is his name—the Holy One of Israel is your Redeemer; he is called the God of all the earth. The LORD will call you back as if you were a wife deserted and distressed in spirit—a wife who</p>	<p>율법은 사람들에게 질서 있고 생산적인 성적 관계에만 참여하라고 촉구하는 반면에 선지자들은 인간의 성의 중요성을 전체적으로 다른 의미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을 표현하는 비유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54:5-6 은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p>

married young, only to be rejected,' says your God" (see also Isa. 62).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62 장 참조)
The prophets used this metaphor in both positive and negative ways. Often they described Israel as the bride of the Lord, only to go on to point out that Israel had become unfaithful. Often they went so far as to describe Israel in graphic terms as a prostitute who had committed adultery with all of the nations around Israel (Ezek. 16 and 23). The prophet Hosea, in fact, was even called by God to take an adulterous wife as a means of illustrating God's grace to adulterous Israel. Ultimately, as Hosea makes clear, God will forgive and cleanse his bride, redeeming her from all her adultery (Hos. 1-3).	선지자들은 이 비유를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모두 사용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종종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지적하기 위한 목적일 때 이스라엘을 주님의 신부로 묘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다른 나라들과 간음을 저지른 창기로 이스라엘을 묘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에스겔 16, 23) 사실상 호세아는 간음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음한 아내를 취하라는 부르심을 하나님께 받을 정도였습니다.
The use of marriage as a metaphor for the covenant between God and his people gave rise to the additional use of prostitution, adultery, and sexual immorality as metaphors for the sin of idolatry. Just as a prostitute sells herself for money or protection, they argued, so Israel sold herself in idolatry to foreign gods (and foreign nations). Ezekiel 16 addresses Jerusalem as an adulterous wife, describing the people's idolatry with the gods of other nations as prostitution in shockingly graphic terms:	결혼을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의 비유로 사용하면 매춘, 간음, 성적 부도덕은 우상숭배의 죄를 비유하는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매춘이 여성 자신을 돈이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는 것처럼 이스라엘 또한 우상숭배에 자기 자신을 팔아 이방신(그리고 이방 국가)를 섬겼다고 선지자들은 주장했습니다. 에스겔 16 장은 예루살렘을 간음한 아내로 비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로 충격적일 만큼 생생한 표현으로 묘사하였습니다.
"The splendor I had given you made your beauty perfect. . . . But you trusted in your beauty and used your fame to become a prostitute. You lavished your favors on anyone who passed by and your beauty became his. You took some of your garments to make gaudy high places, where you carried on your prostitution. . . . You also took the fine jewelry I gave you, the jewelry made of my gold and silver, and you made for yourself male idols and engaged in prostitution with them. . . . And you took your sons and daughters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라...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하므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whom you bore to me and sacrificed them as food to the idols. Was your prostitution not enough? . . . In all your detestable practices and your prostitution you did not remember the days of your youth, when you were naked and bare, kicking about in your blood.”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Ezek. 16:14-22)	(에스겔 16:14-22)
Ezekiel’s description, which becomes all the more graphic in its use of prostitution as an allegory for idolatry, follows Leviticus in identifying Jerusalem’s “detestable practices” with the typical practices of the nations around her, including the Canaanites and Sodom. For the prophets, as in the law and (as we shall see) the New Testament, sexual immorality and idolatry were the chief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s that did not know God. Yet when God redeemed his people according to his covenant, he would purify them from all of their sexual immorality and idolatry.	매춘을 우상숭배의 알레고리로 사용하며 더욱 생생한 에스겔의 묘사는 레위기에서 예루살렘의 “가증스러운 관습들”을 그 주변의 가나안과 소돔을 포함한 나라들의 전형적인 관습과 동일시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합니다. 선지자들에게는 율법과 (앞으로 나올) 신약성경에서와 같이 성적 부도덕과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의 주된 특징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그의 언약으로 구속하실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성적 부도덕과 우상숭배로부터 깨끗케 하셨습니다.
“Therefore I am now going to allure her; I will lead her into the wilderness and speak tenderly to her. . . . “In that day,” declares the LORD, “you will call me ‘my husband’; you will no longer call me ‘my master.’ I will remove the names of the Baals from her lips; no longer will their names be invoked. . . . I will betroth you to me forever; I will betroth you in righteousness and justice, in love and compassion. I will betroth you in faithfulness, and you will acknowledge the LORD.”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Hos. 2:14-20)	(호세아 2:14-20)

3. Wisdom literature	3. 지혜문학(성문서)
<p>Israel's wisdom literature vividly described the evils of both adultery and prostitution (Proverbs) and the beauty and joyfulness of a healthy sexual relationship (Song of Songs; Psalm 45). In Proverbs 8-9, Wisdom is personified as a woman who is to be sought at all costs, in contrast to the adulterous woman, Folly (Prov. 7 and 9), who is to be avoided at all costs. Proverbs 7 graphically describes how an adulterous woman skillfully seduces an unsuspecting young man: dressing as a prostitute, she takes hold of him and kisses him, using “persuasive words” and “smooth talk” (7:21) as she describes the allures of her bed. “Come let’s drink deeply of love till morning; let’s enjoy ourselves with love!” (7:18).</p>	<p>이스라엘의 지혜문학은 간음과 매춘의 악함(잠언)과 건강한 성적 관계의 아름다움과 기쁨(아가, 시편 45)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잠언 8-9 장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간음한 여인, 어리석은 자(잠언 7,9 장)와 대조적으로 지혜를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찾아야 할 여자로 의인화하였습니다. 잠언 7 장은 간음한 여자가 어떻게 교묘하게 순진한 남자를 유혹하는지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자기 침상의 매력을 어필하며 음녀처럼 옷을 입고 “호리는 말”과 “고운 말”로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7:18).</p>
<p>The text describes the young man’s destruction so as to elicit horror: “All at once he followed her like an ox going to the slaughter, like a deer stepping into a noose till an arrow pierces his liver, like a bird darting into a snare, little knowing it will cost him his life. . . . Many are the victims she has brought down; her slain are a mighty throng. Her house is a highway to the grave, leading down to the chambers of death” (7:22-23, 26-27).</p>	<p>성경본문이 젊은이의 멸망을 묘사하는 장면은 공포를 자아냅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7:22-23, 26-27).</p>
<p>In Proverbs it is young men in particular who need to be warned to flee from the dangers of lust and adultery. The antidote is wisdom, especially the wisdom that comes from one’s parents and is rooted in the fear of the Lord.</p>	<p>잠언은 특별히 젊은이를 유혹과 간음의 위험으로부터 도망쳐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지혜입니다. 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근원을 두는 그의 부모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p>

<p>In contrast, Song of Songs is particularly unabashed in the sensuality of its poetic imagery. The two lovers delight in one another's kisses and physical embrace. The man exults in the beauty of his bride's eyes, hair, teeth, lips, neck, and breasts. "You are altogether beautiful, my darling; there is no flaw in you" (4:7). "How beautiful you are and how pleasing, my love, with your delights!" (7:6). Love is more pleasing than wine, he tells her. "Your lips drop sweetness as the honeycomb, my bride; milk and honey are under your tongue" (4:11).</p>	<p>이와 반대로 아가서는 특별히 감각적인 시적 심상을 태연하게 사용합니다. 두 연인은 서로의 입맞춤과 육체적인 연합을 기뻐합니다. 남자는 그의 신부의 눈, 머리카락, 이, 입술, 목, 가슴의 아름다움에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4:7).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7:6). 그는 사랑이 포도주보다 그를 기쁘게 한다고 그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4:11).</p>
<p>The woman speaks of how she aches for her lover's intimate presence. "My beloved is radiant and ruddy, outstanding among ten thousand" (5:10). She relishes the appearance and smell of his head, eyes, cheeks, lips, arms, legs, and mouth. "His mouth is sweetness itself; he is altogether lovely. This is my beloved, this is my friend, daughters of Jerusalem" (5:16).</p>	<p>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의 친밀한 존재를 갈구하며 병이 났다고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5:10).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의 용모와 그의 머리향기, 눈, 볼, 입술, 팔, 다리, 입을 느낍니다.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5:16).</p>
<p>And yet, the song warns its hearers repeatedly that when it comes to love one must tread carefully. "Daughters of Jerusalem, I charge you: Do not arouse or awaken love until it so desires" (8:4). Love is dangerous because it is powerful. When it is the real thing, its value is without parallel: "For love is as strong as death, its jealousy unyielding as the grave. It burns like blazing fire, like a mighty flame. Many waters cannot quench love; rivers cannot sweep it away. If one were to give all the wealth of one's house for love, it would be utterly scorned" (8:6-7).</p>	<p>그러나 이 노래는 청중에게 사랑을 반드시 조심스럽게 다뤄야한다고 반복적으로 경고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8:4). 사랑은 강력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사랑이 진짜일 때, 그 가치는 유례가 없습니다: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 같이 잔인하며 불길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와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8:6-7).</p>

It is notable that Song of Songs has traditionally been interpreted by the church not simply as a poem about love between a man and a woman, but as a prophetic allegor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 and his bride, the church. This is consistent with the biblical theme of marriage as an analogy of the covenant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his people.	교회는 전통적으로 아가서를 단순히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에 관한 시로 해석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예언적인 알레고리로 해석해 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간의 언약적인 관계의 유추로써 결혼이라는 성경의 주제를 사용해 온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i>E. Redemption: The New Testament</i>	E. 구속: 신약
1. Celibacy	1. 순결(Celibacy)
When he pointed out that Moses permitted divorce because of the hardness of human hearts, Jesus called his disciples to a sexual ethic so demanding that it led them to question whether it might be better for a person not to marry (Matt. 19). It is telling that Christian teaching rarely elicits such a reply in our time. Has the 21st-century church simply accommodated cultural expectations regarding sex, marriage, and family to the point that we have lost sight of the radical path of Christian discipleship?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모세가 이혼을 허용한 것임을 지적하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적 윤리를 강하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나은지 질문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마 19). 우리 시대의 기독교 가르침은 이러한 대답을 내놓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21 세기 교회는 단순히 성, 결혼, 가정에 대한 문화적 기대에 맞추느라 기독교의 급진적 제자도를 잊어버릴 정도까지 된 것은 아닙니까?
For the disciples to say that it may be better for a person not to marry was to say the unthinkable. As we have seen, to Old Testament Jews, marriage and procreation were deemed to be mandated by God from creation. To be single, to forgo the calling of procreation, was to ensure that one would not have any descendants who shared in the future hope of God's people.	제자들이 누군가에게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아 왔듯이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 결혼과 생식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입니다. 독신으로 산다는 것은 생식이라는 소명을 거절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미래의 소망을 나누어 가질 어떤 후손도 없다는 것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p>Yet not only does Jesus affirm that his disciples are correct in their judgment that marriage may not be the best path of Christian discipleship. He goes so far as to identify eunuchs, who were prohibited from entering the temple, as exemplary Christian disciples!</p>	<p>그렇지만 예수님의 확증은 결혼이 기독교 제자도의 최선은 아닐 수 있다는 제자들의 판단이 옳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된 고자들도 모범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p>
<p>Jesus appears to have three different kinds of eunuchs in view: (1) persons who are born impotent or who develop without properly functioning sexual organs; (2) men who have been castrated, either deliberately (often for service in a royal court or harem) or accidentally; and (3) people who “choose to live like eunuchs for the sake of the kingdom of heaven.” Most scholars agree that with the third type Jesus is speaking metaphorically (i.e., he is not suggesting that Christian disciples should castrate themselves).</p>	<p>예수님은 세 종류의 고자를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1) 타고난 발기불능 혹은 생식기관이 적절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의도적으로 (궁궐 혹은 하렘에서 일하기 위해) 혹은 우연적으로 거세된 남자들; (3)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자로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이 세 번째 유형을 비유적으로 제시하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세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p>
<p>Jesus’ statement is best interpreted against the backdrop of the messianic promises of Isaiah 56:3-5, in which God promised that foreigners and eunuchs would no longer be excluded from his temple. Isaiah declared, “To the eunuchs . . . who . . . hold fast to my covenant—to them I will give within my temple and its walls a memorial and a name better than sons and daughters” (56:5). These words anticipate the conversion and baptism of the Ethiopian eunuch in Acts 8.</p>	<p>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고자들이 그의 성전에서 더 이상 제외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이사야 56:3-5의 하나님의 메시아적인 약속을 배경으로 하여 해석하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이사야는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56:5)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8장의 에디오피아 내시의 회개와 세례를 고대합니다.</p>
<p>Thus understood, the words of Isaiah and Jesus and the baptism of the Ethiopian eunuch all point to the good news that with the coming of the kingdom of God, broken or defective sexuality is no longer the obstacle to kingdom membership that it once was. Individuals whose sexual development and flourishing was impaired or</p>	<p>그러므로 이사야와 예수님의 말씀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세례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함께 복음을 가리키며 한 때 하나님 나라로의 입성에 장애물이 되었던 고장 나거나 결함이 있는 성이 더 이상 그렇지 않음을 말해 줍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제외되었던 성적 발달과 번영이 미완성되고 손상된</p>

<p>incomplete, who had been excluded from God's presence under the law, are now included in the kingdom of God under the gospel. This truth is clearly of profound significance for Christians who experience disorders of sexual development or other forms of sexual dysfunction today.</p>	<p>개인들이 이제는 복음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 성 발달의 이상 혹은 다른 형태의 성적 역기능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백하게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p>
<p>Jesus' third category, speaking of those who choose to live a life of celibacy for the sake of the kingdom, likewise points to a greater inclusivity in the kingdom of God and a liberation from Old Testament expectations regarding marriage and procreation. It is a way of life that Jesus and Paul, the two most prominent characters of the New Testament, would choose. Although it is not for everyone, it is clearly a way of honor, befitting special service for the kingdom of God.</p>	<p>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결한 삶을 살려고 선택하는 사람들에 관한 예수님의 세 번째 카테고리도 마찬가지로 더욱 더 포괄적인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며 결혼과 생식에 관한 구약 성경으로부터의 해방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인 예수님과 바울이 선택한 삶의 길입니다. 비록 이 길이 모든 사람을 위한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특별한 섬김에 알맞은 영광스러운 길임은 분명합니다.</p>
<p>In fact, Matthew 19:11-12 is only one of many passages in which Jesus speaks of the diminishing significance of marriage, family, and earthly households. We have already noted his promise that "everyone who has left houses or brothers or sisters or father or mother or wife or children or fields for my sake will receive a hundred times as much and will inherit eternal life" (19:29). This promise suggests that those who forgo the blessings of marriage and family in this world will receive even greater blessing both in this age and in the age to come. Jesus appears to be thinking of the bonds of communion that such believers will experience with thei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who are fellow children of God.</p>	<p>사실상 마태복음 19:11-12 는 예수님께서 결혼, 가족, 이 세상 가정의 중요성의 감소를 설명하신 수많은 본문 중 하나일 뿐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19:29)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이 세상에서 결혼과 가정의 축복을 포기한 자들은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에서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신자들이 하나님의 같은 자녀들인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과 경험하게 될 성찬의 유대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p>
<p>A similar statement appears in Luke 14:26-27, where Jesus declares, "If anyone comes to me and does</p>	<p>누가복음 14:26-27 에서도 비슷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p>

<p>not hate father and mother, wife and children, brothers and sisters—yes, even their own life—such a person cannot be my disciple.⁸ And whoever does not carry their cross and follow me cannot be my disciple” (cf. Matt. 10:37-39). Those who would be disciples must first count the cost, Jesus goes on to say. They must be willing to give up everything for the sake of the kingdom (Luke 14:33).</p>	<p>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⁸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0:37-39 참조).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먼저 그 대가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p>
<p>Jesus clearly applied this truth to his own life. When told that his mother and brothers were seeking him, he declared, “Who is my mother, and who are my brothers?’ Pointing to his disciples, he said, ‘Here are my mother and my brothers. For whoever does the will of my Father in heaven is my brother and sister and mother” (Matt. 12:48-50). This did not mean that Jesus ceased to care for his mother, as we can see from John 19:26-27. But it does indicate that with the coming of the kingdom the familial bonds of discipleship begin to transcend natural familial bonds in significance.</p>	<p>예수님은 이러한 진리를 자신의 삶에 분명하게 적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48-50). 우리가 요한복음 19:26-27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는 제자도의 가족과 같은 유대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간의 유대를 크게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p>
<p>Yet another declaration by Jesus confirms the diminishing significance of marriage in the coming kingdom of God. In Luke 20:27-40 (see parallel passages in Matt. 22:23-33; Mark 12:18-27) the Sadducees, who denied the resurrection, questioned Jesus regarding a woman who, during this life, married seven successive husbands (each dying before she married the next).</p>	<p>그러나 또 다른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혼의 의미가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누가복음 20:27-40 에서 (마태복음 22:23-33 과 마가복음 12:18-27 에서의 병행되는 구절을 참고하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연속되는 결혼으로 모두 일곱 명의 남편이 있었던 여자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p>

⁸ In biblical culture, the word *hate* was often used as a way of saying “love less.” To recognize this idiomatic use is in no way to downplay the demand made here. In a Middle Eastern culture where commitment to parents and family was ranked as the highest social

obligation, the challenge for Jesus’ disciples was to be devoted more fully to Jesus than to one’s own family. For similar uses of *hate* as “love less” or “not love,” see Genesis 29:30-31; Deuteronomy 21:15-17; Judges 14:16; Proverbs 13:24; Isaiah 60:15; Malachi 1:2-3; Luke 16:13.

<p>Seeking to catch Jesus with an absurdity, they asked, “Now then, at the resurrection whose wife will she be, since the seven were married to her?” (Luke 20:33).</p>	<p>예수님 말씀의 모순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들은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누가복음 20:33)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p>
<p>Jesus’ reply undermines the assumption that the future resurrected life will be much like the present life. He said, “The people of this age marry and are given in marriage. But those who are considered worthy of taking part in the age to come and in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will neither marry nor be given in marriage” (Luke 20:34-35). In other words, marriage for men and women and the production of offspring may be important parts of the present order, but they will not be part of the life to come. Sexuality is a positive aspect of God’s good creation, but the resurrection and power of God will change human existence such that marriage and procreation are not part of the coming kingdom.⁹</p>	<p>예수님의 대답은 미래의 부활 이후의 삶이 현재의 삶과 비슷할 것이라는 추측을 약화시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누가복음 20:34-35)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과 후손을 낳는 것은 현재 세상 질서에서 중요한 일부일지 모르나 영생의 삶 속에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부활과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 존재를 결혼과 출산이 다가오는 왕국의 일부가 아니므로 인간의 존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⁹</p>
<p>As much as Jesus affirms the creational order regarding marriage, therefore, he puts even stronger emphasis on the limited significance of marriage and family. This does not serve to undermine a creational sexual ethic. On the contrary, as we shall see, if anything, Jesus strengthens that ethic. Still,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creates a new reality for all who, whether by circumstance or by choice, find themselves giving up the earthly blessings of marriage, family, and household. It is not only a way of life of unexcelled honor; it is a way of</p>	<p>그러므로 예수님은 결혼과 관련한 창조 질서를 확증하신 것만큼,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이 갖는 한계에 더 큰 강조점을 두셨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성 윤리를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강화하신 것이 있다면 윤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상황에 의한 것이거나 선택한 것이거나 이 땅에서의 결혼, 가족, 가정이라는 축복을 포기한 모두를 위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합니다. 이는 더할 나위없이</p>

⁹ Some exegetes and theologians make the case that Jesus’ words refer to the transformation, not the abolition, of marriage in the eschaton. See, for example, the Reformed theologian Hans Schaeffer, *Createdness and Ethics: The Doctrine of Creation and*

Theological Ethics in the Theology of Colin E. Gunton and Oswald Bayer (Berlin: De Gruyter, 2006), 331-40.

anticipating the glorious reality of the future kingdom of God.	영예로운 삶의 한 방식일 뿐 아니라 미래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현실을 기대하는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Clearly the path of Christian discipleship is not an easy path, especially as it applies to the area of sexuality and marriage. The Christian's sexual life is necessarily a cross-bearing life filled with all kinds of suffering. This is true for all Christians. Although we each experience unique struggles and temptations, all of us are called to count the cost. If there is a part of our sexuality—a desire, experience, practice, or relationship—that we are not willing to give up for the sake of Christ, we have made that thing an idol. On the other hand, insofar as we are willing to suffer for the sake of the gospel, we are given Christ's own promise: "whoever loses their life for me will find it" (Matt. 16:25).	기독교 제자도는 확실히 쉬운 길이 아닙니다. 특히 성과 결혼의 영역에 적용할 때 더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의 성생활은 온갖 고난으로 가득 찬 십자가를 지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우리는 각자 다른 어려움과 유혹을 경험하지만 우리 모두는 대가를 치르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포기하고 싶지 않은 욕망, 경험, 관습, 관계와 같은 성의 영역이 있다면 우리는 그 영역을 우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고 싶지 않은 것에 한해서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25).
The apostle Paul embraced Jesus' teaching about celibacy both in his own life (Paul did not marry) and in his exhortation to young Christians: "I wish that all of you were as I am. But each of you has your own gift from God; one has this gift, another has that. Now to the unmarried and the widows I say: It is good for them to stay unmarried, as I do" (1 Cor. 7:7-8). In a world where the social pressures to marry, have children, and establish a household were not only immense but definitive and all-encompassing for a person's identity, Paul experienced the life of celibacy as freedom.	사도 바울은 실제 자신의 삶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과 젊은이들에 대한 권고에서 순결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고전 7:7-8).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클 뿐 아니라 확정적인 이 세상에서 바울은 독신의 삶을 자유로이 경험했습니다.
Paul's intent was not to negate the goodness of marriage. Rather, his purpose was to direct young Christians' attentions to the coming kingdom. Marriage, he says, is part of the world in its present form that is passing	바울의 의도는 결혼의 선함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목적은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결혼은 곧 사라질 지나가는 이

<p>away, but the kingdom is eternal. “What I mean, brothers and sisters, is that the time is short. From now on those who have wives should live as if they do not. . . . For this world in its present form is passing away” (1 Cor. 7:29-31). Marriage, for Paul, is not a permanent union because it ceases with the death of either the husband or the wife, such that the surviving partner is free to marry again (Rom. 7:2-3).</p>	<p>세상의 외형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고전 7:29-31). 바울에게 결혼은 영속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남편이나 아내의 죽음으로 중지되고 살아남은 배우자는 재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롬 7:2-3).</p>
<p>Those who are married, Paul points out, are not able to focus on the work of the kingdom in the same way that single people can:</p>	<p>결혼한 사람들은 독신인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할 수 없다고 바울은 지적합니다.</p>
<p>An unmarried man is concerned about the Lord’s affairs—how he can please the Lord. But a married man is concerned about the affairs of this world—how he can please his wife—and his interests are divided. An unmarried woman or virgin is concerned about the Lord’s affairs: Her aim is to be devoted to the Lord in both body and spirit. But a married woman is concerned about the affairs of this world—how she can please her husband. I am saying this for your own good, not to restrict you, but that you may live in a right way in undivided devotion to the Lord.</p>	<p>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p>
<p>(1 Cor. 7:32-35)</p>	<p>(고전 7:32-35)</p>
<p>But is Paul thinking only of those who have a special gift that enables them not to “burn with passion” (1 Cor. 7:9)? After all, he urges those who “cannot control themselves” to marry, “for it is better to marry than to burn with passion” (7:9). If that is the case, how can Christians demand celibacy from those who lack this gift? This is a question of the utmost urgency for teenagers, persons who are exclusively same-sex attracted, and many others who</p>	<p>하지만 바울이 “정욕에 불같이 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바울은 결혼을 절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7:9)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은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독신으로 지낼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는 십대 청소년들과</p>

find themselves unable to get married or unable to enjoy sex in their marriages.	동성애만 끌리는 사람들, 결혼을 할 수 없거나 결혼 내에서 성관계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갖는 의문입니다.
<p>This question has been helpfully explored by the 2002 report on pastoral care for homosexual members. Lewis Smedes, the report observes, defended same-sex marriage as a sort of concession or accommodation to gay men and women who “burn with passion.” Others have compared such an accommodation to Moses’ allowance of divorce in the Old Testament. The question, then, is what is the gift of which Paul speaks in 1 Corinthians 7:7?</p>	<p>이 질문은 2002 년 동성애자들을 위한 목양 연구 보고서에서 유익하게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루이스 스미즈는 동성결혼을 “정욕에 불타오르는” 게이 남녀들에게 맞춰주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러한 조율을 구약에서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7:7 에서 말하는 은사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p>
<p>Although many describe the gift Paul is referring to as the gift of celibacy, Paul himself refers to a more specific gift: self-control. The question, therefore, is whether Christians can expect self-control to the point of celibacy from Christians who lack the gift of self-control. Yet, as the 2002 report notes, Galatians 5:22-23 describes self-control as a fruit of the Spirit that is given to all Christians, much like love, joy, patience, or kindness. While not all Christians bear such fruit to equal degrees, all are called to bear them.</p>	<p>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은사가 독신의 은사라고 하지만 바울은 더 구체적인 은사, 즉 자제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자제력의 은사가 없는 기독교인에게 순결을 요구할 정도로 자제력을 기대할 수 있는가 입니다. 그러나 2002 년 보고서는 갈라디아서 5:22-23 이 절제를 사랑, 희락, 오래 참음 혹은 자비와 같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동일한 정도로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이 열매들을 맺으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p>
<p>Similarly, in 1 Corinthians 14:1 (NRSV) Paul commands Christians to “strive for the spiritual gifts.” While some gifts (such as tongues or prophecy) are given to some Christians only, the greater gifts are given to all, and all are commanded to seek them through prayer and effort. Thus Christians are not simply to wait for the gift of self-control, practicing it only when it has been given from above. Rather, as Paul declares in 1 Thessalonians 4:4 (NIV), “each of you should learn to control your own body.”</p>	<p>이와 비슷하게 고린도전서 14:1 에서 바울은 기독교인들에게 “신령한 것들을 사모” 하라고 명령합니다.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몇몇 은사들은 몇몇의 기독교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한편 더 큰 은사들은 모두에게 주어지며 모든 사람들은 기도와 노력을 통해서 그 은사들을 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자제력의 은사가 하늘에서 떨어져 주어질 때 실천하겠다는 태도로 그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4 에서 말했던 것처럼 “각</p>

<p>Similar commands appear in Titus 2:11-15; 1 Peter 1:13-15; and 2 Peter 1:5-6.</p>	<p>사람은 자기 몸을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표준새번역) 이와 비슷한 명령은 디도서 2:11-15, 베드로전서 1:13-15, 베드로후서 1:5-6 에도 등장합니다.</p>
<p>All Christians, then, must practice self-control when called to it by God. “Married people as well as singles need self-control, including self-control of their sexuality, for a well-disciplined life.”¹⁰ Not all people who are called to a life of celibacy choose such a life. But all who are called to a life of celibacy are promised the grace and blessing of the Holy Spirit as they walk the path of obedience to Christ’s commands. Indeed, for those who give up the blessings of marriage and family out of devotion to him, Jesus promises a family of brothers and sisters in abundance, both in this life and in the life to come.</p>	<p>그렇다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절제를 실천해야 합니다. “독신 및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잘 훈련된 삶을 살기 위하여 그들의 성에 관한 절제를 포함한 자제력이 필요합니다.”¹⁰ 독신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독신의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 갈 때 성령님의 은혜와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 때문에 결혼과 가정의 축복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의 삶과 영생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형제 자매들로 이루어진 가정을 풍성하게 약속하셨습니다.</p>
<p>This reminds us that the starting point for Christian reflection on sexual morality should not be our cultural context, let alone our fallen sexual desires and intimate experiences as sinful human beings. Rather, the starting point for Christian reflection on sexual morality is our identity in Christ, in whom all of God’s purposes from creation have been fulfilled. “There is neither Jew nor Gentile, neither slave nor free, nor is there male and female, for you are all one in Christ Jesus” (Gal. 3:28). Our identity in Christ transcends all other identities, whether those that are consequences of the fall (such as slave and free, gay and straight) or those that are gifts of creation</p>	<p>이는 죄인으로서 우리의 타락한 성적 욕망과 성적으로 친밀한 경험들은 고사하고, 기독교인들의 성적 도덕에 대한 숙고의 출발점이 우리 문화적 맥락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의 성적 도덕에 대한 숙고의 출발점은 창조 때부터의 하나님의 목적들이 모두 성취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정체성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 3:29).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모든 정체성들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종과 자유인,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와 같은) 타락의 결과이든지 아니면 (남자와 여자, 결혼한 사람과 독신과 같은) 창조와</p>

¹⁰ “Pastoral Care for Homosexual Members,” *Acts of Synod 2002*, p. 323.

and redemption (such as male and female, married and celibate). First and foremost we are children of God, “heirs according to the promise” (Gal. 3:29), and we are called to practice our sexuality in accord with this purpose.	구속의 선물이든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갈 3:29)이며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성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For Paul, as for Jesus, the Christian’s identity leads one to conceive of suffering differently. Along with the creation we groan, yearning for our redemption. “For the creation was subjected to frustration, not by its own choice, but by the will of the one who subjected it, in hope that the creation itself will be liberated from its bondage to decay and brought into the freedom and glory of the children of God” (Rom. 8:20-21). We too groan as we experience frustration that does not stem from our own choice, and yet we have hope. We even “glory in our sufferings, because we know that suffering produces perseverance; perseverance, character; and character, hope. And hope does not put us to shame, because God’s love has been poured out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has been given to us” (Rom. 5:3-5).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자면 바울에게 있어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고통을 다르게 받아들이게 이끕니다. 창조물과 함께 신음하며 우리의 구속을 바랍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롬 8:20-21). 우리도 우리의 선택에서 비롯되지 않은 절망을 경험하면서 신음을 하지만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롬 5:3-5)
2. Marriage	2. 결혼
Jesus’ teaching regarding the kingdom of God proclaimed a new inclusion of people with broken or defective sexuality, legitimized and honored the life of singleness, and diminished the significance of marriage and family. However, it did not in any way weaken the Old Testament sexual ethic. On the contrary, all of the evidence suggests that Jesus called his disciples to greater sexual holiness in fidelity to God’s purposes from creation.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고장나거나 결함 있는 성을 가진 사람들도 새롭게 받아들이며, 독신의 삶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러한 삶을 존중할 뿐 아니라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약성경의 성윤리를 어떤 식으로든 약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반대로 모든 증거들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창조 때부터의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신뢰 안에서 더 큰 성적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p>The most obvious expression of this calling has been skillfully explored in the 1980 synodical report on divorce and remarriage. As that report noted, Jesus speaks to the issues of divorce and/or remarriage in four places: Matthew 5:31-32; Matthew 19:3-9; Mark 10:2-9; and Luke 16:18. Although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se texts, their collective teaching is “unambiguously clear”: “Jesus stressed emphatically the permanence of marriage. Marriage is intended to be binding for life.”¹¹</p>	<p>이러한 부르심에 대한 가장 명확한 표현은 이혼과 재혼에 관한 1980 년 총회 보고서에 가장 잘 연구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예수님은 이혼 그리고/혹은 재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네 군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31-32, 마태복음 19:3-9; 마가복음 10:2-9; 누가복음 16:18. 비록 이 본문들 가운데는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지만 그들의 공통적 가르침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결혼의 영속성을 단호하게 강조하셨습니다. 결혼은 인생에 구속되도록 의도된 것입니다.”¹¹</p>
<p>Of the four texts, Mark 10:2-9 and Luke 16:18 are the most comprehensive in their prohibition of divorce and remarriage, seeming to allow no exceptions whatsoever. In Matthew 5:31-32 and 19:3-9, however, Jesus allows for an exception in the case of <i>porneia</i>, or “sexual immorality.” Even here, however, it is not entirely clear whether or not the legitimacy of divorce in cases of sexual immorality necessarily rendered remarriage appropriate for either of the divorced spouses. Matthew 5:32, taken by itself, implies that divorced persons may not remarry. Only the hotly disputed Matthew 19:9 gives some hint that remarriage may be permissible in certain cases: “I tell you that anyone who divorces his wife, except for sexual immorality, and marries another woman commits adultery.”</p>	<p>네 군데의 본문 중에서 마가복음 10:2-9 과 누가복음 16:18 은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이혼과 재혼의 금지에 대해서 가장 포괄적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31-32 과 19:3-9 에서 예수님은 포르니아 혹은 “성적 부도덕”의 경우에 예외를 허용하십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성적 부도덕으로 인한 합법적 이혼이 이혼한 배우자 중 누구에게든 반드시 재혼으로 이어지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32 은 이혼한 사람들이 재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열띤 논쟁을 불러 일으키는 마태복음 19:9 은 재혼이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힌트를 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p>
<p>The 1980 report concludes that the word <i>porneia</i> refers to sexual infidelity, including adultery, incest, homosexual intercourse, and similar forms of unchastity. However, it emphasizes that “the accent appears to fall on persistent and unrepentant unchastity rather than on the</p>	<p>1980 년 보고서는 포르니아 라는 단어가 간음, 근친상간, 동성간의 성교, 그리고 이와 비슷한 형태의 여러 음란 등의 성적 부정을 뜻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강조점은 개개의 행동보다는 지속적인 회개하지 않는 음란에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p>

¹¹ “Marriage Guidelines,” *Acts of Synod 1980*, p. 473.

<p>single act itself.”¹² In other words, while divorce is permissible in some cases of sexual immorality, that is only the case when such immorality is persistent and unrepentant. The report helpfully situates the Christian marital ethic in the context of the gospel of reconciliation, reminding Christians that reconciliation is always the goal when spouses have become estranged through sexual immorality or other causes.</p>	<p>라고 강조합니다.¹² 다시 말해서 이혼은 몇몇 성적 부도덕의 경우에 허용되는 반면, 그러한 부도덕이 지속적이고 뉘우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배우자의 성적 부도덕 혹은 다른 이유로 결혼에 소원해졌을 때 언제나 화해가 목적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기독교인의 결혼 윤리를 화해의 복음이라는 맥락에 잘 두었습니다.</p>
<p>The 1980 report also noted that the exception is best understood not as “a concession to an existing practice which violates the righteousness demanded by the creational norm for marriage.”¹³ Rather, it reasserts the binding character of the creational norm against such concessions. Indeed, the report rejects the widespread notion that the exception clause is designed to offer “grounds” for divorce at all. Rather, “marriage <i>should</i> not be dissolved, for that is contrary to God’s will; but by persistent and unrepentant unchastity people <i>can</i> put asunder what God has joined together. Where such has happened, Jesus does not apply his condemnation upon the subsequent remarriage of the one who did not commit adultery.”¹⁴</p>	<p>1980 년 보고서는 또한 이 예외가 “결혼에 대한 창조 질서가 요구하는 정의를 훼손하는 기존의 관습에 대한 인정”으로 이해되는 것은 최선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¹³ 오히려 이 예외는 그러한 양보에 대항하여 창조 질서의 하나되게 하는 특성을 다시 주장하는 것입니다. 실로 보고서는 이 예외 구절이 이혼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구절이라는 주장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결혼은 해체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뉘우치지 않는 음란에 의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갈라 놓을 수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시, 예수님은 간음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의 차후 재혼을 비판하지 않으신다.”¹⁴</p>
<p>Jesus did not simply condemn outward acts of unchastity, however. Like the book of Proverbs, he identified the root of sexual immorality as the lusts that come from the human heart (Matt. 15:19). Such lust, he declared in the Sermon on the Mount, is itself an inward form of adultery: “I tell you that anyone who looks at a</p>	<p>그러나 예수님이 단순히 음란이라는 외적인 행위를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잠언에서와 같이 예수님은 성적 부도덕의 근본 원인을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정욕에서 찾으셨습니다. 이러한 정욕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자체가 간음의 내적인</p>

¹² Ibid., p. 474.

¹³ Ibid., pp. 474-75.

¹⁴ Ibid., p. 477.

woman lustfully has already committed adultery with her in his heart" (Matt. 5:28).	형태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 5:28)
The point of Jesus' teaching here is not to condemn the recognition of bodily beauty, nor the experience of being attracted to someone's bodily beauty. Such misinterpretations make a problem of bodily beauty itself. Inevitably they lead to all manner of legalistic regulations designed to hide the body and prevent interaction between men and women. The burden of such an interpretation has tended to fall upon women.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육체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것을 비난하거나 타인의 육체의 아름다움에 끌려 본 경험을 비판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오역은 육체의 아름다움 자체를 문제시하게 됩니다. 이는 몸을 가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금지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법적 조항들을 생겨나게 합니다. 이러한 해석으로 인한 부담은 보통 여자가 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Jesus' purpose, in contrast, is to call his disciples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way in which they gaze on or think about another person. One does not commit adultery in the heart by looking upon a woman, or even by being attracted to a woman. One commits adultery by looking "lustfully," or with lustful intent. The lustful gaze turns the other person into a mere object of desire and pleasure. It is a form of dehumanization that stems directly from the sinfulness and shame of the fall.	반대로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부르시는 것에 있습니다. 누구나 여자를 쳐다본 것이나 여자에게 끌리는 것 때문에 마음에 간음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음탕하게" 바라본 것이나 음탕한 의도를 가진 것이 간음은 아닙니다. 음탕한 눈빛은 타인을 단순한 욕망 및 쾌락의 대상으로 전락시킵니다. 타락의 죄악 및 수치의 직접적인 결과인 비인간화의 한 형태입니다.
The net effect of Jesus' teaching is to call believers to reserve sex for marriage, as God intended from creation. Some believers may never marry, but all are called to avoid every form of sexual immorality and adultery, whether outwardly or in the thoughts of the heart and the gaze of the eyes. Christians are always to treat one another as brothers and sisters called to communion in the body of Christ.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과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의도하신 대로 신자들로 하여금 결혼을 위해 성관계를 미루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몇몇 신자들은 다시는 재혼하지 않겠지만 외적 행동으로나 마음 속 생각 혹은 눈빛으로나 우리 모두는 모든 형태의 성적 부도덕과 간음을 피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항상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형제자매로 대해야 합니다.

<p>The apostle Paul reinforces Jesus' teaching regarding sex and marriage by interpreting it in the context of Old Testament teaching. In 1 Thessalonians, thought to be Paul's earliest letter, Paul exhorts Christians, "It is God's will that you should be sanctified: that you should avoid sexual immorality; that each of you should learn to control your own body in a way that is holy and honorable, not in passionate lust like the pagans, who do not know God; and that in this matter no one should wrong or take advantage of a brother or sister. The Lord will punish all those who commit such sins, as we told you and warned you before. For God did not call us to be impure, but to live a holy life. Therefore, anyone who rejects this instruction does not reject a human being but God, the very God who gives you his Holy Spirit" (1 Thess. 4:3-8).</p>	<p>사도 바울은 성과 결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약 성경의 가르침의 맥락에서 해석함으로써 더욱 강화시킵니다. 바울의 초기 서신으로 여겨지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3-8).</p>
<p>Paul's association of sexual immorality with "the pagans, who do not know God," is typical of Jewish assessments of the Gentiles. Paul, like most Jews, believed that the Gentiles were notorious for two kinds of sin in particular: sexual immorality and idolatry. As we have seen, the Old Testament prophets consistently associated sexual immorality with idolatry. Both sins were deemed to be distinctive expressions of rebellion against God. The same thought appears in Romans 1 and in 1 Corinthians, as we shall see.</p>	<p>바울이 성적 부도덕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들"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은 유대인의 이방인에 대한 전형적인 평가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처럼 바울은 이방인들은 특히 두 가지 죄로 악명이 높다고 믿었습니다 (성적 부도덕과 우상숭배). 우리가 보아 왔듯이 구약성경의 선지자들은 성적 부도덕을 우상숭배와 꾸준히 연관지어 이해해 왔습니다. 두 가지 죄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반항의 특징적인 표현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로마서 1장과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p>
<p>Paul's antidote is to call the Thessalonian Christians, like the people of Israel of old, to holiness. Indeed, such holiness is essential to what it means to be God's people. To be God's people is to be different from the nations who do not know God. As God puts it to the Israelites in Exodus 19:5-6, "And now if you indeed obey</p>	<p>바울의 해결책은 구약시대의 데살로니가 기독교인들에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룩하게 살라고 권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거룩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의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5-6 에서 하나님이</p>

<p>my voice and keep my covenant, you will be to me a distinctive people out of all the nations. For the whole earth is mine. You will be to me a kingdom of priests and a holy nation” (Septuagint). Similar exhortations appear in Deuteronomy 26:18-19 and in Leviticus 11:44-45; 19:2; 20:7, 26; and 22:32.</p>	<p>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70 인역). 비슷한 권고는 신명기 26:18-19. 레위기 11:44-45, 19:2, 20:7,26, 22:32 에 나옵니다.</p>
<p>If the essence of holiness for the Israelites, therefore, was separation from the nations, Paul is urging Christians that for them too the essence of holiness consists in separation from the pagans who do not know God. To be sure, the wall between the nations has been broken down (Eph. 2:14), but God’s will for his people has not changed: to be holy as he is holy (1 Pet. 1:16). What has changed is that God has now poured out his Spirit on all nations, such that disciples of every nation can walk in the way of holiness. Thus, as this letter to Gentile Christians in Thessalonica testifies, Paul expects from the Thessalonians the same sort of holiness with respect to sexuality as he expects from Jewish Christians.</p>	<p>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거룩함의 핵심이 이방나라들과의 구별이라면 바울은 기독교인들에게 거룩함의 본질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들과의 구별이라고 촉구합니다. 국가들 간의 벽이 허물어졌지만 (엡 2:14) 분명한 것은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벧전 1:16)는 것입니다. 이제 변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영을 모든 나라들에게 부어 주셔서 모든 나라의 제자들이 거룩함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이 서신이 말해 주듯이 바울은 성에 있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그가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종류의 거룩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p>
<p>Paul’s instructions here therefore reflect the judgment of the Jerusalem Council in Acts 15, that although Gentile Christians are not obligated to keep the whole law of Moses, they are nevertheless called “to abstain . . . from sexual immorality” (Acts 15:20).</p>	<p>그러므로 여기서 바울의 가르침은 사도행전 15 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판단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모세의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부도덕을 멀리하라” (사도행전 15:20) 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p>
<p>Some scholars have argued that just as the early church had a hard time accepting the fact that the Spirit was working among Gentiles as well as Jews, so the contemporary church fails to see that the Spirit is working among those in same-sex sexual relationships as well. If</p>	<p>몇몇 학자들은 초대교회가 성령께서 유대인 뿐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것처럼 현대 교회도 성령께서 동성애자들 가운데</p>

<p>such persons share in the fruit of the Spirit, it is argued, they should be considered members in good standing in the church as well.¹⁵</p>	<p>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나눠 가진다면 그들 또한 교회의 떳떳한 일원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¹⁵</p>
<p>What that argument ignores, however, is that the Gentiles were embraced into the church on the condition that they submitted to God's will regarding human sexuality. Indeed, in his letter to the Galatians, the major purpose of which was to clarify that Gentiles are saved by faith and not by obedience to the law of Moses, Paul expressly called the Galatians to give up the obvious works of the flesh, including sexual immorality, and to walk in the fruit of the Spirit, including self-control (Gal. 5:19, 23). "Those who belong to Christ Jesus have crucified the flesh with its passions and desires. Since we live by the Spirit,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5:24-25). The mark of the Spirit's work, in short, includes repentance from sexual immorality.</p>	<p>그러나 이 주장이 간과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인간의 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조건 하에 교회로부터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갈라디아로 보낸 서신의 주된 목적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지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성적 부도덕 등 명백한 육체의 일을 포기하고 절제 등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아가라고 권고했습니다 (갈 5:19,23).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5:24-25). 요약하자면 성령의 사역의 흔적은 성적 부도덕에 대한 회개를 포함합니다.</p>
<p>Paul's instruction to the Thessalonians, then, interpreted quite literally, is not that they should separate themselves from the Gentiles. Most of the Thessalonian Christians were Gentiles! Rather, he says, they should separate themselves from "sexual immorality" (1 Thess. 4:3). Separation from sexual immorality, he is saying, is an essential part of Christian holiness. What does Paul mean by "sexual immorality"? Most scholars agree that the term <i>porneia</i> as used here by Paul refers in a general way to all kinds of sexual misconduct, no doubt against the backdrop of the sexual code of the law of Moses. To be holy, then,</p>	<p>그렇다면 꽤나 문자적으로 해석되는 데살로니아인들에 대한 바울의 교훈은 이방인들로부터 떨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데살로니아의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들이 "성적 부도덕"을 멀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살전 4:3). 바울은 성적부도덕과를 멀리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거룩함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적 부도덕"이란 무슨 뜻입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포르니아라는 단어가 의심할 바 없이 모세의 율법의 성적 규범을 바탕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성적 위법행위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p>

¹⁵ See especially Deirdre J. Good, Willis J. Jenkins, Cynthia B. Kittredge, Eugene F. Rogers, Jr., "A Theology of Marriage Including

Same-Sex Couples: A View from the Liberals," *Anglican Theological Review* 93:1 (Winter, 2011), pp. 51-87. Cf. Brownson, *Bible, Gender, Sexuality*, pp. 9-10, 190-91.

requires one to learn to control one's own body in obedience to the will of God.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 자신의 몸을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Interestingly, for Paul, sexual immorality is not considered a victimless crime. On the contrary, Paul warns that to commit sexual immorality is to “wrong or take advantage of a brother or sister” (1 Thess. 4:6). Sexual immorality is not an expression of love for another human being. It is a corruption of love that wrongs another human being.	흥미롭게도 바울에게 있어서 성적 부도덕은 희생자 없는 범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성적 부도덕을 범하는 것은 “형제를 해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살전 4:6). 성적 부도덕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성적 부도덕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타락한 사랑입니다.
It's also worth noting that here, as elsewhere, Paul warns the Thessalonians, “The Lord will punish all those who commit such sins, as we told you and warned you before” (1 Thess. 4:6). Nor is this simply a word from Paul. “Anyone who rejects this instruction does not reject a human being but God, the very God who gives you his Holy Spirit” (4:8). Paul seems to leave believers with a choice. They can reject God's call and live like the pagans do, according to the passions of their flesh, or they can embrace the call of God, knowing that he gives the Holy Spirit to those who seek him. This, ultimately, is the hope to which God calls them. God gives his Holy Spirit to all who seek him, as was once prophesied by the prophet Ezekiel, and the Spirit empowers all such disciples to live within the will of God.	바울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와 같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살전 4:6) 라고 경고했다는 것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또한 있습니다. 단지 바울이 말한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4:8). 바울은 신자들이 선택하도록 여지를 남겨둔 것 같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이교도처럼 살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소망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찾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런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Nowhere does Paul address questions of sexual immorality within the church more extensively or clearly than he does in 1 Corinthians, another of his earliest letters. In 1 Corinthians 5 Paul commands the Corinthian	고린도전서만큼 바울이 그의 이전 서신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의 성적 부도덕 문제를 포괄적이고 명확하게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 장에서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성적

<p>Christians to expel from among them a man who was guilty of “sexual immorality”—specifically, a form of incest that was prohibited by the law of Moses. Paul says that the Corinthians “should have put out of [their] fellowship the man who has been doing this” (5:2), and Paul adds that he has “already passed judgment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on the one who has been doing this” (5:3). Further, he says that when the Corinthians are “assembled . . . and the power of our Lord Jesus is present, [they should] hand this man over to Satan for the destruction of the flesh, so that his spirit may be saved on the day of the Lord” (5:4-5). Paul supports his argument by warning the Corinthians that “a little yeast leavens the whole batch of dough”—and he urges them, “Get rid of the old yeast, so that you may be a new unleavened batch—as you really are” (5:6-7). The entire body is compromised by the failure of one person to repent of his sexual immorality.</p>	<p>부도덕” 구체적으로 모세의 율법이 금하는 근친상간의 모양을 한 성적 부도덕의 죄를 저지른 남자를 내쫓으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한 자를 그들 중에서 쫓아냈어야 했다고 말하며 (5:2) 자신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판단하였다고 덧붙입니다 (5:3). 더 나아가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 주 예수의 능력이 역사할 때, [그들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5:4-5).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고린도인들에게 경고하면서 그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5:6-7)고 촉구하였습니다. 몸 전체가 한 사람이 자신의 성적 부도덕을 회개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p>
<p>Paul reminds them that he had already written to them in a previous letter (now lost) that they should not “associate with sexually immoral people” (5:9). His point, he says, was not that they should disassociate with nonbelievers who commit sexual immorality (or other sins like idolatry, greed, or swindling). Such would be impossible. “But now I am writing to you that you must not associate with anyone <i>who claims to be a brother or sister</i> but is sexually immoral or greedy, an idolater or slanderer, a drunkard or swindler” (5:11). In other words, the focus here is on those who would seek to be members of the church. Paul quotes from the Old Testament: “Expel the wicked person from among you” (5:13; see Deut. 13:5; 17:7; 19:19; 21:21; 22:21,24; 24:7). Here, as in 1 Thessalonians 4, Paul insists on repentance from sexual</p>	<p>바울은 이전 서신에서 이미 그들에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5:9) 고 쓴 적이 있습니다. 바울의 핵심은 성적 부도덕 (혹은 우상숭배, 탐욕, 사기와 같은 다른 죄악)을 행하는 불신자들과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불가능 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5:11). 다시 말해서 여기서 초점은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서를 인용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 쫓으라” (5:13, 신명기 13:5; 17:7; 19:19; 21:21; 22:21,24; 24:7 참조). 데살로니가전서</p>

<p>immorality as a definitive mark that distinguishes Christians from the world.</p>	<p>4 장에서와 같이 바울은 성적 부도덕에서 돌이키는 것을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표시라고 주장합니다.</p>
<p>In the process of making the argument that the Corinthian church is to “judge those inside” the church (1 Cor. 5:12), Paul reminds the Corinthians that as saints destined by God to judge the world, believers need to learn to judge and arbitrate disputes for themselves (6:1-8). They are called to develop the wisdom necessary to judge among themselves, anticipating their future reality as those who will reign with Christ.</p>	<p>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고전 5:12) 바울은 하나님이 세상을 판단하도록 하신 성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고린도교인들이 스스로 논쟁을 판단하고 중재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6:1-8). 그들 가운데의 분쟁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지혜를 계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사람들로써 그들의 미래의 현실을 대비하는 것입니다.</p>
<p>The point is not that Christians are perfect or do not themselves fall into sin. The point is that Christians, by definition, are those who have repented from their sin. Paul is well aware that believers may be deceived on precisely this point (what Dietrich Bonhoeffer would later call “cheap grace”): “Or do you not know that wrongdoers wi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Do not be deceived: Neither the sexually immoral nor idolaters nor men who have sex with men nor thieves nor the greedy nor drunkards nor slanderers nor swindlers will inherit the kingdom of God” (1 Cor. 6:9-10). These sins had characterized the Corinthian Christians: “That is what some of you were. But you were washed, you were sanctified, you were justified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by the Spirit of our God” (6:11). Here, as in 1 Thessalonians, Galatians, Acts, and so many other passages, it is the Spirit of God who empowers believers to repent from the passions of the flesh and to walk in the fruit of the Spirit.</p>	<p>핵심은 기독교인들이 완벽하다거나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핵심은 기독교인이란 말 그대로 죄에서 돌이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이 바로 이 점에 속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디트리히 본 회퍼가 말한 “값 싼 은혜”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전 6:9-10) 이러한 죄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특징 짓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6:11) 데살로니가전서, 갈라디아서, 사도행전 및 수많은 다른 성경본문에서처럼 바로 성령께서 신자들을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p>

<p>It is essential to observe that Paul's argument in this section is not simply to show <i>that</i> sexual immorality is wrong. Rather, it is to show just <i>how</i> wrong sexual immorality is. Paul could not raise the stakes any higher than he does. Here again he treats sexual immorality much like he treats idolatry. He warns believers to "flee" two things: sexual immorality and idolatry. Like idolatry, unrepentant sexual immorality destroys one's place in the church and kingdom of God.</p>	<p>이 본문에서 바울의 주장이 단순히 성적 부도덕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성적 부도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보다 더 강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바울은 성적 부도덕을 우상숭배와 같은 개념으로 취급합니다. 그는 신자들에게 두 가지로부터 "도망치라"고 경고합니다. 바로 성적 부도덕과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처럼 뉘우치지 않는 성적 부도덕은 한 사람의 교회에서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리를 파괴합니다.</p>
<p>In 1 Corinthians 6:12-20 Paul refutes the claim made by some Corinthians that Christians have sexual freedom because what Christians do with the body does not matter. Paul's response is that the body does matter because it is destined for resurrection and communion with Christ, and sexual immorality is incompatible with this reality.</p>	<p>고린도전서 6:12-20 에서 바울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성적 자유를 갖는다는 몇몇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바울의 대답은 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과 그리스도와와의 성찬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 부도덕은 이러한 현실과 양립 불가능한 것입니다.</p>
<p>Paul begins by offering three specific rejoinders to claims being made by some Corinthians. The first two rejoinders are to the same slogan: "I have the right to do anything" (see also 1 Cor. 10:23). This slogan could be more literally translated as "All things are permissible." Paul's first response is that not all things are "beneficial" or "helpful" or "edifying." His second rejoinder is "I will not be mastered by anything" (6:12). By making this argument, Paul brings the question of authority and ownership, as well as self-control, into the discussion. A Christian possesses liberty, but not so that she or he might once again become a slave to sin or to another human being.</p>	<p>바울은 세 가지 답변으로 몇몇 고린도 교인들의 주장에 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두 가지 답변은 같은 구호를 외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고전 10:23 도 참조). 이 구호는 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첫번째 답변은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도움"되거나 "교훈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답변은 "무엇에든지 얹매이지 아니하리라" (6:12) 입니다. 이 주장을 함으로써 바울은 권위와 소유권, 절제의 문제를 논쟁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유를 갖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죄의 노예가 되거나 서로에게 매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p>

<p>Rather, a Christian is given liberty so that she or he might be enslaved to God in Christ.</p>	<p>오히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매일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된 것입니다.</p>
<p>Finally, Paul addresses a slogan that at first glance has nothing to do with sexuality: “Food for the stomach and the stomach for food, and God will destroy them both” (1 Cor. 6:13). The Corinthians were evidently arguing that the body—or at least its basic functions—is not eternal, so what we do in carrying out our bodily functions—such as eating—is irrelevant for our future in Christ. Paul’s response is to offer a statement parallel to the Corinthian slogan, undermining it at each point (6:13-14): “The body . . . is . . . for the Lord, and the Lord for the body,” and as “God raised the Lord from the dead . . . he will raise us also” (i.e., God will raise them both).</p>	<p>마지막으로 바울은 언뜻 보기에는 성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구호를 언급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고전 6:13). 고린도 교인들은 명백하게 몸은, 혹은 최소한 몸의 기본적인 기능은, 영원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먹는 것과 같이 우리가 행하는 몸의 기능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우리 미래와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답변은 고린도 교인들의 구호를 조목조목 약화시키도록 나란히 배치하고 있습니다 (6:13-14): “몸은...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 하나님은 주와 우리를 모두 살리실 것입니다).</p>
<p>The body is not for sexual immorality in the way that food is for the stomach, Paul says. Rather, the body has a purpose more ultimate than sexuality itself. That purpose is the believers’ union with God in Christ. Thus sexuality is not an arena of Christian liberty like eating and drinking. On the contrary, sexuality has ultimate significance because the body is “for the Lord.” This significance is enhanced by the astonishing fact that not only is the body for the Lord, but, as most scholars interpret the second phrase, the Lord Jesus Christ laid down his own life in order to save the human body for communion with God.</p>	<p>음식이 배를 위해 있는 것처럼 몸은 성적 부도덕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오히려 몸은 성 그 자체보다 훨씬 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신자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따라서 성은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자유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은 몸이 “주를 위하여”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중요성을 가집니다. 단지 몸만 주를 위해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학자들이 두 번째 구절을 해석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성찬을 위해 인간의 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자신의 생명을 내려 놓으신 놀라운 사실에 의해서 이 중요성은 더욱 강화됩니다.</p>

<p>Paul continues the argument by reminding the Corinthians that their bodies are members of Christ. Note the plural here. It is not simply that the church is corporately united to Christ. And it is not simply that believers are united to Christ in their souls. Rather, the individual bodies of believers are members of Christ. Each Christian body—including the dimension of its sexuality as male or female—is a part of the body of Christ. What we do with our bodies, therefore, we do with the body of Christ. Paul illustrates his point with the example of prostitution, but the argument itself applies to all forms of sexual immorality.</p>	<p>바울은 그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일부라는 점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기시킴으로서 자신의 주장을 계속 펼칩니다. 여기서 복수인 점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교회가 조직적으로 그리스도께 연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그들의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단순한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 개개인의 몸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성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각각의 기독교인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몸을 가지고 하는 행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하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논점을 매춘의 예를 들어서 증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 자체는 모든 형태의 성적 부도덕에 적용되는 것입니다.</p>
<p>Like Jesus, Paul draws his argument from an appeal to creation, specifically Genesis 2:24. As appears from the structure of the argument, Paul quotes Genesis 2:24, “The two will become one flesh,” to substantiate his claim that a man “who unites himself with a prostitute is one with her in body” (1 Cor. 6:16). In other words, sex is of profound significance because it establishes a one-flesh union. And that one-flesh union either is or is not consistent with the believer’s bodily union with Christ. Thus sexual immorality is not simply a violation of the will of God. Much more, it is incompatible with union with Christ.</p>	<p>예수님처럼 바울은 그의 주장의 근거를 창조에서, 특히 창세기 2:24 에서 가져왔습니다. 주장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라는 창세기 2:24 을 인용하여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전 6:16)라는 그의 주장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은 한 몸의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몸이 되는 연합은 신자의 그리스도와의 몸의 연합과 지속적이거나 지속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적 부도덕은 단순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적 부도덕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p>
<p>To be sure, all sin is ultimately incompatible with our union with Christ, but Paul’s point here is that sexual immorality is <i>especially</i> incompatible with that union. Why? Because, as he has argued from Genesis 2:24, it involves</p>	<p>모든 죄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양립 불가능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여기서 바울의 요점은 성적 부도덕이 특별히 이 연합과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바울이</p>

<p>the body in a deeply intimate one-flesh union that is of profound significance for human beings. In other words, sex has meaning—profound meaning. As we have seen, it is wrapped up with our creation in God’s image as male and female, and Paul is now teaching us that it also involves a level of bodily intimacy directly relevant to God’s purposes for us in communion with Christ.</p>	<p>창세기 2:24 에서 근거를 들듯이 매우 친밀한 한 몸의 연합이라는 인간에게 깊은 의미를 갖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은 의미를, 그것도 심오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보아 왔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과 관련되어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것이 그리스도와 의 성찬이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육체의 친밀함의 정도를 수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p>
<p>This conclusion is reinforced by what comes next. Scholars do not agree on what Paul means when he says, “Flee from sexual immorality! All other sins a person commits are outside the body, but whoever sins sexually, sins against their own body” (1 Cor. 6:18). But the primary reason for their disagreement is that modern readers struggle with the claim that sexual immorality is a particularly grave sin. Yet in context it is clear that this is precisely what Paul is saying. Sexual union is so significant, constituting two human beings as one body, that sexual immorality involves a particularly grave sin against the body that cannot be tolerated within the body of Christ.</p>	<p>이 결론은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에 의해 더욱 공고해집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고전 6:18) 라고 한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현대의 독자들은 성적 부도덕이 특별히 중대한 죄악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맥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바가 바로 그렇다는 점이 명확합니다.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드는 성적인 연합은 매우 중대해서 성적 부도덕이 몸에 대해 짓는 특별히 심각한 죄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p>
<p>This argument is reinforced by the logic in the next two verses: 1 Cor. 6:19-20. There Paul explains that the body is not just destined for resurrection and union with Christ. The body is a temple of the Holy Spirit, the bond of union with Christ. Paul reverses his typical word order here to emphasize the holiness of the Spirit, and hence the holiness of the body. His argument connects the New Testament rationale for sexual holiness to the Old</p>	<p>이 주장은 고전 6:19-20 의 논리로 더욱 강화됩니다.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몸이 단지 부활과 그리스도와 의 연합을 위해 예비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몸은 그리스도와 의 연합의 유대인 성령의 전입니다. 바울은 그의 전형적인 말의 순서를 바꿔서 성령의 거룩하심을 강조하고 이에 따라 몸의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그의 주장은 성적 거룩함에 대한 신약 성경의 논리를 그에 대한 구약 성경의</p>

Testament rationale: the presence of God must be manifest in sexual holiness!	논리에 연결시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는 성적 거룩함 안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Finally, Paul reminds the Corinthians that, having been united with Christ and inhabited by the Holy Spirit, they are no longer their own masters. This brings us back to the Corinthian slogan mentioned earlier: “I have the right to do anything” (1 Cor. 6:12). To drive his point home, Paul uses the metaphor of slavery (or is it prostitution?) to remind the Corinthians that they were “bought at a price” (6:20). Instead of being their own masters, they are slaves of God and slaves of righteousness, and the price was nothing less than the body and blood of Christ, with whom they have been united. At the heart of Paul’s concern, then, is a question of ownership and authority. In the way that they exercise their sexuality, human beings demonstrate whether or not they are servants of God.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삶을 살기에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전에 언급했던 “모든 것이 가하나” (고전 6:12) 라는 고린도 교회의 구호로 우리를 다시 데려다 줍니다. 그의 주장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노예 메타포 (또는 매춘?)를 사용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값으로 산 것” (6:20)이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 대하여 주인이 되는 대신에 하나님과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불한 대가는 그들이 연합했던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다를 바 없습니다. 바울의 우려의 핵심은 소유권과 권위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성을 행하던 방식으로 인간은 그들이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를 드러냅니다.
This is the context for Paul’s discussion of marriage and singleness in 1 Corinthians 7, which we partially considered earlier. Paul advises some Christians not to marry, but he instructs those who struggle with self-control to marry. The main point is that all Christians, whether married or single, are called to honor God with their bodies. Those who are married are called to sexual faithfulness and to mutual submission in their sexual relationship. “The wife does not have authority over her own body but yields it to her husband. In the same way, the husband does not have authority over his own body but yields it to his wife” (7:4).	이것이 우리가 앞서 부분적으로 고찰했던 고린도전서 7 장에 나오는 바울의 결혼과 독신에 대한 논의를 위한 배경입니다. 바울은 몇몇 기독교인들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결혼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요점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결혼을 했든 아니든 그들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성적으로 충실하며 성적인 관계에서 상호간에 복종하라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7:4).

<p>Paul also reminds believers that while it is good not to marry, once they are married a husband and a wife may not separate from one another. As he puts it, “A wife must not separate from her husband. But if she does, she must remain unmarried or else be reconciled to her husband. And a husband must not divorce his wife” (1 Cor. 7:10-11). The 1980 report on divorce and remarriage rightly concludes that “Paul commands that if the wife does separate from/divorce her husband, she should either remain single or be reconciled to her husband.”¹⁶ Paul says nothing, at least in the case of two believing Christians, about a potential right to remarry.</p>	<p>또한 바울은 신자들에게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만약 결혼을 했으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갈라서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상기시켜 줍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약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고전 7:10-11). 이혼과 재혼에 관한 1980 년 보고서는 “바울은 만약 아내가 그 남편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¹⁶ 바울은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부부의 경우 그들의 잠재적인 재혼할 권리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p>
<p>However, Paul goes on to consider the case in which a Christian is married to a nonbeliever. It is a testimony to the inviolability of marriage within a creational ethic that unbelief on the part of one of the spouses is not considered grounds for divorce. On the contrary, the unbelieving spouse is considered holy by virtue of his or her union with the believing spouse! The same is true for the children of such a union (1 Cor. 7:12-14). It could not be clearer that God does not want human beings to tear apart those whom he has joined together.</p>	<p>그러나 바울은 기독교인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쪽 배우자의 불신앙이 이혼의 근거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은 창조 윤리 내에서 결혼의 신성함을 입증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불신 배우자는 신자인 배우자와의 연합 덕분에 거룩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한 연합으로 인한 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전 7:12-14). 하나님은 이미 연합한 사람들을 떼어 놓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없습니다.</p>
<p>Here, however, Paul does offer an exception, although even in this case there is dispute about what exactly he means to allow. Paul declares that if the unbelieving spouse abandons the believing spouse, the believing spouse is “not bound in such circumstances; God has called us to live in peace” (1 Cor. 7:15). Here too Paul seems to have the goal of reconciliation in view. He</p>	<p>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예외를 설명합니다. 비록 심지어 이 경우에도 바울이 정확히 어떤 것을 허용한다는 뜻인지 논란이 있지만 말입니다. 바울은 불신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를 버릴 경우 믿는 배우자는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고전 7:15)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화해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믿는 아내 혹은 남편의 충실함과 화평을 믿지 않는</p>

¹⁶ Acts of Synod 1980, p. 477.

reminds the believing wife or husband that God may use his or her faithfulness and peace as a means of saving the unbelieving spouse (7:16).	배우자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7:16).
3. The ultimate meaning of marriage	3. 결혼의 궁극적 의미
All of this is evidence enough that Paul, like Jesus, took marriage seriously as an institution established by God at creation. However, in one respect Paul went beyond Jesus, and even beyond the Old Testament, in articulating the supreme significance of marriage. Building, perhaps, on the Old Testament prophets' tendency to use marriage as a metaphor for God's relationship with his people, Paul argues that, as the report on marriage and divorce puts it, "What has happened in Christ unfolds the meaning of the creational institution of marriage." ¹⁷	이 모든 것은 예수님처럼 바울도 결혼을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세우신 제도로 중시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혼이 지니는 최고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을 넘어섰고 심지어 구약을 넘어섰습니다. 아마도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결혼을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메타포로 사용했던 것에 더해서 바울은 결혼과 이혼에 관한 보고서가 설명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것은 결혼이라는 창조의 제도의 의미를 드러낸다"고 주장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¹⁷
The context of Paul's declaration about the ultimate meaning of marriage is his instructions to husbands and wives in Ephesians 5:22-33. In a manner that was at most implied in the Old Testament, Paul appeals to the union between Christ and the church as a means of elevating the purpose and conduct of men and women within marriage. It is striking that he explicitly invokes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 and the church as the model for marriage in virtually every verse of this passage (see vv. 22, 23, 24, 25-27, 28-30, 31-32).	결혼의 궁극적 의미에 관한 바울의 선포의 맥락은 에베소서 5:22-33 에서 그가 남편과 아내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껏해야 암시된 정도였던 방식으로 바울은 결혼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목적과 행동을 향상시킬 수단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호소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결혼의 모델로 이 본문의 사실상 모든 구절에서 명백하게 언급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Paul writes that wives are to submit to their husbands as to the Lord, but he says a lot more about the ways in which husbands should love and serve their wives	바울은 아내들이 주께 하듯 각각의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썼지만 남편들이 그들의 아내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¹⁷ Ibid., p. 470.

<p>as Christ loved and served the church. Interestingly, Paul describes Christ's love for the church—the model of husbands' love for their wives—in terms of forms of service generally associated with the work of women or servants.</p>	<p>사랑하고 섬긴 것처럼 하라는 것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썼습니다. 흥미롭게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사랑-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의 모델-을 여성 혹은 하인의 일과 일반적으로 관련된 섬김의 형태로 묘사했습니다.</p>
<p>And yet, Paul does not invoke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 and the church as a mere analogy for marriage. In one of the most profound comments on marriage found in Scripture, he points to a meaning of marriage deeper than that found in creation itself, though ultimately foreshadowed from creation. Speaking of Christ's love for the church as a model for a husband's love for his wife, Paul writes, "For we are members of his body. 'For this reason a man wi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be united to his wife, and the two will become one flesh.' This is a profound mystery—but I am talking about Christ and the church" (Eph. 5:30-32).</p>	<p>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단순히 결혼의 유추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결혼에 관해 가장 의미심장하게 언급된 한 부분에서 바울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창조 때부터 복선이 깔린 것이지만, 창조 그 자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결혼에서 찾습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의 모델로써 바울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5:30-32).</p>
<p>The report on divorce and remarriage summarized the point this way: "The basic purpose of God for marriage was especially illumined and enriched by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The apostle Paul declares that the creational institution of marriage, which affirms that husband and wife become one flesh (Eph. 5:31), contains a mystery (Eph. 5:32). This mystery has now been revealed in the union of Christ and his church. . . . Thus marriage is fully understood and achieves its deepest meaning only when it reflects this spiritual union of Christ and his church."¹⁸</p>	<p>이혼과 재혼에 관한 보고서는 핵심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드러나고 풍성해집니다. 사도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됨 (엡 5:31)을 입증하는 결혼이라는 창조의 제도가 신비를 담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연합 안에서 이제 드러났습니다...그러므로 결혼은 그 가장 깊은 의미를 그리스도와 그의 결혼의 영적 연합을 통해서 가장 잘 이해되고 성취될 수 있습니다." ¹⁸</p>

¹⁸ Ibid., p. 469.

<p>The report rightly explains the meaning of the word <i>mystery</i> in the context of Paul's other uses of the word in the letter to the Ephesians. In Ephesians 1:9-10 Paul writes that God has "made known to us the mystery of his will according to his good pleasure, which he purposed in Christ, to be put into effect when the times reach their fulfillment—to bring unity to all things in heaven and on earth under Christ." By <i>mystery</i>, the 1980 report explains, "Paul refers to that which was not previously known or fully known but which has now been revealed in Jesus Christ."¹⁹</p>	<p>이 보고서는 비밀(mystery)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바울이 에베소서 1:9-10 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썼습니다. 1980 보고서는 "바울은 비밀이라는 단어를 예전에는 알 수 없었거나 온전히 알지 못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고 설명합니다.¹⁹</p>
<p>The word appears again in Ephesians 3:3-4, 6, 9. Paul refers to "the mystery made known to me by revelation . . . which was not made known to people in other generations as it has now been revealed by the Spirit to God's holy apostles and prophets . . . that through the gospel the Gentiles are heirs together with Israel, members together of one body, and sharers together in the promise in Christ Jesus" (3:3-6). Here again the word <i>mystery</i> refers to something that was for a long time not understood but that was finally revealed through the gospel. And here again the mystery points to God's purpose of bringing unity out of division, in this case unity between Jews and Gentiles in the one body of Christ.</p>	<p>이 단어는 에베소서 3:3-4, 6, 9 장에서 각각 또 나옵니다. 바울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3:3-6). 여기서 다시 한 번 비밀이라는 단어는 오랜 시간 동안 밝혀지지 않았다가 드디어 복음을 통해 드러난 무언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밀은 분열 가운데에 연합을 가져오시려는, 이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이끌어내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시사합니다.</p>
<p>Against this background, it is impossible not to see the same theme in Ephesians 5. Here again we have two different things being brought together in a unity that is</p>	<p>이러한 배경 속에서 에베소서 5 장의 동일한 주제를 못 본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어떤 특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연합되는 것을</p>

¹⁹ Ibid.

<p>identified in a certain sense with the body of Christ. “For we are members of his body. ‘For this reason a man wi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be united to his wife, and the two will become one flesh.’ This is a profound mystery—but I am talking about Christ and the church” (5:30-32).</p>	<p>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5:30-32).</p>
<p>The mystery, then, is that in the union of male and female in marriage, described in Genesis 2:24, God intended to reveal something about his purpose of uniting humanity with Christ. People could not have known this before it was revealed through Christ, but now it has been revealed. And now believers are called to practice this meaning in their marriages. As the 1980 report puts it, “By ‘mystery’ Paul means that in Genesis 2:24 lies an unknown or not fully known intention of God which is now revealed in the relationship of Christ and his church. . . . Thus in the relationship (or marriage) of Christ to his people, <i>God actually fulfills the basic goal or purpose of the institution of marriage</i>”²⁰ (emphasis added).</p>	<p>그렇다면 창세기 2:24 에서 묘사하는 결혼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라는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하나님의 목적에 관한 무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려고 의도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지 않고서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자들은 그들의 결혼을 통해서 이 의미를 살아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980 년 보고서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란 창세기 2:24 에서 알려지지 않았거나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관계 안에서 드러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 (혹은 결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이나 목표를 사실상 성취하신 것이다.”²⁰ (강조는 편집자의 첨가)</p>
<p>It is therefore no accident that in its culminating passages the New Testament describes the ultimate union of God with his people as a wedding feast. John describes the new Jerusalem as “a bride beautifully dressed for her husband,” Christ (Rev. 21:2). The angel describes the city descended from heaven as “the bride, the wife of the Lamb” (21:9). Outside that city, John tells us, are “the sexually immoral, the murderers, the idolaters and</p>	<p>따라서 신약 성경의 절정이 되는 본문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연합을 혼인 잔치로 묘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은 새예루살렘을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계 21:2)로 묘사합니다. 천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을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묘사합니다 (21:9). 요한은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22:15)는 다 성 밖에</p>

²⁰ Ibid., p. 470.

<p>everyone who loves and practices falsehood” (22:15). Indeed, “the Spirit and the bride say, ‘Come!’” (22:17), because they know that this is the wedding for which human beings were created, and for which they have been yearning all along.</p>	<p>있다고 기록합니다. 정말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22:17)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혼인은 인간이 창조된 이유이며 인간이 오랜 시간 바래왔던 것임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p>
<p>This truth is of the profoundest significance for a biblical theology of sexuality and marriage. God’s creation of human beings in his image as male and female (Gen. 1:27) was designed to point toward his ultimate purpose for human beings in communion with God in Christ. Thus sexuality was designed all along to reflect this communion. Marriage itself will pass away, but its ultimate meaning will endure in the kingdom and family of God. One need not be married in this life in order to enjoy this ultimate reality.</p>	<p>이 진리는 성과 결혼에 대한 성경적 신학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 (창 1:27)은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성은 이 연합을 반영하기 위해서 온전히 만들어진 것입니다. 결혼 그 자체는 없어질 것이지만 그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와 가족 가운데 영원할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현실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이 이 땅에서 반드시 결혼할 필요는 없습니다.</p>
<p>As the 1980 report puts it, “Scripture indicates that marriage is not necessary as a Christian obligation, nor is it necessary for personal fulfillment. All that is necessary for discipleship and fulfillment is membership in the family of God by which one participates in the marriage between Christ and his church.”²¹ It might even be said that those who choose the path of celibacy for the sake of the kingdom, such as Jesus and Paul, are able to anticipate this ultimate reality in a particularly focused way (1 Cor. 7:32-35).</p>	<p>1980 년 보고서는 “성경은 결혼이 기독교인의 의무이거나 개인의 성취로써 필수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제자도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사이의 결혼에 참여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²¹ 예수님과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독신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은 특별히 흐트러짐이 없이 이 궁극적인 현실을 기대할 수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고전 7:32-35).</p>
<p>This does not mean that marriage and family are in any sense less worthy of Christians. It does mean, however, that they find their “highest goal and ultimate</p>	<p>이는 결혼과 가정이 기독교인에게 가치가 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가장 높은 목표와 궁극적인 의도”를 “하나님의 가족의 확립과 복지”를 위해 섬기는 데에서 발견한다는</p>

²¹ Ibid., p. 471.

<p>purpose” in serving “the establishment and welfare of the family of God”; thus “marriage and family are not ends in themselves. When marriage and family become ends in themselves or serve only personal goals, they have become idols.”²² This serves as a rebuke to people who are tempted to view marriage as the best life for Christians. It likewise serves as a rebuke to those who are tempted to view marriage as an entitlement that cannot be withheld from those who desire it. It reminds us that marriage cannot be altered at human whim because it is a gift from God grounded in God’s purposes from creation and fulfilled in God’s purposes in Christ.</p>	<p>뜻입니다. 따라서 “결혼과 가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결혼과 가정 그 자체가 목적이거나 개인의 목적만을 달성하는 데에 그칠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²² 이는 결혼을 기독교인을 위한 최고의 삶으로 보게 하는 것에 유혹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보류할 수 없다는 근거로 삼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는 결혼이 인간의 변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라는 사실에 근거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p>
<p>IV. Note on science and general revelation</p>	<p>이 부분은 한국 사역팀의 결정에 따라 번역되지 않았습니다.</p>
<p>Our mandate includes “dialogue with, and potential critique of, untraditional conclusions arising from arguments about a new movement of the Spirit (e.g., Acts 15), as well as conclusions arising from scientific and social scientific studies” (<i>Acts of Synod 2016</i>, p. 920). In fulfillment of the second part of this point regarding scientific knowledge, we surveyed the available scientific evidence regarding various matters of sexuality addressed in the following sections (and in the appendices). Readers should note that our review and interpretation of the scientific evidence in the following sections of this report on pornography, gender identity, and homosexuality is not “objective” or “neutral” but, rather, viewed through the lenses of Scripture.</p>	

²² Ibid.

<p>In discussion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cience and biblical interpretation it is important to remind ourselves of the Reformed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of general and special revelation. As Article 2 of the Belgic Confession reminds us, God reveals himself in two ways: through his written Word and through creation. These two revelations of God, special and general, must be read in the light of one another, but <i>special revelation has a cognitive priority</i> because it is couched in human language that can be readily understood. To borrow a strikingly helpful image from John Calvin, the special revelation of Scripture functions as a pair of eyeglasses without which we cannot properly read the book of creation.</p>	
<p>In a landmark report to Synod 1972 on “The Nature and Extent of Biblical Authority” the matter is put plainly:</p>	
<p>In both creation and Scripture God addresses us with full authority. The conflicts that sometimes arise are due to discrepancies in our responses to these two modes of revelation. As Reformed Christians we must take both revelations seriously. Taking Scripture seriously leads to recognizing science as a legitimate expression of the cultural mandate. Therefore we must seek to profit from and make thankful use of the findings of science as seen in the light of Scripture. Motivated by these convictions we often discover that the results of scientific investigation become the occasion for reviewing and sometimes, upon further biblical reflection, even revising certain standing interpretations of the Bible. When in faithful obedience to God’s full-orbed revelation we are led to a re-evaluation of certain biblical data, we should not resist such insights as lead us to a clearer understanding of both Scripture and creation in their revelational unity.</p>	
<p>(Acts of Synod 1972, p. 540)</p>	

<p>This forthright acknowledgement of the value of science is then immediately followed by an equally forthright warning against giving science as much weight as Scripture:</p>	
<p>The church may not, however, allow its message to be made dependent upon the scientific enterprise, nor allow scientific findings to dictate its interpretation of the Bible, nor allow the claims of science to call into question its confession of biblical authority, nor allow any science, including theology, to determine what is believable and what is not believable in the Bible. For such concessions to science would mean reversing the right order of Christian thinking. Scripture itself is the lamp to our feet and the light upon our path as we walk through the various fields of academic inquiry.</p>	
<p>We find a similar balanced treat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aims of science and Scripture in the study report to Synod 1991 on “Creation and Science.” Against the reservations of Reformed theologians like G. C. Berkouwer, who was skeptical about linking science and general revelation, that report reaffirms that science (and human knowledge in general) can be understood as a legitimate cultural <i>response</i> to general revelation, but it warns against identifying the two. Instead it stresses that science itself is “at bottom a religious affair,” governed by presuppositions and control beliefs that may be quite alien to God’s revelation (<i>Agenda for Synod 1991</i>, pp. 374-76).</p>	
<p>Unfortunately, the mistaken idea that science can simply be equated with general revelation continues to appear in Reformed circles. We find a striking example in the Classis Grand Rapids East Study Report on “Biblical and Theological Support Currently Offered by Christian Proponents of Same-Sex Marriage.” It cites the above-mentioned 1972 report as follows: “Taking Scripture</p>	

<p>seriously leads to recognizing science as <i>a form of revelation given by God and</i> a legitimate expression of the cultural mandate” (<i>Acts of Synod 1972</i>, p. 540). Significantly, the words here italicized are not found in the original synodical report but were added to the original sentence (see classisgreast.org/wp-content/uploads/2016/07/ssmRevised.pdf, p. 43). To thus equate science with God’s revelation, thereby giving it divine authority, is a serious error and makes a mockery of the Reformation teaching concerning <i>sola Scriptura</i>.</p>	
<p>Rather than investing science with divine authority, it is better to stress that science is provisional, that its theories involve various levels of uncertainty, that its authority is that of the consensus of the scientific community, and that it focuses strictly on physical processes. These cautionary attributes of science are rightly stressed by the study report to Synod 2012 on “Creation Stewardship” (see <i>Agenda for Synod 2012</i>, pp. 292-94). If these qualifications apply to the physical sciences, they apply even more to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As Reformed Christians, we have long recognized—indeed, stressed—that science is not a religiously neutral affair. Although we may speak of a general revelation (and even divine authority) which comes through in the data and phenomena with which the sciences deal, those data and phenomena are to be sharply distinguished from the consensus theories that scientists develop about them.</p>	
<p>V. Pornography: Cultural context</p>	<p>V. 포르노그래피: 문화적 상황</p>
<p>A. <i>Current context</i></p>	<p>A. 현재의 상황</p>

<p>Pornography is widely used and accepted in contemporary North American culture. Comedians, TV shows, and films refer to online pornography as a normal part of everyday life. People can consume it in any private or public setting through phones or other small devices. Porn has become accessible, anonymous, and affordable.</p>	<p>포르노그래피는 현대 북미주 문화에서 흔하게 사용되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코미디언, TV 드라마, 영화는 인터넷 포르노그래피를 일상 생활의 정상적인 부분으로 취급합니다. 사람들은 핸드폰이나 휴대용 전자기기 등을 통해 사적 혹은 공적 상황에서 포르노그래피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포르노는 접근이 용이하고, 익명성을 보장하고,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p>
<p>Studies suggest that most men and growing numbers of women and children regularly use pornography. Empowered by staggering profits, the porn industry funds constant development of innovative and persistent lures to potential consumers, including unsuspecting children. Some free porn sites produce pop-up ads after viewers click on their links in order to turn new or casual users into regular viewers. Although children are often exposed to pornography without their own intent, by puberty many boys and some girls are regular pornography users. Although church attenders are less likely to use porn than the general population, porn has permeated the church. For example, in a 2016 Barna study, the majority of pastors reported being former or current porn users, most practicing Christians felt no guilt about their porn use, and few of those had made any attempts to stop using porn.²³</p>	<p>많은 연구들은 대부분의 남자와 점점 더 많은 수의 여자와 아동들이 정기적으로 포르노를 접한다고 밝힙니다. 엄청난 이윤에 탄력을 받아 포르노 산업은 혁신적이고 끈질기게 순진한 아동을 포함한 잠재적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데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몇몇 무료 포르노 사이트들은 시청자들이 그들 사이트의 링크를 클릭하면 팝업 광고를 뜨게 하여 새로운 혹은 캐주얼한 사용자들이 정기적인 시청자가 되게끔 유도합니다. 비록 아동들은 종종 전혀 의도하지 않게 포르노에 노출되지만 사춘기 연령이 되면 많은 남자청소년들과 몇몇 여자청소년들이 정기적인 포르노 사용자가 됩니다. 비록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에 비하면 포르노를 덜 사용하는 편이지만 포르노는 이미 교회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6 바르나 연구는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과거 혹은 현재 포르노 사용자들이라고 밝혔고, 대부분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포르노 사용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으며 그들 중 포르노 사용을 중지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²³</p>

²³ "Porn in the Digital Age: New Research Reveals 10 Trends," *Barna*, April 6, 2016; barna.com/research/porn-in-the-digital-age-new-research-reveals-10-trends.

As prevalent as porn usage is, so are the attendant painful or unjust consequences for virtually every segment of society. Pornography hurts everyone.	포르노 사용이 일반적인 만큼 이에 수반하는 고통스럽고 불의한 결과는 사실상 사회 모든 영역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포르노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What is pornography? The word itself comes from the Greek words <i>porne</i> (prostitute) and <i>graphein</i> (drawing or writing) and was used to describe words or pictures depicting prostitution. Many dictionaries define pornography as the portrayal of sexual activity with the design of producing sexual arousal. For example, the Oxford online dictionary defines pornography as “printed or visual material containing the explicit description or display of sexual organs or activity, intended to stimulate erotic rather than aesthetic or emotional feelings.”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note that artistic expressions or depictions of nudity are not necessarily pornographic.	포르노란 무엇입니까? 이 단어는 헬라어 포르네 (매춘)와 그라페인 (그리기 혹은 글쓰기)에서 왔으며 과거에는 매춘을 묘사하는 글이나 그림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많은 사전들은 성적인 흥분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의 성행위 묘사라고 포르노를 정의합니다. 예를 들면 옥스퍼드 온라인 사전은 포르노를 “미학적이거나 정서적인 느낌이 아닌 에로틱한 느낌을 자극하기 위하여 생식기관 혹은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 혹은 전시한 인쇄물 혹은 시각자료”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나체를 예술적으로 표현하거나 묘사한 것을 보통 포르노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ornography has evolved over the years, from the paintings, carvings, drawings, and literature of the ancient world to the photographs and films of the modern era. However, today's internet pornography is unique in several important ways.	포르노는 고대사회의 그림, 조각, 드로잉, 문학에서부터 현대 시대의 사진과 영화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 진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온라인 포르노는 여러 중요한 측면에서 독특합니다.
First, actual people engage in sexual activity with actual other people in online porn. Sexually explicit pornography—what used to be referred to as hardcore pornography—is now the standard, while less graphic material—once known as softcore pornography—surrounds us in ads, films, and TV shows. All such pornography commodifies human beings made in God's image. It entails the physical, emotional, and spiritual abuse of the women and men involved.	첫째, 온라인 포르노에서는 실제 사람들이 실제 다른 사람들과 성행위에 참여합니다. 한 때 소프트코어 포르노라고 알려졌던 덜 생생한 자료들은 광고, 영화, TV 드라마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한편, 한 때 하드코어 포르노라고 알려졌던 성적으로 노골적인 포르노는 이제 표준입니다. 이러한 모든 포르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상품화합니다. 그리고 이에 참여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육체적, 정서적, 영적인 학대를 수반합니다.

<p>Second, almost all online porn is sexualized brutality toward women. The most frequently watched online pornography is men using women (or women made to look like girls) and could best be described as sexual assault or torture.²⁴ Nearly all the most commonly viewed porn scenes contain physical abuse of a woman, including vomit-inducing oral sex, choking, and hitting, often with multiple men using one woman at the same time. Usually women are called vulgar names throughout. Rape is common, including child rape and incest themes, and women raped by animals.²⁵ Googling the phrase “rape porn” brings up more than 300 million results.</p>	<p>둘째, 거의 모든 온라인 포르노는 여성에 대한 성적인 폭력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온라인 포르노는 남자가 여자를 이용하는 내용이며 이는 성폭력 혹은 성고문으로 묘사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²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포르노 장면은 구토를 유발하는 구강 성교, 질식, 구타 및 다수의 남자가 한 여자를 동시에 강간하는 등 여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담고 있습니다. 포르노에서 보통 여자는 저속한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아동 성폭행, 근친상간, 짐승에 의해 강간당하는 여자 등을 포함하여 강간이 흔한 주제입니다.²⁵ “강간 포르노”를 구글에 치면 3 억개가 넘는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p>
<p>Third, online pornography reinforces racist stereotypes. Porn users can order the kind of woman they want based on her ethnicity, bodily characteristics, and hair color. Women of various ethnicities are referred to with the crudest of racial slurs and depicted acting out racist tropes. Black men are filmed enacting racially stereotypical violence against women.</p>	<p>셋째, 온라인 포르노는 인종적 고정관념을 강화시킵니다. 포르노 사용자들은 여자의 인종, 신체적 특징, 모발 색상에 기반해서 그들이 원하는 여자의 종류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의 여자들은 저속한 인종적 은어와 인종주의자의 비유에 반항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흑인남자들은 인종적 고정관념에 따라 여자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역할을 하는 주체로 등장합니다.</p>
<p>Fourth, online pornography is designed to create habitual users. Although porn addiction is not a recognized addiction by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ddiction treatment centers report increased numbers of clients seeking help for compulsive porn use. Psychiatrist and researcher Norman Doidge explains part of what happens when we watch porn:</p>	<p>넷째, 온라인 포르노는 습관적 사용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비록 포르노 중독이 미국 심리학 협회가 인정하는 중독은 아니지만 중독치료센터들은 상습적인 포르노 사용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고객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연구원인 노먼 도릿지는 우리가 포르노를 시청할 때 일어나는 현상의 일부를 설명합니다:</p>

²⁴ A.J. Bridges, R. Wosnitzer, E. Scharrer, C. Sun, and R. Liberman (2010), “Aggression and Sexual Behavior in Best-selling

Pornography Videos: A Content Analysis Update,” *Violence Against Women*, 16. 16,16.1065-1085; DOI: 10.1177/1077801210382866.

²⁵ Ibid.

<p>Pornography, by offering an endless harem of sexual objects, hyper-activates the appetitive system. Porn viewers develop new maps in their brains based on the photos and videos they see. Because it is a use-it-or-lose-it brain, when we develop a map area, we long to keep it activated. Just as our muscles become impatient for exercise if we've been sitting all day, so too our senses hunger to be stimulated. . . . The men at their computers compulsively looking at porn are uncannily like the rats (fitted with brain-stimulating electrodes) pressing the bar to get a shot of dopamine or its equivalent. Though they don't know it, they have been seduced into pornographic training sessions that meet all the conditions required for plastic change of their brains' maps.²⁶</p>	<p>포르노는 끝없는 성적 대상, ...포르노 시청자의 두뇌에서는 그가 본 사진과 영상에 근거해서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 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두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의 영역을 발전시킬 때 우리는 이를 계속해서 가동시키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우리 몸의 근육이 운동을 하고 싶어서 참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감각도 자극을 받고 싶은 욕망에 굶주리게 됩니다...컴퓨터 앞에 앉아서 강박적으로 포르노를 보고 있는 남성들은 신기하게도 도파민 주사 혹은 그에 상응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스크롤 막대를 누르는 쥐(전기자극을 받는 두뇌를 가진)와 같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두뇌 지도의 조형 변화를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춘 포르노 훈련 세션으로 유인당하고 있는 것입니다.²⁶</p>
<p>Fifth, pornography is a multibillion dollar industry and also fuels other industries. The industry monetizes free porn with ads for paid websites and by selling email addresses to spammers and others. Deriving enormous revenues from pornography, many persons and institutions have a vested interest in keeping the profit machine healthy. They shape not only the sexual practices of our culture, but our politics and law as well.²⁷</p>	<p>다섯번째, 포르노는 수십 억 달러 가치의 산업이며 다른 산업들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포르노 산업은 공짜 포르노에 광고를 붙여 유료사이트처럼 운영하고 스팸메일 전송업자들과 기타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포르노로부터 어마어마한 이익을 끌어 내어 많은 사람들과 기관들이 이익을 창출하는 기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득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문화의 성관습을 형성할 뿐 아니라 우리 정치와 입법에도 영향을 끼칩니다.²⁷</p>
<p>Christopher,* 20 (white): "Even though I started using porn so compulsively and regularly that I was in physical pain, I didn't stop. The university health center psychologist and the campus pastor I approached wanted to make sure I did not feel guilty</p>	<p>크리스토퍼* (20 세, 백인): "저는 포르노를 너무 충동적이고 정기적으로 사용한 것 때문에 신체적 고통에</p>

²⁶ Norman Doidge, *The Brain That Changes Itself* (London: Viking, 2007), p. 80.

²⁷ Gail Dines. *Pornland: How Porn Has Hijacked Our Sexuality* (Boston: Beacon Press, 2010), p. 51. See also Sheila Jeffreys, *The*

Industrial Vagina: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Global Sex Trade (London: Routledge, 2009), pp. 62-75.

about my porn use. I told them what I really wanted was help quitting.”	시달렸는데도 포르노를 끊지 않았습니다. 대학 보건 센터 심리 상담가와 캠퍼스 목사님께 갔더니 그분들은 제가 포르노 사용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애쓰셨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포르노를 끊을 수 있는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B. Effects of pornography	B. 포르노그래피의 영향
1. Harms to women filmed	1. Harms to women filmed 촬영된 여성에게 끼치는 해악
Most women filmed in the pornography industry do so for no more than six months to a year, often because of the great damage done to their bodies. ²⁸ Because of the no-condom industry standard, these women routinely contract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including in the mouth and eyes, and develop dental abscesses. They experience tearing of tissues and damage to joints in necks, backs, and knees due to painful positions during the sex acts. ²⁹	포르노 영화에 촬영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6개월~1년 정도 이 산업에 종사하는데 종종 그 이유는 몸에 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²⁸ 콘돔 사용을 하지 않는 업계이기 때문에 이 여성들은 입, 눈, 치아 농양 등 일상적으로 성병에 걸립니다. 이 여성들은 성관계 행위 중의 고통스러운 동작 때문에 조직이 찢어지기도 하고 목 관절, 등, 무릎 등에 상해를 입습니다. ²⁹
The reputations and job prospects of women used in pornography are jeopardized because images of their faces and bodies are publicly available online. They are sexually harassed and bullied. They experience severe emotional trauma, includ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포르노에 사용된 여성의 평판과 직업 전망은 위태롭게 됩니다. 그들은 성적으로 희롱당하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이 심각한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경험합니다. 우울증과 기타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습니다. 포르노에 사용된 많은

²⁸ Eric Jay, “Gonzo: Taking a Toll,” XBIZ News; Sept. 10, 2007; xbiz.com/features/83870/gonzo-taking-a-toll. See also Ashley Soley-Cerro, “Former Porn Star and CSUN student Jennie Katcham Discusses”; Mar. 13, 2013, Sundial; sundial.csun.edu/staff_profile/ashley-soley-cerro/

²⁹ As recounted by various porn industry survivors. See Jenna Jameson, *How to Make Love Like a Porn Star: A Cautionary Tale* (New York: It Books, 2004).

<p>They suffer from depression and other mental illnesses.³⁰ Many women used in porn report abusing drugs and alcohol to cope with the trauma. Some die prematurely from suicide and drug overdoses.³¹</p>	<p>여성들은 트라우마에 대처하기 위해서 약물 및 알코올을 남용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³⁰ 몇몇 여성들은 자살이나 약물 과다 복용으로 너무 이른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³¹</p>
<p>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pornography and human trafficking. The pornography industry exploits women made vulnerable by homelessness, sexual abuse, and trafficking. Those used in porn are often themselves prostituted. When children are groomed for prostitution, porn is used to break down their resistance. Prostituted women and youth are taught to perform the acts buyers will expect of them by watching porn. To coerce prostituted people to remain in the industry or to advertise their services, pimps often make pornography of those they prostitute. Prostituted girls and women report that men ask them to replicate porn scenes with them when their partners will not.³²</p>	<p>또한, 포르노그래피와 인신매매의 밀접한 상관관계에 주목해야 합니다. 포르노 산업은 노숙, 성폭행, 인신매매 등으로 취약한 여성들을 착취합니다. 포르노에 출연하는 여성들은 종종 매춘도 합니다. 어린이들이 매춘에 준비되면서 성장하면 포르노는 그들의 저항 기제를 허무는 역할을 합니다. 매춘 여성과 소녀들은 포르노 시청을 통해서 그들의 몸을 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성행위 동작들을 배웁니다. 매춘부들을 계속해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그들의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해서 매춘 알선업자들은 종종 자신들이 고용한 매춘부들이 나오는 포르노 영상을 직접 제작하기도 합니다. 매춘 소녀와 여성들은 남성들이 자신들의 파트너가 해주지 않는 포르노 장면에 나오는 성행위를 요구한다고 보고합니다.³²</p>
<p>In its essence, internet pornography is filmed prostitution and commodified sexual violence. The sex traffickers and pornography producers actually commit the crimes, but pornography is created to satisfy the demands of its consumers. Our pornography use directly supports the exploitation of the vulnerable women who are abused by it, even though it may cost us nothing, because ads pay</p>	<p>요컨대, 온라인 포르노는 촬영된 매춘이며 상업화된 성폭력입니다. 성적 인신매매와 포르노는 제작자들은 사실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지만 포르노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는 돈이 없고 광고가 돈을 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포르노 사용은 그 포르노에 의해 학대를 당하는 취약한 여성들을 착취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³³</p>

³⁰ Seiya Morita, "Pornography, Prostitution, and Women's Human Rights in Japan," *Not For Sale*, ed. Christine Stark, Rebecca Whisnat (North Melbourne, Victoria: Spinifex, 2004), p. 69. See also Melissa Farley, "Prostitution, Trafficking, and Traumatic Stress," *Woman and Health*, 3 (1997); doi.org/10.1300/J189v02n03_a.

³¹ Sheila Jeffreys, *The Industrial Vagina: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Global Sex Trade* (London: Routledge, 2009), p. 30.

³² Melissa Farley, "Prostitution, Trafficking, and Traumatic Stress," *Woman and Health*, 3 (1997); doi.org/10.1300/J189v02n03_a.

for it. ³³	
2. Harms to children	2. 아동에게 끼치는 해악
<p>The average child sees internet pornography for the first time by age 13. Many are exposed to it much earlier than that. Often this first exposure is unintentional on the part of children. According to one commonly cited study, 70 percent of children ages 7 through 18 have accidentally stumbled on pornography online. Reports from psychotherapists, teachers, childcare workers, and other professionals report the impact of children's use of pornography. Preschool-age children have been observed acting out pornographic videos, and children not much older are discovered downloading pornographic materials in libraries. Increasing numbers of children are asking for help.</p>	<p>아동들이 평균 13 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포르노를 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에 접하기도 합니다. 첫 노출은 아이 입장에서는 보통 뜻하지 않은 경우일 때가 많습니다. 많이 인용되는 한 연구에 의하면 7 세부터 18 세까지의 아동 중 70%가 우연히 포르노 사이트를 우연히 발견했다고 합니다. 심리치료자, 보육시설 근로자 및 기타 전문가들의 연구 보고서들이 아동들의 포르노 사용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연령의 아동들이 포르노 영상에 반응하고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아동들이 도서관에서 포르노 영상물을 다운로드 하는 것들이 발견되어 왔습니다. 점점 더 많은 수의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p>
<p>When a boy keys in the word <i>porn</i>, he does not expect the images we have just described. Since on-screen women appear to enjoy the violent domination in porn, boys assume that it is an ordinary part of good sex. They think pornography reflects what women want done to them.</p>	<p>남자아이가 porn 이라는 단어를 검색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한 이미지들이 검색 결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영상 속의 여성이 폭력적인 지배를 당하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남자 어린이는 이것이 좋은 성관계의 일상적인 부분이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포르노가 성관계에서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바라는 것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p>
<p>One therapist observed that pornography "doesn't show how a real couple negotiates conflict or creates intimacy" but too often is "rape-like . . . a brutal</p>	<p>한 치료사는 포르노가 "실제의 커플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는지 보여주지 않고" 하지만 너무나 자주 "성폭행 같은... 잔인한 방식으로 성을 소개한다" 고 관찰했습니다.³⁴ 존</p>

³³ Ann Simonton, "Who Are Women in Pornography?" *Not For Sale*, pp. 352-61.

way to be introduced to sexuality.” ³⁴ As John Foubert puts it, “porn teaches boys to hit girls and tells girls they should like it.” ³⁵	푸베르는 “포르노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때리고 여자들에게 그것을 좋아하라고 말하라고 가르친다” 고 말했습니다. ³⁵
Increased interest in child porn and child prostitution puts all children at risk. Pediatricians describe a new phenomenon of preteen girls needing anorectal surgeries because boys are doing to them what they see in pornography. And pornography is used by children in assaults of other children. ³⁶ A meta-analysis of 22 studies between 1978 and 2014 from seven different countries concluded that pornography consumption i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likelihood of committing acts of verbal or physical sexual aggression, regardless of age. ³⁷	아동 포르노와 아동 매춘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는 것은 모든 아동들을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소아과 의사들은 남자아이들이 포르노에서 본 대로 여자 아이들에게 하는 바람에 사춘기 직전의 여아들이 항문직장 수술을 받는 새로운 현상이 있다고 전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보는 포르노는 다른 아이들을 성폭행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³⁶ 1978년부터 2014년까지 7 개의 국가에서 행해진 22 개의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은 연령과 관계없이 포르노 소비가 언어적, 신체적, 성적 공격을 실제로 행하게 하는 가능성을 상당히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³⁷
3. Harms to girls and women	3. 소녀와 여성에게 끼치는 해악
Boys who are used to pornography pressure girls into sending them nude photos. Girls and young women are pressured into participating in amateur pornographic videos. These photos and videos are then published online, where they are permanently accessible to the public, causing untold emotional, spiritual, and physical harm.	포르노를 시청하는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압력을 줍니다. 여자아이들과 젊은 여성들은 아마추어 포르노 영상에 출연하도록 압력을 받습니다. 이러한 사진과 비디오들은 영속적으로 대중들이 볼 수 있는 온라인에 업로드 되어 말로 다할 수 없는 정서적, 영적, 신체적 해를 끼칩니다.

³⁴ Quoted in *The Social Costs of Pornography: A Statement of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Princeton, N.J.: Witherspoon Institute, 2010), p. 29.

³⁵ John D. Foubert, “The Public Health Harms of Pornography: The Brain, Erectile Dysfunction, and Sexual Violence,” *Dignity: A Journal on Sexual Exploitation and Violence*, Vol. 2: Iss. 3, Art. 6 (2017); DOI: 10.23860/dignity.2017.02.03.06

³⁶ Bridges, et al.

³⁷ Paul J. Wright, Robert S. Tokunaga, and Ashley Kraus, “A Meta-Analysis of Pornography: Consumption and Actual Acts of Sexual Aggression in General Population Studies,” *Journal of Communication*, Feb. 2016, pp. 183-205; 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111/jcom.12201

<p>Porn fosters and nurtures a culture of rape and sadomasochism. Pornography tells the lie that women like to be debased or even assaulted, and that women should take whatever they are given. Girls and women are surrounded by pornographic images and by boys and men using porn on their devices. In this context, sadomasochistic books and movies such as the <i>Twilight</i> and <i>50 Shades of Grey</i> series have become mainstream among preteens, teenagers, and adults.</p>	<p>포르노는 성폭력과 가학피학성 성애를 증진시키고 양성합니다. 포르노는 모독당하고 폭행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며 여성은 어떤 대우든지 주어지는 대로 받아야 한다는 거짓을 퍼뜨립니다. 여자아이와 여성은 포르노 이미지에 둘러싸여 살며 자신들의 기기에서 포르노를 시청하는 남자아이와 남성들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와일라잇 및 그레이의 50 가지 그림자 시리즈 등의 가학피학성 성애적인 책과 영화들은 사춘기 직전의 아이들과 십대 청소년들 및 어른들 사이에서 주된 인기를 끄니다.</p>
<p>When a man hits a woman in pornography, she typically responds with pleasure or has no response at all.³⁸ Since women in pornography usually appear to happily consent to the abuse they endure, boys and men expect the same from their partners. And because women in pornography are raped or are assaulted without their consent, men assume that a woman's no doesn't actually mean no. Thus girls and women feel pressure to agree to all manner of destructive sexual behavior.</p>	<p>포르노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릴 때 여자는 전형적으로 쾌락을 느끼는 반응을 보이거나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³⁸ 포르노에 나오는 여자들은 보통 그들이 건디는 학대에 흔쾌히 동의를 하기 때문에 남자아이들과 남자들은 그들의 파트너로부터 똑같은 반응을 기대합니다. 또한, 포르노의 여자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성폭행이나 강간을 당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여자들의 거절이 진짜 거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자아이와 여자들은 온갖 종류의 파괴적인 성행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p>
<p>The frequency of sexual harassment, sexual assault, and rape on university campuses reveals a climate of sexual violence in which pornography plays an important role. All too often women are not believed when they make claims of sexual assault, as was painfully revealed by the #MeToo movement. In fact, when women make allegations of rape, the spotlight typically turns on them instead of on the man who assaulted them.</p>	<p>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 및 강간의 빈도수는 포르노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폭행의 풍조를 드러냅니다. 미투 운동처럼 고통스러운 폭로처럼, 종종 여성들은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관심은 공격한 남성이 아닌 여성에게로 쏠립니다.</p>

³⁸ Bridges, et al.

<p>A rapidly growing percentage of girls and young women now consume pornography alone or are asked to do so by their male partners. Yet whether or not girls use porn, repeated exposure to hypersexualized messages and images leads them to objectify themselves, making them more vulnerable to depression and anxiety, self-harming behaviors, and shame. Such images tell girls they should be thin, made up, have hairless bodies, and always be polished and groomed. If a girl finds herself differing from the “ideal” image, which most girls and women do, she may develop anxiety or hatred toward her own body. They suffer from depression, anxiety, bulimia, anorexia, and other mental and bodily disorders.³⁹</p>	<p>급격히 증가하는 수의 여자아이들과 젊은 여성들이 이제 포르노를 혼자 시청하거나 남자 파트너로부터 보라고 권유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포르노를 보든 보지 않든 과도하게 성적인 메세지와 이미지들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스스로를 대상화하게 되고 우울, 불안감 및 수치심을 쉽게 느끼고 자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여자아이들에게 날씬해야 하고, 철저히 꾸며야 하고, 몸에는 털이 없어야 하고 언제나 광채가 나고 손질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여자아이들과 여성들이 느끼듯이, 만약에 여자 아이가 스스로를 “이상적인” 이미지와 다르다고 느끼면 불안 혹은 자신의 몸에 대한 증오를 키워가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성들은 우울, 불안, 식욕 이상 항진증, 거식증 및 기타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겪습니다.³⁹</p>
<p>Use of pornography is also correlated with greater insecurity among women with respect to their relationships and sexual activity. It reduces sexual satisfaction and promotes loneliness. The large numbers of rapes on campuses and the high incidence of hook-ups demonstrate both a climate of sexual violence toward women and an inability to have real-time physical-space intimacy and connection with their male peers, many of whom are using pornography.⁴⁰</p>	<p>포르노 소비는 또한 여성들이 관계와 성생활에 대해 느끼는 더 큰 불안감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성적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고독감을 증대시킵니다. 캠퍼스에서 발생하는 많은 강간 사건과 처음 만난 사이에서 성관계를 맺는 높은 확률은 여성에 대한 성폭행의 환경과 여성들이 실시간으로 물리적 공간에서 대부분은 포르노를 시청하는 남자 파트너들과의 친밀감 및 유대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⁴⁰</p>
<p>Now married and the father of a young son, Cameron,* 40 (white), talks openly about his eureka moment. Cameron became a porn user in his early teens but didn’t like how it affected his relationships, sexual abilities, and fantasies.</p>	<p>지금은 결혼해서 어린 아들의 아버지로 살고 있는 카메론* (40 세, 백인)은 본인의 깨달음의 순간에 대해</p>

³⁹ D.E. Levin and J. Kilbourne, *So Sexy So Soon: The New Sexualized Childhood and What Parents Can Do to Protect Their Kids* (New York: Ballantine, 2008), pp. 155-56.

⁴⁰ Mark Regnerus, *Cheap Sex: The Transformation of Men, Marriage, and Monogam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Still, he couldn't seem to stop. Then his church community started seeking justice for trafficked women. "When I realized that the women I was watching are real people whose bodies are damaged by the violent treatment in most porn, I started advocating with women, for women. And quitting using porn was much easier. Once I understood that I was buying an on-screen prostitute (although it was free), my whole mindset changed."</p>	<p>공공연하게 말합니다. 카메론은 십대 초반의 나이에 포르노 사용자가 되었고, 포르노가 그의 관계, 성적 능력, 판타지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끊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교회 공동체가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들을 위한 정의를 찾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던 대부분의 포르노에 나오는 여성들이 폭력적인 취급을 당해서 몸에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여성들과 함께 여성들을 위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자 포르노를 끊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제가 사는 것이 화면 속 매춘부들이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비록 공짜였을지라도), 저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p>
<p>4. Harms to boys and men</p>	<p>4. 소년과 남성에게 끼치는 해악</p>
<p>Boys who are in the court system because they have sexually harassed or assaulted another child are more likely to have been porn users.⁴¹ A substantial body of research on youth and adults shows that the visual combination of sexual arousal and violence raises the risk of misogynist attitudes and behaviors more than either of these alone.⁴²</p>	<p>다른 아이들을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폭행한 것 때문에 구속된 남자아이들은 대부분 포르노를 시청해 온 아이들입니다.⁴¹ 청소년 및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성적 흥분과 폭행의 시각적인 조합은 이 둘 중 하나에만 노출되었을 때보다 여성을 혐오하는 태도나 행동들을 유발할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⁴²</p>

⁴¹ *The Social Costs of Pornography: A Statement of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Princeton, N.J.: Witherspoon Institute, 2010), p. 30.

⁴² Neil Malamuth and Edward Donnerstein, eds., *Pornography and Sexual Aggression* (New York: Academic Press, 1984).

<p>Boys exposed to pornography from a young age are more likely to have attitudes that support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against women. They have decreased empathy for rape victims, increasingly aggressive behavioral tendencies, and are more likely to pressure their partners to engage in the sort of harmful, painful, degrading, and aggressive sex they see in pornography. They experience difficulty in developing intimate relationships, develop sexual preoccupation and compulsive internet use, and have increased levels of erectile dysfunction. They experience anxiety, depression, and low self-esteem. They struggle more in school.⁴³</p>	<p>어린 나이부터 포르노에 노출된 남자아이들은 여성들에 대한 성희롱 및 성폭행을 지지하는 태도를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들은 강간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능력이 떨어지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도 증가하며 그들이 포르노에서 본대로 해롭고 고통스러우며 모멸적이고 공격적인 성관계를 하도록 파트너를 압박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들은 친밀한 관계를 세워가는 것을 어려워하고 성적 집착이 강하고, 충동적인 인터넷 사용을 하고, 발기부전을 겪는 확률이 높습니다. 불안, 우울증 및 낮은 자존감을 겪으며 학교 생활도 잘 따라가지 못합니다.⁴³</p>
<p>Gail Dines, a leading scholar of pornography, recounts the anxiety she hears from young men who recognize how pornography has shaped the way they think about sex. "Porn users are caught in the cross-hairs of this predatory industry, one that has a huge financial stake in habituating them to a product that dehumanizes all involved."⁴⁴ According to prominent psychiatrist Norman Doidge, the release of dopamine in sexual excitement causes users to crave porn. Doidge argues that as tolerance to sexual excitement develops, it no longer satisfies. Only by releasing an aggressive drive, can the regular porn user be excited.⁴⁵</p>	<p>포르노에 관해서 중진 학자인 개일 다인스는 포르노가 어떻게 성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형성하는지를 깨달은 젊은 남성들로부터 들은 불안감을 이야기했습니다. "포르노 사용자들은 거기 관계된 모든 이들을 비인간화시키는 포르노로 길들여서 막대한 재정적 이득을 취하는 포식자의 마수에 걸려 있습니다."⁴⁴ 저명한 정신과 의사인 놀먼 도이지에 의하면 성적 흥분시 발생하는 도파민 분비는 사용자들이 포르노를 강력하게 원하도록 만듭니다. 도이지는 성적 흥분에 대한 내성이 증진될 때, 더 이상 만족은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공격적인 구동장치가 작동되어야만 정기적인 포르노 사용자들이 흥분할 수 있습니다.⁴⁵</p>
<p>While doctors report that in the 20th century</p>	<p>20 세기에는 40 세 이하 남성들의 발기부전은 사실상 들어본</p>

⁴³ "Is Internet Pornography Causing Sexual Dysfunctions? A Review with Clinical Reports," Brian Y. Park, Gary Wilson, Jonathan Berger, Matthew Christman, Bryn Reina, Frank Bishop, Warren P. Klam, and Andrew P. Doan, 10.3390/bs6030017; "The Impact of Internet Pornography on Adolescents: A Review of the Research," Eric W.

Owens, Richard J. Behun, Jill C. Manning, and Rory C. Reid, 10.1080/10720162.2012.660431

Pages 99-122 | Published online: 09 Apr 2012.

⁴⁴ Gail Dines, xi-xii.

⁴⁵ Norman Doidge, *The Brain's Way of Healing* (New York: Penguin, 2007), pp. 102-24.

<p>erectile dysfunction was virtually unheard of for men under 40, current studies show at least 30 percent of 15- to 40-year-old men experience erectile dysfunction. Dependent on arousal via technology, young men are increasingly unable to have real intimacy with women.⁴⁶ Like their female cohorts, they struggle with loneliness and an inability to enter into committed, sexual relationships.</p>	<p>적이 없다고 의사들이 보고했던 반면에 현재 연구들은 최소 30 퍼센트의 15-40 세 남성들이 발기부전을 경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술에 의존한 흥분을 하는 젊은 남성들은 급격히 여성들과의 진짜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⁴⁶ 또래 여성들이 겪는 것처럼 그들도 외로움과 서로 헐신하는 성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p>
<p>Although Ryan,* 34 (Chinese Canadian), tried to obey God in his sexuality by not having sex before marriage, he developed a serious pornography habit. A parachurch ministry helped him reduce his pornography use, but it was not until his church exposed him to the link between pornography and human trafficking that he understood what porn really was. Years later, when his pastor asked in premarital counseling about pornography's impact on him, Ryan responded, "I had to realize [that] what was going on [in] porn wasn't real. That those scenes are not actually what sex normally looks like or what a woman wants."</p>	<p>비록 라이언* (34 세, 중국계 캐나다인)은 혼전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을 통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지만 심각한 포르노 습관에 빠져버렸습니다. 선교단체의 도움으로 포르노 사용을 줄일 수 있었지만 그가 다니는 교회를 통해 포르노와 인신매매의 상관관계를 보고 나서야 포르노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 년이 지난 뒤 그의 목사님이 혼전 상담에서 포르노가 그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질문했을 때, 라이언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포르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 장면들은 보통 성관계의 모습이 아니거나 여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p>
<p>5. Harms to marriages</p>	<p>5. 결혼에 끼치는 해악</p>

⁴⁶ John Foubert, "The Public Health Harms of Pornography."

<p>The destructive effects of pornography extend to married relationships as well. As early as 2003, in a survey of several hundred U.S. divorce lawyers, 62 percent reported that the internet had been a factor in the divorces they had handled that year. More specifically, an average of 56 percent of their divorce cases involved one party (almost always the husband) having an obsessive interest in pornographic websites.⁴⁷ According to the president of the American Academy of Matrimonial Lawyers, until the late 1990s, “pornography played almost no role in divorces. Today there are a significant number of cases where it plays a definite part in marriages breaking up.”⁴⁸</p>	<p>2003 년에 수백명의 미국 이혼전문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2%가 그 해에 그들이 처리한 이혼 사건들에 인터넷이 한 요소였다고 밝혔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평균 56%의 이혼 사건이 포르노 웹사이트에 집착적인 흥미를 가진 배우자(거의 항상 남편)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⁴⁷ 미국 결혼 변호사 학회의 학회장에 따르면, 1990 년대 후반까지 “포르노는 이혼에 거의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결혼이 깨지는데 있어서 포르노가 명확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⁴⁸</p>
<p>A 2014 study of data from 20,000 adults who had ever been married (from the U.S. General Social Survey) found that those who had watched any pornography in the previous year were more likely to be divorced, more likely to have had an extramarital affair, and less likely to be happy in their marriage or with their overall life. Based on successive waves of General Social Survey data, the study showed that th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pornography use and marital satisfaction has become stronger as pornography becomes more explicit and more easily available online.⁴⁹ Consuming pornography can cause users to be less interested in sex with their actual physical partner. A significant percentage of male porn users experience erectile dysfunction or are unable to have sex without simultaneously consuming porn. Thus</p>	<p>2014 년에 한 번이라도 결혼한 적이 있는 2 만명의 성인들로부터 취합한 데이터 (U.S. Genneral Social Survey)에 따르면 이전 해에 포르노를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더 이혼할 확률이 높고, 혼외 성관계를 맺었을 확률이 더 높으며 기존의 결혼생활이나 삶의 전반에 대해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일반 사회 조사의 연이은 데이터들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포르노가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온라인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될 수록 포르노 사용과 결혼생활 만족도의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점점 더 강력해진다고 보고했습니다.⁴⁹ 포르노 소비는 사용자들이 실제 신체의 파트너와의 성관계에 흥미를 덜 느끼게 됩니다. 상당 수의 남성 포르노 사용자들이 발기 부전 혹은 성관계시 동시에 포르노를 소비하지 않고서는 성관계를 하지 못하는</p>

⁴⁷ Quoted by Pamela Paul, “From Pornography to Porno to Porn: How Porn Became the Norm,” in Stoner and Hughes, *The Social Costs of Pornography*, p. 13.

⁴⁸ Pamela Paul, “The Porn Factor,” *Time*, Jan. 19, 2004.

⁴⁹ Kirk Doran and Joseph Price, “The Effect of Pornography on Marital Intimacy,”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Vol. 35, No. 4 (2014), pp. 488-89.

they deprive their spouses of sexual pleasure and the joy of physical and emotional intimacy.	것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배우자들이 성관계에서의 쾌감과 신체적, 정서적 친밀감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The use of pornography often leads one spouse into a secret life in which deception becomes a way of life. People who hide their pornography use from their spouses bring darkness into their relationships. Once the sin is discovered, their partners often feel not only shock but also anger and shame. While the pornography user may convince him or herself that porn use doesn't affect his or her partner, the partner usually feels quite differently.	포르노 사용은 종종 포르노 사용자를 속이는 것이 삶의 일부가 되는 비밀스러운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포르노 사용을 파트너에게 숨기는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에 어두움을 초래합니다. 그 죄가 발견될 경우 그들의 파트너는 충격을 받을 뿐 아니라 분노와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포르노 사용자들은 포르노 사용이 그들의 파트너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설득할지 몰라도 파트너들은 보통 상당히 다르게 느낍니다.
VI. Pornography: Scripture	이 부분은 한국 사역팀의 결정에 따라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The Bible does not address pornography directly, and neither photography nor the internet existed in antiquity. However, Scripture has much to say about the lustful, sexually immoral, violent, racist, and abusive attitudes and actions fostered by online porn; about the bodies and spirits of the human beings affected by porn; and about the purpose of sex, which porn tragically mischaracterizes.	
<i>A. Violence</i>	
God, who made all people in his image, makes it quite clear that he hates violence, especially when violence is done to the vulnerable. God flooded the world and drowned its inhabitants because “the earth [was] filled with violence” (Gen. 6:13). Proverbs frequently exhorts God’s people not to choose violence (cf. Prov. 3:31). The psalmists often decry violence, even explaining that God’s	

<p>“soul hates the lover of violence” (Ps. 11:5, NRSV). The prophet Isaiah warns Israel that God is powerful enough to save them but that their violence erects a barrier between them and God (Isa. 59:1-2). God eventually allows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and the exile of his people as punishment for their idolatry and their violent, unjust behavior (Isa. 59; Jer. 22; Ezek. 8; Joel 3; Amos 3). The early church is told not to put people in leadership if they are violent (1 Tim. 3:3; Tit. 1:7).</p>	
<p>We have noted that the most commonly consumed porn is filmed sexual violence. Although sex traffickers and porn producers actually commit the crimes, porn is created to satisfy the demands of its consumers. Each time we use porn, we participate in this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And when we use porn, we tend more toward violence ourselves.⁵⁰</p>	
<p><i>B. Exploitation of the poor</i></p>	
<p>God advocates for the poor and the afflicted throughout Scripture. And God threatens anyone who threatens the poor (Prov. 22:22-23). The prophets specifically warn Israel against oppressing and abusing the needy and the vulnerable. To everyone who “trample[s] on the needy, and bring[s] to ruin the poor of the land,” God promises judgment (Amos 8:4ff).</p>	
<p>Yet our porn use directly supports the exploitation of the financially needy women who are physically abused in it, even though it may cost us nothing because ads pay for</p>	

⁵⁰ Wright, et al., pp. 183-205.

<p>it.⁵¹ Instead, God confronts the exploitative nature of a mostly male audience using anonymous poor and marginalized women for online sex with a call to be a people who practice both justice and mercy (Mic. 6:8). Just as 19th-century Christians worked to abolish the slave trade, so Christians today can work to abolish the sex industry and to offer support to those who are harmed by it. In so doing, we will love our neighbor as ourselves (Lev. 19:18), defend the poor and weak (Ps. 82:3-4; Prov. 31:8-9), and treat others the way we would want to be treated (Matt. 7:12).</p>	
<p><i>C. Racism</i></p>	
<p>From the scattering of the peoples so that they would fulfill God's mandate to fill the earth (Gen. 11:1-9) to the entering of the Holy City of God by all the nations (Rev. 21-22), the Bible portrays God's design for an all-nations tapestry of language and tribes. God insisted on this inclusive vision when the first disciples hesitated to preach the gospel to Gentiles (Acts 10), and when the early church racially discriminated (Acts 6:1-7). Where alienation and brokenness continued to threaten the church, Paul made clear that Jesus, by his death, reconciled not only people to God but also warring and hostile nations and tribes to each other (Gal. 2:1-14; Eph. 2:11-22; Col. 3:11). By cultivating the worst racial stereotypes, mocking and degrading men and women based on ethnicity, online porn dehumanizes people made in God's image and promotes division and contempt.</p>	

⁵¹ Ann Simonton, "Who Are Women in Pornography?" *Not For Sale*, ed. Rebecca Whisnant, Christine Stark (North Melbourne, Victoria: Spinifex Press, 2004), pp. 352-61.

<i>D. Sexual sin</i>	
1. Adultery	
<p>The Law, the Prophets, Wisdom literature, and the New Testament all condemn adultery. Additionally, Paul specifically enjoins believers from uniting with prostitutes because participation in the sexual act makes one flesh out of the man and woman involved (1 Cor. 6:15-20). While we might not ourselves commit adultery with another person physically while using porn, the product we consume is created by filming men and women copulating who are not married to each other, and online porn is itself filmed prostitution. Porn scenes also commonly include rape, orgies, and bestiality and portray scenes of incest—all acts strongly and repeatedly condemned in Scripture (Lev. 18; Gal. 5:19-21). We indirectly cause others to commit these sins when we consume such porn. Additionally, when we use porn, those of us who are married introduce other sexual partners into our marriage, destroying the oneness of our intimate physical union.</p>	
2. Lust	
<p>Porn exists to foster lust. And Jesus says that it's not first of all the actions we take with our body but the evil desires of our hearts that are sinful: "It is what comes out of a person that defiles. For it is from within, from the human heart, that evil intentions come: fornication, theft, murder, adultery, avarice, wickedness, deceit, licentiousness, envy, slander, pride, folly. All these evil</p>	

things come from within, and they defile a person” (Mark 7:20-23).	
<p>Jesus’ proclamation that “everyone who looks at a woman with lust has already committed adultery with her in his heart” (Matt. 5:27-28) surprises and challenges us today just as it did his original audience. Jesus means that to even envision a sexual act with someone to whom we are not married is sinful because we have no marriage covenant with that person. By imagining sexual activity with people on screen, we reduce them to objects we use for our pleasure. Our lust also influences our marriages or other relationships because it affects the way we see and respond to our partners. Finally, the apostle James cautions us against lust when he analogizes the act of lust to the act of procreation. Then lust, “when it has conceived gives birth to sin; and sin when it is full-grown brings forth death” (James 1:15, RSV).</p>	
3. Masturbation in the context of porn	
<p>The Bible does not forbid—or even mention—the practice of stimulating one’s own sexual organs to orgasm. However, masturbation is often accompanied by lust. Those who use porn to masturbate consciously choose to lust. Thus self-absorption and objectification of another replaces the sexual act designed to draw two people together in intimacy.</p>	
<p>The apostle Paul counsels husbands and wives to satisfy each other sexually. “The husband should give to his wife her conjugal rights, and likewise the wife to her husband. . . . Do not deprive one another except perhaps</p>	

by agreement for a set time, to devote yourselves to prayer, and then come together again” (1 Cor. 7:3-5, NRSV). Masturbating while consuming porn can cause the user to be less interested in sex with their actual physical partner because they have already satisfied themselves. And since a significant percentage of male porn users experience erectile dysfunction or are unable to have sex without simultaneously consuming porn, they deprive their spouses of sexual pleasure and the joy of physical and emotional intimacy.	
4. Deceit	
Throughout the Old and New Testaments God’s people are repeatedly called to speak and live honestly to reflect the God of light and to build healthy relationships. “If we walk in the light as he himself is in the light, we hav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1 John 1:7). People who hide the fact or the frequency of their porn use from their spouses or dating partners bring darkness into their relationships. And because of this darkness, their partners often feel not only shock but anger and shame. While the porn user may convince himself or herself that porn use doesn’t affect his or her partner, the partner usually feels quite differently. Entire websites exist for partners of porn users who feel the betrayal of adultery while their partner is oblivious to their pain.	
<i>E. Creation restored, relationships redeemed</i>	
1. The pattern of Creation	

<p>The bad news God gave to the woman after the fall into sin—that the man will “rule over you” (Gen. 3:16)—couldn’t be more painfully exemplified than in online pornography. But while our porn-saturated culture presents men and women as objects to be used sexually, and it encourages the violent domination of women for men’s sexual pleasure, Jesus came to restore our relationships to their creational intent. Genesis 1:26-31 tells us that men and women share God’s image as partners. God commanded them to be fruitful and multiply, to fill the earth and subdue it, and to have dominion over all creatures. Together they reflected the image of God, and together they were sent to rule over it as God’s representatives. The second half of the creation story in Genesis 2:18-24 portrays a man lonely for company although he had animal companions and was intimate with God. A woman was created to be his help. Genesis 2:18 uses the Hebrew word <i>ezer</i>, which is ordinarily used to describe the rescuing God in the Old Testament, as in “Our soul waits for the Lord; he is our <i>help</i> and shield” (Ps. 33:20).</p>	
<p>God values human bodies and the sexual act. Humans are not only made in God’s image; the Creator described them as very good (Gen. 1:31; 5:1). When the first man and woman were together, they “were both naked, and were not ashamed” (Gen. 2:25). Human bodies are so valuable to God that Jesus was born in a human body (Matt. 1:18ff; Luke 2:1-20), and after his death he was the first to experience the bodily resurrection that awaits all his sisters and brothers (1 Cor. 15). Sexual desire for a partner and enjoyment of sexual activity is alluded to at the creation of woman (Gen. 2:18-25). It is</p>	

encouraged in Proverbs (5:18-19) and the first letter to the Corinthians (7:3-5). While most porn eliminates lovemaking activities such as kissing, stroking, and caressing—replacing them solely with penetration and orgasms—these tender touches are celebrated in the erotic love poetry of the Song of Songs.	
While porn trains us to view sex for our own pleasure, God designed sexual pleasure to push us toward the other. God intended the sex act to provide pleasure for both man and woman. For those Christians who will have a sexual relationship in marriage, the Song of Songs portrays a man and woman in equitable relationship. Their passion for each other demonstrates that while healthy, loving sex can be fun, joyful, deep, vulnerable, and playful, it will always be mutual, exclusive, and intimate.	
2. The new community	
Jesus presents a picture of human and human-divine intimacy the night before his crucifixion. In John 14-17 Jesus pictures the Trinity as God-in-community. He speaks of the loving communion that he, the Spirit, and the Father have had for all eternity, and he explains that his followers will now join into that intimacy with God and with each other. Rather than being objects to be used by each other, as in porn, God created each of us for human intimacy, whether sexual or not.	
Jesus' loving life and sacrificial death inaugurated a servant community. "The Son of Man came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Matt. 20:28). And he teaches his disciples that they should serve each other and the world	

in the same way. “The greatest among you will be your servant” (Matt. 23:11). Paul exhorts the Galatian church similarly, “You were called to freedom, brothers and sisters; only do not use your freedom as an opportunity for self-indulgence, but through love become slaves to one another” (Gal. 5:13). As sisters and brothers in a new spiritual family, God commands all believers to “submit to one another out of reverence for Christ” (Eph. 5:21, NIV).	
Although she’d watched porn since childhood, Megan,* 30 (white), never heard about other women using porn. By her early twenties, she felt deep shame about it and about a sexual experience long ago with another child. But talking about it with a nonjudgmental believer released her of the shame and freed her, she said, “to look at myself and see how God sees me. God began to heal me from my past and give me hope for a positive sexual relationship.”	
VII. Pornography: Pastoral care	이 부분은 한국 사역팀의 결정에 따라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How staggering is the extent of God’s mercy. Yet as great as the shame, exploitation, frustration, darkness, and violence from porn are, far greater is God’s mercy and power to transform and heal. “All the wickedness in the world that man might do or say was no more to the mercy of God than a live coal dropped in the sea” (William Langland, 14th century).	
<i>A. Pastoral care for the whole congregation</i>	
Since porn consumption is now so routine, no group or individual is untouched by its effects. Porn’s victims are many:	

- women prostituted into, and violently abused by, the porn industry	
- children exposed to porn and trained by its violence to enact or receive violence	
- baffled, angry and hurt parents and families	
- intimates of porn users betrayed by their partner's virtual infidelity	
- male and female porn users, many of whose brains begin to crave the stimulus of violence	
- male porn users suffering erectile dysfunction	
- women conditioned to be objects for men's violence and men primed to be sexually violent	
Yet our churches only typically address the problem of porn, if at all, primarily as a problem of lust or of healing for porn users; only tangentially as a difficulty for wives, husbands, and others in relationship with porn users; and almost never as a concern for the women being violently mistreated in porn videos or the children and women in our churches suffering from the increase in male sexual violence against them. Therefore, although porn usage is a deeply personal issue, as churches we can no longer allow it to be a private issue.	
The gospel of grace speaks directly to the pastoral needs of all who are harmed by the production and the use of porn. Offering the hope and power of God the healer and the great physician is an immediate necessity, yet this human damage will only increase until we confront the root of the problem. Why have we tolerated pornography use in our churches? We have tolerated it because the lusts of our hearts are dear to us. We have tolerated it because we	

are comfortable with the objectification and domination of women. The sins that lie closest to our hearts are those for which it is the most difficult to repent.	
Members and leaders of the church will continue to treat porn casually until the church faces and repents of allowing objectification of women and male dominance to be part of the church culture. We objectify women's bodies when we imply that their primary purpose in life is that of mother or wife as much as when we tolerate comments about female bodies and disparaging jokes about women in sermons, classes, and small groups of all ages.	
In his speech and actions with women, Jesus modeled a different path. He directly challenged his own patriarchal and lustful culture in three significant ways. Jesus invited all people to follow him and specifically encouraged women who did so (Matt. 12:46-50; Luke 8:1-3; 10:38-42; John 20:1-18); he corrected those who prioritized Mary's role as mother over that of other women as disciples (Matt. 12:46-50; Luke 11:27-28); and he told men that even to gaze at a woman lustfully was to commit adultery (Matt. 5:26-27).	
At this moment when pediatricians, psychiatrists, parents, and politicians identify North American porn use as a health crisis, and the #MeToo movement exposes the increasing numbers of women routinely experiencing sexual violence, the church can serve as a model of living in the light. Porn's primary power is in its hiddenness. God's children know the power of God's light to drive away darkness and bring freedom. Those filmed in porn, those using porn, and those in relationships with porn consumers	

are all harmed, though in different ways, and all experience shame.	
If we expose the darkness to God's light, we can all be healed. In God's redemptive light, we can make the connection between porn and human trafficking and freely face the relationship of porn to the increasing numbers of women reporting male violence. We can admit that porn makes inequality sexually arousing. ⁵² And we can be honest about the extent of the harms to young and old porn users and to those with whom they relate.	
<i>B. Practical next steps</i>	
1. Preaching and teaching	
Pastors, teachers, and youth leaders: Regularly address the positive theme of sexuality as it pervades Scripture from Genesis to Revelation, including the generally ignored Song of Songs, with its beautiful depiction of a healthy sexual relationship. Explore the rich biblical teaching on the blessings and joys of celibacy. Constantly challenge us to exercise self-control, to put to death the lusts of the flesh. Far too much of the church's teaching in the area of sexuality has consisted of negative prohibitions against various sins, including pornography. Yet faithful gospel teaching and leadership points toward the rich calling that God has given to us as men and women made in his image. Encourage us to use our bodies in ways that reflect God's purposes for us as	

⁵² [washingtonpost.com/news/in-theory/wp/2016/05/25/how-porn-makes-inequality-sexually-arousing/?utm_term=.c491e7bf10c](http://www.washingtonpost.com/news/in-theory/wp/2016/05/25/how-porn-makes-inequality-sexually-arousing/?utm_term=.c491e7bf10c)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p>Since wife abuse is so common, and since the majority of all men as well as most young women now do or have used porn, we must address this regularly in our churches. The Bible speaks often and powerfully about God's perspective on violence and sexual sin, so our clear and frequent teaching will encourage the oppressed, as well as those who are willing to change, and it will confront the unrepentant sinner.</p>	
<p>When the church fails to offer biblical, gospel-centered teaching on the sin of pornography, it is not able to offer hope to those who are devastated by it. If our pastors remain silent on Sunday mornings, those of us who use pornography or suffer from its use will remain silent as well. But this is not the way of the gospel. Instead, proclaim the good news as it relates to sexuality in order that all people, female and male, may once again enjoy the fullness of communion in him.</p>	
2. Public worship	
<p>Publicly and collectively acknowledge the many sins of pornography. Lament our guilt and the catastrophic consequences of our sin in the lives of so many people. Mourn with the victims of pornography, some of whom live and worship among us. Intercede regularly for porn users, their partners, parents, and those who suffer abuse because of pornography.</p>	
3. Care for those abused in porn production	

<p>“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because he has chosen me to bring good news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proclaim liberty to the captives and recovery of sight to the blind, to set free the oppressed and announce that the time has come when the Lord will save his people” (Luke 4:18-19, Good News Translation). Our churches likely include girls and women who currently or previously participated in porn videos or whose photos or videos to partners were uploaded onto porn sites, and some men or boys who have been used in these ways. The Christian community can help.</p>	
<p>a. Model coming into the presence of God, who sees the sexually exploited and cares</p>	
<p>Explain that a just and compassionate God understands the wrong that was done to those abused. “But you, God, see the trouble of the afflicted; you consider their grief and take it in hand. The victims commit themselves to you; you are the helper of the fatherless. . . . Call the evildoer to account for his wickedness that would not otherwise be found out. . . . You, Lord, hear the desire of the afflicted; you encourage them, and you listen to their cry” (Ps. 10:14-18, NIV).</p>	
<p>b. Help with undeserved shame</p>	
<p>Because what was done to their bodies—and the uses made of their images—was evil, people who have been involved in porn often feel guilty for having participated, even though others exploited their trust and in many cases coerced them into sending images or being filmed. And because those digital images might be</p>	

<p>permanently publicly available, they feel shame at their exposure. We can introduce them to Jesus, the Suffering Servant, who was also mocked, scorned, and rejected for sins he did not bear, who took away our shame, and in whose wounds we can be healed. “He was despised and rejected by others; a man of suffering and . . . one from whom others hide their faces. . . . Upon him was the punishment that made us whole, and by his bruises we are healed” (Isa. 53:3-5, NRSV).</p>	
<p>c. Nonjudgmental presence and support</p>	
<p>In addition to loss of reputation because of permanent digital imagery, people who have been involved in porn might face long-term physical effects in the form of body memories, inability to sleep, an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They may need practical supports such as help to find childcare, paid employment, and medical/dental care. As their sisters and brothers, we can fulfill God’s call to “bear one another’s burdens” (Gal. 6:2).</p>	
<p>d. Lament and pray with them</p>	
<p>Introduce these people to the psalms—which cry out in sadness, anger, and betrayal—and be willing to suffer their pain with them. “Weep with those who weep” (Rom. 12:15). Repeatedly the Bible tells us to pray for those who are sick, weak, suffering, persecuted, or tempted, and God’s Word promises healing. “He heals the brokenhearted, and binds up their wounds” (Ps. 147:3). As prayer teams and as individuals, we can offer deeply wounded people the gift of approaching the Healer, Redeemer, Advocate, and Comforter on their behalf.</p>	

4. Pastoral care for intimates of porn users	
Partners of porn users are often lost in the recovery process. The porn user who chooses to confess and repent will likely receive support and encouragement. Their wives, husbands, and dating partners usually suffer alone and may be baffled by the trauma of betrayal. Loving individuals, supportive groups, and professionals can enable them to understand why they are so devastated by the shame, anger, and grief of realizing their partner has been repeatedly unfaithful with strangers online. Compassionate church members can help.	
a. Words of comfort	
Finding out that a partner has been using porn feels like betrayal and adultery because looking at another person with lust is a form of adultery, just as Jesus taught (Matt. 5:27-28). Studies find that explicit material can do far more harm than most people think. Porn use destroys intimacy in marriage and is one of the most frequent causes of divorce. ⁵³	
b. Support to confront the porn user	
Spouses and intimates can insist on having no-porn households and relationships. But spouses need encouragement by pastoral counselors, elders, and others that the history of their relationship usually provides a	

⁵³ psychologytoday.com/ca/blog/tech-support/201407/what-porn-does-intimacy; core.ac.uk/download/pdf/144149558.pdf

great deal of leverage. When churches support spouses who choose to give an ultimatum to porn-using spouses—because of this ongoing form of adultery—God can dramatically turn broken marriages around. In this way, we “admonish one another with all wisdom” (Col. 3:16) and obey Jesus’ teaching to hold accountable any member who sins against another (Matt. 18:15-20). Partners may also need help dealing with any violence the porn user may have brought into the relationship. For example, the most common behavior men ask female partners to do, based on their porn usage, is to engage in anal sex. Females describe this as painful, risky, and coercive. ⁵⁴	
<i>How to Stop Using Porn</i>	
- Solicit the prayers and support of a non-porn user. Confess your sin and ask to pray for their temptations as well.	
- Immediately tell your spouse or girl/boyfriend.	
- Take a 30-day porn fast. Historically Christians have fasted from food, sex, and other things.	
- Learn about the relationship of porn to sex trafficking and tell someone else what you learned.	
- Draw near to Jesus. Nourish a friendship with Jesus by talking to him, reading the Bible, singing songs of worship. God, who is your Help, loves you and wants to be with you.	
- Block internet access on your devices. Try out various strategies until you find one that works.	
- Substitute enjoyable and healthy activities like physical exercise, a new hobby, regular time with good	

⁵⁴ C. Marston and R. Lewis, “Anal heterosex among young people and implications for health promotion: a qualitative study in the UK”

(2014), *BMJ Open*, 4(8), e004996-e004996; DOI: 10.1136/bmjopen-2014-004996

friends or family. Old habits get broken in part by filling the vacuum with new ones.	
- Remind yourself that Jesus' death on the cross set you free from sin.	
- Celebrate successes. Reward yourself by sharing your milestones with affirming others and by giving yourself a healthy treat.	
5. Pastoral care for porn users	
After extended porn use, male and female porn users of all ages share some common needs that elders or other mature believers can help them address. Because porn often has such a grip on its users, they need real help from God and other believers.	
a. Repentance	
Many long-term porn users are unwilling to see porn use as harmful. Like David, who took Bathsheba for his own sexual pleasure and then killed her husband to cover up his own sin (like every other sinful human), porn users often need to be confronted by someone like the prophet Nathan (2 Sam. 11-12). Although, as a consequence of his sin, David suffered the death of his infant son, wonderfully God later answered his prayer to be used to help others also come to repentance and to experience the joy of renewed relationship with God, who has the power to heal and forgive. "Create in me a clean heart, O God, and put a new and right spirit within me. . . . Then I will teach transgressors your ways, and sinners will return to you" (Ps. 51:10-14).	

b. Intercessory prayer and hope for healing of compulsive behavior	
<p>While not every porn user is addicted, a greedy porn industry has designed porn to be addictive. “Neurons that fire together wire together,” psychiatrist Norman Doidge famously said when discussing the sadomasochistic nature of most porn.⁵⁵ The good news is that while porn use actually changes the brains of men and women who use it, brain scientists describe brains as “plastic” with the ability to heal.⁵⁶ The Creator designed our physical bodies to heal and also made it possible for us to be delivered of sinful patterns, shame, isolation, anger, and hurt. God promises that when we confess our sins to each other and pray for each other, we will be healed (James 5:13-18). And when we live in the light of repentance and honesty, God’s new community of fellow forgiven sinners will restore us (1 John 1:5-10). (A number of organizations also now offer support and practical help to those who want to stop using porn.)</p>	
c. Block access to internet porn on their devices	
<p>Just as a smoker will not quit smoking if she keeps cigarettes in the house or if he stands outside with his smoker buddies, so a porn user cannot have easy access to porn and expect to quit. (Various companies offer individual or family plans for their porn-blocking or</p>	

⁵⁵ Norman Doidge, *The Brain That Changes Itself: Stories of Personal Triumph from the Frontiers of Brain Science* (New York: Viking Penguin, 2007), p. 117.

⁵⁶ Ibid., pp. 207ff.

accountability services.)	
d. Physical affection	
While loneliness, stress, or boredom can drive people to porn, we have seen that compulsive porn use also isolates people and decreases their ability to build healthy relationships. If we have used porn excessively, we may feel disconnection from or hatred toward our bodies. For these reasons, communal recreational activities and physical affection in the form of hugs and encouraging pats on the back provide emotional nourishment to recovering porn users.	
e. Biblically-based teaching about sex and relationships	
Because porn has been a primary source of sexual education for an entire generation, porn users need Bible studies, small group discussions, and sermons about mutual sexual relationships and healthy intimacy. Porn studies reveal that male and female porn users begin to believe that women are weaker and less intelligent than men, and that women are willing to be raped, assaulted, or dominated sexually. This coincides with the belief that men are more dominant, powerful, and have greater sexual needs than women. ⁵⁷ Obviously this way of thinking can be and is problematic and harmful to both sexes. But where the culture of porn has malformed us, God can transform our minds. Paul calls us to present our bodies to God “as a living sacrifice. . . . Do not be conformed to this	

⁵⁷ projectknow.com/porn-addiction/women/?utm_term=p_addiction

<p>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s, so that you may discern what is the will of God— what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Rom. 12:1-2). Additionally, when images displeasing to God persist in our minds, we are invited to think instead on “whatever is true, whatever is honorable, whatever is just, whatever is pure . . . and the God of peace will be with you” (Phil. 4:8-10).</p>	
<p>Wilma* and Henk,* 70 (white), attend a film and panel hosted by a local church on internet porn’s impact on society. Horrified by what they learn about sex trafficking and kids’ easy access to porn, they begin to pray. They also get up their courage to ask their grandchildren some questions. Gradually, through their advocacy, parents in Wilma and Henk’s church discover their children’s porn use. Some are shamed and grieved to understand the reason for their children’s inexplicable changes in behavior. The church supports these families with prayer and with establishing mentoring relationships for parents and kids. With a friend, Wilma also encourages the church into seeking justice for sexually exploited girls.</p>	
6. Special word to parents of child and teen porn users	
a. Understand the effects of porn use on your child	
<p>We saw earlier that boys exposed to porn from a young age are more likely to have attitudes that support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to pressure their partners to engage in porn-style sex (harmful, painful, degrading, aggressive, etc.). Research has also shown that exposure to porn leads girls to</p>	

objectify themselves, hate their own bodies, experience depression and anxiety, and harm themselves. Child porn users may have lower academic performance, develop sexual preoccupation and compulsive internet use, and experience anxiety, depression, low self-esteem, and loss of intimacy. ⁵⁸	
b. Compassionately confront	
Although you may feel guilty, angry, or terrified about the effects of porn use on your child, what he or she needs is strong parental love filled with grace. Your child likely also feels great shame and fear, as well as anger that he or she is now struggling with an incredibly powerful temptation. ⁵⁹ Model yourself on the God of Psalm 103, who knows our weakness, forgives our sins, is slow to anger, and has compassion on us, his children.	
c. Deal with the technology	
Since many young children and most teens carry a computer around with them via their smartphone, parents can get porn-blocking services and should be wise and consistent when denying or limiting access to phones and other devices. A number of organizations offer help to parents, beginning with identifying the signs that your child uses porn. (See resource listed below.)	
d. Describe the reality of a healthy sexual relationship	

⁵⁸ Eric W. Owens , Richard J. Behun , Jill C. Manning, and Rory C. Reid, "The Impact of Internet Pornography on Adolescents: A

Review of the Research," 10.1080/10720162.2012.660431, pp. 99-122; published online: 09 Apr 2012.

⁵⁹ Ibid.

Because porn has been their primary source of sexual education, young porn users need a new education. Uncomfortable as it may feel, contrast the actual physical details in a sexual intimate relationship with what goes on in porn. Explain how God designed sex for mutual pleasure, never for violence, and that it involves give and take (<i>Song of Songs</i>).	
During a church council discussion about the porn use of certain young people in their church, one elder noticed the especially heartfelt and compassionate response of Mark,* 60 (white). That elder later helped Mark to open up about his own porn use. Since then Mark's wife Karen told him, "I won't live with you until you stop using porn and you are able to understand the effect it's had on me and our marriage." There is hope for this marriage because the elders and their small group are church members backing Karen up, and Mark is facing what he's done.	
7. Special word for women	
Because many more men than women have traditionally used porn, and because the Christian community often suggests that men have more sexual desire than women, women who struggle to stop using porn often feel an additional burden of shame. Yet since porn has become normalized, a large minority of young women now use porn and need support to stop using it. Like their brothers, these women can be comforted by the fact that Jesus is able "to sympathize with our weaknesses . . . in every respect has been tested as we are, yet without sin. Let us therefore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with boldness, so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in time of need" (Heb. 4:15-16).	
8. Special word for men	
Christian men who stop consuming porn describe	

<p>a kind of eureka moment (see Cameron's* story earlier) that impelled them to stop. Some realize how horrified, hurt, or angry their wives or girlfriends are by their betrayal; others make the connection between sex trafficking and porn and then understand what the filmed women suffer. Christian human rights and antitrafficking organizations report that men who join antitrafficking efforts find themselves able to give up their porn use. Focusing on advocating for women, many men are freed from the guilty rationalization, self-absorption, and shame of being a Christian who also uses porn.</p>	
<p>9. Special word to pastors and teachers</p>	
<p>Polls show that many North American pastors refer to themselves as porn addicts. If so, they cannot in good conscience help others while living in this sin. The time is now for us all to heed God's command to "lay aside . . . the sin that clings so closely, and let us run with perseverance the race that is set before us, looking to Jesus. . . . Consider him who endured . . . so that you may not grow weary and lose heart. In your struggle against sin you have not yet resisted to the point of shedding your blood. And you have forgotten the exhortation that addresses you as children. . . . Therefore lift your drooping hands and strengthen your weak knees, and make straight paths for your feet, so that what is lame may not be put out of joint, but rather be healed" (Heb. 12:1-2, 4-5, 12-13).</p>	
<p>Sarah,* 30 (white), laments, "I would like to have a no-porn relationship. But every Christian man I have dated, all of whom were pastors or Christian leaders, used porn. Most of them refused to quit, either saying they'd already</p>	

tried unsuccessfully or that it wasn't a big deal. All the women I know say the same thing about their boyfriends.	
<i>C. Mission</i>	
<p>Many health professionals, teachers, and parents in your community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impact of porn usage. Churches who begin to learn more about online porn's effects on society and its relationship to sex trafficking will find unchurched neighbors interested in your ministries of both care and justice. Whether you address youth groups, parents, or partners of porn users or you choose to educate your church and community on the links between pornography and sex trafficking, you will be encouraged to find that local health, counseling, and justice professionals will gladly participate. Hosting film nights with panels of such experts or lectures followed by small groups can benefit your church and connect your ministry with the needs of a hurting community around you. If you advocate for the poor and marginalized locally and globally, others will join you, and some will meet Jesus, the just and compassionate One.</p>	
<p>The Holy Spirit, who "has compassion on all he has made" (Ps. 145:9, NIV) gives spiritual gifts in sufficient supply so that we can offer the love, healing community, and pastoral care that is needed. People affected by porn will be challenged, nourished, bolstered, and restored by our ministries of prayer, small groups, preaching, worship, potlucks, diaconal help, elder care, and much more. And those receiving care will be able to heal as they in turn are encouraged to use their spiritual gifts to serve others.</p>	

<i>D. In conclusion</i>	
The porn industry flourishes while the church falters. If the church can courageously admit the ubiquity of porn, its far-reaching consequences on every demographic, and its nature as a purveyor of male violence against women, the Lamb of God who is the Lion of Judah can lead the way to healing for our churches and our society. May God's kingdom of shalom come.	
<i>E. Selected resources</i>	
1. Books	
Dines, Gail. <i>Pornland: How Porn Has Hijacked Our Sexuality</i> (Boston, Mass.: Beacon Press, 2010).	
Foubert, John. <i>How Pornography Harms: What Teens, Young Adults, Parents, and Pastors Need to Know</i> (Bloomington, Ind.: LifeRich Publishing, 2017).	
Jeffreys, Sheila. <i>The Industrial Vagina: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Global Sex Trade</i> (New York: Routledge, 2009).	
Jensen, Robert. <i>Getting Off: Pornography and the End of Masculinity</i> (Boston, Mass.: South End Press, 2007).	
Jensen, Robert. <i>The End of Patriarchy</i> (North Melbourne, Victoria: Spinifex Press, 2017).	
Perrin, Benjamin. <i>Invisible Chains: Canada's Underground World of Human Trafficking</i> (Toronto: Penguin Group, 2010).	
Struthers, William M. <i>Wired for Intimacy: How Pornography Hijacks the Male Brain</i>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2009).	

Tankard Reist, Melinda. <i>Big Porn, Inc.: Exposing the Harms of the Pornography Industry</i> (North Melbourne, Victoria: Spinifex Press, 2011).	
2. Films	
<i>Red Light, Green Light</i> . Documentary about sex trafficking and prostitution.	
<i>Over18</i> . An examination of porn's effects on children, parents, and those filmed in porn.	
<i>Pornland: How the Porn Industry Has Hijacked our Sexuality</i> .	
<i>The Sex Trade</i> . A documentary on the sex industry.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i>Buying Sex</i> .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3. Websites	
culturereframed.org; building resilience and resistance to hypersexualized culture; resources, tools for people of all ages	
network.crcna.org/safe-church/pornography-awareness-supplemental-resources; help for porn users, parents, and leaders	
protectyoungeyes.com; internet safety information	
goforgreatness.org; positive effects of quitting porn	
nofap.com; community-based porn recovery	
iitap.com;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rauma and Addiction Professionals	
defenddignity.ca; catalyst for individuals and churches to end sexual exploitation	
endsexualexploitation.org; National Center on Sexual Exploitation	

fightthenewdrug.org; antipornography nonprofit	
cbeinternational.org; Christian for Biblical Equality International	
4. Blog posts and articles	
crcna.org/SafeChurch/about-us/1989-survey-abuse-crc	
pornharmresearch.com/2011/12/internet-porn-stats-should-parents-be-concerned-news/	
cbeinternational.org/blogs/church-crisis-pornography-and-patriarchy	
cbeinternational.org/blogs/metoo-and-churchtoo-perfect-storm	
barna.com/fast-facts/porn-in-the-digital-age-new-research-reveals-10-trends/	
covenanteyes.com/2016/05/10/betrayal-trauma-the-side-of-pornography-use-no-one-is-talking-about/	
crcna.org/SafeChurch/about-us/1989-survey-abuse-crc	
5. Porn blocking or accountability services	
covenanteyes.com; screen accountability	
netnanny.com; porn blocking for parents or adult users	
qustodio.com; porn blocking for parents or adult users	
VIII. Gender identity: Cultural context	VIII. 젠더 정체성: 문화적 맥락
We begin with some opening stories. The names of the persons in these stories have been changed.	먼저 몇 가지 사례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등장인물들의 이름은 변경하였습니다.
Tee*, an Afro-Latino, who presented as a gender-fluid person, was rejected by family, became homeless, and bounced around several emergency shelters before finding supportive housing.	자신의 성별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아프리카 남미계인 티*는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노숙인이 되었고 후원가정을 만나기

<p>Since transitioning, it became difficult for Tee to find a job, and Tee was sexually harassed at work. When Tee asked to be referred to as male, the staff and counselors continued to use Tee's original pronouns, and Tee felt unsupported. Tee felt isolated and alone, suffered high levels of anxiety, and incurred other medical conditions after this experience.</p>	<p>전까지는 여러 응급 보호소들을 전전했습니다. 성전환 이후 티는 직장을 잡는 것이 어려워졌고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티가 남자로 불러달라고 했지만 직원들과 상담원들이 계속해서 티를 원래의 인칭 대명사로 불렀고, 티는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티는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꼈고 심각한 불안증을 겪었으며 이 경험 후에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p>
<p>When Colin's* former work colleague Stephen,* now Serena,* began to transition, he shared this information with Colin. Colin wasn't sure what to think or how to respond, and he knew Stephen was not a Christian. Colin and his wife, Rachel,* asked their church household group for advice. These other believers affirmed the couple's sense that they should build a stronger relationship with Stephen, if that was what he wanted. Initially Rachel and Colin felt awkward and uncomfortable with Stephen as he more publicly identified as Serena. Their believing friends prayed for them to be led by the Holy Spirit in their relationship with Serena. The couple realized that Serena was getting support from them that was not readily available from friends or family, so they worked to stay regularly in touch, even after they no longer worked together. They took great joy in learning to wait on God as they loved their new friend. They wondered if God might draw Serena into a Christian community and a relationship with Jesus.</p>	<p>콜린*의 전 직장동료였던, 이제는 세레나*가 된 스티븐*이 성전환을 시작했을 때 그는 이 사실을 콜린에게 털어놨습니다. 콜린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으며, 스티븐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콜린과 그의 아내인 레이첼*은 교회의 구역 모임에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신자들은 스티븐이 원한다면 이 부부가 스티븐과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 스티븐이 공공연하게 세레나라고 자신을 지칭하자 레이첼과 콜린은 스티븐을 대하기가 이상하고 불편했습니다. 이 부부의 믿는 친구들은 이 부부와 세레나의 관계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부부는 세레나가 자신의 친구나 가족들에게서 받지 못했던 지지를 자신들에게서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레나와 더 이상 같이 일하지 않게 된 후에도 정기적으로 계속 세레나를 만났습니다. 이 부부는 이 새로운 친구를 사랑함에 따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배우는 과정 가운데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과연 세레나를 기독교 공동체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과의 관계로 이끄실 지 궁금했습니다.</p>
<p>A. Introduction</p>	<p>A. 서론</p>

<p>In our study of gender identity, our committee listened to stories from people identifying as trans, gender nonconforming, and queer, and from their families. We did research in theology, including queer theology, and in the biological and social sciences, including queer studies. Because gender studies is such a new field and the science is still in its infancy, the body of reliable scientific research is smaller than in other areas pertaining to sexuality. Transitioning can include various medical treatments, many of which remain largely experimental. At the same time, few theologians have reflected deeply on questions surrounding gender identity or disorders of sexual development (DSD). Nevertheless, there is a growing body of literature in all of these fields that can help the church discern how it should navigate questions of gender identity in a manner that is faithful to the gospel, consistent with the best science, and life-giving for persons who are struggling with questions related to gender identity.</p>	<p>이 젠더 정체성 연구에서 우리 연구위원회는 트랜스젠더, 성별 불순응자, 퀴어 및 그들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퀴어 신학을 포함한 신학연구를 조사했고, 퀴어학 등을 포함한 생물학 및 사회과학을 연구를 참고했습니다. 젠더스터디는 굉장히 신생 학문이고 과학은 여전히 초창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에 관해서 믿을만한 과학적 연구는 다른 영역에 비해 적습니다. 성전환은 다양한 의학 조치를 포함하고 그 중 많은 경우가 대개 실험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젠더 정체성이나 성발달 이상(DSD)을 둘러싼 문제들을 깊은 차원에서 다룬 연구를 하는 신학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분야에서 복음에 충실하고, 최고의 과학과 일관되고, 젠더 정체성에 관한 문제들과 씨름하는 사람들을 위해 생명을 주는 선에서, 어떻게 교회가 젠더 정체성의 문제들을 처리해야 할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 연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p>
<p><i>B. Use of terms</i></p>	<p>B. 용어 사용</p>
<p>Barely half a century ago the notion of having a <i>gender identity</i> was virtually unheard of. Indeed, the concept of gender identity only makes sense if there is some idea of what <i>gender</i> means, and how that may or may not be different from sex. In our summary of a biblical theology of sexuality in section II, B of this report, we acknowledged that in the biblical text of Genesis 1:27 “the terms <i>male</i> and <i>female</i> clearly refer to biological sexuality, not merely to gender, although it is safe to say that the very distinction between sex and gender would be alien to the text in its ancient Near Eastern context.” How, then,</p>	<p>반 세기도 전만 해도 젠더 정체성을 갖는다는 개념은 사실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젠더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젠더가 무슨 의미인지 그것이 성별과 어떻게 다른 지에 관한 개념이 있어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에 관한 성경적 신학 요약본의 II, B 섹션에서 우리는 성경의 창세기 1:27 을 다음과 같이 인정했습니다. “비록 섹스와 젠더의 구별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문서에서는 생소하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하겠지만 남성과 여성이라는 용어는 단지 젠더뿐만이 아니라 명확히 생물학적 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어떻게</p>

can the Bible help us to make sense of contemporary questions about gender and gender identity?	젠더와 젠더 정체성에 관한 현대의 질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Although it is generally accepted today that sex and gender are distinct from one another, this understanding is relatively new. It was only in the 1960s that people began to use the word <i>gender</i> to refer to something other than a person's sex. John Money, a sex researcher who spent his career at Johns Hopkins University, is generally credited with popularizing this use of the term. ⁶⁰ Money writes that he "needed a term that did not exist" to explain what people were doing when they took on the roles and identity of a sex different from their biological sex. ⁶¹ Hence he used the word <i>gender</i> to refer to those roles and sense of identity.	비록 섹스와 젠더가 서로 구별된다는 것을 오늘날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이러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입니다. 사람의 섹스가 아닌 다른 것을 지칭하는 젠더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 부터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성 연구자 존 머니가 이 용어를 대중화시킨 장본인으로 보통 여겨집니다. ⁶⁰ 머니는 사람들이 생물학적 섹스와 다른 섹스의 역할과 정체성을 가질 때 이를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았던 용어가 필요했었다" 라고 썼습니다. ⁶¹ 따라서 그는 젠더를 그러한 역할들과 정체성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By the 1970s, psychologists had begun to consistently use the words <i>sex</i> and <i>gender</i> to differentiate between biological characteristics (<i>sex</i>) and "nonphysiological components of sex that are culturally regarded as appropriate to males and to females" (<i>gender</i>). ⁶² This	1970년대까지 심리학자들은 생물학적 특성들 (섹스) 와 "문화적으로 남성들과 여성들에게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섹스의 비생리학적인 요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섹스와 젠더를 따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⁶² 이러한 구분은 이러한 용어들이 현재

⁶⁰ Money notes that gender did appear occasionally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as a reference to male and female but was considered colloquial or satirical. John Money, "Gender: History, Theory, and Usage of the Term in Sexology and Its Relationship to Nature/Nurture,"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Vol. 11, No. 2 (1985), pp. 71-79. See also Margaret H. McCarthy, "Gender Ideology and the Humanum," *Communio: International Catholic Review*, 43 (2016), pp. 274-298 (retrieved from communio-icr.com/articles/view/gender-ideology-and-the-humanum, p. 285); and L.S. Mayer and P.R. McHugh, "Sexuality and Gender: Findings from the Biolog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Sciences," *The New*

Atlantis: A Journal of Technology and Society, No. 50 (2016), p. 91 and note 17.

⁶¹ John Money, "The Concept of Gender Identity Disorder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fter 39 Years,"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Vol. 20, No. 3 (1994), pp. 163-77.

⁶² Rhoda K. Unger, "Toward a Redefinition of Sex and Gender," *American Psychologist*, 34 (1976), p. 1086; see also Stephanie A. Shields and Elaine C. Diccio, "The Social Psychology of Sex and Gender: From Gender Differences to Doing Gender,"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5(3) (2011), pp. 491-99. See also J.K. Beilby and P.R. Eddy, eds., *Understanding Transgender Identities: Four Views* (Grand Rapids, Mich.: Baker Academic, 2019), pp. 13-16.

distinction is foundational to the way in which a range of terms are currently being used in our culture. Many of these terms are contested, and we are aware that attempting to define them too rigidly risks alienating some persons, minimizing their experiences, or endorsing positions with which they disagree. This is not our intent. Rather, we define the following terms, listed in alphabetical order, to provide necessary clarity as to how we are using them in our report.	우리 문화에서 사용되는 방식에 근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 중 많은 수가 서로 경쟁하며 이 용어들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정의 내리려고 하면 몇몇 사람들을 소외감 느끼게 하고, 그들의 경험을 축소시키거나 그들이 반대하는 위치에 그 사람들을 놓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알파벳 순서로 열거된 다음의 용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보고서에 사용하는지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정의 내립니다.
- <i>cisgender</i> : a sense of having a gender identity that matches one's sex; understood as the opposite of <i>transgender</i> . ⁶³	- 시스젠더(cisgender) : 섹스와 일치하는 젠더 정체성; 트랜스젠더의 반대로 이해됨. ⁶³
- <i>desist</i> : to cease from gender dysphoria. This term is used by medical professionals to describe the response of children or youth who experience gender dysphoria but who no longer persist in wanting to be the other sex. It is also used by gender dysphoric youth or adults who resist pressure to transition.	- 디시스트(desist) : 성별 불쾌감 중지. 이 용어는 의학전문용어로서 성별 불쾌감을 경험했지만 더 이상 반대의 성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어린이 혹은 청소년의 반응을 묘사하는 용어입니다. 이는 또한 성별 불쾌감을 느끼지만 성전환의 압력을 거부하는 청소년 혹은 성인들이 사용합니다.
- <i>detransition</i> : when a person transitions back to living in alignment with their sex, after having earlier transitioned to live as the sex that corresponds to their gender identity.	- 디트랜지션(detransition) : 젠더 정체성에 일치하는 섹스로 전환을 했다가 본래의 섹스와 일치하는 삶으로 돌아온 경우
- <i>disorders of sexual development (DSDs)</i> : also referred to as <i>intersex</i> , and formerly referred to as <i>hermaphrodite</i> , DSDs are congenital (biologically based) conditions in which the development of a person's chromosomal, gonadal, internal, and/or external	- 성 발달장애(disorders of sexual development, DSDs) : 중성이라고도 불리고 과거에는 남녀양성자로 불리웠던 성발달장애는 (생물학으로 바탕을 두는) 염색체, 생식선, 체내 및/혹은 체외의 해부학적 섹스의 발달이 이례적인 타고난 조건입니다. 몇몇 성

⁶³ This is perhaps one of the clearer examples of how terms are not neutral. As described by the *Sydney Diocesan Doctrine Commission*, "This term cisgender emerged in the 1990s as part of the development of transgender ideology. Although, in itself, it is a

neutral descriptor, it is often employed in order to normalise transgender experience; i.e., to convey the idea that it is just as natural for some to be transgender as it is for others to be cisgender."

anatomical sex is atypical. Some DSDs are visible at birth. Others appear at later stages because of the malfunctioning of (estrogen or testosterone) hormones.	발달장애는 출생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른 경우는 (에스트로겐 혹은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의 기능저하로 인하여 나중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 <i>gender</i> : categorization of humans as male and female based on culturally sanctioned roles, behaviors, expressions (sometimes also labeled as masculinity and femininity).	- 젠더(gender) : 문화적으로 인가된 역할, 행동, 표현 (남성성 및 여성성으로 라벨을 붙이는 것도 포함)을 바탕으로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
- <i>gender dysphoria (GD)</i> : distress experienced by persons whose gender identity differs from their sex.	-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 (GD)) : 자신의 섹스와 다른 젠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갖는 고통
- <i>gender identity</i> : a person's internal sense of being male, female, or other (see <i>gender nonconforming</i> below).	-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 : 남성, 여성, 혹은 기타 성으로 느끼는 내적 감각 (아래 성별불순응자 참고)
- <i>gender nonconforming</i> : when a person's behavior, appearance, expression, or identity does not conform to cultural expectations associated with their sex. Some may also use the terms <i>queer</i> , <i>genderfluid</i> , or <i>nonbinary</i> .	- 성별 불순응자(gender nonconforming) : 행동, 외모, 표현 혹은 정체성이 그 사람의 섹스와 관련된 문화적 기대에 순응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사람들은 퀴어(queer), 젠더플루이드(genderfluid), 제 3 의 성(nonbinary)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 <i>physical transition</i> : when a person undergoes medical treatments such as hormone therapy and/or <i>sex reassignment surgeries</i> in order to bring their body into alignment with the gender with which they identify.	- 신체적 성전환(physical transition) : 스스로가 인정하는 젠더 일치하도록 호르몬 치료 및/혹은 성 재할당 수술과 같은 의학적 치료를 받을 때
- <i>sex reassignment surgery (SRS)</i> : surgical procedures to alter a person's existing sexual characteristics to resemble and/or function like those of the sex that corresponds to their gender identity.	- 성 재할당 수술(sex reassignment surgery, SRS) : 기존의 성적 특성을 바꾸어 젠더 정체성과 일치하는 섹스와 닮게 그리고/혹은 기능하게 하기 위한 외과 수술적인 절차
- <i>sex</i> : categorization of humans (and animals) as male and female on the basis of physical, biological, hormonal, and anatomical characteristics.	- 섹스 (sex) : 신체, 생물학, 호르몬, 해부학적 특성들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및 동물)을 남자와 여자로 분류
- <i>social transition</i> : when a person makes nonmedical changes, such as in clothing, name, or personal pronouns, in order to live in alignment with their gender identity.	- 사회적 전환(social transition) : 젠더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의상, 이름, 혹은 인칭 대명사와 같은 비의학적 변화를 줄 때

<p>- <i>transgender</i>: a broad term that includes persons who define themselves as a gender other than their sex, and who may or may not have socially or physically transitioned from <i>male to female (MtF)</i> or <i>female to male (FtM)</i>.</p>	<p>- 트랜스젠더(transgender): 스스로를 섹스가 아닌 젠더로 규정하는 사람들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용어. 그리고 남자에서 여자(<i>male to female, MtF</i>)로 혹은 여자에서 남자로(<i>female to male, FtM</i>) 사회적 혹은 신체적 전환을 거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p>
<p>- <i>transition</i>: when a person changes to live in alignment with the sex that corresponds to their <i>gender identity</i>.</p>	<p>- 전환(transition): 젠더 정체성과 일치하는 섹스로 살기 위해 전환할 때.</p>
<p>C. <i>Questions of worldview</i></p>	<p>C. 세계관에 관한 질문들</p>
<p>These terms might provide some clarity, but they cannot do justice to the complexities, pain, and difficulties of persons who experience the various conditions that these words attempt to convey. For even as we acknowledge that many of us are relatively comfortable with our sense of being male and female and do not experience incongruity between our sex and our gender, we recognize that some among us feel alienated, confused, or ashamed because something doesn't feel quite right. Some of us feel out of sorts with our bodies, for reasons we do not understand, and this is a situation we did not choose. Some of us experience bullying or are condemned for our choices or preferences for dress, occupation, hobbies, literature, food, recreation, and a host of other things, while others of us are judged for our mannerisms, our body shape, our behaviors, or even the sound of our own voice. For still others, a sense of being "trapped in the wrong body" has led to despair, hopelessness, even thoughts of suicide. These difficulties are often exacerbated by rigid cultural expectations about "proper" roles for women and men (and we must acknowledge what is often referred to as the double</p>	<p>이러한 용어들이 다소 명확성을 더해 줄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용어들이 전하려고 하는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복잡함, 고통, 어려움을 제대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남성이고 여성인 것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고 우리의 섹스와 젠더 사이의 부조화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중 몇몇은 무언가 맞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에 소외되고 혼란스럽고 수치스러움을 느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중 몇몇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들로 우리 몸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며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우리의 습관, 체형, 행동 혹은 심지어 목소리 때문에 판단을 받는 한편, 또 다른 누군가는 옷에 대한 선택이나 선호도, 직업, 취미, 문학, 음식, 여가생활 및 기타 여러가지 때문에 놀림을 당하거나 비난을 받습니다. 또한, 또 다른 누군가는 "잘못된 몸에 갇혀 있는" 느낌 때문에 좌절, 절망, 심지어 자살충동까지 느낍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남자와 여자에 대한 "적절한" 역할에 대한 경직된 문화적 기대로 인하여 더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젠더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다고 하여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종종 이중잣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p>

<p>standard, in which women disproportionately have borne the brunt of condemnation for “violating” gender expectations). Though social scientists have demonstrated wide variations across cultures and throughout history in roles for females and males,⁶⁴ many humans have the stubborn tendency to cling to narrow understandings of the “right” way to live out one’s maleness or femaleness. Gender stereotypes persist and are ubiquitous in media, entertainment, industry, sports, politics, religion, and the family. Paradoxically, as much as we celebrate freedom, those who do not conform to narrow gender expectations often find themselves marginalized or discriminated against. It is not so simple to “just be” male and female. The individual challenges we experience spill out beyond our homes and families and have become political and ideological battlefronts pitting various groups against one another. Trying to make sense of gender identity not only requires us to consider the challenges we experience as individuals but also pushes us to dig deeper to understand the assumptions behind various approaches to gender differences.</p>	<p>사회과학자들이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문화와 역사에 따라서 다양하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⁶⁴ 많은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로서 사는 “옳은” 방식에 대한 좁은 이해에 매이는 고집스러운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스포츠, 정치, 종교, 가정 내에서 끈질기게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자유를 기념하는 만큼 좁은 성역할 기대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소외되거나 차별당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냥” 남자와 여자로 사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개인적인 어려움들은 집과 가족을 넘어서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전쟁터로 나아가 다양한 그룹들이 서로 대항하게 되었습니다. 젠더 정체성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제고해야 할 뿐 아니라 젠더의 차이를 이해하는 다양한 접근 이면의 추정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p>
<p>We are in a cultural moment in North America and Europe when longstanding beliefs and practices about sex and gender have been challenged and questioned, by</p>	<p>우리는 북미주와 유럽에서 섹스와 젠더에 관해서 오랫동안 지켜져 왔던 믿음과 관습들에 대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에게</p>

⁶⁴ See Mary Stewart Van Leeuwen, *Gender and Grace: Love, Work, and Parenting in a Changing World* (1990); and *My Brother’s Keeper: What the Social Sciences Do (and Don’t) Tell Us about Masculinity* (2002). The fact that social scientists have also found enduring patterns of general differences between males and females does not negate this observation. See Sue, Rounds, and Armstrong, “Men and Things, Women and People: A Meta-Analysis of Sex

Differences in Interest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35, No. 6 (2009), pp. 859–84; Mark Regnerus, *Cheap Sex: The Transformation of Men, Marriage, and Monogam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Yanna J. Weisberg, Colin G. DeYoung, and Jacob B. Hirsh, “Gender Differences in Personality across the Ten Aspects of the Big Five,” *Frontiers in Psychology | Personality Science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2, Art. 178 (2011), pp. 1-11.

<p>Christians and non-Christians alike.⁶⁵ <i>National Geographic</i>,⁶⁶ <i>Time</i> magazine,⁶⁷ and <i>The Atlantic</i>⁶⁸ have all featured recent cover stories on gender identity. In September 2019 Merriam-Webster announced the addition of the gender nonbinary use of <i>they</i> to its dictionary.⁶⁹ Soon after toy giant Mattel introduced “Creatable World,” which it claims is the first-ever line of gender neutral dolls.⁷⁰ The mainstream approval of such revolutionary changes would scarcely have been imaginable less than a generation ago. Nonetheless these changes continue to be resisted in other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Latin and South America, Africa, and Asia.⁷¹</p>	<p>도전받고 질문 받는 문화적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⁶⁵ 내셔널 지오그래픽⁶⁶, 타임 지⁶⁷, 아틀란틱 지⁶⁸는 모두 최신호 커버 스토리에서 젠더 정체성을 다루었습니다. 2019 년 9 월 미리엄 웹스터 사전은 그들이 제 3 의 성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⁶⁹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 장난감 회사 매텔(Mattel)이 “만들 수 있는 세상”을 소개했는데 이는 성중립적인 인형을 최초로 출시하는 것입니다.⁷⁰ 이런 혁명적인 변화에 대한 주류의 승인은 한 세대 전만해도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 라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등을 포함하는 지구의 다른 한 편에서는 계속해서 저항이 있습니다.⁷¹</p>
<p>Ideas once considered radical and extreme permeate our societal consciousness. They are all around us in public policy developments such as gender neutral restrooms, third gender category options on birth certificates and driver's licenses, requirements for gender</p>	<p>한 때 급진적이고 극단적이라고 여겨졌던 사상들이 우리 사회 인식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러한 사상들은 젠더 중립적 화장실, 출생증명서 및 운전면허증에서의 제 3 의 성 선택권, 젠더 중립적인 인칭대명사 사용 요건, 성전환을 위한 호르몬 혹은 수술시 공적 재정</p>

⁶⁵ See, for example, Mark Regnerus, *Cheap Sex: The Transformation of Men, Marriage, and Monogam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We are living in what some have called the “transgender moment.” See also Ryan Anderson, *When Harry Became Sally: Responding to the Transgender Moment*, (New York: Encounter Books, 2018), p. 1, and note 1, p. 217.

⁶⁶ “Gender Revolution,” Jan. 2017; nationalgeographic.com/magazine/2017/01/

⁶⁷ “Beyond He or She,” Mar. 2017; time.com/4703058/time-cover-story-beyond-he-or-she/

⁶⁸ “Your Child Says She’s Trans,” July/Aug. 2018; theatlantic.com/magazine/toc/2018/07/

⁶⁹ “A Note on the Nonbinary ‘They’: It’s Now in the Dictionary,” retrieved from merriam-webster.com/words-at-play/nonbinary-they-is-in-the-dictionary

⁷⁰ Eliana Dockterman, “‘A Doll For Everyone’: Meet Mattel’s Gender-Neutral Doll,” *Time* (Sept. 25, 2019), retrieved from time.com/5684822/mattel-gender-neutral-doll. See also mattel.com/en-ca/creatable-world.

⁷¹ “The Global Divide on Homosexuality,” Pew Research Center (June 4, 2013); pewresearch.org/global/2013/06/04/the-global-divide-on-homosexuality. See also “African United Methodists Won’t Trade Bible for Dollars,” *Juicy Ecumenism: The Institute on Religion and Democracy’s Blog* (Feb. 23, 2019); juicyecumenism.com/2019/02/23/african-united-methodists-wont-trade-bible-for-dollars/#J. See also John Anderson, “Conservative Christianity, the Global South and the Battle over Sexual Orientation,” *Third World Quarterly*, Vol. 32, No. 9 (2011), pp. 1589-1605.

<p>neutral pronouns, access to publicly financed hormonal and surgical interventions for gender transitioning, and the demand for affirmation of multiple gender identities as a human right.</p>	<p>부조, 인권으로써 다수 젠더 정체성 허용 요구 등과 같은 공공 정책 발전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를 둘러싸고 있습니다.</p>
<p>In addition to these public policy developments, health, education, and social services have had to adapt to complex dilemmas pitting the claims of persons who have transitioned against the safety and well-being of others, specifically women. For example, women’s shelters have been required to accept transwomen who have not physically transitioned, and who thus pose a threat to women attempting to escape the threat of violence from men⁷²; men who have been convicted of sex crimes have changed their sex and been placed in women’s prisons, putting women inmates at risk of being sexually assaulted by these transwomen.⁷³ The idea of gender identity itself is a recent break from the conventional assumption that sex differences were fixed and normative.</p>	<p>이러한 공공정책 발전 외에도 보건, 교육 및 사회 서비스는 타인, 특히 여성의 안전과 복지에 해가 되는 쪽으로 돌아선 사람들의 주장에 순응하는 복잡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 대피소는 신체적인 전환을 하지 않은 트랜스여성들을 받아 주어야 했고, 남성의 폭력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여성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⁷²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성별을 바꿔서 여자 수감소에 들어가 여성 재소자들이 이러한 트랜스여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⁷³ 젠더 정체성이라는 개념 자체는 성적 차이가 고정되고 규범적이라는 전통적인 추정에서 최근에 탈피한 것입니다.</p>
<p>Changes such as these do not occur in a vacuum. They reflect cultural, philosophical, and political developments whose origins go much further back than a few decades.⁷⁴ They are not simply rooted in science. They rest on assumptions about the nature of the world, how we know what is true, and how we should live and act—what philosophers call ontological, epistemological,</p>	<p>이와 같은 변화는 진공 상태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수 십 년 전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간 기원을 가진 문화적, 철학적, 정치적 발전을 반영합니다.⁷⁴ 이것들이 단순히 과학에 뿌리를 두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세상의 자연에 관한 추측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고 행동해야 하는지에</p>

⁷² See, for example, out.com/transgender/2019/8/28/canadian-shelter-excludes-trans-women-was-vandalized.

⁷³ See, for example, quilllette.com/2019/10/12/male-bodied-rapists-are-being-imprisoned-with-women-why-do-so-few-people-care/.

⁷⁴ Jonathan Grant, *Divine Sex: A Compelling Vision for Christian Relationships in a Hypersexualized Age* (Grand Rapids, Mich.:

Brazos, 2015); Glynn Harrison, *A Better Story: God, Sex, and Human Flourishing* (London: IVP, 2017); Scott Yenor, “Sex, Gender, and the Origin of the Culture Wars: An Intellectual History,” Heritage Foundation (2017), retrieved from report.heritage.org/fp63.

<p>and ethical categories. It is therefore impossible to negotiate competing claim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ex, gender, and gender identity from any sort of objective, neutral, or scientific standpoint. We cannot escape questions of worldview.</p>	<p>관한 추측들 (철학자들이 존재론적, 인식론적, 윤리적 분류라고 부르는)에 기초합니다. 그러므로 섹스, 젠더, 젠더 정체성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여러 다른 주장들을 어떤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과학적인 관점에서 협상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p>
<p>It is arguable that the primary value of modern, Western society is the individual self. In part, this is due to the influence of Christianity.⁷⁵ Christianity cut through the social hierarchies of the ancient world, which philosophers like Aristotle considered natural, and insisted on the dignity and responsibility of every single human being, made in the image of God. Women, children, and men were invited to embrace the gospel regardless of the claims that their husbands, fathers, governments, or masters may have made upon them. In their baptism they were offered a new identity in Christ that transcended every other identity.</p>	<p>근대화의 주된 가치 즉, 서구사회는 개별적 자아라는 것은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것은 기독교의 영향 때문입니다.⁷⁵ 기독교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이 자연스럽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개개인의 존엄과 책임을 주장하는 등 고대사회의 사회 계급을 가로지릅니다. 여자, 어린아이, 남자들은 그들의 남편, 아버지, 정부 혹은 주인의 주장과 별개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초청받았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안에서 모든 다른 정체성을 초월하는 새로운 자아를 제공받았습니다.</p>
<p>Over time, Christian convictions regarding the value of the individual led Western societies to advocate on behalf of the poor, abolish slavery, and establish democracy. Values like love and justice, liberty and equality,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became the foundations of the Western moral and political order. The moral order was said to consist in a set of rights granted to every human individual by their sovereign creator. These rights were to be exercised in accord with God's moral will as revealed in Scripture and as embedded in natural law—the created order—or what Abraham Kuyper referred to as God's creation ordinances.</p>	<p>시대를 지나면서 기독교인들의 개인의 가치에 대한 확신은 서구사회가 가난한 자를 대변하고,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사랑과 정의, 자유와 평등, 인권과 법치와 같은 가치들은 서구의 도덕적 정치적 질서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도덕 질서는 주권자되시는 창조자에 의해 각각의 개인에게 주어진 일련의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성경에 계시되고 자연법 (창조질서 혹은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했던 하나님의 창조 법령)에 내포된 하나님의 도덕적 의지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p>

⁷⁵ Larry Siedentop, *Inventing the Individual: The Origins of Western Liberalism* (Cambridge, Mas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14).

<p>Unfortunately, for far too long women were not given these rights. During the 19th century first-wave feminists, many of whom were Christians, insisted that women should enjoy the same rights as men.⁷⁶ In the course of the 20th century women were accorded many of the legal and civil rights that men enjoyed. Many Christians rightly embraced these developments, all the while assuming that women and men are called to exercise their freedom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moral will of God and with the moral order of creation.</p>	<p>안타깝게도 너무 오랜 동안 여성들에게 이러한 권리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19 세기에 들어서야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던 첫 세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도 남성처럼 동일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⁷⁶ 20 세기를 지나면서 여성들은 남성들이 누리던 많은 법적 권리와 시민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여성과 남성이 그들의 자유를 하나님의 도덕적 의지와 창조의 도덕적 질서와 일관되게 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발전들을 잘 받아들였습니다.</p>
<p>At the same time, strands of the Western liberal tradition were beginning to argue for a much more extreme understanding of individual human autonomy. According to this understanding, human rights are inherent to each individual self without regard to a creator. Individuals are free to exercise their rights as they see fit, subject only to the requirement that in the exercise of their rights they may not violate the rights of other persons. Appeals to religious authority, nature, or tradition are subordinate to the autonomy of the individual self.</p>	<p>이와 동시에 서구 자유주의적 전통의 분파들은 훨씬 더 극단적으로 개인의 인간 자율성에 대한 이해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인권은 창조주와 관계없이 각각의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개인은 자신의 권리를 타인의 권리만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이 옳다고 믿으면 행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권위, 자연, 혹은 전통은 개별적 자아의 자율성에 종속되게 되었습니다.</p>
<p>Over time this logic has been embraced by a growing number of people and applied in increasingly extreme ways. For example, pro-choice advocates argue that women have the right to abort their unborn fetuses. Many gay rights advocates insist that a person has the right to</p>	<p>시간이 지나 이러한 논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더욱 극단적인 방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낙태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성에게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유산시킬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게이 권리주창가들은 사람이</p>

⁷⁶ John Stuart Mill, "The Subjection of Women" in A. Jaggar and P. Rothenberg, eds., *Feminist Frameworks: Alternative Theoretical Accounts of the Relations Between Women and Men*, 2nd ed. (New York: McGraw-Hill, 1984/1869), pp. 104-13; Elizabeth Clay Stanton and Elizabeth Cady, "Address before the U.S. Senate Committee on

Woman Suffrage," in J. Kourmay, J. Sterba, and R. Tong, eds., *Feminist Philosophies: Problems, Theories, and Application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92/1892), pp. 269-70; Mary Wollstonecraft, *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en* (Rutland, Vt.: Charles E. Tuttle Co./Everyman's Library, (1992/1792).

marry any other person, regardless of sex. Some transgender advocates follow this logic by maintaining that a person has the freedom to choose whether or not they should identify as male or female. In the face of such claims, appeals to biology are no more persuasive than appeals to religion.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몇몇 트랜스젠더들은 이러한 논리를 따라 사람은 스스로를 남성 혹은 여성으로 규정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들 앞에서 생물학에 호소하는 것이 종교에 호소하는 것보다 더 이상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다.
Christian political theorist David Koyzis argues that small-/ liberal societies of the early 21st century have evolved into “choice enhancement” states that abandon all pretense to a consensus on what is considered good other than individual choice. ⁷⁷ Charles Taylor makes a similar point when he observes the mid-20th-century emergence of “expressive individualism.” He points out that “the sexual revolution . . . was moved by a complex of moral ideas in which discovering one’s authentic identity and demanding that it be recognized was connected to the goal of equality.” ⁷⁸ Enhancing the freedom to establish one’s identity extends not only to one’s choices regarding sexual practices and partners but also to one’s identity as male, female, or something else entirely.	기독교인 정치 이론가인 데이빗 코이지스는 21 세기 초의 작은/자유주의적 사회는 “선택 강화”의 상태로 진화하여 개인의 선택 말고 선택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한 합의에 이르는 모든 주장을 버렸습니다. ⁷⁷ 찰스 테일러는 20 세기 중반에 등장한 “표현력이 풍부한 개인주의”를 관찰하면서 “성혁명... 개인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것이 인정받도록 요구하는 것이 평등의 목적과 연결된다는 복잡한 도덕적 아이디어에 의해 움직여졌다” ⁷⁸ 고 비슷하게 주장 했습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은 그 사람의 성적 관습과 파트너에 관한 선택으로만 확장되었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의 남성, 여성, 혹은 기타 무언가인 정체성으로까지 완전히 확장되었습니다.
Nancy Pearcey demonstrates how this choice, which she associates with postmodernism, depends on a dualistic notion of personhood in which the mind is distinct from the body and more important to one’s identity than the body. She concludes that	낸시 피어시는 이 선택이 마음이 몸과 구별되고 마음이 몸보다 한 사람의 정체성에 더 중요하다는 이원론적인 개인성 개념에 어떻게 의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⁷⁷ David Koyzis, *Political Visions and Illusions: A Survey and Christian Critique of Contemporary Ideologies*, 2nd ed.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2019), chap. 2.

⁷⁸ Charles Taylor, *A Secular Age* (Self-published, 2007), p. 502.

<p>Postmodernism is thus the latest, and most extreme version of the body/mind dichotomy—one that treats the body itself as infinitely malleable, with no definite nature of its own. . . . If the body cannot be defined, then it places no constraints on our gender identity. The goal is complete freedom to declare oneself a man or a woman or both or neither. The sovereign self will not tolerate having its options limited by anything it did not choose—not even its own body.⁷⁹</p>	<p>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즘은 최신의 개념이고 몸과 마음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가장 극단적인 버전입니다 (몸은 그 자체로는 정해진 성질이 없이 무한대로 가소성이 있는 것처럼 취급합니다)... 만약 몸이 정의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젠더 정체성에 제약을 가할 수 없습니다. 목표는 한 개인을 남자로, 여자로, 혹은 둘 다 이거나 둘 다 아닌 것으로 선언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인 것입니다. 주권을 가진 자야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그 무언가에 의해서 (그게 자신의 몸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선택이 제한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⁷⁹</p>
<p>The modern pursuit of human autonomy freed from all constraints to create one's own identity is one of the radical strands of the sexual revolution. The sharp distinction between sex and gender emerged out of this context. It was not merely a neutral, objective, or scientific classification. It was part of an explicit project to undermine traditional understandings of sex and gender and to pave the way for individual choice and identity freed from the constraints of the body. As Catholic theological anthropologist Margaret McCarthy concludes,</p>	<p>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가해지는 모든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근대의 추구는 성혁명의 급진적인 분파 중 하나입니다. 섹스와 젠더 사이의 분명한 구분은 그 문맥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이거나 과학적인 분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섹스와 젠더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약화시키고, 몸의 제약에서 자유로워진 개인의 선택과 정체성을 위한 길을 내는 노골적인 프로젝트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가톨릭 신학자 겸 인류학자인 마가렛 맥카티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p>
<p>The dominant idea of “gender” . . . has now become the vehicle for challenging any identity prior to choice (disordered or otherwise). “Gender” now belongs to the realm of the disembodied will, which stands over its body and chooses (“assigns”) an “identity” without any need for justification, especially when such choice is in opposition to its given sex.⁸⁰</p>	<p>“젠더”라는 지배적인 생각은 이제 선택 (무질서한 선택이든 말든)에 앞서 어떤 정체성에도 도전을 가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젠더”는 이제 육체를 떠난 의지의 영역에 속하게 되어 몸을 감독하고</p>

⁷⁹ Nancy Pearcey, *Love Thy Body: Answering Hard Questions About Life and Sexuality* (Grand Rapids, Mich.: Baker, 2018), p. 210.

⁸⁰ Margaret H. McCarthy, “Gender Ideology and the Humanum,” *Communio: International Catholic Review*, 43 (2016), pp. 274-298; retrieved from communio-icr.com/articles/view/gender-ideology-and-

[the-humanum](http://communio-icr.com/articles/view/gender-ideology-and-), p. 288. Michael Walsh similarly observes that shifting from *sex* to *gender* was part of the larger strategy of the “Frankfurt School” of critical theorists who sought to undermine the traditional ethics of Western civilization in the wake of World War II; see his *The Devil's Pleasure Palace: The Cult of Critical Theory and the*

	<p>“정체성”을 선택 (“배정”)합니다. 이 때 정당화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그 선택이 주어진 섹스와 반대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⁸⁰</p>
<p>Separating gender identity from biological sex and linking these to choice and identity reflects an underlying worldview of humans as creatures whose core sense of identity is not connected to their bodies. As Pearcey notes, this dualistic understanding gives rise to humans as beings who consist of fragmented bits of desires, expressions, and attractions. Such an understanding of gender identity is portrayed by the currently popular “gender unicorn” poster depicted below.⁸¹</p>	<p>젠더 정체성을 생물학적 섹스와 분리시키고 개인의 선택과 정체성과 연결 짓는 것은 인간의 핵심 정체성이 몸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피어시가 언급했듯이 이러한 이분법적인 이해는 파편화된 욕망, 표현, 매력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젠더 정체성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아래에 그려진 최근 유행하는 “젠더 유니콘” 포스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⁸¹</p>

 <p>The Gender Unicorn</p> <p>Graphic by: TSER Trans Student Educational Resources</p> <p>Gender Identity: Female/Woman/Girl, Male/Man/Boy, Other Gender(s)</p> <p>Gender Expression: Feminine, Masculine, Other</p> <p>Sex Assigned at Birth: Female, Male, Other/Intersex</p> <p>Physically Attracted to: Women, Men, Other Gender(s)</p> <p>Emotionally Attracted to: Women, Men, Other Gender(s)</p> <p>To learn more, go to: www.transstudent.org/gender</p> <p>Design by Landyn Pan and Anne Moore</p>	<p>젠더 유니콘</p> <p>젠더 정체성</p> <p>젠더 표현</p> <p>출생 시 주어진 섹스</p> <p>신체적으로 끌리는 성</p> <p>정서적으로 끌리는 성</p>
--	---

<p>The gender unicorn illustrates the range of choices available to individuals in five areas: identity, expression, sex assigned at birth, physical attraction, and emotional attraction. Even “sex assigned at birth” is seen as a choice: the choice of doctors or parents based on an assessment of the newborn baby’s reproductive organs as male or female. Since, of course, a baby cannot make this choice for her or himself, this “assignment” of sex is often viewed as an external imposition and an infringement of an individual’s freedom. In fact, the gender unicorn’s inclusion of “sex assigned at birth” was developed partly in response to the earlier “genderbread person” poster, which initially used the term “biological sex” but after enduring criticism was revised to refer to “sex assigned at birth.”⁸² From this vantage point, “sex <i>assigned</i> at birth” might be more accurately phrased as “sex <i>imposed</i> at birth.” It is also notable that an individual’s perception of their gender is deemed more authentic and important than their biological sex.</p>	<p>젠더 유니콘은 다음 다섯 가지 영역에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선택을 묘사합니다. “출생시 주어진 섹스”조차도 선택으로, 갓 태어난 신생아의 생식기관에 대해 남자 혹은 여자라고 내리는 평가에 근거한 의사와 부모의 선택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아기는 스스로 이런 선택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부과된” 섹스는 외부에서 도입된 것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실상 젠더 유니콘의 “출생시 주어진 섹스”는 부분적으로 앞서 “젠더 브레드맨” 포스터에 대한 응답으로 발전된 것으로써 처음에는 “생물학적 섹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던 것이 수차례의 비판을 거쳐 “출생시 주어진 섹스”로 수정되었습니다.⁸² 이러한 극단적인 관점에서, “출생시 주어진 섹스”는 “부과된 섹스”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또한 개인이 주장하는 성적 정체성은 생물학적 성별보다 더욱 정확하고 중요하게 되었습니다.</p>
<p>As is clear from the various attempts to display gender diversity (e.g., the gender unicorn, the gender elephant, and the genderbread person), it is now widely accepted as self-evident that sex and gender are not simply male or female but, rather, exist on a continuum. In fact, so common is this understanding that challenging or</p>	<p>젠더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가지 시도에서 명확히 볼 수 있듯이 (예: 젠더 유니콘, 젠더 코끼리, 젠더브레드맨) 이제 섹스와 젠더가 단순히 남자 혹은 여자가 아니라 연속체로 존재한다는 관점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이해는 너무나도 흔한데 도전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종종 차별적이거나, 편견이 아주 심하거나, 비과학적인 혹은 혐오하는 것으로 공격받습니다.⁸³</p>

⁸² Mey Rude, “It’s Time for People to Stop Using the Social Construct of “Biological Sex” to Defend Their Transmisogyny” (2014); autostraddle.com/its-time-for-people-to-stop-using-the-social-

construct-of-biological-sex-to-defend-their-transmisogyny-240284. Note that there are other critiques leading to other attempts, for example, the “Gender Elephant,” ccgsd-ccdgs.org/gender-elephant.

questioning it is often attacked as discriminatory, bigoted, unscientific, or hateful. ⁸³	
<i>D. Gender dysphoria</i>	D. 성별 불쾌감 (Gender dysphoria)
Conversations about gender identity are often complicated by widespread confusion between two significantly different experiences: <i>gender dysphoria</i> and <i>disorders of sexual development (DSD)</i> . ⁸⁴	젠더 정체성에 관한 대화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경험 (성별 불쾌감과 성 발달장애, <i>gender dysphoria</i> and <i>disorders of sexual development (DSD)</i>) 사이의 널리 퍼진 혼돈에 의해 복잡해지곤 합니다. ⁸⁴
Mark Yarhouse, a Christian clinical psychologist and director of the Sexual and Gender Identity Institute ⁸⁵ at Wheaton College, defines <i>gender dysphoria</i> as, “the experience of having a psychological and emotional identity as either male or female” that “does not correspond to your biological sex.” When a person experiences gender incongruence and it causes significant distress or impairment, they may meet criteria for a formal diagnosis of gender dysphoria. ⁸⁶	기독교인 임상 심리학자이자 휘튼 칼리지의 섹스 및 젠더 정체성 기관 ⁸⁵ 대표인 마크 야하우스는 성별불쾌감을 “생물학적 섹스와 일치하지 않는” “남성 혹은 여성으로 여기는 심리적, 정서적 정체성을 갖는 경험”이라고 정의합니다. 한 사람이 젠더 부조화를 경험하여 상당한 고통 혹은 장애를 경험할 때, 성별 불쾌감이라는 공식적인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게 될 수 있습니다. ⁸⁶
Yet this understanding has become controversial. Yarhouse notes that changes were recently made to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DSM-5) to “de-pathologize” gender incongruence and “shift the focus away from biological sex	그러나 이러한 이해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야하우스는 최근에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매뉴얼, 5 판 (DSM5)에 젠더부조화를 “비병리화” 로 수정하고 초점을 생물학적 섹스에서 주어진 젠더로 옮긴 것을 명시했습니다. ⁸⁷ 이것은 젠더의 유동성과 불일치성에 정당성을

⁸³ See for example, Margaret H. McCarthy, p. 276.

⁸⁴ Although some lump these two experiences together, Andrew Walker warns, for example, that “intersexuality and transgenderism are apples and oranges. Those who are pushing the gender revolution have an interest in confusing the categories”; Andrew Walker, *God and the Transgender Debate: What Does the Bible Actually Say About Gender Identity?* (The Good Book Company, 2017), p. 158.

⁸⁵ wheaton.edu/academics/school-of-psychology-counseling-and-family-therapy/sexual-and-gender-identity-institute

⁸⁶ Yarhouse, p. 19. Note that the diagnosis refers to what is specified in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DSM-5], 2013, pp. 451-59. See also Zucker, “The DSM-5 Diagnostic Criteria for Gender Dysphoria,” in C. Trombetta, G. Liguori, and M. Bertolotto, eds., *Management of Gender Dysphoria* (Switz.: Springer, Milano, 2015), pp. 33-37.

<p>to assigned gender.”⁸⁷ This is in keeping with the broader cultural trends to legitimize and affirm gender fluidity and nonconformity and to deconstruct traditional sex and gender differences.⁸⁸ In addition, some scholars now reject the idea that sex is a fixed biological state. Instead, they argue that it is a product of social and cultural construction.⁸⁹ Others question whether the experience of incongruence is the problem, or whether it is only a problem when it causes anxiety, suffering, or depression.</p>	<p>부여하고 확인하며 전통적인 섹스와 젠더의 차이를 무너뜨리는 보다 넓은 범위의 문화적 트렌드와 궤를 같이 합니다.⁸⁸ 또한, 몇몇 학자들은 이제 섹스가 정해진 생물학적 상태라는 생각을 거절합니다. 그 대신, 그들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구축된 결과물이라고 주장합니다.⁸⁹ 또 다른 사람들은 부조화의 경험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불안, 고통, 우울증을 야기시킬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p>
<p>Yarhouse provides a helpfu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different ways in which Christians have responded to the complexity of gender dysphoria. He identifies three distinct frameworks, summarized in the table below.⁹⁰ The Integrity framework views gender as a created reality that is fixed and normative. This perspective regards male and female as categories that are essential to understanding the nature of humans. It views any deviation from these essential categories as disobedience or rebellion that is incompatible with human flourishing.</p>	<p>야하우스는 기독교인들이 성별 불쾌감의 복잡성에 대해 응답하는 여러가지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유용한 사고의 틀을 제공합니다. 그는 세 가지 구별되는 틀을 찾았는데 이는 아래와 같이 요약되어 있습니다.⁹⁰ 온전성으로 보는 관점은 젠더를 정해지고 규범적인 창조된 현실로 봅니다. 이러한 관점은 남자와 여자를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범주로 여깁니다. 이는 이 범주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을 인간의 변성과 양립 불가능한 불순종 혹은 반역으로 여깁니다.</p>

⁸⁷ Yarhouse, p. 62.

⁸⁸ See, for example, Anderson, 2018; Pearcey, 2018; Mayer and McHugh, 2016; Walker, 2017.

⁸⁹ See Anderson, 2018, p. 31; Pearcey, 2018, pp. 194-96.

⁹⁰ Yarhouse, Table 2.1, p. 52.

Three Contrasting Frameworks for How Christians Approach Gender Dysphoria		
Integrity (sacred)	Disability (compassion)	Diversity (identity)
"Identifies the phenomenon of gender incongruence as confusing the sacredness of maleness and femaleness and specific resolutions as violations of that integrity"	"Identifies gender incongruence as a reflection of a fallen world in which the condition is a disability, a nonmoral reality to be addressed with compassion"	" <i>Strong form</i> : Deconstruction of sex/gender " <i>Weak form</i> : Highlights transgender issues as reflecting an identity and culture to be celebrated as an expression of diversity"

기독교인들의 성별불쾌감에 대한 접근법을 위한 세 가지 대조적인 틀		
온전 (성스러운)	장애 (공허)	다양성 (정체성)
"젠더 부조화라는 현상을 남성성과 여성성의 성스러움과 이 온전함을 혼란하게 하며 이러한 온전함을 해치는 특정한 결단이라고 본다"	"젠더 부조화를 타락한 세상의 반영으로 본다. 이러한 세상에서의 조건은 공허로 다가가야 할 장애이며 비정상적인 현실이라고 본다."	"강한 형태: 섹스/젠더 개념을 파괴" "약한 형태: 트랜스젠더 문제를 정체성으로 보고 다양성의 표현으로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p>The Disability framework recognizes the normative nature of male/female differences but acknowledges that in a fallen world an individual's experience of gender or their physical characteristics (for persons who have a DSD) might be confused or ambivalent through no fault of their own. Whether addressing gender dysphoria or a DSD, the disability framework regards such conditions as evidence of the brokenness of creation, instances in which something has gone awry from God's intent. Persons who suffer from them are to be regarded with compassion and</p>	<p>장애로 보는 관점은 남성/여성의 차이가 갖는 규범적 특성을 인정하지만 타락한 세상에서 개인이 겪는 젠더 혹은 그들의 신체적 특성 (성 발달장애를 겪는 사람들)과 관련된 경험이 혼란스럽거나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봅니다. 성별 불쾌감 혹은 성 발달 장애를 언급하든지 간에 장애로 보는 관점은 이러한 조건들을 창조가 파괴된 증거,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예로 여깁니다. 이러한 문제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공허하고 민감한</p>
---	--

sensitivity. They should be accommodated in such a way that they can cope with their “disability” as well as possible.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들의 “장애”와 최대한 잘 대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The Diversity approach regards variations of gender expression and characteristics as existing on a continuum that reflects a range of possibilities having no moral or normative found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persons whose experiences of their gender do not align with majority categories of male and female are regarded as variations reflecting the beauty and wonder of human possibility. As such, they should be supported and affirmed. In its strong form, the diversity framework insists on the deconstruction of sex and gender altogether.	다양성 관점은 젠더 표현과 특징의 편차가 도덕적 혹은 규범적인 기초 없이 다양한 가능성들을 반영하는 연속체에 존재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라는 다수의 범주와 맞지 않는 젠더를 경험한 사람들은 인간의 가능성의 아름다움과 경이를 반영하는 변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처럼 이러한 사람들은 지지를 받고 긍정 받아야 합니다. 그 강력한 형태 안에서 다양성 관점은 섹스와 젠더의 파괴를 주장합니다.
Yarhouse points out that each of these approaches has strengths and weaknesses. He thus argues for what he calls an “integrated” approach in which the integrity of male/female differences is affirmed, but in which Christians respond compassionately in a way that validates the experiences of persons with gender dysphoria.	야하우스는 각각의 접근방식에는 장단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남성/여성의 차이가 온전하다는 “온전”한 접근법이 확실하다고 증언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긍휼한 마음으로 성별 불쾌감이 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s difficult as gender dysphoria is for adults, it is even more difficult and controversial for children and youth. Rising public awareness of gender identity has revealed a fault line between those advocating a “gender affirming” approach and those who urge caution or defend traditional understandings of sex differences.	성별 불쾌감이 어른들에게 어려운 것처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더 힘들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젠더 정체성에 대해 점점 더 커지는 대중의 의식은 “젠더 확정적” 접근을 주창하는 사람들과 경계를 하거나 전통적인 섹스 차이의 이해를 수호하는 사람들 간의 약점을 드러내 왔습니다.
On the one hand, many professional groups and academics now advocate transition treatments for children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전문가 그룹과 학자들이 이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성전환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⁹¹ 그러나 많은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성전환의 효과와 안전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p>and youth.⁹¹ Many others, however, point out that there is in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for the effectiveness and safety of these transitioning treatments.⁹² Even worse, they argue, these treatments are intrusive, irreversible, and harmful.⁹³</p>	<p>지적합니다.⁹² 심지어 강제적이고, 돌이킬 수 없으며, 해롭기까지 하다고 주장합니다.⁹³</p>
<p>Further complicating the challenge of gender dysphoria in children and youth is the influence of popular media and entertainment. Affirming approaches are aided by mainstream shows like the popular reality TV series <i>I Am Jazz</i>,⁹⁴ which began in 2015 and as of 2020 was in its sixth season.⁹⁵ <i>I Am Jazz</i> follows Jazz Jennings, a boy who at the age of two identifies as a girl and pursues behavioral, hormonal, and surgical transition to become female. This sort of widespread attention to gender identity in popular media and entertainment has raised the question of the extent to which this is influencing children and teens to identify themselves as gender nonconforming as a solution to complex problems of depression, suicide, bullying, and anxiety.⁹⁶</p>	<p>어린이와 청소년의 성별 불쾌감의 도전을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것은 대중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의 영향입니다. 확정적인 접근은 2015-2020 년까지 6 개의 시즌을 방송하며 인기를 얻었던 리얼리티 TV 시리즈 <아이 엠 재즈>⁹⁴ 와 같은 주류 미디어의 방송의 지지를 받습니다.⁹⁵ <아이 엠 재즈>는 여자의 정체성을 갖는 2 살 남자 아이인 재즈 제닝스가 행동, 호르몬, 외과 수술로 여자로 전환하는 과정을 따라다니며 방송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중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에서 보여주는 젠더 정체성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어 스스로를 젠더 불순응자로 규정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삼아 우울증, 자살, 괴롭힘, 불안증의 복잡한 문제들까지 이르게 합니다.⁹⁶</p>

⁹¹ Se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Guidelines for Psychological Practice with Transgender and Gender Nonconforming People" (2015); apa.org/practice/guidelines/transgender.pdf. See also Jason Rafferty, "Ensuring Comprehensive Care and Support for Transgender and Gender-Diverse Children and Adolescents," *Pediatrics* (Oct. 2018), from 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Policy Statement; Hidalgo, et al. (2013).

⁹² See Mayer and McHughes, pp. 105-107; Yarhouse, 2015, pp. 101-111; Yarhouse and Sadusky, "A Christian Survey of Sex Reassignment Surgery and Hormone Therapy," Pastoral Paper #10, Centre for Faith & Sexuality.

⁹³ American College of Pediatricians, "Gender Ideology Harms Children," [acpeds.org/the-college-speaks/position-](http://acpeds.org/the-college-speaks/position-statements/gender-ideology-harms-children)

statements/gender-ideology-harms-children; Cretella, 2016; Michael Laidlaw, 2018; "The Gender Identity Phantom," Pediatric and Adolescent Gender Dysphoria Working Group; gdworkinggroup.org/2018/10/24/the-gender-identity-phantom/?fbclid=IwAR37c7N_zqtAec_RI_MTWaMHFiKAudqFLVeGMrUZKvq4AGbzw2zZuELAmb0.

⁹⁴ See imdb.com/title/tt4523638

⁹⁵ See womenshealthmag.com/health/a30681082/i-am-jazz-jennings-season-six-premiere-clitoris-surgery

⁹⁶ A recent journal article identifies this growing trend as "rapid onset gender dysphoria," but it has been criticized for its alleged lack of sensitivity to transgender persons; Lisa Littman, "Rapid-Onset Gender Dysphoria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A Study of Parental Reports," *PLOS ONE* (2018);

<p>The possible influence of media publicity on the onset of gender identity raises questions about the causes and prevalence of gender dysphoria. As with many other conditions, social and health scientists identify both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⁹⁷ For example, “brain sex” theories claim that the development and anatomy of the brains of persons who are transgender are different from those who do not identify as transgender, or that transgender persons are born with the physical sex of one gender and the brain of the opposite gender.⁹⁸</p>	<p>젠더 정체성의 발단에 미디어의 공공성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성별 불쾌감의 원인과 보급에 대한 의문들을 제기합니다. 다른 많은 여건들과 함께 사회과학자 및 보건과학자들은 생물학적, 환경적 요인들을 모두 확인합니다.⁹⁷ 예를 들면 “두뇌 성별” 이론들은 트랜스젠더들의 두뇌의 발달과 구조가 트랜스젠더가 아닌 사람들과 다르다거나 트랜스젠더들이 한 젠더의 신체적 섹스와 반대 젠더의 두뇌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합니다.⁹⁸</p>
<p>While such explanations have gained popularity, they have significant limitations that warrant caution with respect to certain treatment options.⁹⁹ The neuroscience of sex and brain differences, while still relatively young,¹⁰⁰ has demonstrated that although there are some detectable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brains, such differences do not provide sufficient evidence to conclude that the brains of males and females are of a different <i>type</i>. Rather, they differ in <i>degree</i> in various specific ways.</p>	<p>이러한 설명이 인기를 얻고 있는 반면에 몇몇 특정한 트리트먼트 옵션에 관해서 주의를 요하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⁹⁹ 상대적으로 신생학문이긴 해도¹⁰⁰ 섹스와 두뇌에 관한 뇌과학은 남자와 여자의 두뇌에 발견되는 차이점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한 차이점들이 남자와 여자의 두뇌가 서로 다른 유형이라고 결론을 내릴 만큼 충분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다양하고 특정한 방식으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주석가는 “두뇌는 간, 신장, 혹은 심장보다 덜 젠더화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¹⁰¹</p>

doi.org/10.1371/journal.pone.0202330. See also Harriet Hall, “Rapid-Onset Gender Dysphoria and Squelching Controversial Evidence” (2018); sciencebasedmedicine.org/rapid-onset-gender-dysphoria-and-squelching-controversial-evidence.

⁹⁷ See also Appendix A: What Can Science Tell Us about the Biological Origins of Sexual Orientation?

⁹⁸ Michael K. Laidlaw, “Gender Dysphoria and Children: An Endocrinologist’s Evaluation of *I am Jazz*”, *The Public Discourse* (Apr. 5, 2018); thepublicdiscourse.com/2018/04/21220.

⁹⁹ Joe Herbert, “Gender Identity Is in the Brain. What Does This Tell Us?” *Psychology Today* (Aug. 10, 2016);

psychologytoday.com/ca/blog/hormones-and-the-brain/201608/gender-identity-is-in-the-brain-what-does-tell-us.

¹⁰⁰ Center for Faith, Sexuality, and Gender, “Sex, Gender, and Transgender Experiences: Part 4—Brain Sex Theory” (Apr. 6, 2019); centerforfaith.com/blog/sex-gender-and-transgender-experiences-part-4-brain-sex-theory.

As one commentator noted, “The brain is no more gendered than the liver or kidneys or heart.” ¹⁰¹	
Further, evidence of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brains of males and females does not provide any conclusive evidence about where such differences come from or what they mean. ¹⁰² Claims that persons are transgender or have gender dysphoria because their physical sex doesn’t match their “brain sex” often rest on cultural stereotypes of what constitutes “typical” male and female characteristics. Yet these cultural stereotypes have no basis in neuroscientific evidence, let alone in Scripture. ¹⁰³	게다가 남자와 여자의 두뇌 사이의 몇가지 차이점들에 대한 증거는 그러한 차이점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혹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¹⁰² 트랜스젠더 혹은 성별 불쾌감을 갖는 것은 신체적 섹스가 그들의 “두뇌 섹스”와 불일치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종종 무엇이 “전형적인” 남자와 여자의 특성들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문화적 고정관념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고정관념들은 성경은 고사하고 신경과학적 증거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¹⁰³
Environmental factors are also posited as a cause of gender dysphoria. For example, some argue that rigid expectations of what it means to be masculine and feminine have created narrow cultural norms that impose restrictions and constraints on those who do not conform. Despite the claims made by various persons and groups, however, none of these theories, whether biological or environmental, has sufficient evidence to lend certainty. As Yarhouse repeatedly emphasizes, “ <i>we do not know what causes gender dysphoria.</i> ” ¹⁰⁴	환경적인 요인들 또한 성별 불쾌감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예를 들면, 몇몇 사람들은 남성적이고 여성적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경직된 기대가 그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약과 통제를 부과하는 좁은 의미의 문화적 규범들을 형성해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과 그룹에서 이런 주장을 함에도 불과하고 이 중 어떠한 이론도 생물학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확실성을 보여 줄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습니다. 야하우스가 반복적으로 강조하듯이 “우리는 성별 불쾌감을 무엇이 야기시키는지 알지 못합니다.” ¹⁰⁴

¹⁰¹ Lise Eliot, “Neurosexism: the myth that men and women have different brains,” *Nature* (Feb. 27, 2019); [nature.com/articles/d41586-019-00677-x](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0677-x).

¹⁰² Cordelia Fine, Daphna Joel, and Gina Rippon, “Eight Things You Need to Know about Sex, Gender, Brains, and Behavior: A Guide for Academics, Journalists, Parents, Gender Diversity Advocates, Social Justice Warriors, Tweeters, Facebookers, and Everyone Else,” *Scholar and Feminist Online*, (15.2, 2019);

sfonline.barnard.edu/neurogenderings/eight-things-you-need-to-know-about-sex-gender-brains-and-behavior-a-guide-for-academics-journalists-parents-gender-diversity-advocates-social-justice-warriors-tweeters-facebookers-and-ever/#.

¹⁰³ Mayer and McHugh, p. 104; Nate Pyle, *Man Enough: How Jesus Redefines Manhood* (Grand Rapids, Mich.: Zondervan, 2015), p. 30.

¹⁰⁴ Yarhouse, pp. 61, 79 (emphasis in original).

<p>Estimates of prevalence are also fraught with uncertainty, partly because the concepts of gender dysphoria and transgender are so recent and their meaning and categorization are constantly changing. Yarhouse’s review of the literature reveals that using the DSM-5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ition) understanding of gender dysphoria yields estimates of 0.005 to 0.0014 percent of adult men and 0.002 to 0.003 percent of women, but he suggests that such estimates are likely too low. Estimates of those who identify as transgender range from 0.033 and 0.047 percent.¹⁰⁵ By contrast, based on surveys in 19 states and statistical probability estimates for the other states, the Williams Institute estimates that 0.58 percent of Americans identify as transgender.¹⁰⁶</p>	<p>또한, 추정값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는 성별 불쾌감 및 트랜스젠더라는 개념이 너무나 최근에 나온 것이고 그 의미와 범주들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것이 부분적인 이유입니다. 야하우스의 문헌연구는 DSM-5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매뉴얼, 5 판)를 사용하여 성별 불쾌감을 이해하는 것은 0.005 에서 0.0014%의 성인 남성과 0.002 에서 0.003%의 성인 여성추정값을 내지만 이러한 추정값은 지나치게 낮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0.003 에서 0.047%로 추정됩니다.¹⁰⁵ 이와 대조적으로 19 개 주 및 기타 주들의 통계적 확률에 근거하여 윌리엄스 연구기관은 0.58%의 미국인이 트랜스젠더라고 추정합니다.¹⁰⁶</p>
<p>Parents often face substantial internal and external pressure to help their children transition to the opposite gender. These children are at risk. In a recent study, over 60 percent of transgender and nonbinary youth reported engaging in self-harm in the past twelve months. In addition, 40 percent of transgender and nonbinary youth reported being physically threatened or harmed in their lifetime due to their gender identity.¹⁰⁷ The parents of these children are struggling to discern what is best for their loved one.</p>	<p>부모들은 종종 자신들의 아이들이 반대의 성으로 전환하게 도우라는 상당한 내적 및 외적 압력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60%가 넘는 성전환한 혹은 제 3 의 성을 갖는 청소년들이 지난 12 개월 내에 자해를 한 적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게다가 40%의 성전환 혹은 제 3 의 성을 갖는 청소년들은 인생을 살면서 젠더 정체성 때문에 신체적으로 위협을 받고 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보고 했습니다.¹⁰⁷ 이러한 어린이들의 부모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분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p>

¹⁰⁵ Yarhouse, pp. 92-93.

¹⁰⁶ A. Flores, J. Herman, G. Gates, and T. Brown, “How Many Adults Identify as Transgender in the United States?” (Los Angeles, Calif.: Williams Institute, 2016); [williamsinstitute.law.ucla.edu/wp-](http://williamsinstitute.law.ucla.edu/wp-content/uploads/How-Many-Adults-Identify-as-Transgender-in-the-United-States.pdf)

content/uploads/How-Many-Adults-Identify-as-Transgender-in-the-United-States.pdf

¹⁰⁷ thetrevorproject.org/survey-2020

Health and social service workers, as well as teachers, may tell parents that if their child “is consistent, insistent, and persistent about their transgender identity,” they should affirm and support that identity through social transitioning and later hormonal treatments and surgeries.¹⁰⁸ Respected organizations such as the AMA and Pediatric Endocrine Society have made statements affirming gender transitioning, even though very little research has yet been done on long-term effects of medical practices such as hormone treatments and sex reassignment surgeries.¹⁰⁹ In other words, the evidence on the long-term physical and mental consequences of these treatments is lacking. What is known is that a child who is given hormones to block puberty and who then later takes hormones to change their sex will become sterile.¹¹⁰ Furthermore, research shows that almost all children with gender dysphoria will become comfortable with their anatomical sex after puberty. Many gay adults describe childhood memories of believing they were the opposite sex, or of desiring to be, but attest that they came to accept their sex during adolescence.¹¹¹ At the very least

보건 및 사회 복지사, 교사들은 아이가 “트랜스젠더 정체성에 대해 일관되고 지속적이며 끈질길 경우” 사회적 전환과 이후 호르몬 치료 및 외과 수술을 통해 그 정체성을 긍정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부모들에게 조언할 것입니다.¹⁰⁸ AMA 나 소아 내분비 학회 등 권위 있는 기관들은 호르몬 치료 및 성 재할당 수술과 같은 의학 치료의 장기적 영향에 대해 거의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젠더 전환을 확인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¹⁰⁹ 다시 말해서 그러한 치료들이 장기적으로 초래할 신체 및 정신적 결과에 대한 증거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사춘기가 오는 것을 막는 호르몬을 투여 받은 어린이가 이후에 섹스를 전환하기 위해 호르몬제를 투여 받을 경우 불임이 된다는 것입니다.¹¹⁰ 더욱이, 연구에 의하면 성별 불쾌감이 있는 거의 모든 어린이들이 사춘기 이후에는 자신의 해부학적 섹스를 편안하게 받아들여지게 된다고 합니다. 많은 게이 성인들은 자신이 반대 성을 가졌다고 믿었거나 반대 성이 되고 싶었던 어린시절의 기억을 이야기하지만 청소년기에 자신의 섹스를 받아들였다고 증언합니다.¹¹¹ 장기간의 연구에서 비롯되는 증거 부족 및 대부분의 어린이가 보여주는

¹⁰⁸ hrc.org/resources/supporting-caring-for-transgender-children

¹⁰⁹ “Those advocating a psychological approach to treatment, as opposed to hormone and/or surgery-based protocols can point to research showing that while SRS [sex reassignment surgery] appears to alleviate mental health problems for some, for a sizable group of others psychological morbidity is unaffected by—or actually increases after—surgical transitioning,” Simonsen, Giraldi, Christensen, Haldi, “Long-term Followup . . .” *Nordic Journal*, as quoted in J.K. Beilby and P.R. Eddy, eds., *Understanding Transgender Identities: Four Views* (Grand Rapids, Mich.: Baker Academic, 2019), p. 22.

¹¹⁰ npr.org/templates/story/story.php?storyId=90273278; Norman Spacker, ncbi.nlm.nih.gov/pmc/articles/PMC4955762/; Polly

Carmichael GIDS. See Stephen B. Levine, “Ethical Concerns about Emerging Treatment Paradigms for Gender Dysphoria,”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44 (2018), pp. 29-44; Stephen B. Levine, “Informed Consent for Transgendered Patients,”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45:3 (2019), pp. 218-29; DOI: 10.1080/0092623X.2018.1518885.

¹¹¹ T.D. Steensma, J.K. McGuire, B.P. Kreukels, A.J. Beekman, and P.T. Cohen-Kettenis, “Factors Associated with Desistence and Persistence of Childhood Gender Dysphoria: A Quantitative Follow-up Study,” *J Am Acad Child Adolescent Psychiatry*, 52(6) (2013), pp. 582-90; DOI: 10.1016/j.jaac.2013.03.016.

the lack of evidence from long-term studies and the developmental flexibility most children exhibit suggests using caution before entering into any treatment option that is irreversible.	발달 유연성은 돌이킬 수 없는 치료를 선택하기에 앞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i>E. Disorders of Sex Development (DSD)</i>	E. 성 발달장애 (Disorders of Sex Development, DSD)
Unlike gender dysphoria, a condition that is characterized by stress and anxiety when one's gender is perceived as not aligning with one's biological sex, disorders of sex development (DSDs) are congenital (biologically based) conditions in which the development of a person's chromosomal, gonadal, internal and/or external anatomical sex is atypical. Most DSDs are relatively mild, but in some cases they are more severe. In these cases a person's sex might appear ambiguous or even be misidentified. ¹¹²	성별 불쾌감과 달리 스트레스 및 불안증으로 특징지어지는 조건은 한 사람의 젠더가 생물학적 섹스와 일치하지 않을 때이며 성발달장애는 (생물학으로 바탕을 두는) 염색체, 생식선, 체내 및/혹은 체외의 해부학적 섹스의 발달이 이례적인 타고난 조건입니다. 대부분의 성발달 장애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지만 몇몇 경우에는 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섹스가 애매모호하게 보이거나 심지어 오인되기도 합니다. ¹¹²
People with DSDs are sometimes described as intersex, but we have chosen to use the term <i>disorders of sexual development</i> for several reasons. First, this is the medically accepted terminology that identifies the range of congenital conditions associated with sexual development. ¹¹³ Second, the term DSD makes clear that the various conditions included under this heading result from complications in one's sexual development. While some argue for the inclusion of an additional gender category (or categories) beyond male or female, we follow Preston Sprinkle's contention that persons with a DSD (he	성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때때로 중성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성발달장애라는 용어를 여러가지 이유로 사용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첫째, 이것은 성발달과 관련된 여러가지 선천적 조건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의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용어입니다. ¹¹³ 둘째, 성발달장애라는 용어는 이 용어가 포괄하는 다양한 조건들이 사람의 성발달의 과정에서 비롯된 복잡성이 낳은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남성과 여성 말고도 추가적인 젠더 범주(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우리는 성발달장애를 가진

¹¹² See Appendix B: Disorders of Sexual Development and Their Implications; DeFranza, chap. 1; Yarhouse, pp. 17-18.

¹¹³ med.umich.edu/yourchild/topics/did.htm. Although DSD is the medically accepted term at this writing, there continue to be debates

about proper terminology. For example, the Intersex Society of America clearly does not find the term *intersex* offensive, as some have suggested.

<p>uses the term <i>intersex</i>) do not constitute a “third sex.”¹¹⁴ Similarly, Andrew Walker argues, “Intersex conditions do not disprove the sexual binary.”¹¹⁵ In other words, DSDs, like other disorders, are a consequence of the fallenness of creation, departures from God’s creational design.¹¹⁶ Like other biological or physiological disorders, DSDs in no way render a person inferior, less human, or less the image of God. Rather, they indicate that some physical aspect of a person is not functioning in a manner suited to its created, biological function.</p>	<p>사람들이 “제 3의 성”이 되지 않는다는 프레스턴 스프링클의 주장(그는 중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을 따릅니다.¹¹⁴ 이와 비슷하게 앤드류 워커는 “중성 조건들은 이분법적 성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¹¹⁵ 다시 말해서, 성발달장애는 다른 장애와 마찬가지로 창조세계의 타락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창조적 설계에서 떠난 결과인 것입니다.¹¹⁶ 다른 생물학적 혹은 생리학적 장애들처럼 성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이 절대로 열등하거나 인간이 되기에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형상이 덜 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람의 어떤 신체적 측면이 창조된 대로 생물학적인 기능에 적합하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p>
<p>A lot can go wrong in sexual development, ranging from conditions that pose relatively minor disruptions to those that have substantial and difficult repercussions. In medical terms, it is customary to divide these conditions between those that result from ‘chromosomal anomalies’ that occur before the zygote even becomes a developing embryo, and ‘hormonal anomalies,’ which occur in the post-conception stages of development (see Appendix B “Disorders of Sexual Development and Their Implications” for a more detailed description of these). There are more than twenty-two different variations of DSDs with many different causes. The <i>Handbook for Parents</i> from the Accord Alliance offers a good summary of potential causes:</p>	<p>성발달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별로 심각하지 않은 혼란에서부터 상당하고 어려운 파급력이 있는 것까지 많은 것들이 잘못 될 수 있습니다. 의학 용어 상, 수정란이 심지어 태아가 되기 전에 발생하는 ‘염색체 이상’과 수정 후 발달단계에서 나타나는 ‘호르몬 이상’이 원인인 것으로 분류하는 것이 의례적입니다 (부록 B, “성 발달장애와 그 결과”를 참조할 것). 22 종류의 다양한 성 발달장애가 여러가지 다른 이유로 존재합니다. Accord Alliance 가 제공하는 <부모를 위한 핸드북>은 잠재적 원인들을 잘 요약해 놓았습니다.</p>

¹¹⁴ Preston Sprinkle, “A Biblical Conversation about Transgender Identities,” Pastoral Paper #12, Center for Faith, Sexuality, and Gender, p. 17. Also affirmed by Cretella (2016): “The 2006 consensus statement of the Intersex Society of North America does not endorse DSD as a third sex,” p. 51.

¹¹⁵ Andrew Walker, *God and the Transgender Debate: What Does the Bible Actually Say About Gender Identity?* (The Good Book Company, 2017), p. 158.

¹¹⁶ Dennis P. Hollinger, *The Meaning of Sex: Christian Ethics and the Moral Life* (Grand Rapids, Mich.: Baker Academic, 2009), p. 77.

<p>Sometimes a DSD happens because the child has something other than either the XX or the XY chromosome pattern. So some children have XXY, and some children have different combinations in different cells of their body. (That's called a mosaic karyotype.) Another way a DSD can happen is if a child is missing a common gene (part of the DNA), or has an uncommon combination of genes that make his or her body develop differently from most boys or girls. This can happen because of genes passed down through families, or because of a genetic change that happens by chance. Much more rarely, something happens to the mother during pregnancy that leads to a DSD; for example, on rare occasions a pregnant woman may be exposed to chemicals that can affect the sex development of her child. Sometimes [doctors] just don't know why a DSD happened.¹¹⁷</p>	<p>종종 성 발달장애는 아동이 XX 나 XY 염색체가 아닌 다른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어떤 아동은 XXY 를 갖기도 하고 어떤 아동은 그들의 몸의 다른 세포에서 다른 조합을 갖기도 합니다 (이를 혼합 염색체 핵형이라고 부릅니다). 성발달장애가 일어나는 또 다른 방식은 아동에게 공통의 유전자(DNA 의 일부인)가 없거나 대부분의 남아 혹은 여아들과 다르게 몸을 발달시키게 만드는 흔치 않은 유전자 조합이 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유전자가 가족을 통해서 전해 내려가거나 우연히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드물게는 임신 중인 엄마의 몸에 성 발달장애로 이어지게 만드는 무언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드물게 임신부가 태아의 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의사들이] 왜 성 발달장애가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¹¹⁷</p>
<p>Whatever the reason for the disorder and regardless of the severity of the disorder, the church should surround parents of children with DSDs and persons with DSDs with love. The church should listen first to the needs of these brothers and sisters and offer them prayer and other support as needed.</p>	<p>장애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그리고 장애의 심각성에 관계없이 교회는 성 발달장애를 갖는 아이들의 부모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형제 자매의 필요를 먼저 경청해야 하고 기도와 모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p>
<p><i>F. Implications of worldview</i></p>	<p>F. 세계관의 함의들</p>
<p>That these are worldview—and not simply scientific, medical, or empirical—issues are borne out especially by the way in which persons or groups who advise prudence</p>	<p>단순히 과학적이거나 의학적이거나 실증적이지 않은 이러한 세계관의 문제들은 특히 신중함을 조언하거나 젠더 긍정 접근 방식의</p>

¹¹⁷ accordalliance.org/dsdguidelines/parents.pdf.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some of the more common DSDs, see Appendix B:

Disorders of Sexual Development and Their Implications. See also med.umich.edu/yourchild/topics/dsd.htm.

<p>or who challenge the conclusions of gender-affirming approaches are denounced, ridiculed, or attacked. A few examples illustrate this point. Michael Bailey's 2003 book <i>The Man Who Would Be Queen</i> described autogynephilia, a theory of male-to-female transgender persons in which men are motivated to transition by being sexually attracted to the thought of themselves as a woman. This theory has been widely attacked and condemned by transgender proponents, and Bailey met a firestorm of controversy that nearly derailed his career, despite an investigation that revealed no basis for accusations leveled against him of malpractice and inappropriate conduct.¹¹⁸</p>	<p>결론에 이의를 제기하는 개인이나 그룹이 비난, 조롱, 또는 공격을 받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몇 가지 예들은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마이클 배일리의 2003 년 책 <i>The Man Who Would Be Queen</i> 은 오토가이네필리아(autogynephilia)를 묘사하는데 이는 여자로 성전환한 남성들에 관한 이론으로써 남성들이 자신을 여자라고 인식하는 생각에 성적으로 끌려서 성전환을 하고자 자극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트랜스젠더 주창자들에게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아왔으며 위법행위 및 부적절한 행위의 혐의를 씌울 근거가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배일리는 논란의 폭풍을 만나 거의 직업을 잃을 뻔했습니다.¹¹⁸</p>
<p>In a more recent example, Dr. Kenneth Zucker was a widely respected psychiatrist and expert in gender dysphoria who worked for more than 35 years at the renowned Child Youth and Family Gender Identity Clinic (GIC) at the Centre for Addictions and Mental Health (CAMH) in Toronto. In 2015, Zucker was fired after an external review of the GIC at CAMH allegedly showed unethical practice. Why? Because Zucker, based on the empirical evidence, continued to advocate a “watchful waiting” rather than a “gender-affirmative approach.”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later showed these allegations to be false, and CAMH publicly apologized and settled a wrongful dismissal lawsuit with Zucker.¹¹⁹</p>	<p>더 최근의 예에서는 케네스 주커 박사는 널리 인정받는 정신과 의사이며 토론토에 위치한 the Centre for Addictions and Mental Health(CAMH) 의 잘 알려진 Child Youth and Family Gender Identity Clinic (GIC)에서 35 년 동안 일한 성별 불쾌감 전문가입니다. 2015 년 주커는 CAMH 의 GIC 에 대한 외부심사에서 이른바 비윤리적 행위를 보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무엇때문일까요? 주커는 실증적 증거에 기초하여 “젠더를 긍정하는 접근” 보다는 계속해서 “예의 주시”할 것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루어진 독립적인 조사는 이러한 혐의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에 따라 CAMH 는 공적으로 사과하며 주커와 관련한 부당해고 소송에서 합의를 했습니다.¹¹⁹</p>

¹¹⁸ Carey Benedict Carey, “Criticism of a Gender Theory, and a Scientist Under Siege,” *New York Times*, Aug. 21, 2007.

¹¹⁹ Jesse Singal, “How the Fight over Transgender Kids Got a Leading Sex Researcher Fired,” *The Cut* (2016);

thecut.com/2016/02/fight-over-trans-kids-got-a-researcher-fired.html. See also “CAMH Reaches Settlement with Former Head of Gender Identity Clinic,” Oct. 7, 2018; cbc.ca/news/canada/toronto/camh-settlement-former-head-gender-identity-clinic-1.4854015.

<p>Another example (among many more that could be cited) is the reaction and resistance to the American College of Pediatricians (ACP) and its current executive director, Michelle Cretella. The ACP was established in 2002 as an alternative to the more liberal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ians and its endorsement of progressive approaches to children and families. A quick google search of the ACP and Cretella reveals numerous links to articles, videos, and blogposts with condemnations and accusations of the ACP with descriptions such as “exposes the lies,” “child abuse alert,” “anti-LGBTQ,” “wingnut,” and “hateful.”</p>	<p>또 다른 예는 (인용할 만한 많은 예들 중에서) 미국 소아과 학회 (ACP) 및 현 행정 대표인 미셸 크레텔라에 대한 반응과 저항입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 (ACP)는 더 진보적인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ians 와 어린이와 가족에 대한 진보적 접근 주장의 대안으로 2002 년에 설립되었습니다. ACP 와 크레텔라에 대한 간단한 구글링을 하면 ACP 를 “거짓을 전파한다,” “아동학대,” “반 성소수자,” “극우파,” 그리고 “혐오”같은 말들로 비난하고 고발하는 수많은 아티클, 영상, 블로그포스트 링크들이 난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p>
<p>It is clear that there is no neutral stance on questions of gender identity. In the global north and west, we find ourselves in a cultural moment where longstanding beliefs and practices about sex and gender have been challenged and questioned (by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alike¹²⁰). At the same time, the liberalization on matters of sexuality has been resisted in the global south,¹²¹ revealing divisions in the global church between the north and south.¹²² In North America, ideas once considered radical and extreme—sex as nonbinary, the separation of gender identity from biological sex, the elevation of individual choice over physical or cultural constraints—have now</p>	<p>젠더 정체성의 문제에서 중립적인 위치는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북반구의 서구 지역에서 우리는 섹스와 젠더에 대한 오랜 신념과 관습들이 반박당하고 이의 제기를 당하는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 모두에게 ¹²⁰) 문화적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성 문제의 자유화는 남반구에서 저항을 받아온 것 ¹²¹은 세계 교회의 북반구와 남반구 간의 분열을 보여줍니다.¹²² 북미지역에서 급진적이고 극단적이라고 여겨져 왔던 생각들, 즉, 논바이너리 섹스, 생물학적 섹스와 다른 젠더 정체성, 신체적 혹은 문화적 제약보다 우위를 점한 개인의 선택이 이제는 우리가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사회적 의식에 스며들었습니다.</p>

¹²⁰ See, for example, Mark Regnerus, *Cheap Sex: The Transformation of Men, Marriage, and Monogam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¹²¹ “The Global Divide on Homosexuality,” Pew Research Center, June 4, 2013; pewresearch.org/global/2013/06/04/the-global-divide-on-homosexuality. See also “African United Methodists Won’t Trade Bible for Dollars,” *Juicy Ecumenism: The Institute on Religion and*

Democracy’s Blog, Feb. 23, 2019; juicyecumenism.com/2019/02/23/african-united-methodists-wont-trade-bible-for-dollars/#.

¹²² John Anderson, “Conservative Christianity, the Global South and the Battle over Sexual Orientation,” *Third World Quarterly*, Vol. 32, No. 9 (2011), pp. 1589-1605.

permeated our societal consciousness whether we like it or not.	
<p>In the face of these rapidly changing cultural realities, the church cannot look the other way. Persons experiencing either gender dysphoria or DSD are not “them” but us. Although the prevalence is relatively low, we must be just as prepared and ready to receive our sisters and brothers in Christ struggling with gender identity issues as with any other disorder, no matter what the numbers are. Yet we must also recognize that both gender dysphoria and DSD are a disorder: they are “not the way it’s supposed to be.”¹²³ Our understanding of and response to these disorders ought to be shaped by the two great commandments: to love God above all, and to love our neighbors as ourselves. Thus, in the next section we turn to Scripture to glean what God teaches about sex differences and gender identity in light of the reality that God created human beings “male and female” (Gen. 1:27). We will conclude this part of our report on gender identity by identifying pastoral guidelines for how the church should respond to persons who must deal in their own lives with the complexities of gender dysphoria or DSD.</p>	<p>교회는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문화적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성별 불쾌감 혹은 성발달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비록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숫자와 관계없이 다른 많은 장애와 같이 젠더 정체성이라는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을 받아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성별 불쾌감 혹은 성 발달장애가 장애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예정된 방식이 아닙니다.”¹²³ 이러한 장애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반응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에 의해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섹션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 (창 1:27)로 지으신 실상에 비추어 성 차이와 젠더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기 위해 성경을 참고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에서 성별 불쾌감 혹은 성 발달장애의 복잡함을 견뎌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양 지침을 찾는 것으로 젠더 정체성에 관한 우리 보고서의 이 섹션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p>
<p>“My son just told me he’s actually a woman,” Ji-ho,* a 51-year-old Asian American, shares with a close friend and colleague during a pastors’ retreat. Baffled and heartbroken, the two men pray for Ji-ho’s adult child and for wisdom and love for Ji-ho in his relationship with his child.</p>	<p>51 세 아시아계 미국인인 지호*는 “우리 아들이 사실은 여자라고 하네요” 라고 목회자 수양회에서 가까운 친구와 동료에게 나누었습니다. 놀라고 비통해 하며 두 남자는 지호의 성인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호의 아들과의 관계에 지혜와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p>

¹²³ Neil Plantinga, *Not the Way It’s Supposed to Be: A Breviary of Sin* (Grand Rapids, Mich.: Eerdmans, 1995).

<p>Cheri,* 19 (white), came home from her first year at a Christian college and told her parents that she did not feel comfortable being identified as a girl/woman. Cheri had felt different since puberty and had struggled with depression and anxiety. She had difficulty finding a group who accepted her at college until she got connected with the LGBTQ group on campus. With her friends' support, she changed her name to Sam and was now dating a woman. The siblings of Sam's parents were grieved but decided it was best to support Sam by using the name and pronouns (they) she had chosen. Unfortunately, when the church found out about Sam's chosen identity and that Sam was dating a woman, the pastor told Sam (using her rejected name) that s/he was no longer welcome to sing with the worship team or to play her instrument. The council sent Sam a formal letter to that effect as well as one to Sam's parents. Sam offered to come and talk to the pastor, but the conversation ended up being hurtful. Sam left the church into which she was born, baptized, and professed her faith. At a recent family gathering, Sam cried as they sang hymns together, but s/he cannot reconcile the pastor and church's treatment of he/r with the love of God that Sam and he/r family sing about.</p>	<p>체리* (19 세, 백인)는 기독교 대학에서 1 년을 마치고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여자로 사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체리는 사춘기 이후부터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우울증과 불안감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성소수자 그룹과 연결되기 전까지 대학에서 자신을 받아주는 그룹을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친구들의 지지로 체리는 샘*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제는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샘의 부모님의 형제자매들은 슬퍼했지만 샘이 선택한 이름과 인칭대명사 (they)를 사용하여 샘을 지지해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행하게도 교회가 샘이 선택한 정체성과 샘이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자 목사님은 샘을 불러서 (샘이 거절했던 이름으로) 더 이상 예배팀에서 찬양을 부르거나 악기 연주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이에 대한 공식 편지를 샘과 부모님에게 각각 보냈습니다. 샘은 자신이 태어나고 세례 받고 신앙을 고백한 교회를 떠났습니다. 최근 가족 모임에서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샘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함께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목사님과 교회의 대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p>
<p>IX. Gender identity: Scripture</p>	<p>IX. Gender identity: Scripture 젠더 정체성: 성경</p>
<p>Central to the discussion of sex and gender identity is the distinction between sex and gender. Yet, as we have seen, this distinction is a relatively recent one, and it is unknown to the Bible. For most of Western history, <i>male</i> and <i>female</i> would have included the biological realities of</p>	<p>섹스 및 젠더 정체성에 관한 논의의 중점은 섹스와 젠더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이 차이는 상대적으로 최근 거론되는 것이며 성경에는 알려지지 않은 개념입니다. 서구 역사의 대부분은 남자와 여자라는 용어들이 우리가 오늘날 젠더라고 부르는 용어 속에 포함된 모든 생물학적 현실을 다 포괄했을 것입니다.</p>

those terms as well as all of what is now included in the term <i>gender</i> .	
<p>Needless to say, there is very little that the Bible explicitly says about these issues. Consequently, when we seek biblical insight on questions pertaining to both gender identity and disorders of sex development, we must rely on the broad scriptural story that includes creation, fall, redemption, and consummation. With respect to humanity, we affirm that God created humanity as male and female in the image of God and declared creation “very good.” Due to human disobedience, however, humanity, along with the rest of creation, is now distorted by sin. Thus whatever we observe about humans after the fall into sin is inevitably distorted by the fall in various ways (Gen. 3:14-23). Salvation in Christ entails restoration of all things, including humans, to God’s creational intentions. We experience this restoration in part now, while awaiting full restoration at the second coming of Christ and the final judgment.</p>	<p>두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성경이 노골적으로 말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 결과, 젠더 정체성 및 성 발달장애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성경적인 통찰력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을 포함한 광범위한 성경적 내러티브를 의존해야 합니다. 인간에 관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선언하셨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의 결과로 인간은 다른 모든 창조물들과 함께 죄로 뒤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무엇을 관찰하든지 타락으로 죄에 빠진 인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뒤틀려 있는 것이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창 3:14-23).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은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우리는 이 회복의 일부만 지금 경험하고, 완전한 회복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때에 이루어질 것을 기다립니다.</p>
A. <i>Genesis 1-2</i>	A. Genesis 1-2 창세기 1-2
<p>With this in mind, we will find a closer examination of several texts worthwhile. The first is Genesis 1-2. As already noted in section III of this report, focusing on the biblical theology of human sexuality, only humans are described in terms of their biological sex in the creation account. In Genesis 1 they are identified as “male and female,” and in Genesis 2 as “man” and “woman.” In Genesis 1 this male/female identification sets them apart from other creatures in the story. While a biological</p>	<p>이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살펴 볼만한 몇몇 성경본문을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창세기 1-2 장입니다. 이미 본 보고서의 섹션 III 에서 언급했듯이 인간 성의 성경적 신학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창조 내러티브에서 오직 인간만이 생물학적 성별로 묘사됩니다. 창세기 1 장에서 인간은 “남자와 여자”(male and female)로 식별되고, 창세기 2 장에서는 “남자와 여자” (man and woman)로 분류되었습니다. 창세기 1 장에서 이 남자/여자 식별은 그들을 이 창조</p>

<p>male/female distinction is assumed with the blessing of the fish and birds on day five (v. 22), it is not explicit. With the creation of humans, however, the male/female distinction is explicitly stated. In addition, the male/female binary is grammatically connected with the image of God, that is, with what is a central identifying biblical feature of being human (v. 27), something that is reaffirmed in Genesis 5:2. Paul Niskanen writes, “the statement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far from being dissociated from the concept of the image of God, stands at the very crux of its interpretation.”¹²⁴</p>	<p>내러티브에서 다른 창조물들과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남자/여자 구별이 다섯째 날의 물고기와 새에 대한 축복과 함께 추정되는 반면에 (22 절)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 창조에 있어서 남자/여자 구별은 명백하게 쓰여 있습니다. 또한, 남자/여자인분법은 문법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됨의 성경적 특징을 식별하는 핵심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며 창세기 5:2 에서 재확인 되는 것입니다. 폴 니스카넨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라는 서술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과 구분되는 것이기는커녕 그 해석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¹²⁴</p>
<p>The Christian church has always recognized that Genesis 1-2 are paradigmatic texts. In other words, they describe God’s purposes for creation in a way that is not simply descriptive, but normative—that is, the way God intended. Scripture itself teaches us to interpret these texts in this way. For example, it condemns murder and slander by appealing to the fact that human beings have been created in the image of God (Gen. 9:6; James 3:9).</p>	<p>기독교 교회는 항상 창세기 1-2 장을 전형적인 성경본문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어느 정도는 단순히 서술적인 것이 아니라 규범적, 즉,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살인과 중상모략을 규탄할 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에 호소합니다 (창 9:6, 약 3:9).</p>
<p>Similarly, the New Testament repeatedly invokes Genesis 1-2 as the authoritative model for sexual relationships between men and women (Matt. 19; 1 Cor. 6; Eph. 5). In response to the Pharisees’ question about divorce, Jesus says that “at the beginning the Creator ‘made them male and female’” (Matt. 19:4), a direct reference to Genesis 1:27. He goes on to connect this to</p>	<p>이와 비슷하게 신약성경은 창세기 1-2 장을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성적 관계에 대한 권위적인 모델로 반복적으로 제시합니다 (마 19 장, 고전 6 장, 엡 5 장). 이혼에 관한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은 창세기 1:27 을 직접 인용하시며 “태초에 창조주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 19:4). 예수님은</p>

¹²⁴ Paul Niskanen, “The Poetics of Adam: The Creation of אָדָם in the Image of אֱלֹהִים אֶרֶץ,” in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8, no. 3 (2009), pp. 417-36 (specifically, p. 424).

<p>Genesis 2, saying that a “man wi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be united to his wife, and the two will become one flesh” (Matt. 19:5). Jesus offers no indication that this binary is anything less than a creational norm despite the hardness of the human heart.</p>	<p>창세기 2 장과 연결하시면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마 19:5)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분법을 창조 규범보다 더 낮게 보는 어떤 것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p>
<p>Some have pointed to other pairs listed in Genesis 1, suggesting that all of the pairs of this chapter, including the male-female pair, represent two ends of a created spectrum of possibilities. For example, light and dark are the extremes of the spectrum of daylight that also includes dawn, dusk, and various degrees in between. But this argument pushes the boundaries of analogy to the breaking point. Genesis 1-2 clearly and explicitly describes pre-fall human beings as created in only two forms: male/man (Adam) and female/woman (Eve). Unlike the degrees between dark and light which are found frequently in Scripture, nowhere does Scripture suggest that there is a spectrum of normative biological manifestations of humanity beyond male and female.</p>	<p>몇몇 사람들은 창세기 1 장에 열거된 다른 짝들을 가리키면서 남자-여자 짝을 비롯해서 1 장의 모든 짝들이 창조된 여러 가능성의 스펙트럼의 양 끝을 드러낸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빛과 어두움은 여명, 황혼 및 그 사이의 다양한 정도를 모두 포함하는 햇빛의 스펙트럼의 양 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유추의 경계를 한계점까지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1-2 장은 분명하고도 노골적으로 타락 이전의 인간이 오직 두 형태, 남자(male/man, 아담)와 여자(female/woman, 이브)로 창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어두움과 빛 사이의 정도의 차이와 달리 성경 어디에서도 남자와 여자 이외에 인간의 어떠한 규범적인 생물학적 발현의 스펙트럼은 없습니다.</p>
<p>Although people suffering from disorders of sexual development may not unambiguously fit the creational norm outlined in Scripture, this does not alter scriptural teaching. The same is true for those suffering from gender dysphoria. These conditions are not the way things are supposed to be. Like other disorders and diseases, these afflictions are to be interpreted as a result of the fall, which in many ways has distorted God’s good creation. Of course, this does not in any way mean that the people suffering from these conditions are personally responsible for them. Rather they suffer the consequences of the post-fall groaning of creation (Rom. 8:22; John 9:1-12). The</p>	<p>비록 성발달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 규범에 명확하게 들어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성별 불쾌감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장애와 질병과 같이 이러한 고통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왜곡시킨 타락의 결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자신들의 고통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롬 8:22, 요 9:1-12). 그러므로 교회는 긍휼과 사랑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p>

church must therefore reach out to them in compassion and love.	
B. Matthew 19:11-12	B. 마태복음 19:11-12
<p>A second important text that may shed light on the topic of gender identity and DSD is Matthew 19:11-12. This text has particular significance because of the reference to a eunuch. In Israel the eunuch, along with Gentiles, the lame, the disfigured, and others with various physical conditions, was not afforded full participation in the religious life of the community. Some conditions disallowed one from the priesthood (Lev. 21). Some conditions did not allow a person to enter “the assembly of the LORD.” Eunuchs fell into this latter category (Deut. 23:1). In the context of teaching about marriage and divorce, Jesus makes the following statement concerning eunuchs: “Not everyone can accept this word, but only those to whom it has been given. For there are eunuchs who were born that way, and there are eunuchs who have been made that way by others—and there are those who choose to live like eunuchs [note: ‘or <i>have made themselves eunuchs</i>’] for the sake of the kingdom of heaven. The one who can accept this should accept it” (Matt. 19:11-12, NIV). So who are these “eunuchs” to whom Jesus is referring?</p>	<p>성별 불쾌감 및 성 발달장애라는 주제의 해결에 실마리를 던져주는 두 번째로 중요한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9:11-12 절입니다. 이 본문이 특히나 중요한 이유는 고자에 대한 언급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고자는 이방인, 절름발이, 문둥병자, 기타 다양한 신체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의 종교생활에 완전한 참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중 몇몇 조건들은 제사장 직을 맡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레 21 장). 몇몇 조건의 사람들은 또한 “여호와와 의 총회”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고자는 후자의 범주에 속하였습니다 (신 23:1). 결혼과 이혼에 관한 가르침의 맥락에서 예수님은 고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참조: ‘혹은 고자처럼 살기로 선택한 자]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마 19:11-12).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고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p>
<p>The first thing to note about the Matthew passage is that it is an obscure saying, the meaning of which is not immediately clear. As Megan DeFranza notes: “Admittedly, it is difficult to know how Jesus’ audience interpreted his</p>	<p>마태복음의 본문에 대해 첫째로 알아야 할 것은 이 본문이 애매모호하고 즉각적으로 분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메간 드프란자는 “인정하건대, 예수님의 당시 청중이 세 유형의 고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 했을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¹²⁵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고자”라는 단어를 이례적으로 사용하셨다는</p>

<p>words about three types of eunuchs”.¹²⁵ For one thing, Jesus is using the term for “eunuch” in an unusual way. The term normally refers to a man who either occupies a high position in government or a man who has been mutilated by castration—or both.¹²⁶ Although the second meaning here, associated with mutilation or castration, most probably applies to the second kind of eunuch in Jesus’ saying, most exegetes are agreed that the term for “eunuch,” when applied to Jesus’ first and third kinds, is used in an otherwise unattested sense. A reasonable guess is that the first kind of eunuch refers to someone born with some kind of birth defect, and that the third kind refers (given the context) to a person who chooses not to marry, but we can’t be entirely sure. In both cases the term seems to be used by Jesus as a bold metaphor, stretching the normal use of the term for “eunuch” in Greek.</p>	<p>것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정부에서 높은 직책을 차지하고 있는 남자 혹은 거세로 인해 불구가 된 남자 중 하나 혹은 둘 다 지칭합니다.¹²⁶ 비록 여기에서 훼손 혹은 거세와 연관된 두 번째 의미가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에서 두 번째 종류의 “고자”에 적용되겠지만 대부분의 주석은 “고자”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첫번째와 세 번째 종류에 적용될 때, 증명되지 않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합리적인 추측은 첫 번째 종류의 고자가 선천적 기형을 갖고 태어난 사람을 지칭하고, 세 번째 종류의 고자가 (문맥으로 보아) 결혼을 안 하기로 선택한 사람을 지칭한다는 것이지만 우리가 완전히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쪽 경우 모두 예수님이 이 단어의 보통 용법을 헬라어의 “고자”의 의미로 확장하여 대담한 비유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p>
<p>New Testament commentators have made various suggestions as to the meaning of Jesus’ first kind of “eunuch.”¹²⁷ Most seem to think of infertility or impotence, not intersexuality. An exception is Retief and Cilliers, who do think of “hermaphroditism” (that is, intersexuality) in this connection, but they base this on a poor understanding of</p>	<p>신약성경 주석가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종류의 “고자”의 의미에 대하여 다양한 제안을 하였습니다.¹²⁷ 대부분은 자웅동체가 아니라 불임 혹은 발기부전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연결에서 “남녀한몸증”(즉, 자웅동체)을 생각한 리티프와 실리에르스가 예외적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관련된 과학지식에 대한 어설픈 이해에 근거하여 생각하였고 더욱이 동성애도 여기에 관련된다고 생각했습니다.¹²⁸</p>

¹²⁵ Megan K. DeFranza, *Sex Difference in Christian Theology: Male, Female, and Intersex in the Image of God* (Grand Rapids, Mich.: Eerdmans, 2015), p. 82.

¹²⁶ Francois P. Retief and Louise Cilliers, “Eunuchs in the Bible,” *Acta Theologica* (June 2005), p. 247; journals.ufs.ac.za/index.php/at/article/view/2093.

¹²⁷ The Greek church father Gregory of Nazianzus describes such eunuchs as “born without sexual desire” (DeFranza, p. 96). Modern commentators have different guesses. For example, in explaining the

first kind of eunuch, Keener speaks of “those who were born without sexual organs” (1999:471); Luz, of “those who are naturally impotent” (2001:501); McKnight, of “males castrated . . . by birth defect” (2008:1617; 2015:1723); and Wilkins, of “those without the capacity for sexual relations” (2008:1861). A bit more delicately, Ellison writes: “For some men and women their physical make-up is such that marriage is at best a social convenience for them” (1986:1141).

the science involved and moreover think homosexuality may be involved as well. ¹²⁸	
Many commentators read the first two kinds of “eunuch” in our text in the light of a distinction made in rabbinic literature. ¹²⁹ This is a potentially fruitful source of insight, although rabbinic sources are notoriously difficult to date, and it is impossible to be certain that Jesus and his disciples would have been familiar with the distinction in question.	많은 주석학자들은 본문의 앞의 두 가지 종류의 “고자”를 랍비문학이 정의한 구분에 근거하여 해석합니다. ¹²⁹ 비록 랍비문서들이 시대를 구분하기에 어려운 것으로 악명이 높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문제의 구분을 잘 알았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잠재적으로 유익한 자료이긴 합니다.
The rabbinic distinction referred to by commentators is between “eunuchs of the sun” [<i>sārîsé ḥammâ</i>] and “eunuchs of men” [<i>sārîsé ‘ādām</i>]. “Eunuchs of men” corresponds to the second sort of eunuch, one who was mutilated, “made that way by man.” The “eunuch of the sun,” the one “born that way,” is sometimes defined as a <i>saris</i> , a “sterile male.” ¹³⁰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the rabbis unambiguously referred to the “eunuch of the sun” as masculine. Further, there was a female counterpart to the “eunuch of the sun” called an <i>aylonit</i> . ¹³¹ It is therefore unlikely that the first kind of eunuch that Jesus had in mind was someone who was sexually ambiguous—that is, someone of whom it was unclear	주석가들이 말하는 랍비식의 구분은 “태양의 고자 [<i>sārîsé ḥammâ</i>]”와 “사람의 고자 [<i>sārîsé ‘ādām</i>]”간의 구분입니다. “사람의 고자”는 훼손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된” 두 번째 종류의 고자와 일치합니다. “태양의 고자”는 “그렇게 태어난” 것이며 때로 <i>saris</i> , “불임 남성”이라고 정의됩니다. ¹³⁰ 그러나 랍비들은 분명하게 “태양의 고자”를 남성으로 언급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i>aylonit</i> 이라고 불렀던 “태양의 고자”에 해당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¹³¹ 그러므로 예수님이 생각하신 첫 번째 종류의 고자가 성적으로 애매모호했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즉, 남자인지 여자인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을 지칭했을 것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¹³² 랍비들에게는 그러한 사람을 일컫는 다른 용어 (즉, <i>androgynos</i> 와 <i>tumtum</i> , 전자는 “남녀 모두의 성적 특징을

¹²⁸ As they put it, “Modern science recognizes a group of syndromes caused by faulty descent or early disease of the testes, or by congenital defects in the sexual organs (particularly the testes). Sterility, impotence, and typical ‘eunuchoid’ body types develop, but without any mental incapacitation. . . . These conditions are very rare, and must have been scarce in antiquity, in comparison with eunuchism due to castration. Hermaphroditism (genuine bisexuality) is also extremely rare. . . .”; Retief and Cilliers, pp. 255-56.

¹²⁹ See for example, Ulrich Luz, *Matthew: A Commentary* (Minneapolis, Minn.: Augsburg, 2001), p. 501; Retief and Cilliers, p. 255; and DeFranza, p. 71.

¹³⁰ Hagith Sivan, *Jewish Childhood in the Roman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p. 190.

¹³¹ She is described as “a female eunuch/congenitally infertile female (*aylonit*), who was presented, for the most part, as the mirror image of a *saris* (*hamma*)”; Sivan, p. 192.

<p>whether they were male or female.¹³² This is confirmed by the fact that the rabbis did have other terms to describe such a person—namely, <i>androgynos</i> and <i>tumtum</i>—the former term refers to “a baby born with sexual attributes of both males and females (i.e., a hermaphrodite), the latter [to] a child born without clear sexual demarcation (i.e., with sexual organs covered: a cryptorchid).”¹³³</p>	<p>갖고 태어난 아기 (예, 자웅동체)를 지칭하며 후자는 명백한 성적 구분이 없이 태어난 아기를 지칭(생식기관이 가리워진, 잠복고환)”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로 입증됩니다.¹³³</p>
<p>It may be that Jesus was alluding to the rabbinic distinction between “eunuchs of the sun” and “eunuchs of man.” If so, then “eunuchs [who are] born that way” and “eunuchs made that way by man” probably correlate with the first two kinds of eunuchs mentioned by Jesus, setting the stage for the climactic third kind, which by common consent does not refer to physical disfigurement or mutilation but to persons who choose a life of celibacy in order to devote themselves to the kingdom of God.¹³⁴</p>	<p>예수님이 “태양의 고자”와 “사람의 고자” 사이의 랍비식 구분을 암시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태어난 고자”와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된 고자”는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신 처음 두 가지 유형의 고자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만장일치로 신체적 결함 혹은 손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기 위해서 독신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을 일컫는 환경적인 세 번째 종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¹³⁴</p>
<p>Although we cannot be sure what exactly is meant by “eunuchs who were born that way,” a significant clue is found in the adjectival use of the word <i>eunouchos</i> in extra-biblical Greek. According to the standard dictionary of classical Greek, the <i>Greek-English Lexicon</i> of Liddell-Scott-Jones, this word, when used as an adjective describing plants, means “without seeds.” That would suggest that Jesus’ first kind of “eunuch” is someone who from birth is “without seeds”—that is, infertile or impotent.</p>	<p>비록 “그렇게 태어난 고자”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중요한 힌트는 성서 외의 헬라어에서 이 단어의 형용사적 사용인 유노코스 (eunouchos)라는 단어가 발견된 것입니다. 고전헬라어표준사전인 리델 스콧 존스 헬라어 영어 사전에 의하면 이 단어가 식물을 묘사하는 형용사로 사용될 때 “씨가 없는”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종류의 “고자”가 “씨앗이 없이” 태어난 사람, 즉, 불임의 혹은 발기부전의 사람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p>

¹³² This conclusion is also that of Susannah Cornwall, author of *Sex and Uncertainty in the Body of Christ: Intersex Conditions and Christian Theology* (London: Equinox, 2010), as cited in DeFranza, p. 102.

¹³³ Sivan, p. 185.

¹³⁴ DeFranza, p. 71.

<p>This description comports well with Isaiah 56:3-5, where the eunuch is exhorted not to complain, “I am only a dry tree.” This text is part of a beautiful promise to people who were formerly excluded from worship; “the LORD says: ‘To the eunuchs who . . . choose what pleases me and hold fast to my covenant—to them I will give . . . a memorial and a name better than sons and daughters’”—a sign of covenant blessing. This is surely a prophecy of hope for all who live with DSDs.</p>	<p>이러한 설명은 고자에게 “나는 마른 나무라”고 불평하지 말라는 이사야 56:3-5 과 부합합니다. 이 본문은 예배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약속의 일부, 언약의 축복의 징표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어” 이는 분명히 성 발달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소망의 예언입니다.</p>
<p>Despite the interpretive difficulties involved with the text in Matthew 19:11-12, Jesus’ overall argument is reasonably clear. The disciples were right to conclude that for many Christians it is better not to marry. Some Christians are unable to flourish within marriage because they are born with a sexual defect. Other Christians are unable to flourish within marriage because of a sexual injury. Still others decide to voluntarily abstain from marriage. Regardless, each of these types of Christians follows a path that is worthy of praise and that will lead, in accordance with the prophesy of Isaiah, to great reward.</p>	<p>마태복음 19:11-12 의 본문에 관한 해석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전체적인 주장은 꽤 명백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결론 내렸던 제자들이 맞습니다. 몇몇 기독교인들은 성적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결혼 안에서 번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기독교인들은 성적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결혼 안에서 번성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또 다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결혼을 삼가기로 결단합니다. 이와 상관없이 각각의 유형의 기독교인들은 이사야의 예언과 일치하는 큰 상금으로 이르는 칭송 받을만한 길을 걸어갑니다.</p>
<p>As Jesus himself declares shortly afterward, “Everyone who has left houses or brothers or sisters or father or mother or wife or children or fields for my sake will receive a hundred times as much and will inherit eternal life” (Matt. 19:29). In Mark 10:30, Jesus even declares that those who give up such familial rewards will receive a new family even in this life, receiving “a hundred times as much <i>in this present age</i>: homes, brothers, sisters, mothers, children and fields—along with persecutions—and in the age to come eternal life.”</p>	<p>바로 뒤이어 예수님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 19:29)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30 에서 예수님은 가족적 보상을 포기한 사람들은 심지어 현세에서도 새로운 가족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박해를 견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p>

C. <i>Testimony of Paul</i>	C. 바울의 증언
<p>Jesus' teaching in Matthew 19 is affirmed by the apostle Paul, who declares in 1 Corinthians 7 that it may be better for Christians not to marry. It is also affirmed a powerful story in Acts 8, in which Philip evangelizes and baptizes a prominent eunuch from Ethiopia. Acts 8 tells us that after his baptism the eunuch "went on his way rejoicing" (8:39). All of these passages confirm the general truth that in the kingdom of God the powerful legal and social barriers that divide men and women and that exclude persons who suffer from various disorders collapse.</p>	<p>마태복음 19 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고린도전서 7 장에서 기독교인들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선포한 사도 바울에 의하여 입증됩니다. 또한 이는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지위가 높은 내시를 전도하고 그에게 세례를 준 사도행전 8 장의 강력한 이야기를 통해서 입증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8 장은 세례를 받은 후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가므로" (8:39)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본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강력한 법적, 사회적 장벽과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을 무너뜨린다는 일반적인 진리를 확인시켜 줍니다.</p>
<p>Paul celebrates this reality of equity in the kingdom of God in Galatians 3:26-29 as he declares, "So in Christ Jesus you are all children of God through faith, for all of you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have clothed yourselves with Christ. There is neither Jew nor Gentile, neither slave nor free, nor is there male and female, for you are all one in Christ Jesus. If you belong to Christ, then you are Abraham's seed, and heirs according to the promise."</p>	<p>바울은 갈라디아서 3:26-29 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등이라는 이 실상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선포하며 기뻐합니다.</p>
<p>Is the text suggesting that the male/female distinction is not normative and should be done away with? Most scholars do not claim that this is what Paul had in mind. Rather the emphasis falls on being in Christ. Paul is reminding his readers that our primary identity is grounded not in our place in society or our sex or our ethnic background, but in the fact that we are in Christ. St. Jerome (A.D. 345-420), in his commentary on Galatians, identifies these categories as social hierarchies that are</p>	<p>이 본문은 남자/여자 구분은 규범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없애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바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조점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일차적인 정체성이 우리 사회나 섹스, 혹은 우리의 인종적 배경에 기초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고 그의 독자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성 제롬 (A.D. 345-420) 은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사회적 계급인 이 범주들이</p>

<p>negated in Christ.¹³⁵ Calvin's comments on verse 28 are similar. He writes, "The meaning is, that there is no distinction of persons here, and therefore it is of no consequence to what nation or condition any one may belong: nor is circumcision any more regarded than sex or social rank."¹³⁶ More recently, Nigerian scholar Adewale J. Adelakun¹³⁷ notes what he claims most understand about this text. The text is not about erasing distinctions but rather about emphasizing that all are equal—there is no hierarchy in Christ.</p>	<p>그리스도 안에서 부정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¹³⁵ 28 절에 대한 칼빈의 주석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는 "여기서 사람들에게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어느 조건에 속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는 없습니다. 할례도 섹스 혹은 사회적 지위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¹³⁶ 최근에 나이지리아 학자 애드웨일 J. 아델라쿤¹³⁷은 이 본문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이 본문은 차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급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p>
<p>Paul's argument is that in Christ all legal, ethnic, economic, and gender barriers to membership in the body of Christ have collapsed. One no longer needs to be a circumcised Jew to enter the presence of God, any more than one needs to be a man or a free person, as was the case in Old Testament Israel. Now all persons have access to God by grace through faith in Christ alone. Paul's point is not that a woman is no longer a woman, that a slave is no longer a slave, or that a Jew is no longer a Jew. The instructions Paul gives in Ephesians 5-6 and other places make this quite clear. Diversity is not erased in the body of Christ. His point, rather, is that all believers are equal and all are one, because all are "children of God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Gal. 3:26).</p>	<p>바울의 주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법적, 인종적, 경제적, 그리고 젠더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 위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경우와 같이 더 이상 할례 받은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고, 남자가 되거나 자유인이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의 주장의 핵심은 여자가 더 이상 여자가 아니거나 노예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거나 유대인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6 장 및 다른 성경 본문에서 바울이 주는 지시는 이를 꽤나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의 초점은 우리는 모두</p>

¹³⁵ St. Jerome, tr. Andrew Cain, "Book Two, Galatians 3.10–5.60," p. 152, in *Commentary on Galatians*, (Washington, D.C.: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10), pp. 129-202. Accessed April 10, 2020; DOI: 10.2307/j.ctt284xqj.7.

¹³⁶ John Calvin, tr. William Pringle, *Commentaries on the Epistles of Paul to the Galatians and Ephesians* (Edinburgh: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54), p. 112.

¹³⁷ Adewale J. Adelakun, "Complementarian versus Egalitarian: An Exegesis of Galatians 3:28 from a Nigerian Cultural Perspective" in *Ogbomosho Journal of Theology*, Vol. XVII, 3 (2012), p. 77-95.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신자가 평등하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갈 3:26).
In contrast to the Old Testament era, in which circumcision was a sign only for males, all are now equal recipients of the sign of the new covenant, baptism. Through baptism, all are one in Christ. According to Adelakun, Paul “holds the view that this division into male and female established in creation is not relevant in references to baptism into Christ, since no one is baptized to be either a man or a woman”; rather, in Christ all “have equal access to God.” ¹³⁸	오직 남자를 위한 표징으로써의 할례가 행해졌던 구약시대와 대조적으로, 모든 사람은 이제 새 언약의 징표인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델라쿤에 의하면 바울은 “누구도 남자 혹은 여자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창조 시 이루어진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그리스도 세례에 관해서 관련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똑같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138
Working from a very different perspective and hermeneutic, Swedish scholar Marianne Bjelland Kartzow nevertheless comes to a very similar conclusion about Paul’s message in this text. While recognizing interpretive disputes about Galatians 3:28, she writes, “One possible interpretation is that the existing social hierarchy is of less importance in baptism, since all are one in Christ Jesus.” ¹³⁹ This is, in fact, the interpretation she chooses to work with. Building on work by Elisabeth Schüssler-Fiorenza, Kartzow is trying to show that social categories inevitably intersect with one another such that one never occupies just one category. She recognizes that the author of Galatians (whom she posits may not be Paul) is working with three prominent social hierarchies in his day. But she	스웨덴 학자 마리안 비젤과 카트조는 매우 다른 관점과 해석학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본문에서 바울의 메세지에 대해 매우 유사한 결론을 내립니다. 갈라디아서 3:28 에 관한 해석 분쟁을 인정하면서도 그녀는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 계급이 세례에서는 덜 중요한 것이 되었다는 점이다” 라고 말합니다. ¹³⁹ 사실상 이것은 그녀가 선택한 해석입니다. 엘리자베스 슈슬러-피오렌자의 연구에 더하여 카트조는 사회적 범주들이 필연적으로 서로 교차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범주만 차지하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갈라디아서 저자 (그녀가 바울이 아닐 것이라고 추정하는)가 그 시대에서 중요한 세 가지 사회 계급을 염두에 두고

¹³⁸ Adelakun, p. 84.

¹³⁹ Marianne Bjelland Kartzow, “Asking the Other Question: An Intersectional Approach to Galatians 3:28 and the Colossian Household Codes,” in *Biblical Interpretation* 18 (2010), pp. 364-89.

goes on to assert the author's point that these categories are overcome by one's status in Christ.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트조는 이러한 범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위에 의해 극복된다는 저자의 주장을 지적합니다.
In summary, Paul's point is clear: "for you are all one in Christ Jesus" (3:28). Diversity is not erased in Christ. But inequality is. The verse in its context is not about a meltdown of physical differences. It is not even about a meltdown of social differences. Rather, it points to the fact that in Christ, all are one, all are "children of God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3:26).	요약하자면, 바울의 주장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3:28). 다양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문맥상 이 구절은 신체적 차이가 사라져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회적 차이들이 사라진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26).
None of this takes away from the fact that believers and, in fact, all people will continue to experience the fallenness of creation in their own lives. Like a myriad of other disorders and disabilities, gender disorders are "not the way it's supposed to be." ¹⁴⁰	이 중 어떤 것도 신자들 그리고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창조의 타락을 그들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할 것이라는 사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수많은 다른 장애와 결함들과 같이 젠더 장애는 "예정된 방식이 아닙니다." ¹⁴⁰
Similarly, the fall has corrupted the relations between men and women and the social expectations of each. This includes everything from social and societal structures that prevent or discourage women from developing and using their God-given gifts, to portrayals of women and men that not-so-subtly suggest that only certain clothes, mannerisms, and behaviors are truly masculine or feminine. The gospel promises an end to the oppression and hierarchy that has long divided men and women, uniting us as one body in Christ, but we remain male and femal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이와 비슷하게 타락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와 각각의 사회적 기대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이는 사회의 그리고 사회적 구조에서부터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계발시키고 사용하는 것을 막거나 오직 특정한 옷, 매너리즘, 행동만이 진정으로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이라는 묘사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한 몸으로 연합하여 남자와 여자를 오랜 세월 나누어 온 계급과 압제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고 약속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남자와 여자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¹⁴⁰ Neil Plantinga, *Not the Way It's Supposed to Be: A Breviary of Sin*.

<p>Some people argue that there is no reason why a person's gender identity should not be accepted as just as clear an indication of God's will for them as their body. Why should we assume that the problem is with the mind, they ask? Why not consider whether the body is the problem?</p>	<p>몇몇 사람들은 왜 한 개인의 젠더 정체성이 그들의 신체만큼이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왜 문제가 마음에 있다고 생각하냐고 그들은 묻습니다. 왜 몸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p>
<p>The problem with this argument is that it is dualistic. At the heart of the biblical understanding of humanity is the teaching that our bodies matter. The Bible does not pit the soul against the body. It does not locate the true identity of a person in their soul or conceive of the body as the soul's prison. Rather, Scripture presents the human being as a holistic, interdependent unity of body and soul. The biblical words often translated as "soul" (Hebrew <i>nephesh</i> and Greek <i>psuche</i>) or "body" (for which biblical Hebrew does not even have an equivalent, and Greek uses <i>soma</i>) usually refer to the whole person, including both their physical and biological aspects and also their emotional, mental, and spiritual aspects. Biblically speaking, a person does not <i>have</i> a soul but, rather, <i>is</i> a soul. Likewise, a person does not <i>have</i> a body, but <i>is</i> a body.¹⁴¹</p>	<p>이 주장의 문제는 바로 이분법적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의 대한 성경적 이해의 핵심에는 우리의 몸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경은 영혼을 육체의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진정한 정체성이 영혼에 있다거나 몸을 영혼의 감옥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인간을 몸과 영의 완전하고 상호 의존적인 연합으로 봅니다. 대개 "영혼"(히브리어로는 네페쉬, 헬라어로는 푸쉬케) 혹은 "육체"(성경 히브리어에서는 심지어 이에 상응하는 단어가 없고, 헬라어로는 소마)로 번역되는 성경 단어들은 보통 신체적, 생물학적 측면 및 정서적, 정신적, 영적 측면을 포함하는 사람 전체를 뜻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한 사람이 영혼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영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은 육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육체인 것입니다.¹⁴¹</p>
<p>This means that we cannot treat a person's subjectively experienced gender as a fact of their existence independent of their biological sex. We cannot claim that a person's true identity resides in their subjective sense of self, as distinct from the body with which they were born. As Kevin Vanhoozer writes, "One's</p>	<p>이는 우리가 한 사람이 주관적으로 경험한 젠더를 그들의 생물학적 섹스와 별개로 존재하는 사실로 여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진정한 정체성이 그들이 가지고 태어난 몸과 구분되어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아에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p>

¹⁴¹Christian materialists might deny the existence of an immaterial soul or have differing conceptions of that soul, but there is seemingly no one who would argue that the body is somehow unimportant.

<p>true self is not, therefore, hovering above or within one's body. At the limit, the idea that we are men trapped in women's bodies or women trapped in men's bodies collapses the distinction between sex and gender and flirts with a gnostic, even docetic, disregard for bodily reality (he only <i>seems</i> [<i>dokeo</i>] to be male)."¹⁴² Margaret McCarthy points out that extreme views of gender reject the body as "a problematic limit to freedom—freedom conceived as pure self-initiating self-determination."¹⁴³</p>	<p>케빈 밴후저는 "그러므로 한 사람의 진정한 자아는 그의 몸 위를 맴돌거나 몸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자의 몸 안에 갇힌 남자 혹은 남자의 몸 안에 갇힌 여자라는 생각은 섹스와 젠더의 구분을 붕괴시키는 것이고 영지주의자 심지어 가현주의자적인 생각이며 육체의 현실(그는 [<i>dokeo</i>]를 남성으로만 본 것 같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¹⁴² 마가렛 매카시는 젠더에 대한 극단적인 관점은 몸을 "자유를 제약하는 문제" (자유는 순수하게 자기 주도적인 자기 결정이라고 본다)로 거절한다고 지적합니다.¹⁴³</p>
<p>As Christians, we believe that the body is a gift from God. Tragically, due to the fall, through no fault of their own, some people experience a disconnect between their gender identity and their sex. Nevertheless, there is no redemption in embracing this disconnect as a sign of God's good intent. There is no redemption in trying to live as a male when God has given one the body of a female, or in trying to live as a female when God has given one the body of a male. We do not help people to flourish when we encourage them to transition from one sex to another. To transition is merely to intensify the problem. No matter how hard a person tries, or regardless of what invasive procedures they undergo, they cannot change the fact that God has made them male or female.</p>	<p>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몸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비극적이게도 타락으로 인해서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이어서가 아니라 젠더 정체성과 섹스 사이의 분리를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절을 하나님의 선한 의도의 표징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몸을 주셨는데 남자로 살려고 한다거나 하나님이 남자의 몸을 주셨는데 여자로 살려고 하는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한 성에서 다른 성으로 바꾸는 것을 격려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을 변형하도록 돕는 것이 아닙니다. 성 전환은 문제를 더 강화시킬 뿐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든지 혹은 어떠한 외과수술 절차를 거치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 혹은 여자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p>
<p>As Vanhoozer puts it, "The body is a temple of the Holy Spirit and therefore not our own (1 Cor. 6:19)." For that reason, "In refusing one's biology, the creature refuses what is ultimately not merely a natural given but a</p>	<p>밴후저가 말했듯이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고전 6:19)." 이러한 이유로 "생물학을 거절하는 것은 창조물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을 단순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p>

¹⁴² Kevin J. Vanhoozer, "A Drama-of-Redemption Model," in *Four Views on Moving Beyond the Bible to Theology*, ed. Stanley N.

Gundry and Gary T. Meadors, (Grand Rapids, Mich.: Zondervan, 2009), pp. 151-99 (specifically pp. 195-96).

¹⁴³ McCarthy, p. 284.

<p>gift of God.” Our true vocation is not to reject our physical bodies. It is “to discern, deliberate on, and do those possibilities that are given to us with our biological sex.”¹⁴⁴</p>	<p>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명은 신체를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섹스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분별하고, 신중히 심의하고, 그 가능성들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¹⁴⁴</p>
<p>All of that said, to emphasize that Scripture calls us to live in accord with our male or female sex is not to say that Scripture prescribes the precise roles that human beings often associate with each sex. All too often Christians have confused sex roles as they are <i>described</i> in Scripture with what God has <i>proscribed</i> as his normative will for men and women rooted in creation. Yet, as with issues like divorce and polygamy, we need to recognize that God tolerated all manner of sinful behavior that did not reflect his moral will.</p>	<p>지금까지 말한 대로 성경이 우리더러 남자와 여자에 맞게 살라고 부르신 것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이 정확한 역할을 보통 생각하는 대로 각 성별의 인간에게 규정한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 자주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묘사된 성역할을 하나님이 창조 시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규범적인 의지로 금하신 것과 혼동합니다. 그러나 이혼과 일부다처제와 같은 이슈들에 대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도덕적 의지를 반영하지 않는 모든 종류의 죄악된 행동을 용인하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p>
<p>Even worse, Christians have often assumed that traditional gender roles, whether described in Scripture or not, are ordained in nature. Yet in so doing we commit the fallacy of assuming that what we observe in nature or in human society is creational. Human society is fallen, and ever since the fall into sin we have practiced gender in ways that have been oppressive, self-serving, and sinful.</p>	<p>더 최악인 것은 기독교인들은 종종 전통적인 성역할들을 그것들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다 자연에 미리 정해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자연 혹은 인간 사회에서 관찰한 것이 창조때의 질서라고 추측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는 타락했고, 타락으로 인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는 억압적이고, 이기적이고, 죄로 가득찬 방식으로 성을 행해왔습니다.</p>
<p>The problem is not necessarily with gender roles per se. The problem arises, at least in part, when we hold to these gender associations too rigidly, stifling the freedom to which God has called us in Christ. The problem perpetuates when we dogmatically impose our gender expectations, or the gender expectations of our culture, on</p>	<p>문제는 꼭 성역할 자체가 아닙니다. 최소한 부분적으로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젠더와 관련된 것들을 너무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유를 경직시킬 때 발생합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우리의 성역할 기대 혹은 우리 문화의 성역할 기대사항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할 때 문제는 영속화 됩니다.</p>

¹⁴⁴ Vanhoozer, pp. 195-96.

<p>other people. To do this is to turn our understanding of gender into an idol. And the problem is made all the worse by the fact that it imposes severe distress and pain on others. Throughout history women in particular have been prevented from doing many good things due to sinful impositions of gender—such as working for pay, owning property, voting, speaking in public, or wearing pants. Because of the influence of fallen cultural conceptions of gender, men too have been discouraged from certain behaviors, such as showing emotion—and not discouraged from aggressive behavior.</p>	<p>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젠더에 대한 이해를 우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심각한 고통과 괴로움을 타인에게 가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더 심해집니다. 역사를 통틀어 특히 여성은 유급노동권, 재산 소유권, 투표권, 공적 발언권, 바지를 입을 수 있는 자유 등과 같이 젠더에 대한 죄악된 강요 때문에 여러가지 선한 일들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아 왔습니다. 성에 대한 타락한 문화적 개념의 영향 때문에 남자들도 감정을 보이는 등의 특정한 행동들을 못하게 되고, 공격적인 행동에는 제약을 받지 않아왔습니다.</p>
<p>As Christians, we are not called to imitate cultural ideas of masculinity or femininity—not even those that were present during the time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but to imitate Christ. Jesus himself was both gentle and strong, humble and bold, submissive and a leader. The virtues of Christ are appropriate for both men and women, since both men and women have been made in the image of God and Jesus is the expressed image of God (Col. 1:15).</p>	<p>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남성성 혹은 여성성과 같은 문화적 생각들을 모방하라고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구약 및 신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자체도 부드러우면서도 강하시고, 겸손하면서도 담대하며 복종하면서도 리더십을 발휘하셨습니다. 남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진 덕목은 남녀 모두에 다 적절합니다 (골 1:15).</p>
<p>Properly understood, the gospel brings peace and freedom to us as sexual beings. God has created us in his image to express our maleness and femaleness with freedom and creativity. Although he made us with important, sexual differences, God does not dictate masculine or feminine traits that ought to accompany these differences. This is not to say that Scripture says nothing about what it means to be a man or what it means to be a woman. It is simply to say that this biblical teaching is not nearly as specific or dogmatic as Christians have typically made it out to be. In many cases, we owe one</p>	<p>제대로 이해하면 복음은 성적 존재인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자유와 창의성으로 우리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표현하기 위해 그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중요한 성적 차이를 두셨지만, 하나님은 남성이나 여성에게 이러한 차이점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남성이 무엇인지 혹은 여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성경의 가르침이 기독교인들이 전형적으로 생각하듯이 아주 구체적이거나 교조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받은 것보다 더 큰 자유를 서로에게</p>

another greater freedom than we have given in the past. Here we need wisdom and discernment that is rooted not primarily in the cultures of traditionalism or secularism but in the culture of the gospel.	빛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로 전통이나 세속화된 문화에 기인하지 않고 대신 복음의 문화에 뿌리내린 지혜와 분별이 필요합니다.
As a committee, we understand that in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there are differences of opinion on whether women should be ordained to the offices of pastor, elder, and deacon. As a denomination, we recognize that these differences arise from credible and sincerely held interpretations of Scripture. Nevertheless, we urge our churches to consider whether we have often imposed our own cultural prejudices on others as if they were the will of God, consequently exacerbating the difficulties of people who experience either gender dysphoria or disorders of sexual development.	우리는 위원회로서 북미주 개혁신교회 안에서 여성이 목사, 장로, 집사 직분을 맡도록 안수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교단으로서 이러한 차이점들이 신뢰할 만하고 진정성 있는 성경 해석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교회들이 종종 문화적 편견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기를 촉구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편견은 결과적으로 성별 불쾌감 혹은 성 발달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더 악화시킵니다.
X. Gender identity: Pastoral care	X. 젠더 정체성: 목양적 돌봄
The readers of this report have various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Some of us have transitioned or have a DSD; others of us are family members of persons with gender dysphoria; many of us are pastors, health-care providers, and congregational members who desire to serve well. How should we respond to each other's hurts, questions, bitterness, strong opinions, and great needs?	이 보고서의 독자들은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성전환했거나 성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성별 불쾌감을 가진 사람들을 가족의 일원으로 두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중에는 잘 섬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목사도 있고 의료진도 있으며 회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 질문, 아픔, 강한 의견, 많은 필요들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As noted at the beginning of this gender identity section of this report, in preparation for writing this report committee members listened to stories from trans and queer persons as well as their families, and we read literature from theology and the biological and social	본 보고서의 젠더 정체성 섹션의 첫부분에서 지적했듯이 본 보고서 작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연구위원들은 트랜스, 퀴어,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퀴어 신학 및 퀴어학을 포함한 신학, 생물학, 사회과학 연구자료들을 읽었습니다. 스스로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p>sciences, including queer theology and queer studies. The numbers of those identifying as transgender, especially youth and small children, has risen dramatically in recent times. Consequently, some medical treatments are new or being used on much younger people; and the body of scientific research is significantly smaller than in many other areas of sexuality. At the same time, relatively few theologians have studied and written about persons who experience gender dysphoria or are gender nonconforming. Thus, what we offer here with regard to pastoral care, we offer cautiously.</p>	<p>사람들의 수가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들 사이에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의학적 치료는 새로운 것이며 훨씬 어린 연령대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연구에 있어서 과학적인 연구기관이 기타 연구기관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이와 동시에 상대적으로 성별 불쾌감 혹은 성별 불순응을 겪는 사람들에 관해서 연구하고 쓰는 신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목양적 돌봄의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제공합니다.</p>
<p>We also note that in its mission and pastoral care, the church should demonstrate great openness to people who experience gender dysphoria or who are gender nonconforming, and should be cautious in any pronouncements and policy making. “For now we see only a reflection as in a mirror; then we shall see face to face. Now I know in part; then I shall know fully, even as I am fully known. And now these three remain: faith, hope and love. But the greatest of these is love” (1 Cor. 13:12-13).</p>	<p>우리는 또한 그 사명과 목양적 돌봄에서 교회가 반드시 성별 불쾌감 혹은 성별 불순응을 겪는 사람들에게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주어야 하고 어떤 공표나 정책 결정을 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고전 13:12-13).</p>
<p>A. <i>What is pastoral care, and who is responsible for it?</i></p>	<p>A. 무엇이 목양적 돌봄이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p>
<p>Pastoral care should be modeled after the example of Jesus, the good shepherd, who feeds his flock, cares for the wounded, protects the vulnerable, carries the young close to his heart, strengthens the weak, brings back the straying, and seeks out lost sheep.¹⁴⁵ Thus, pastoral care</p>	<p>목양적 돌봄은 자기 양 떼를 먹이시고 상처입은 자를 돌보고,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며, 어린 양을 품에 가까이 안으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딴 길로 간 양을 다시 데려 오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예를 본 받아야 합니다.¹⁴⁵ 그러므로</p>

¹⁴⁵ Ps. 23; 80:1; 95:7; Isa. 40:11; Ezek. 34:11-16; Luke 15:10; John 10:1-18.

<p>involves nurture, healing, guidance, admonition, discipline, reconciliation, comfort, diaconal care, and support. It involves reaching out, visiting, listening, showing empathy, and working to restore relationships. It often includes reading Scripture, prayer, or simply being a compassionate, empathic presence.</p>	<p>목양적 돌봄은 양육, 치유, 인도, 책망, 징계, 화해, 위로, 구제 및 후원을 뜻합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방문하며, 경청하고, 공감하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거나 단순히 공허히 여기거나 공감하는 것들도 종종 포함합니다.</p>
<p>The New Testament calls elders and pastors to love, feed, protect, admonish, comfort, and guide the sheep of God's flock (John 21:17; Acts 20:28; 1 Pet. 5:2). And the Bible describes shepherding or pastoring as a gift God has given to some for the sake of the church. Yet God also urges all believers to encourage the weak, show compassion, seek the lost, teach and admonish one another, pray for each other's spiritual and bodily healing, bring reconciliation, and mourn with those who mourn (Matt. 18:10-14; Rom. 12:16; 2 Cor. 5:18-20; Gal. 6:1; Col. 3:16; 1 Thess. 5:14; James 5:16). So while gifted leaders and staff may give direction to the pastoral work of a congregation, every member has some responsibility to care for other sheep, whether in the flock or outside it, who are in need.</p>	<p>신약성경은 장로와 목사들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사랑하고 먹이고 보호하며 훈계하고 위로하며 인도하라고 부릅니다 (요 21:17, 행 20:28, 벰전 5:2). 그리고 성경은 양을 치거나 목양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몇몇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모든 신자들에게 연약한 자를 격려하고, 공허를 보이고, 잃어버린 자를 찾고,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서로의 영육간의 치유를 위해 기도 하고, 화해를 이루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명령하십니다 (마 18:10-14, 롬 12:16, 고후 5:18-20. 갈 6:1, 골 3:16, 살전 5:14, 약 5:16). 그러므로 은사가 있는 지도자들과 사역자들이 회중에 대한 목양 사역을 이끌겠지만 모든 교인들에게는 양떼 안이든 밖이든 필요가 있는 다른 양들을 돌볼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습니다.</p>
<p><i>B. Goals of pastoral care</i></p>	<p><i>B. Goals of pastoral care</i></p>
<p>Pastoral care for people in the church with a sexual development disorder or gender dysphoria must include concern for the welfare of their bodies, minds, and spirits. As already noted, unlike much Greek philosophy, biblical writers view humans as a unity of body and soul, not as a soul located in a body. Yet for people struggling with their sense of identity, or whose bodies are sexually ambivalent</p>	<p>교회 내에서 성 발달장애 혹은 성별 불쾌감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목양적 돌봄은 그들 몸과 마음과 영의 안녕에 대한 염려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많은 그리스 철학과 달리 성경 저자들은 인간을 볼 때 영이 육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육과 영의 연합으로 봅니다. 그러나 정체성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혹은</p>

because of an intersex condition, relationship with their bodies is potentially incredibly difficult.	중성적인 조건 때문에 성적으로 애매한 몸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의 몸과의 관계가 잠재적으로 매우 힘든 것입니다.
Jesus' ministry included restoring people's physical health, their status in the wider society, and their spiritual health. In these ways, Jesus brought reconciliation where there had been brokenness or alienation from God, from others, or in their own bodies. In the same way, the main goals of pastoral care for those affected by gender dysphoria and disorders of sexual development must be to help people enter or regain healthy relationships with God and others, and to be at peace within themselves as whole persons: heart, mind, soul, and strength.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의 신체적 건강과 보다 넓은 사회에서의 그들의 지위와 영적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타인 및 자기 자신의 몸으로부터의 깨어짐과 소외가 있는 곳에 화해를 가져오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별 불쾌감 및 성 발달장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목양적 돌봄의 주된 목표는 사람들이 하나님 및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자기 자신 안에서 온전한 사람 (마음, 목숨, 뜻, 힘)으로 평안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Because the Bible does not give explicit teaching on the issues raised by gender dysphoria and DSD, we believe that we must be tentative in formulating general guidelines. Nevertheless, on the basis of Scripture's clear teaching that humanity has been created as male and female, we believe the following constitutes wise counsel.	성경이 성별 불쾌감 및 성 발달장애로 인한 이슈들에 대해 명쾌한 가르침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 지침을 만드는데 있어 잠정적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에 근거하여 우리는 다음의 내용이 현명한 조언이 된다고 믿습니다.
<i>C. Care for those with gender dysphoria or who identify as transgender and their families—adults and children</i>	C. 성별 불쾌감 혹은 트랜스젠더라고 밝힌 사람들과 그 가족들 (성인, 어린이) 을 위한 돌봄
1. Adults	1. 성인
Formerly transgendered people report isolating at home because they didn't want to be seen in their bodies. They were ashamed of or even hated their bodies. While there can be a variety of healthy ways to dress and act as a man or woman, to live comfortably in their bodies in the	이미 성전환을 한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보여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집에 고립되어 산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고 심지어 혐오합니다. 남자 혹은 여자처럼 옷을 입고 행동하기 위해서, 바깥 세상에서 자신의 몸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p>outside world, people who experience gender dysphoria, or who don't identify with their sex, need to see themselves as God sees them—as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by God (Ps. 139:14), as part of the restored “new creation” (2 Cor. 5:17). To receive God's love for their bodies and to be able to love their own bodies, transgendered believers need protection from the evil one's deception that God made a mistake when creating them. Therefore, those who are transgendered or are experiencing gender dysphoria should be encouraged to be reconciled to their created self. In all of this, be sure to recognize your limits and be willing to suggest that the person consult a professional psychologist.</p>	<p>여러가지 건강한 방법이 있는 반면에 성별 불쾌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나 자신의 섹스로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는 대로 보아야 합니다. “기묘하게 지으신”(시 139:14), “새 피조물” (고후 5:17) 로 회복된 피조물 중 일부로 말입니다. 그들의 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몸을 사랑할 수 있도록 트랜스젠더인 신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실 때 실수하셨다는 사탄의 속임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트랜스젠더가 된 사람들 혹은 성별 불쾌감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창조된 자기 자신의 모습과 화해할 것을 격려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목양자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문적인 심리학자와 상담을 받도록 기꺼이 제안해야 합니다.</p>
<p>a. Spiritual care</p>	<p>a. 영적 돌봄</p>
<p>- With care and compassion, recognize the deep hurt, confusion, and estrangement from God and community that many parents, youth, and adults feel—and lament with them. This might include the baffled parent of a three-year-old who seems to reject his or her biological sex; a black trans person whose family and church rejected her; a middle-aged transperson who finally feels validation of their sense of self after beginning to identify as the opposite sex. If such feelings mystify you or make you uncomfortable, model yourself after the compassionate Lord Jesus.</p>	<p>- 돌봄과 긍휼의 마음으로 많은 부모들, 청소년들, 성인들이 느끼는 깊은 상처, 혼란, 하나님과 공동체로부터의 소외를 인지하고 그들과 함께 애통하십시오. 자신의 생물학적 섹스를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 살 배기 아이 때문에 당황한 부모, 가족과 교회로부터 거절당한 흑인 트랜스젠더, 반대의 성으로 자신을 인식한 후 드디어 자아의 가치를 느끼는 중년의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느낌들이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불편하게 한다면 긍휼이 많으신 주 예수님의 본을 받으십시오.</p>
<p>- Consistently discuss, celebrate, and preach about the value of the created world and the dignity of the human body explained in the Christian teachings of creation, Christ's incarnation and ascension, and the resurrection.</p>	<p>- 창조세계의 가치에 대하여, 창조에 대한 기독교 가르침에 설명되어 있는 인간의 몸의 존엄성 대하여, 그리스도의 성육신, 승천, 부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기념하고 설교하십시오.</p>

<p>- Help people enter into the presence of a loving God who comes to us by many names and images, such as the good shepherd, who provides guidance and protection, seeks the lost, and brings us to a peaceful place (Ps. 23; Luke 15; John 10); the light of the world, who comes into our darkness and confusion and drives away oppression and sadness (John 8:12); our refuge, the one in whom we can hide (Ps. 46); our powerful rescuer, who comes down from heaven when he sees we are in trouble (Ps. 18). This can happen one on one, with a prayer team, or in public worship.</p>	<p>-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잃은 양을 찾으시고 쉼 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시며 (시 23, 눅 15, 요 10), 우리의 어두움과 혼란 속으로 오셔서 압제와 슬픔을 쫓아내시는 세상의 빛이시며 (요 8:12), 우리가 숨을 수 있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시 46), 우리가 고통 당하는 것을 보실 때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능력의 구원자 되시는 것처럼 (시 18) 여러 이름과 이미지로 우리에게 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이는 일대일 관계에서나 중보기도팀에서나 공예배에서 가능합니다.</p>
<p>- Confront any unbiblical gender expectations in your church community that could contribute to gender dysphoria. We noted earlier that transgendered people who believe their physical sex doesn't match their "brain sex" often rely on cultural stereotypes of typical male and female characteristics, which have no basis in neuroscientific evidence of sex differences in the brain. Our <i>culture</i> consistently values men specifically for their distinction from women and mocks them with female or gay epithets if they fail.¹⁴⁶ At the same time, the church often subtly or overtly exerts the same pressure on young men by promoting unbiblical stereotypes, relying on teaching from popular websites and books that promote a notion of manhood as displaying strength in comparison to women and of womanhood as utility and attractiveness to men.</p>	<p>- 성별 불쾌감에 기여할 수 있는 교회 내에서의 비성경적인 젠더에 대한 기대에 맞서십시오. 우리는 앞서 자신의 신체적 섹스가 "두뇌 섹스"와 맞지 않는다고 믿는 트랜스젠더들이 두뇌에서 성 차이에 관한 뇌과학적 증거에 기인하지 않은 전형적인 남녀 특성에 관한 문화적 고정관념에 의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끊임없이 남자들을 특별히 그들이 가진 여자와 다른 점을 가치 있게 보고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 여자 혹은 게이라는 칭호로 모욕을 줍니다.¹⁴⁶ 이와 동시에 교회는 종종 미묘하게 혹은 공공연하게 비성경적인 고정관념을 심화시키고 여자들과 비교하여 남성성의 개념을 힘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으로 혹은 여성성을 도구로 남성에게 어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주는 대중적인 웹사이트와 책들에 의존하여 젊은 남성들에게 똑같은 압력을 행사합니다.</p>
<p>In contrast, the gospel brings peace and freedom to us as sexual beings within gendered cultures. Instead of putting us in boxes, God has created us male and female</p>	<p>이와 대조적으로 복음은 젠더화된 문화 속에서 성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안과 자유를 줍니다. 우리를 상자 속에 가두는</p>

¹⁴⁶ Nate Pyle, *Man Enough: How Jesus Redefines Manhood* (Grand Rapids, Mich.: Zondervan, 2015), p. 30.

<p>in God's own image with freedom and creativity. Although God created men and women with physical differences, in the Scriptures God does not prescribe masculine or feminine traits.</p>	<p>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유와 창의성을 가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신체적 차이점들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남성성 혹은 여성성을 규정하지 않으셨습니다.</p>
<p>Whether by identifying as gender nonconforming, transgender or genderqueer, an increasing number of our brothers and sisters find themselves desperately uncomfortable with gender expectations of them. We can care well for them by <i>acknowledging</i> that there is no one biblically prescribed way to live as male and female and by <i>repenting</i> of putting unnecessary gender expectations on boys and girls that can contribute to body-shaming, sexual violence, and gender identity confusion.</p>	<p>성별 불순응, 트랜스젠더, 혹은 젠더퀴어로 규정하든 그렇지 않은 점점 더 많은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젠더에 대한 기대에 몹시 불편하게 느낍니다. 성경적으로 정해진 남자와 여자로 사는 방식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몸매 조롱, 성폭력 혹은 젠더 정체성 혼란을 가중시키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성적으로 불필요한 기대들을 가한 것을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을 잘 돌볼 수 있습니다.</p>
<p>- Give long-term personal support for gender dysphoric or transgender people or their family members through a person or persons willing to accompany them on a journey of restoration, whether that journey is continuous or fragmented. Not only will support persons encourage them with a listening ear, prayer, and encouraging Scriptures; they will also be available for wise counsel about harms and outcomes of medical intervention, as well as for a kind, nonjudgmental perspective on the pressures the person may experience from the transgender community and others. Support people can also help to provide resources. (See Internet Resources below for a few good examples from the numerous websites of parents advocating for children's physical well-being, of detransitioners telling their stories to encourage others, and of feminists concerned about pressure on young women to transition.)</p>	<p>- 성별 불쾌감 혹은 트랜스젠더 혹은 가족 구성원들을 회복의 여정을 함께 걷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여정의 지속성 여부와 관계 없이 장기적으로 개인적 지지를 해 주십시오.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의 성경 말씀으로 지지하는 것 뿐 아니라 외과 수술의 해와 결과에 대해서 현명한 조언을 해 주고 다른 트랜스젠더들이나 그 외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느끼는 압력에 대해서도 친절하고 비판적이지 않은 태도로 상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은 여러가지 자원을 제공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린이의 신체적 건강을 지지하는 부모들, 성전환을 다시 한 사람들이 해 주는 이야기들, 의 수많은 웹사이트 인터넷 자료들</p>
<p>- Also note that a review of studies of persisters and desisters shows that about half of those</p>	<p>- 퍼시스터(persisters)와 디시스터(desisters)에 관한 연구 리뷰는 또한 탈성전환자들의 절반가량이 동성에 끌린다고 밝혔습니다.</p>

who detransition are same-sex attracted. Anecdotal evidence suggests that for many young people in the church and wider society, transitioning is seen as more acceptable than being gay. ¹⁴⁷	일화적 증거는 교회와 광범위한 사회에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성전환이 게이로 사는 것보다 더 받아들여진다고 밝혔습니다. ¹⁴⁷
b. Hospitality	b. 환대
Individuals who identify as transgender or have gender dysphoria need to be received without judgment as persons made in God's image, valuable to God as they are. In other words, they need to be welcomed with unconditional love.	트랜스젠더라고 밝힌 사람들 혹은 성별 불쾌감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로 하나님께 귀한 사람들로 받아들여지고 정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환영을 받아야 합니다.
- Treat every person as an individual. Like all of us, every trans person is unique and wants to be seen for who they are. Work against your ideas and biases of who transgender people are, and strive to know and love the person in front of you. To quote a common expression, "If you've met one transgender person, you've met one transgender person."	- 모든 사람들을 개인으로 대하십시오. 우리 모두와 같이 모든 트랜스젠더들은 각각 다르고, 자기 모습 그대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편견을 거슬러서 여러분 앞의 있는 사람을 알아가고 사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트랜스젠더 한 사람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트랜스젠더 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 Acknowledge that having gender dysphoria is not a choice. Also understand that they may view surgery as a means of God's healing to alleviate the anguish of gender dysphoria. The existence and persistence of such intense discomfort in some persons within the church is not a form of rebellion against God's creation of us as male and female. No one chooses to experience such distress with their body that they would undergo physical treatments to radically and permanently alter it.	- 성별 불쾌감을 갖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외과 수술을 성별 불쾌감의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치유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의 몇몇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강력한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에 대해 반항하는 반역의 한 형태가 아닙니다. 몸 속의 고통을 경험하고 급진적이고 영속적으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신체적 치료를 받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¹⁴⁷ womanmeanssomething.com/half-of-all-desisters-are-same-sex-attracted.

<p>- Celebrate spiritual community with time spent together physically in meals, hugs, games, movie nights, etc. Human community in real time often serves as an antidote to confusion, pain, and loneliness!</p>	<p>-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포옹하고, 게임하고, 영화를 보는 등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영적 공동체를 누리십시오. 사람들이 모여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 종종 혼란, 고통, 외로움의 해독제가 되기도 합니다.</p>
<p>- Decide what welcome and hospitality look like in regard to people's names and pronouns. A recent study showed that "transgender and nonbinary youth [ages 13-24] who report having their pronouns respected by all or most of the people in their lives attempted suicide at half the rate of those who did not have their pronouns respected."¹⁴⁸ Reflect on Paul's decision in 1 Cor. 9:22 in reference to people's identity and pronouns: "I have become all things to all people so that by all possible means I might save some." Some congregations will decide that to be inclusive means that their community will refer to transgendered people with the names and pronouns they prefer. Other congregations may choose not to do that but should strive to avoid giving offense as much as possible.</p>	<p>- 사람들의 이름과 인칭대명사에 관련하여 환영과 환대가 어떤 모습이 될지 결정하십시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칭대명사가 존중 받는다는 트랜스젠더 및 논바이너리 청소년 [13-24 세]의 자살시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¹⁴⁸ 고전 9:22 에서 바울도 사람들의 정체성과 인칭대명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몇몇 교회들은 포용적이라는 말이 트랜스젠더들을 그들이 선호하는 이름과 인칭대명사로 불러주는 것이라고 결정할 것입니다. 또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그들에게 모욕을 주는 것은 피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p>
<p>- Be open to variety in people's clothing. Just as a man in contemporary Scotland might wear a kilt, and just as men in many countries wear robes, so cultural expectations for male and female dress vary greatly by region or time period.</p>	<p>-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현대의 스코틀랜드 남자들이 킬트를 입고 많은 나라들의 남자들이 가운을 입듯이 남자와 여자의 옷에 대한 문화적 기대들이 지역과 시대에 따라 굉장히 다양합니다.</p>
<p>- Accept those who have already fully transitioned (i.e., have had hormones and surgery) as they are. If they later show interest and openness in exploring detransitioning or other ways of making peace with their biological sex, be ready to support them in that journey. Be willing to open yourself up as much as you hope they will.</p>	<p>- 이미 완전히 성전환을 한 (예: 호르몬제를 투여받고 수술을 받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만약 그 사람들이 나중에 탈성전환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마음이 열릴 경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지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 사람들이</p>

¹⁴⁸ thetrevorproject.org/survey-2020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기 원하는 만큼 여러분도 기꺼이 마음을 여십시오.
We offer this case study (again, the names have been changed) as one example of a situation a church recently faced, along with possible pastoral steps:	다음의 사례 연구는 여러분의 교회가 최근에 직면한 상황과 이에 대처하는 가능한 목양의 단계들의 예시입니다.
Surita, who presents as female but was born male, and Surita's partner, Lindsay, have been attending your church. They are both professing Christians and recently have asked your pastor to officiate at their wedding in your church building.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살고 있는 수리타와 수리타의 파트너인 린지가 여러분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커플은 기독교인으로 신앙을 고백했고, 최근에는 목사님께 여러분의 교회 건물에서 그들의 결혼식의 집례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Desired outcomes:	바라는 결과:
- Deep intimacy with God and close relationship with God's people for each of them.	- 두 사람 모두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과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가까운 관계로 나아가는
- For Surita to be at peace with her created male body.	- 수리타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녀의 남성의 몸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
Obstacles:	장애물:
- Their sense of themselves as a lesbian couple.	- 그들이 스스로를 레즈비언 커플로 바라보는 것
- Possible great pride in transition for Surita.	- 성전환에 대해 수리타가 가질 수 있을 자부심
- If Surita has already fully transitioned, it may feel unlikely to the pastor that Surita would consider detransition. This will be a long, difficult journey with potential for lots of hurt.	- 만약 수리타가 성전환을 완전히 마쳤을 경우 수리타가 탈성전환을 고려할 것이라고 목회자에게는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상처를 지닌 길고 힘든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Possible steps:	가능한 단계:
- Pray with them for the Spirit's presence.	- 성령의 임재를 위해 그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 <i>Listen</i> to their faith story and the history of their relationship, as well as Surita's journey toward transitioning.	- 수리타의 성전환 여정과 신앙과 관계의 스토리를 들어주십시오.
- <i>Explain</i> the biblical understanding of male-female union as God's design for marriage, which reflects Jesus and the church. Explain why the marriage of two people who both live as females does not reflect that purpose of marriage.	- 예수님과 교회를 반영하는 남녀의 연합을 결혼을 위한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여기는 성경적 이해를 설명하십시오. 두 여성의 결혼이 왜 결혼의 목적을 반영하지 못하는지 설명 하십시오.
- <i>Ask</i> if Surita would be willing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making peace with the body they were born in?	- 태어날 때의 몸과 평화롭게 지낼 가능성을 탐색해 볼 의지가 있는지 수리타에게 물어보 십시오.
- <i>Offer</i> support from an individual, and a small group, to accompany them spiritually on such a journey of exploration.	- 그러한 탐색의 여정에 영적 동행을 하기 위한 개인, 소그룹 차원의 지지를 제공 하십시오.
- <i>Invite</i> them to pray together for wisdom and next steps together.	- 지혜와 다음 단계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을 초청 하십시오.
2. Parents	2. 부모들
Parents of children who say they are transgender, want to transition, or suffer harassment need practical support. Parents whose child identifies as trans not only feel great concern for their child's physical and emotional well-being because of bullying but often also greatly fear the suicide of their child. At the same time, parents may be told by health and social-service workers as well as teachers that if their child "is consistent, insistent, and persistent about their transgender identity," ¹⁴⁹ the parents should affirm and support that	트랜스젠더, 성전환을 원하는 사람들 혹은 성희롱을 당하는 사람들의 부모님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밝히는 자녀를 둔 부모님은 자녀가 괴롭힘을 당할까봐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안녕을 매우 걱정할 뿐 아니라 자녀들이 자살할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걱정합니다. 이와 동시에 부모들은 보건 및 사회복지사, 교사들에게 만약 자녀가 "자신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에 대해 지속적이고, 완강하고, 끈질기다면" ¹⁴⁹ 부모들은 사회적 전환, 차후

¹⁴⁹ hrc.org/resources/transgender-children-and-youth-understanding-the-basics; apadivisions.org/division-44/resources/advocacy/transgender-children.pdf

identity through social transition and later hormonal treatments and surgeries. For this reason, many wonder if they should help their child transition.	호르몬 치료 및 수술을 통해서 자녀의 정체성을 확증하고 지지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a. Spiritual care	a. 영적 돌봄
Many of the spiritual care and hospitality suggestions offered above for transgendered and gender dysphoric adults will apply to parents of transgendered and gender dysphoric children. In addition, we offer the following:	위의 트랜스젠더 및 성별 불쾌감을 가진 성인들을 위한 영적 돌봄과 환대에 관한 제안들은 트랜스젠더 어린이와 성별불쾌감을 가진 어린이를 둔 부모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다음의 제안을 드립니다.
- Offer prayer for and with parents in various settings such as intercessory prayer groups, small groups, and one-on-one meetings. Offer support and encourage parents to share their journey with their small group, if they feel safe doing so. Help them to know and feel they are not alone in this.	- 중보기도모임, 소그룹 및 일대일 만남과 같은 다양한 세팅에서 해당 부모들을 위해서 또 그들과 함께 기도를 하십시오. 해당 부모들이 안전함을 느낀다면 소그룹과 함께 그들의 여정을 나눌 수 있도록 부모들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이 여정에서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고 알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Cultivate hope in a God who loves their child unconditionally and in a community that will respect, accept, and support their child no matter what.	-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들의 자녀를 존중하고 포용하고 지지할 공동체 안에서 소망을 키우십시오.
- Whether one's child is age 5 or 25, parents will likely be grieving over their child's confusion about their gender. Offer space and time for parents to express their unique emotional experience over what is happening with their child. Offer psalms of lament to them as one outlet for expressing their anger to God.	- 누군가의 아이가 5 살이든지 25 살이든지 상관없이 부모들은 자신의 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아이들에 대해 슬퍼할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느끼는 부모들이 그들만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출구로써 시편의 탄원시들을 읽게 하십시오.
b. Hospitality	b. 환대

<p>- Work to educate your congregation to the realities of gender dysphoria, including the dismal statistics regarding self-harm in young people who identify as nonbinary.¹⁵⁰</p>	<p>- 자신을 논이너리라고 밝히는 젊은이들의 자해에 관한 암울한 통계를 포함하여 성별불쾌감의 현실에 대하여 회중들을 교육하도록 노력하십시오.¹⁵⁰</p>
<p>- Work to ensure that church is a safe place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contrast to many areas of society in which these persons are at risk of physical harm and bullying. The Trevor Project notes that 40 percent of transgender and nonbinary youth (ages 13-24) report being physically threatened or harmed in their lifetime due to their gender identity.¹⁵¹ Think about how your congregation speaks about nonbinary persons.</p>	<p>-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신체적으로 해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회의 여러 영역에 비하여 교회가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트레버 프로젝트는 40 퍼센트의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청소년 (13~24 세) 이 젠더정체성 문제때문에 그들의 평생에 신체적 위협과 상해를 받았다고 보고합니다.¹⁵¹ 당신이 교회가 논바이너리 지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p>
<p>- See internet resources below for a few good examples from the numerous websites of parents advocating for children's physical well-being, of detransitioners telling their stories to encourage others, and of feminists concerned about pressure on young women to transition.</p>	<p>- 자녀들의 신체적 웰빙을 주창하는 부모들과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탈성전환자들, 성전환에 대한 압박을 받는 젊은 여성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수많은 웹사이트들과 같은 인터넷 자료들을 바람직한 예로써 참조하십시오.</p>
<p>c. Support with decision making</p>	<p>c.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되어 줌 (Support with decision making)</p>
<p>- Be willing to share wisdom about medical treatment and support to resist cultural pressure.</p>	<p>- 의료 처치에 관한 지혜와 문화적 압력에 저항하기 위한 지지를 기꺼이 나누십시오.</p>
<p>Since the Bible teaches that being created male or female is part of how humans reflect the image of God, parents may well need help to protect their children from harms by medical interventions. For example, although respected organizations such as the AMA and the Pediatric Endocrine Society have made gender-affirming</p>	<p>성경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방식의 일부라고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에 부모들은 의학적인 치료가 개입하여 발생하는 해악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MA 및 소아 내분비 학회와 같은 저명한 기관들이 젠더 긍정 성명서들을 발표했더라도 호르몬 치료</p>

¹⁵⁰ thetrevorproject.org/survey-2020

¹⁵¹ thetrevorproject.org/survey-2020

statements, very little longitudinal research has been done on the effects of medical practices such as hormone treatments and sex reassignment surgeries. ¹⁵²	및 성 재할당 수술과 같은 의료 행위가 가져올 장기적인 변화 과정을 다루는 연구가 거의 없습니다. ¹⁵²
Research does show that almost all children with gender dysphoria will become comfortable with their anatomical sex after puberty. In addition, many adults, particularly gay and lesbian adults, have childhood memories of strongly believing they were the opposite sex but came to accept their sex during adolescence. ¹⁵³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별 불쾌감을 가진 거의 모든 어린이들이 사춘기 이후에는 그들의 해부학적 성에 대해 편안해 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많은 성인들, 특히 게이와 레즈비언 성인들은 어린시절 자신들이 반대 성을 가졌다고 강력하게 믿었으나 사춘기 시절 자신의 성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¹⁵³
At the same time, a child given hormones to block puberty who then later takes hormones to change their sex will become sterile. To enable them to resist pressure to move down a path leading to such potentially damaging and irrevocable changes, the church should give the family and the child strong support as the child goes through puberty. ¹⁵⁴ Knowledgeable church members can serve as resources or support as families debate the wisdom or timing of surgeries, puberty blockers, or other medications. ¹⁵⁵	이와 동시에 이차성징을 막는 호르몬을 투여 받은 어린이가 이후에 성전환을 위한 호르몬을 투여받을 경우 불임이 됩니다. 이러한 잠재적인 해악과 되돌릴 수 없는 변화로 이끄는 길로 가게 하는 압력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교회는 아이가 사춘기를 겪을 때 그 아이와 가족에게 강력한 지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¹⁵⁴ 가족들이 수술, 이차성징 차단제 혹은 기타 약물 치료에 대한 지혜와 타이밍에 대해서 논의할 때 지식이 많은 교인들이 자원을 제공하고 지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¹⁵⁵
- As with adults, we suggest the internet resources below for a few good examples of the numerous websites of parents advocating for children's physical well-being.	- 성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신체적 웰빙을 주창하는 부모들의 수 많은 웹사이트와 같은 아래의 인터넷 자료들을 바람직한 예로서 참조하십시오.

¹⁵² “Those advocating a psychological approach to treatment, as opposed to hormone and/or surgery-based protocols can point to research showing that while SRS [sex reassignment surgery] appears to alleviate mental health problems for some, for a sizable group of others psychological morbidity is unaffected by—or actually increases after—surgical transitioning”; Simonsen, Giraldi, Christensen, Haldi, “Long-term Followup . . .” *Nordic Journal* as quoted in J.K. Beilby and P.R. Eddy, eds., *Understanding Transgender Identities: Four Views* (Grand Rapids, Mich.: Baker Academic, 2019), p. 22.

¹⁵³ Steensma, et al.; DOI:10.1016/j.jaac.2013.03.016.

¹⁵⁴ npr.org/templates/story/story.php?storyId=90273278; Norman Spacker, ncbi.nlm.nih.gov/pmc/articles/PMC4955762; Polly Carmichael GIDS.

¹⁵⁵ See Stephen B. Levine, “Ethical Concerns about Emerging Treatment Paradigms for Gender Dysphoria,”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44 (2018), pp. 29-44; Stephen B. Levine, “Informed Consent for Transgendered Patients,”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45:3 (2019), pp. 218-29; DOI: 10.1080/0092623X.2018.1518885.

3. Mission	3. 선교
Outside your church community are many homeless transgendered people who are being prostituted. There is also a large and growing group of young people who share the transgender umbrella because they identify as gender queer, gender nonconforming, or gender fluid. They long for love, acceptance, and genuine mutual community.	교회 공동체 밖에는 명예가 더럽혀진 채 갈 곳 없는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있습니다. 또한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젠더퀴어, 젠더 불순응 혹은 젠더플루이드라고 밝히고 트랜스젠더라는 상위 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 Rest in God and give God your fears and anxieties. Be with God in prayer. Receive God's love. "Perfect love drives out fear" (1 John 4:18). Ask the Spirit to help you fear God rather than people's ideas, political agendas, or fears.	-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여러분의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십시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요한일서 4:18). 사람들의 생각, 정치적쟁점 혹은 두려움 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 Listen to a real person tell their story. Hear the hurts, fears, joys, concerns of a transgendered person, a gender dysphoric youth, a desperate parent whose adolescent child is suicidal, or a detransitioner.	- 타인의 실제 경험담을 들으십시오. 트랜스젠더, 성별불쾌감을 겪는 젊은이, 자살 시도를 하려는 청소년 자녀를 둔 다급한 부모, 탈성전환을 한 사람들의 상처, 두려움, 기쁨, 걱정을 들어보십시오.
- Consider how your church might reach out to the local trans community. Encourage members of your congregation who see themselves as gender nonconforming, who experience gender dysphoria, or who are attracted to the same sex to advise or help give leadership to any outreach. Not only will this further their own discipleship, but the church will also benefit from the personal advocacy and compassion they will bring.	- 여러분의 교회가 어떻게 지역 트랜스젠더 공동체에 다가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때, 여러분 교인 중에서 젠더 불순응, 성별 불쾌감을 겪거나, 동성애 끌리는 사람들이 리더십에 조언을 해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격려 하십시오. 이는 그들 자신의 제자도를 강화할 뿐 아니라 교회 또한 그들의 개인적인 지지와 긍휼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 Give thought to how your church might address the injustice of ethnic minorities and other marginalized people being prostituted.	- 여러분의 교회가 소수인종 및 기타 소외된 사람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불의에 대해 어떻게 언급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D. <i>Care for those with Disorder of Sex Development (DSD)</i>	D. 성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돌봄
<p>Some of the above-mentioned ministry the church offers to people who are transgender and gender dysphoric will also give great comfort to individuals with disorders of sexual development and their families. In addition, some of the societal issues noted above overlap for both groups. Nonetheless, the biological realities of persons with DSDs suggest that these people and their families also have unique needs that the church must address. Be sure to recognize your limits and be willing to suggest that they consult a professional psychologist.</p>	<p>교회가 트랜스젠더 및 성별 불쾌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앞서 언급한 사역들 중 몇몇은 성 발달장애를 겪는 개인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커다란 위로로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된 사회적 이슈들 중 몇몇은 이 두 그룹과 겹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생물학적 현실들은 이러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도 교회가 반드시 언급 해야할 그들만의 필요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꼭 인정하고 전문적인 심리학자들과 상담할 것을 기꺼이 제안하십시오.</p>
1. Spiritual care	1. 영적 돌봄
<p>- Since some of these conditions are identified at birth, the church should be prepared to support parents as soon as possible through prayer and a consistent empathic presence, especially in the first weeks but continuing for as long as is needed as parents adjust to the realities of this unexpected condition.</p>	<p>- 이 중 몇몇 조건들은 태어날 때 밝혀지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와 지속적인 공감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 부모들을 지지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첫 수 주 동안, 그러나 생각지 못했던 여건의 현실에 부모들이 적응하는데 필요하다면 언제까지나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p>
<p>- Parents may feel some shame, fear, confusion, grief, or anger. Offer nonjudgmental support for them. Encourage them to express their unique emotional experience. Offer psalms of lament as an outlet for letting them express their feelings to God. Suggest practical outlets such as keeping a journal of the medical and emotional journey or writing their own psalm of lament.</p>	<p>- 부모들은 수치, 두려움, 혼란, 비통, 혹은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도와십시오. 그들만이 겪는 감정적인 경험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십시오. 애痛的 시편을 그들의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출구로 제공하십시오. 의학적, 정서적 여정을 기록하는 일기를 쓰거나 그들 자신만의 애痛的 시편을 쓰는 등 실질적인 출구들을 제안하십시오.</p>
<p>- For the person who has a DSD, be ready to be an empathic presence, to walk with them in their suffering. Acknowledge their feelings of shame, anger, or bitterness</p>	<p>- 성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해 함께 공감하며 그들의 고통의 여정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준비를 하십시오. 그들이 어린 시절</p>

if they were bullied or mocked during childhood or adolescence. Encourage them to express their unique emotional experience. Offer psalms of lament and other Christian resources such as music as an outlet for letting them express their feelings to God.	혹은 청소년 시기에 괴롭힘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했다면 그들이 느끼는 수치, 분노 혹은 비통함을 인식하십시오. 그들이 느끼는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음악과 같은 기독교 자료와 비통의 시편을 제공하십시오.
2. Hospitality	2. 환대
- Acknowledge that disorders of sexual development vary widely. They manifest at different ages, and some are visible while others are not. If and when someone shares their story with you, assure them of your support. Offer to connect them with a small group.	- 성 발달장애를 광범위하게 인식하십시오. 성 발달장애는 각기 다른 연령에서 드러나고 어떤 경우는 눈에 보이게 드러나지만 다른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당신과 나눈다면 여러분의 지지를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들을 소그룹과 연결해 주십시오.
- Consider selecting a small group of interested people in your church who are willing to learn about Disorders of Sexual Development and who would be able to come alongside parents or persons with a DSD.	- 성 발달장애에 대해서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관심이 있고 성 발달장애를 겪는 사람과 그 부모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여러분의 교회의 소그룹을 고르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 Be aware that some persons with a DSD may position themselves under the transgender umbrella. Intersex conditions arise from biological disorders rather than as a matter of internal sense of identity. However, as public acceptance of trans identities and genderqueer culture has grown, some people with such congenital differences find a sense of community. Of course, it is also the case that some persons with a DSD will not want to identify themselves in this way.	- 성 발달장애를 가진 몇몇 사람들은 자신을 트랜스젠더 범주로 인식하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중성 조건은 내면의 자의식의 문제보다는 생물학적 장애로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정체성 및 트랜스퀴어 문화에 대해 대중이 점점 더 포용함에 따라 그렇게 선천적으로 다르게 태어난 몇몇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을 느낍니다. 물론 성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이렇게 인식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3. Support in decision making	3.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되어주기

Studies ¹⁵⁶ suggest that those who discover early that they have a disorder of sexual development and who choose which sex they most identify with do relatively well. For this reason, the church can support such members and their parents as they decide how to live into the sex that seems most comfortable or natural to them. They should be helped as they make whatever surgical or hormonal alterations that will facilitate this.	연구결과에 ¹⁵⁶ 의하면 성 발달장애를 일찍 발견한 사람들과 자신이 가장 동일시하는 성별을 선택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잘 해낸다고 밝힙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이 자신에게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성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할 때 교회는 그러한 교인들과 그 부모들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이 어떠한 수술 혹은 호르몬 변경을 하든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To conclude, we offer a few stories that are pertinent to this report. As with other stories throughout the report, names have been changed to protect the persons involved.	우리는 이 연구와 관련이 깊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 보고서의 다른 이야기들과 같이 관련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명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Chelsey,* 34, had served six years in a Canadian women's prison when a biological male (Terri*) who identified as a transwoman was placed in her cellblock. Convicted of sexual assault against a woman, Terri* wore a beard and had not begun any kind of physical transition. When Terri sexually assaulted Chelsey, she made a formal complaint. Although the prison authorities believed her, they told her they were unable to remove Terri because it would be a violation of Terri's human rights. Chelsey says, "I felt like I was going crazy because I knew he was a man." ¹⁵⁷	첼시* (34 세)는 트랜스여성이라고 밝히는 생물학적 남성(테리*)이 그녀의 감방에 수감되었을 때 캐나다 여성 교도소에서 6 년동안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여성 성폭행범 테리는 수업을 기르고 있었고 어떠한 신체적 전환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테리가 첼시를 성폭행했을 때 그녀는 정식 고소를 했습니다. 비록 구치소 당국이 그녀를 믿어주었지만 테리에 대한 인권 침해문제 때문에 테리를 이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첼시는 "저는 그 사람이 남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¹⁵⁷
Max* never took to "girly" things like dresses and makeup or playing with dolls. But she loved being outdoors and anything to do with exercise and sports. When men began to look at her developing body in puberty, Max	맥스*는 "여자아이" 같은 옷이나 화장을 좋아하거나 인형을 가지고 논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무엇이든 운동 및 스포츠와 관련된 실외활동을 좋아 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어 그녀의 변화되는 신체를 남자들이

¹⁵⁶ See Appendix B: Disorders of Sexual Development and Their Implications.

¹⁵⁷ [sencanada.ca/en/Content/Sen/Committee/421/RIDR/54206-e; womenarehuman.com/the-alarm-has-been-sounded-whos-going-to-respond](http://sencanada.ca/en/Content/Sen/Committee/421/RIDR/54206-e;womenarehuman.com/the-alarm-has-been-sounded-whos-going-to-respond)

<p>dressed in loose shirts and baggy pants. At the same time, she realized she was romantically attracted to girls, not boys, and gradually came out to her friends and family. She began to feel she had “a Barbie body” but was not and could not be a Barbie, so she presented as very “butch.” By her late teens, she started getting strong encouragement from transgender people to transition. She found complete acceptance in this new community, as long as she didn’t question the values, and she began taking hormones and preparing to get “top surgery.” For eight years she lived as a man and was engaged to a woman. Now a detransitioner, Max has withdrawn completely from the transactivist community because she regularly gets hostile social media posts and threats of violence for choosing to return to living as a lesbian. A Christian friend of Max’s mother, a justice activist, offered Max support over coffee and meals. Since Max relocated, the new friend reached out, and they now correspond online about Jesus and the Bible and have even begun to pray together over the internet.</p>	<p>쳐다보게 되자 맥스는 헐렁한 셔츠와 바지를 입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녀는 남자가 아닌 여자들에게 연애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차츰 이 사실을 친구들과 가족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바비인형 같은 몸”을 가졌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바비가 아니었고 바비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남성적인” 모습으로 행동했습니다. 십 대 후반 즈음에 그녀는 트랜스젠더들로부터 성전환을 하라는 강력한 격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한 그녀는 이 새로운 공동체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경험하여 호르몬을 투여받기 시작했고 “상체수술”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8 년 동안 그녀는 남자로 살았고 여자와 데이트 하였습니다. 이제 탈성전환자인 맥스는 다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것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정기적으로 적대적인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폭력적인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트랜스엑티비스트 공동체에서 완전히 나왔습니다. 정의 운동가인 맥스 엄마의 한 기독교인 친구는 맥스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으면서 맥스를 도왔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한 맥스는 이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온라인으로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심지어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p>
E. <i>Selected resources</i>	E. 참고자료
1. Books	1. 서적
<p>Beilby, James K., and Paul Rhodes Eddy, eds., <i>Understanding Transgender Identities: Four Views</i> (Grand Rapids, Mich.: Baker Academic, 2019).</p>	<p>Beilby, James K., and Paul Rhodes Eddy, eds., <i>Understanding Transgender Identities: Four Views</i> (Grand Rapids, Mich.: Baker Academic, 2019).</p>

Fine, Cordelia. <i>Testosterone Rex: Myths of Sex, Science, and Society</i> (New York: Norton, 2017).	Fine, Cordelia. <i>Testosterone Rex: Myths of Sex, Science, and Society</i> (New York: Norton, 2017).
Jeffreys, Sheila. <i>Gender Hurts: A Feminist Analysis of the Politics of Transgenderism</i> (Melbourne: Routledge, 2014).	Jeffreys, Sheila. <i>Gender Hurts: A Feminist Analysis of the Politics of Transgenderism</i> (Melbourne: Routledge, 2014).
Kivel, Paul. <i>Men's Work: How to Stop the Violence That Tears Our Lives Apart</i> (New York: Ballantine, 1992).	Kivel, Paul. <i>Men's Work: How to Stop the Violence That Tears Our Lives Apart</i> (New York: Ballantine, 1992).
Pearcey, Nancy. <i>Love Thy Body: Answering Hard Questions of Life and Sexuality</i> (Grand Rapids, Mich.: Baker, 2018).	Pearcey, Nancy. <i>Love Thy Body: Answering Hard Questions of Life and Sexuality</i> (Grand Rapids, Mich.: Baker, 2018).
Rippon, Gina. <i>Gender and Our Brains: How New Neuroscience Explodes the Myths of the Male and Female Mind</i> (New York: Pantheon, 2019).	Rippon, Gina. <i>Gender and Our Brains: How New Neuroscience Explodes the Myths of the Male and Female Mind</i> (New York: Pantheon, 2019).
Van Leeuwen, Mary Stewart. <i>Gender & Grace</i>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1990).	Van Leeuwen, Mary Stewart. <i>Gender & Grace</i>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1990).
Van Leeuwen, Mary Stewart. <i>Am I My Brother's Keeper? What the Social Sciences Do and Do Not Tell Us about Masculinity</i>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2002).	Van Leeuwen, Mary Stewart. <i>Am I My Brother's Keeper? What the Social Sciences Do and Do Not Tell Us about Masculinity</i>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2002).
Yarhouse, Mark A. <i>Understanding Gender Dysphoria</i>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2015).	Yarhouse, Mark A. <i>Understanding Gender Dysphoria</i>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2015).
2. Websites and video	2. 웹사이트 비디오
kelseycoalition.org; Working to Change the Systems That Failed Our Kids	kelseycoalition.org; Working to Change the Systems That Failed Our Kids
genderresourceguide.com; Educating and Equipping Parents	genderresourceguide.com; Educating and Equipping Parents

4thwavenow.com; a community of people who question the medicalization of gender atypical youth	4thwavenow.com; a community of people who question the medicalization of gender atypical youth
piqueresproject.com; stories and info from four detransitioners	piqueresproject.com; stories and info from four detransitioners
med.umich.edu/yourchild/topics/dsd.htm	med.umich.edu/yourchild/topics/dsd.htm
ted.com/talks/tony_porter_a_call_to_men	ted.com/talks/tony_porter_a_call_to_men
XI. Homosexuality: Cultural context	XI. 동성애: 문화적 배경
<i>A. A word about language</i>	A. 용어에 대하여
<p>Currently many people in North America, including Christians, assume that the words <i>lesbian</i>, <i>gay</i>, and <i>bisexual</i> refer to unchosen aspects of one's personhood. Others, however, use these words to refer to a person's identity or behavior. Some Christians who are attracted to the same sex are comfortable describing themselves as lesbian, gay, or bisexual. Others do not use these labels to identify themselves because the Bible talks about behavior, not identity; or because they have chosen to live in obedience to the historically orthodox understanding of sexuality and thus do not want to be labeled with a word in any way connected with sinful behavior. Still others simply reject the notion of heterosexuality and homosexuality, believing that all of us are on a spectrum of sexual attraction. Out of respect for all of these perspectives, in this report we use the terms <i>gay</i>, <i>lesbian</i>, and <i>bisexual</i> only to refer to persons who identify as such. Otherwise we simply speak of an attraction to the same sex or to same-sex activity or practice.</p>	<p>현재 북미주의 기독교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같은 단어들이 한 사람의 개인적 특질 중의 선택하지 않은 측면을 일컫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을 사용하여 한 사람의 정체성 혹은 행동을 묘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성에게 끌리는 몇몇 기독교인들은 스스로를 레즈비언, 게이 혹은 양성애자라고 밝히는 것을 편안하게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꼬리표로 스스로를 단정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정체성이 아닌 행동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역사적으로 성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에 순종하여 살기로 선택하여 죄악된 행동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는 단어로 자신이 불리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p>
<i>B. Context</i>	B. 배경

<p>The Christian Reformed Church’s 1973 synodical report on homosexuality broke ground by making a distinction between homosexual orientation and homosexual activity. As the report put it, “We must distinguish between the person who is homosexual in [their] sexual orientation and the person who engages in explicit sexual acts with persons of the same sex.” It also noted that “homosexuality is not the result of any conscious choice or decision on the part of the person.” In other words, there is no sin in being attracted to the same sex. We only sin if we act on our sexual attractions.¹⁵⁸</p>	<p>동성애에 관한 북미주 개혁신교회 1973 년 총회 보고서는 동성애적 경향성과 동성애 행위를 구분지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입니다. 보고서는 “우리는 성적 경향성에 있어서 동성애적인 사람과 동성인 상대와 노골적인 성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동성애는 그 사람의 어떤 의식적인 선택이나 결정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성에게 끌리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적으로 끌리는대로 행동을 할 때에만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¹⁵⁸</p>
<p>In the past few decades genetic research and brain chemistry studies have attempted to demonstrate definitive correlations between our biology and our sexual attractions.¹⁵⁹ Scientific studies have tried to establish empirically what many people feel: in childhood, puberty, or adulthood, they found themselves attracted to their own sex. They did not choose this same-sex attraction, nor could they suppress it.</p>	<p>최근 수 십년 동안의 유전 및 두뇌화학 연구는 우리의 생물학과 성적 끌림 사이의 결정적인 상관관계를 입증하려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¹⁵⁹ 과학연구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 (즉, 아동기, 사춘기, 성인기에 사람들이 동성애에 끌리는 느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동성애 대한 끌림은 그들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억누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p>
<p>However, no “gay gene” has yet been identified. Quite the opposite, the claim that attraction to the same sex has a biological cause has been seriously challenged by recent research. For example, a team of scientists from MIT and Harvard recently studied the genetic material of an extremely large sample group—almost half a million individuals.¹⁶⁰ Their findings affirm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 that strongly call into question the commonly held assumption that being gay is an innate condition which is</p>	<p>그러나 “동성애 유전자”라고 밝혀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꽤 반대로 동성애에 끌리는 데에 생물학적 원인이 있다는 주장은 최근 연구들에 의해 심각하게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MIT 와 하버드 과학 연구팀은 최근에 대규모 그룹의 (거의 50 만에 가까운 사람들) 유전형질을 연구했습니다. ¹⁶⁰ 그들의 발견은 유전자적 구성에 의해 통제되고 강제되는 선천적인 조건으로 게이가 된다는 일반적인 가정에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이전 연구의 결과들을 확인합니다.</p>

¹⁵⁸ *Acts of Synod 1973*, pp. 612-613.

¹⁵⁹ See Appendix A: What Can Science Tell Us about the Biological Origins of Sexual Orientation?

¹⁶⁰ See “How Do Genes Affect Same-Sex Behavior?” *Science*, Vol. 365, Issue 6456 (Aug. 30, 2019).

<p>controlled or compelled by one's genetic makeup. To put it in colloquial terms, this study weakens the contemporary cultural idea that people are born this way.</p>	<p>즉 이 연구는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태어난다는 식의 현대적 풍조에 따른 생각을 약화합니다.</p>
<p>Charles,* 55 (white), has loved Jesus since he was a small boy. Music and liturgy in worship have always been deeply meaningful to him. He is usually the most dependable member of church choirs and ensembles and liturgist and drama teams. Other than the obligatory talks in youth group about how to avoid intercourse before marriage, Charles heard little teaching about sexuality in church. Yet he always knew the church believed "homosexuality is wrong" and definitely understood that being gay was considered by church members to be one of the most shameful situations one could be in. As a faithful church member and believer, Charles regularly reads the Bible and prays, and he has agonized over his sexuality since he was very young. Since puberty, Charles has felt shame and hurt, and often anger too, toward God, himself, and the church. In the church, he has been desperately lonely both because congregational life is organized around families and because he's never experienced a safe place to talk about his deep longings for sexual intimacy with a man.</p>	<p>찰스* (55 세, 백인)는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사랑해 왔습니다. 예배 시의 음악과 예전은 언제나 그에게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는 보통 가장 믿을 만한 교회 성가대원이며 연주단원이고 예전부와 드라마팀원이었습니다. 그는 청소년부에서 어떻게 하면 혼전성관계를 피하는가에 대한 의례 있는 대화를 제외하고는 성에 관한 가르침을 교회에서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교회가 "동성애는 잘못이다"라고 믿는 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게이가 된다는 것이 교회 내에서 사람이 가장 수치스러울 수 있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교인이자 신자인 찰스는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으며 아주 어릴 때부터 그의 성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사춘기 시절부터 찰스는 수치와 상처를 경험했고 종종 하나님과 자기 자신, 교회에 대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교회 생활이 가족 중심으로 돌아가고 교회에서 남자와의 성적 친밀감에 대한 그의 깊은 열망에 대해서 한 번도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지독하게 외로웠습니다.</p>
<p>While others in their youth groups and university fellowships dated and explored sexuality, Derek,* 30 (white), and Asta,* 28 (East Indian), hid their sexual feelings. Each eventually met a potential same-sex partner and finally decided to live openly as a gay person. They left churches that prioritized the biological family over the spiritual family and offered them no viable alternative to the intimacy they craved. After each making the transition</p>	<p>다른 사람들이 청소년 그룹과 대학부에서 데이트를 하고 성을 탐구한 반면에 데렉* (30 세, 백인) 과 아스타* (28 세, 동인도인)는 그들의 성적인 감정을 숨겼습니다. 그 둘은 결국에는 각각 잠재적인 동성 파트너를 만났고, 공개적으로 게이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영적 가족보다 생물학적 가족을 우선시하며 그들이 원하는 친밀감에 대한 어떤 실천 가능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교회를</p>

<p>from living alone, hiding part of what feels like their core self, and feeling ashamed, to living honestly, being accepted, and sharing a household with another person in a supportive, intimate relationship, Derek and Asta each feel freer and happier.</p>	<p>떠났습니다. 외롭게 살면서 그들 내면의 감정을 숨기고 그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는 삶에서 솔직하게 살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파트너와 서로 지지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같은 집에서 사는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데렉과 아스타는 각각 더 자유롭고 행복합니다.</p>
<p>In contemporary North American culture, sexual expression is assumed to be a physical need like food or sleep. And the word <i>intimacy</i>, once defined as close familiarity or friendship, is often used to refer only to sexual and romantic closeness. For many people, increasingly, intimacy requires sex. Thus it has become difficult for many church members to imagine asking anyone to deny themselves a sexual relationship, thus depriving them of intimacy. They question whether a life without sexual intimacy is even worth living.</p>	<p>현대 북미주 문화에서 성적 표현을 음식 혹은 수면과 같은 신체적 필요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가까운 친근감 혹은 우정이라고 정의되었던 친밀감이라는 단어는 성적 혹은 로맨틱한 가까움을 일컫는 말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점점 더 친밀감은 성관계를 요합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이 누군가에게 성적 관계를 거부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친밀감이 결여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적 친밀감이 결여된 삶이 과연 살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p>
<p>Indeed, humans need intimacy. Babies cannot thrive without physical affection, and elderly people who experience it live longer and are happier. Biological and social scientists tell us that regular human touch makes people healthier in every way and that people with strong social networks show greater physical and emotional resilience after suffering illness or trauma. Young and old, women and men—all of us long to be known, welcomed, and accepted as we are.</p>	<p>인간은 정말로 친밀감을 필요로 합니다. 신체적 애정이 없이 아기는 생존할 수 없고 친밀감을 경험하는 노인들이 더 장수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생물학자와 사회과학자들은 정기적인 인간의 스킨십이 사람을 모든 면에서 더 행복하게 하고 강력한 사회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병이나 트라우마를 겪은 뒤 더 큰 신체적, 정서적 회복력을 보인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 들었든, 여자든 남자든, 우리 모두는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환영받고 싶어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길 원합니다.</p>
<p>God designed the church community to meet the deep human need for intimacy (Heb. 13:1: “Keep on loving each other as brothers and sisters”). While the nation of Israel was organized by families, with marriage expected for all,</p>	<p>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친밀감에 대한 인간의 깊은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만드셨습니다. (히 13:1,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에게 결혼을 기대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의</p>

<p>and children a sign of God's favor, Jesus preached an astonishing new message. Women would be blessed not for child-bearing but for discipleship, and men could choose not to marry.¹⁶¹ Jesus proclaimed that seeking the kingdom takes precedence over marriages and the natural obligations of biological families.¹⁶² Traveling with both men and women,¹⁶³ some of whom had left spouses or families behind, Jesus modeled a radically new kind of community, in which those who do God's will are sisters and brothers of Jesus and of each other.¹⁶⁴</p>	<p>징표로 여겨지듯 가족으로 구성된 반면에 예수님은 깜짝 놀랄만한 새로운 메세지를 전하십니다. 아이를 태에 밴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여자가 더 복이 있고 결혼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남자가 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¹⁶¹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결혼과 생물학적 가족에 대한 자연스러운 의무들보다 우선된다고 선포하셨습니다.¹⁶² 남자 및 여자들, 그 중 몇몇은 자신의 배우자와 가족들을 버려 둔 사람들과 여행하시며 ¹⁶³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서로에게 형제 자매가 되는 급진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가족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¹⁶⁴</p>
<p>In this new tradition, New Testament writers described the reality that individual members are drawn into one interdependent community with other metaphors such as a household built of individual spiritual stones, branches tied in to Jesus as the living vine, and the body of Christ.¹⁶⁵ And every epistle includes wisdom for how these sisters and brothers can show each other love in practical ways.</p>	<p>이러한 새로운 전통에서 신약 성경 저자들은 개개의 영적 돌들로 지어진 집, 살아있는 나무이며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와 같은 비유들로 개인이 상호 의존적인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는 현실을 묘사합니다.¹⁶⁵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형제자매들이 서로에게 실제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각각의 서신서들이 포함하고 있습니다.</p>
<p>Imagine the distress, then, if the family of God begins to shun or despise people who reveal that they are attracted to the same sex. Robbed of the intimacy to which God has called them in Christ, such persons will either die spiritually or turn elsewhere for support. Unfortunately, many people are in exile from the North American church because the church has ignored them and their needs for intimacy, or judged them as sexually immoral simply because of their attraction to the same sex. Others have left one congregation or denomination for another that was</p>	<p>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동성에 끌린다고 고백한 사람들을 피하거나 경멸할 경우의 고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서 허락하신 친밀감을 빼앗긴 채 그러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거나 다른 곳에 가서 지지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북미주의 교회들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들과 그들의 친밀감에 대한 필요를 무시했거나 동성에 끌린다는 단순한 이유로 그들을 성적으로 부도덕하다고 판단 내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존의 교회 혹은 교단을 떠나 그들에게 더 포용적인 곳으로</p>

¹⁶¹ Luke 11:27-28; Matt. 19:12, 28.

¹⁶² Matt. 8:18-22; 19:29; 22:1-14; Mark 10:29; Luke 9:59; 14:15-27.

¹⁶³ Luke 8:1-3.

¹⁶⁴ Mark 3:31-35.

¹⁶⁵ Rom. 8; 1 Pet. 2; John 15; Eph. 2; 1 Cor. 12.

<p>more accepting. And many of us who remain in the church feel like outcasts because the church talks about us rather than with us, and portrays us as sexual sinners, agitators, or objects of pity. In addition, because church culture has been built around married couples and families, people who are single are denied deep Christian community, whether or not they have chosen the celibate life.</p>	<p>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낙오자처럼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기 보다 우리에게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이며 우리를 성적인 죄인, 반동자 혹은 동정의 대상으로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교회 문화가 부부와 가족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독신인 사람들은 그들이 독신의 삶을 선택했든 아니든 깊은 차원의 기독교 공동체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p>
<p>The church has also harmed people who are attracted to the same sex by promoting the false expectation of orientation change, as if believers who are attracted to the same sex can expect to become attracted to the opposite sex as they are sanctified. The church has pressured some into programs of orientation change that inflicted tremendous psychological, emotional, and social harm upon them.</p>	<p>교회는 또한 마치 동성에 끌리는 신자들이 성화되면 반대의 성에 끌릴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동성애적 성향을 바꿀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를 선전하여 동성에 끌리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혔습니다. 교회는 몇몇 사람들을 동성에 성향을 변경할 수 있다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도록 압력을 주어서 그들에게 막대한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피해를 입혔습니다.</p>
<p>All of this is in stark contrast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1973 synodical report, which declared that those who are attracted to the same sex “must be accepted in [their] homosexuality, so that in the congregation [they do] not need to wear a mask and conduct [themselves like hypocrites], living in constant fear of discovery and exposure. . . . [They deserve] the same acceptance, recognition, compassion, and help that is given to any person.”¹⁶⁶</p>	<p>이 모든 것은 1973 총회 보고서의 권고안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당시 권고안들은 동성애 끌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의] 동성애 안에서 받아들여져서 회중 내에서 [그들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고 [위선자처럼] 행동할 필요가 없고, 발견되고 노출될까봐 지속적으로 두려워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그들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과 동일한 수용, 인식, 긍휼 및 도움을 [받을 만하다.]”¹⁶⁶</p>
<p>It is a sad truth that the Christian community, including our Christian Reformed denomination, has failed in its calling to empathize with, love, and bear the burdens of persons who are attracted to the same sex, making it very difficult for them to live a life of holiness.</p>	<p>우리 북미주 개혁교회를 포함한 기독교 공동체는 동성애 끌리는 사람들과 공감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짐을 나눠지는 것에 실패하여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어렵게 했다는 것은 슬픈 진실입니다.</p>

¹⁶⁶ Acts of Synod 1973, p. 626.

<p>The sin of homosexual practice is often singled out for condemnation while other sexual sins are ignored or minimized. For example, many people in our churches engage in premarital sex, use pornography, commit adultery, or divorce their spouses without a legitimate cause, but they are not disciplined in any way. In such a context any church teaching that condemns homosexual activity is naturally perceived as hypocrisy. For many people in the church, especially those who are attracted to the same sex, no repetition of biblical teaching on homosexuality will be persuasive unless the church repents of this hypocrisy and becomes the loving community that Christ has called it to be.</p>	<p>다른 성적 죄들은 무시되고 최소화되는 한편 동성애 행위의 죄는 종종 규탄의 대상으로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의 많은 사람들은 혼전 성관계, 포르노 사용, 간음 혹은 정당한 사유 없는 이혼 등을 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징계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성애 행위를 비난하는 교회의 어떤 가르침도 다 위선으로 여겨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교회가 스스로의 위선을 회개하고 그리스도가 부르신 대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않는 한 교회의 많은 사람들 특히 동성애 끌리는 사람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반복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p>
<p>Indeed, the church has not been the supportive, grace-saturated community it is supposed to be. And if those who are not attracted to the same sex attempt to maintain traditional church teaching while refusing to repent of their own idolatry and self-righteousness, the church will be worse off than it was before.</p>	<p>교회는 정말로 마땅히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거나 은혜로 가득 찬 공동체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동성애 끌리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우상숭배와 자기의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을 거절하는 한편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교회는 예전보다 더 최악이 될 것입니다.</p>
<p>Yet while the church has already failed persons who are attracted to the same sex for many, many years, there is hope. Followers of Jesus are appropriately moved and chastened by the stories of pain, isolation, ridicule, and even outright hostility experienced by many people who are attracted to the same sex.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e church's current controversy over homosexuality can become the moment we choose together to live anew as the nurturing family of God; to give and receive grace as we learn together how to walk in sexual holiness; to support each other in celibate singleness or faithful</p>	<p>이미 교회는 수많은 세월 동안 동성애 끌리는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소망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동성애 끌리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고통, 고립, 조롱, 심지어 노골적인 적개심의 이야기들에 의해 적절하게 감동을 받고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교회의 현재 동성애에 관한 논쟁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가족으로서 다시 함께 살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거룩함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어떻게 사는 지 함께 배워가면서 은혜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독신주의 미혼 혹은 신실한 기혼으로 서로 지지할 수 있도록</p>

<p>marriage; to help each other walk the narrow way—the way of suffering that is the only way to glory. Through a power not our own, we can become willing to let the church be the body of Christ where women and men, girls and boys are being reconciled to God and to one another.</p>	<p>선택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영광에 이르는 오직 한 길인 고난의 길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삶을 선택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그분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여자와 남자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와 화목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기꺼이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p>
<p>Kimberly,* 45, and Jeffrey,* 40, both single, along with Rob,* Jen,* and their three children share an old house in the downtown neighborhood of a medium-sized city. The church to which they all belong is committed to seeking the welfare of their city. In fact, several other households of church members are similarly sprinkled around the same neighborhood. These households began as a way to offer hospitality and show God’s love to nearby city residents. The church members in these households quickly discovered that their unique living arrangements also provide the much needed support to live faithfully as celibate singles and monogamous married couples with children. Sharing meals and tasks, they experience the truth of the proverb “Iron sharpens iron, and one person sharpens the wits of another” (Prov. 27:17, NRSV) as well the encouraging wisdom “A friend loves at all times” (Prov. 17:17).</p>	<p>각각 싱글인 김벌리* (45 세) 와 제프리* (40 세)는 랍*, 젠*, 그리고 세 자녀들과 함께 중소도시의 중심가의 한 오래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속해 있는 교회는 이 도시의 웰빙을 위해 헌신된 교회입니다. 사실 이 교회의 다른 여러 가정들도 같은 이웃 동네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 가정들은 가까이 사는 도시 거주자들에게 환대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한 방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정들은 자신들의 독특한 삶의 방식이 싱글들이 독신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고 일부일처의 결혼관계에서 아이들과 살기 위한 필요한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을 금방 발견했습니다. 음식을 나누고 할 일들을 나누어 하면서 그들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잠 17:17) 와 같은 잠언에서의 격려의 지혜의 말씀과 함께 진리의 말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 27:17) 를 경험하였습니다.</p>
<p>XII. Homosexuality: Scripture</p>	<p>XII. 동성애: 성경</p>
<p><i>A. Introduction</i></p>	<p>A. 서론</p>
<p>The first-century church was notable because it taught and practiced a sexual ethic that encouraged people not to marry, praised celibacy, and limited sexual activity to marriage. Whereas the ancient pagan culture gave</p>	<p>1 세기 교회는 사람들에게 결혼을 권하지 않고 독신을 칭송하고 성적인 행동을 결혼에만 국한시키는 등의 성윤리를 가르치고 행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고대 이교도 문화가 남편들에게 아내에 대한</p>

<p>husbands tremendous power over their wives, held free women to a stricter sexual code than men and slaves, and permitted men to indulge in sex with female prostitutes, boys, and other men, the church called husbands to love their wives as Christ loved the church, held men to the same sexual code as women, and called them to abstain from sex with anyone other than their wife.</p>	<p>막대한 힘을 부여하고, 자유인 여자들에게 남자와 노예보다 더 엄격한 성적 잣대를 대고, 남자들에게 창녀, 소년 및 다른 남자, 노예와 성관계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반면에 교회는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고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동일한 성적 규율을 지키게 하고 아내 이외의 누구와도 성관계를 삼가라고 하였습니다.</p>
<p>Jesus praised those who were celibate for the sake of the kingdom of God (Matt. 19:1-12). Jesus himself lived a celibate life in close intimacy with his disciples, male and female. Paul was also single, and he went so far as to suggest that the way of celibacy is preferable for women and men because it allows them to seek the kingdom of God unhindered (1 Cor. 7:7-9, 25-40). The result was that early Christians were free to marry, as their culture expected them to do, but they were also free to reject marriage, in sharp violation of cultural norms. Communities of celibate Christian women and men sprang up, ultimately giving rise to the phenomena of monasticism.</p>	<p>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독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마 19:1-12). 예수님 자신은 그의 제자들, 남자 및 여자와 가까운 친밀함 속에서 독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바울도 미혼으로 살았고, 아무 제약 없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고전 7:7-9, 25-40). 그 결과 초창기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 문화가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결혼했지만 문화적 규범과 완전히 위배되는 결혼을 거절할 자유도 가졌습니다. 독신의 삶을 사는 남녀들의 공동체가 커져서 궁극적으로는 수도원생활을 하는 현상이 야기되기까지 하였습니다.</p>
<p>Following Jesus in celibate singleness or faithful marriage was just as shocking and baffling to the first-century world as it is to our secular neighbors today. Historians demonstrate that the early church's practice of sexuality was so different from that of the pagan Roman culture that it made no sense to nonbelievers. Today too, traditional Christian sexual practices are increasingly regarded as prudish, anachronistic, repressive, and even</p>	<p>순결한 독신 혹은 신실한 기혼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오늘날의 세속화된 이웃들에게 마찬가지로 1세기 세상에도 매우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초대 교회의 성적 관습이 이교도 로마 문화와 매우 달라서 불신자들에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전통적인 기독교인의 성적 관습은 내숭을 떠는, 시대착오의, 억압적인 그리고 기이한 것으로 더욱 더 여겨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관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¹⁶⁷</p>

bizarre. Even many Christians have begun to share this perspective. ¹⁶⁷	
<p>The idea of suffering to follow Jesus has never been popular. The apostle Peter devoted his entire first epistle to teaching Christians how to suffer for Christ's sake, but he himself had once rejected the prospect out of hand. When Jesus had predicted his suffering and death on the cross, Peter rebuked him. Jesus dismissed Peter's aversion to suffering as a temptation of the devil. "Get behind me, Satan!" he said. "You do not have in mind the concerns of God, but merely human concerns." Then he turned to the crowds and announced, "Whoever wants to be my disciple must deny themselves and take up their cross and follow me" (Mark 8:31-34, NIV).</p>	<p>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고난 받는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기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첫 서신서에서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해 어떻게 고난 받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썼지만 그 자신도 한 때는 이러한 관점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십자가 상에서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셨을 때 베드로가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난에 대한 혐오를 사탄의 유혹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며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돌아보시며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막 8:31-34).</p>
<p>Peter and the other New Testament writers came to embrace this calling, in part because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taught them that suffering is the necessary path to glory.¹⁶⁸ Paul reminded Christians in Rome that "suffering produces perseverance; perseverance, character; and character, hope. And hope does not put us to shame, because God's love has been poured out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Rom. 5:3-4). The writer to the Hebrews wrote that just as the author of our faith had to be "perfect through what he suffered" (Heb. 2:10), so we too must expect to suffer as we become like Jesus.</p>	<p>베드로와 다른 신약성경 저자들은 이 부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부분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들에게 고난이 영광에 이르는 필수적인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¹⁶⁸ 바울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롬 5:3-4).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의 저자들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히 2:10)되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p>

¹⁶⁷ Steven D. Smith, *Pagans and Christians in the City: Culture Wars from the Tiber to the Potomac* (Grand Rapids, Mich.: Eerdmans, 2018). See also Rodney Stark, *The Triumph of Christianity: How the*

Jesus Movement Became the World's Largest Religion (New York: HarperCollins, 2011), pp. 121ff.

¹⁶⁸ See Rom. 8; 2 Cor. 4-5.

In doing so, we can rely on him to help us, because he has been tempted in every way, just like us, yet was without sin (2:17-18).	고난을 반드시 예상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와 같이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그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2:17-18).
Regardless of whether they chose celibacy in community or pursued marriage and family, all early Christians sought to live into the intimacy of the body of Christ. Jesus described the life of his followers as a life of sustaining relationships (John 15). God has chosen to heal and redeem us as members of one body. In an age of radical individualism, we must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Eph. 4:3) by sharing our lives together in practical and physical ways. If we do, we are promised, the light of this love will draw others to Christ as well.	그들이 공동체 내에서 독신을 선택하든지 결혼과 가정을 선택하든지 관계없이 모든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친밀함을 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지속적인 관계의 삶으로 묘사하셨습니다 (요 15 장).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의 지체로서 치유하시고 구속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급진적 개인주의의 시대에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엡 4:3) 하신 것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 사랑의 빛이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 받습니다.
It is within this countercultural context that we must grapple with the way Scripture addresses homosexuality.	우리는 이러한 반문화적 문맥 안에서 성경이 동성애를 언급하는 방식과 씨름해야 합니다.
<i>B. The testimony of the Old Testament</i>	B. 구약성경의 증언
1. Genesis 19:1-29 and Judges 19	1. 창세기 19:1-29 와 사사기 19 장
The first of the seven biblical texts that are typically cited in any discussion of Scripture’s view of homosexual activity is the story of Lot and the men of Sodom (Gen. 19:1-29). Many of the observations about this passage also apply to the story of the Levite and his	동성애에 관한 성경의 관점을 논할 때 전형적으로 인용되는 일곱 가지 성경 본문 중 하나가 바로 롯과 소돔의 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창 19:1-29). 이 본문에 대한 많은 관찰들 또한 레위인과 그의 첩에 관한 이야기에 적용되는데 (사사기 19) 그것은 두 본문 모두 서로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concubine (Judg. 19), since both texts closely parallel each other.	
Some scholars, often called revisionists since they argue for changing the traditional position that the Bible condemns homosexual activity, claim that this passage does not, in fact, deal with homosexual conduct. In the text the men of Sodom learn that Lot has invited some men into his home as guests. They demand, “Bring them out to us so that we can have sex with [literally “know”] them” (Gen. 19:5). Some revisionist scholars assert that the verb for “know” here simply means “get acquainted” and has nothing to do with homosexual activity. ¹⁶⁹	종종 수정주의자라고 불리는 몇몇 학자들은 성경이 동성애 행위를 규탄한다는 전통적 입장을 바꾸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사실은 동성애 행위를 다루고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 본문에 소돔 남자들은 롯이 그의 집에 손님으로 남자들을 초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문자 그대로 “알리라”)” (창 19:5) 라고 요구합니다. 몇몇 수정주의 학자들은 “알다”라는 동사가 단순히 “친분을 맺다”라는 뜻이고 동성애 행위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¹⁶⁹
This assertion, however, is clearly wrong, since the Hebrew verb for “know” (<i>yada</i>) commonly has the meaning “have sex with.” This meaning is recognized in all standard dictionaries of biblical Hebrew and is confirmed a few verses later in Lot’s statement: “Look, I have two daughters who have never slept with a man” (Gen. 19:8). Here the Hebrew is literally “who have not known a man.” Therefore, virtually all biblical interpreters—both traditionalists and the majority of revisionists—recognize that the story of Lot and the men of Sodom does involve homosexual activity.	그러나 이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동사 “알다” (야다)는 흔히 “성관계를 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히브리어 표준 사전에서도 이렇게 표기하고 이후 롯의 말에서 확인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창 19:8). 여기서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 “남자를 알지 못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모든 성경 해석학자들은 (전통주의자들 및 대다수의 수정주의자들 모두) 롯과 소돔의 남자들의 이야기가 동성애 행위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¹⁶⁹ See, for example, Derrick Bailey, *Homosexuality and the Western Christian Tradition* (New York: Longmans, Green, and Co., 1955), pp. 3-4; John Boswell,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Gay People in Western Europe from the Beginning of the Christian Era to the Fourteenth Centu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pp. 93-94; John McNeill, *The Church and the Homosexual* (Kansas City, Kan.: Sheed, Andrews, and McMeel, 1976), pp. 54-55; K. Renato Lings, *Love Lost in Translation: Homosexuality and the Bible* (Bloomington, Ind.: Trafford Publishing, 2013), pp. 372-99.

<p>Almost all of these interpreters also agree that the focus of the Sodom episode is not the sinfulness of gay sex but the violation of hospitality or the display of human depravity. Richard Hays, for example, who affirms the traditional Christian position on homosexual activity, states in his influential book on ethics: “The notorious story of Sodom and Gomorrah—often cited in connection with homosexuality—is actually irrelevant to the topic. . . . The gang-rape scenario exemplifies the wickedness of the city, but there is nothing in the passage pertinent to a judgment about the morality of consensual homosexual intercourse.”¹⁷⁰</p>	<p>거의 모든 해석학자들은 또한 소돔 이야기의 초점이 게이 섹스의 최악이 아니라 환대를 거부하거나 인간 타락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 행위에 대한 전통적 기독교인 입장을 지지하는 리차드 헤이스는 윤리에 관한 그의 영향력있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습니다. “종종 동성애와 연관되어 인용되는 악명 높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사실 그 토픽과 관련이 없습니다... 폭력배들의 강간 시나리오는 그 도시의 악함을 예로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 본문 어디에도 합의하에 이루어진 동성간의 성관계의 도덕성에 대한 판단은 없습니다.”¹⁷⁰</p>
<p>Robert Gagnon, a prominent defender of the traditional view on homosexuality, similarly concedes: “Traditionally, Gen. 19:4-11 has been regarded as the classic Bible story about homosexuality. However, to the extent that the story does not deal directly with consensual homosexual relationships, it is not an ‘ideal’ text to guide contemporary sexual ethics.”¹⁷¹</p>	<p>동성애에 관해 전통적 관점을 수호하는 것으로 유명한 로버트 개그넌도 비슷하게 주장합니다. “전통적으로 창세기 19:4-11 은 동성애에 관한 고전적인 성경 이야기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합의하에 하는 동성 관계를 다루지 않는 한, 현대 성 윤리의 지침이 되는 ‘이상적인’ 본문은 아닙니다.”¹⁷¹</p>
<p>But although Genesis 19:1-29 is not first-and-foremost a statement against homosexual activity, it is legitimately read as illustrating the overall biblical association of homosexual conduct with human perversity. Kevin De Young recognizes that these two important points are both part of a right reading of this story:</p>	<p>하지만 비록 창세기 19:1-29 가 동성애 행위를 비난하는 우선적인 진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인간의 타락과 동성애 행위를 연관지어 보는 전체적 관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읽는 것은 합당합니다. 케빈 드 영은 이 두 가지 중요점은 이 이야기에 대한 올바른 해석의 일부라고 인정하였습니다.</p>

¹⁷⁰ Richard B. Hays, *The Moral Vision of the New Testament: A Contemporary Introduction to New Testament Ethics* (San Francisco: Harper, 1996), p. 381.

¹⁷¹ Robert A.J. Gagnon, *The Bible and Homosexual Practice: Texts and Hermeneutics* (Nashville, Tenn.: Abingdon, 2001), p. 71.

<p>To be sure, the scene in Genesis 19 looks very different from two men or two women entering into a consensual and committed sexual relationship. The case against same-sex sexual intimacy is less obvious from the Sodom and Gomorrah account than from the other passages we will consider. And yet, the destruction of these infamous cities is not irrelevant to the matter at hand. From the allusion in Ezekiel, to the perception of Sodom in other Jewish literature, to the mention of unnamed desire in Jude, we see that Sodom had a reputation for sexual sin in general and homosexual sin in particular. While the violence associated with homosexual behavior in Sodom certainly made the offense worse, the nature of the act itself contributed to the overwhelmingly negative assessment of the city. Sodom and Gomorrah were guilty of a great many sins; we don't have to prove that homosexual practice was the only sin to show that it was one of them.¹⁷²</p>	<p>확실히 창세기 19 장의 장면은 두 남자 혹은 두 여자가 합의하에 맺는 성관계로 들어가는 것과 매우 다릅니다. 동성간의 친밀함에 안 좋게 보는 경우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살펴볼 본문에 비하면 덜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명 높은 도시들의 파괴가 당면한 문제와 상관없지 않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부터 다른 유대 문학 속의 소돔에 대한 개념, 유다서에서 이름 없는 욕망에 대한 언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소돔이 일반적으로 성적인 죄에 대해, 특히 동성애에 관한 죄에 대한 평판을 갖고 있습니다. 소돔에서 있었던 동성애 행위에 관련된 폭력이 확실히 유책 사유가 되는 반면에 그 행위의 특성 자체가 그 도시에 대해서 과도하게 부정적인 평가에 기여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가지 큰 죄악을 지은 도시입니다. 우리가 동성애 관습이 굳이 그 죄악들 중의 하나인 것을 보여주는 유일한 죄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¹⁷²</p>
<p>2. Leviticus 18:22 and 20:13</p>	<p>2. 레위기 18:22 및 20:13</p>
<p>The two remaining Old Testament texts that address the subject of homosexual activity are both from the book of Leviticus:</p>	<p>구약에서 동성애 행위를 주제로 언급하는 나머지 두 본문은 레위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p>
<p>- "Do not have sexual relations with a man as one does with a woman; that is detestable" (Lev. 18:22).</p>	<p>-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 18:22).</p>
<p>- "If a man has sexual relations with a man as one does with a woman, both of them have done what is detestable. They are to be put to death; their blood will be on their own heads" (Lev. 20:13).</p>	<p>-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Lev. 20:13).</p>

¹⁷² Kevin DeYoung, *What Does the Bible Really Teach about Homosexuality?* (Wheaton, Ill.: Crossway, 2015), p. 38.

<p>Both revisionists and traditionalists agree on two things about these texts. First, Leviticus 18:22 and 20:13 are, in fact, referring to same-sex intercourse between men. Second, these texts are not referring to abusive forms of same-sex intercourse but consensual sex, since the same penalty for breaking these commands is applied to both men (20:13), something that does not happen in the case of rape (see Deut. 22:23-27). The two camps disagree, however, on whether and how these prohibitions apply today. Several types of arguments have been advocated either to reject (revisionists) or affirm (traditionalists) the abiding significance of these two Old Testament texts for contemporary believers.</p>	<p>수정주의자들 및 전통주의자들은 이 두 본문에 대한 두 가지에 동의합니다. 첫째, 레위기 18:22 및 20:13 은 사실상 남자들 간의 동성 성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 본문들은 강압적인 동성 성관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동성성관계를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성폭행의 경우와 달리 (신명기 22:23-27) 이 계명들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형벌이 두 남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20:13). 그러나 양 측의 학자들은 이 금지조항들이 오늘날에 적용될 수 있는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집니다. 현대 신자들을 위한 이 두 구약 본문이 가지는 의미를 거절(수정주의자)혹은 확인(전통주의자)하는 것을 주창하는 여러 다른 주장이 있어왔습니다.</p>
<p>Revisionists often argue that both Levitical commands are given in a very specific cultic context: they are part of a polemic against a non-Israelite cult in which God's people were tempted to engage in idolatrous practices such as cultic prostitution. This means, they conclude, that the two commands do not address the ethics of modern same-sex relationships. James Brownson, for example, claims:</p>	<p>수정주의자들은 종종 위의 레위기의 두 본문이 매우 구체적인 광신적 종교집단 문맥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교집단의 매춘과 같은 우상숭배적인 관습들에 관여하는 유혹을 받았다는 비이스라엘 종파에 대한 논쟁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두 계명이 현대의 동성관계의 윤리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임스 브라운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p>
<p>The first thing to note is that the immediate contexts of both of these prohibitions against 'lying with a male as with a woman' are closely linked to two other problems: injunctions against the practices of idolatry and the urgency of avoiding the practices of surrounding nations. . . . There is evidence linking same-sex eroticism, particularly among males, to cultic prostitution and other idolatrous practices in the ancient world generally. . . . So we can say with reasonable confidence that the activity envisioned in the Levitical prohibitions is assumed to be consensual, and that it is probably envisioned to take</p>	<p>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는 것'을 금하는 두 본문의 직접적인 문맥이 두 가지 다른 문제, 즉, 우상숭배 관습을 금하는 명령과 주변 국가들의 관습을 피해야 하는 긴급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동성 에로티시즘, 특히 남성들 사이의 에로티시즘이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종교집단 매춘 및 기타 우상숭배적 관습들과 연관되는 증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p>

<p>place in cultic contexts, with clear linkages to idolatry and other religious practices foreign to the nation of Israel.¹⁷³</p>	<p>레위기가 금지한 활동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활동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고, 아마도 우상숭배 및 이스라엘 민족이 알지 못하는 종교 관습에 대한 명백한 연관성을 가지고 종교집단의 문맥에서 발생한 것일 것입니다.¹⁷³</p>
<p>Traditionalists argue instead that the two key texts from Leviticus are still applicable for the church today, and they typically do so by appealing to creation order: the Levitical commands prohibit same-sex sexual acts because such behavior goes against the pattern for sexual relations given in the creation narratives. Robert Gagnon illustrates this common claim when he writes:</p>	<p>대신에 전통주의자들은 레위기에서 두 군데의 핵심적인 본문이 오늘날 교회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전형적으로 창조 질서에 호소하면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레위기의 계명은 동성 간의 성적 행위가 창조 내러티브에 주어진 성적 관계의 패턴에 반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금지합니다. 로버트 개그논은 이 계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p>
<p>Thus there are good grounds for asserting that the primary problem with male-male intercourse is the more general concern that it “mixes” two things that were never intended to be mixed. . . . The refrain in 18:22 and 20:13, “as though lying with a woman,” is the best indication we have of what the primary concern was; namely, behaving toward another man as if he were a woman by making him the object of male sexual desires. That is an “abomination,” an abhorrent violation of divine sanctioned boundaries—in this case, gender boundaries established at creation. . . . All the laws in Lev. 18:6-23; 20:2-21 legislate against forms of sexual behavior that disrupt the created order set into motion by the God of Israel.¹⁷⁴</p>	<p>그러므로 남자끼리의 성관계에서 가장 주요한 문제를 주장하는 좋은 근거는 절대 섞이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섞는다”는 더 일반적인 염려입니다... 18:22 와 20:13 의 금기는 “여자와 동침하는 것처럼”이 주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가 가진 최선의 표시입니다. 즉, 다른 스스로가 남자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어 다른 남자에게 여자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증스러운 것,” 즉, 신성한 제재의 경계에 대한 혐오스러운 침해이며 이 경우에는 창조 때 정해진 성의 경계에 대한 침해입니다...레위기 18:6-23 과 20:2-21 의 모든 율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시행하신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성적 행위의 형태에 대한 입법입니다. ¹⁷⁴</p>
<p>Revisionists additionally question why these two prohibitions against homosexual intercourse ought to be followed today when other surrounding prohibitions are</p>	<p>수정주의자들은 다른 금기들은 자유롭게 무시하면서 왜 동성끼리의 성관계에 대한 이 두 금기가 오늘날에도 지켜져야 하는지 추가적으로 질문합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은 땅에 두 종류의</p>

¹⁷³ Brownson, pp. 270-71.

¹⁷⁴ Gagnon, pp. 135-36.

<p>freely ignored. For example, Christians do not typically feel the need to obey the commands against planting one's field with two kinds of seed or against wearing clothing made with two kinds of material (Lev. 19:19). Even a traditionalist like Richard Hays recognizes the force of this argument: "Quoting a law from Leviticus, of course, does not settle the question for Christian ethics. The Old Testament contains many prohibitions and commandments that have, ever since the first century, generally been deemed obsolete by the church. . . . In each case, the church is faced with the task of discerning whether Israel's traditional norms remain in force for the new community of Jesus' followers. In order to see what decisions the early church made about this matter, we must turn to the New Testament."¹⁷⁵</p>	<p>씨앗을 심거나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직물로 만든 옷을 입으라는 명령을 지킬 필요를 보통 느끼지 않습니다 (레 19:19). 리차드 해이스와 같은 전통주의자조차도 이 주장의 효력을 인식합니다. "레위기의 율법을 인용하는 것이 물론 기독교 윤리에 대한 문제를 잠재우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금기 사항과 명령은 1 세기 이후로 교회에 의해 더 이상 쓸모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각각의 경우 교회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규범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새 공동체에 유효한지를 분별해야 하는 과업에 직면합니다. 초대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신약 성경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¹⁷⁵</p>
<p>When one does turn to the New Testament, we see that many of the laws regarding sexual activity in Leviticus 18 and 20 are affirmed as still obligatory for the people of God. As Kevin DeYoung observes: "Apart from the question of sex during menstruation, the sexual ethic in Leviticus 18 and 20 is squarely reaffirmed in the New Testament. Adultery is still a sin (Matt. 5:27-30). Incest is still a sin (1 Cor. 5:1-13). Even polygamy is more clearly rejected (1 Cor. 7:2; 1 Tim. 3:2). It would be strange for the prohibition against homosexual practice to be set aside when the rest of the sexual ethic is not, especially considering how the rejection of same-sex behavior is rooted in the created order."¹⁷⁶</p>	<p>신약 성경으로 눈을 돌려보면 레위기 18 장 및 20 장의 동성애 행위와 관련된 여러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도 지켜야 하는 것을 확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케빈 드영은 "생리 중의 성에 관한 질문과는 별개로 레위기 18 장 및 20 장의 성 윤리는 신약 성경에서 정확하게 재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간음은 여전히 죄입니다 (마 5:27-30). 근친상간도 여전히 죄입니다 (고전 5:1-13). 다자간 결혼은 더 명확하게 금기시합니다 (고전 7:2, 딤후 3:2). 나머지 성윤리가 아닐 때 동성애 행위에 대한 금기만 따로 생각한다면 이상할 것입니다. 특히 동성애 행위에 대한 거절이 어떻게 창조 질서에 뿌리를 두는지를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¹⁷⁶</p>

¹⁷⁵ Hays, p. 382.

¹⁷⁶ DeYoung, p. 46.

<p>In fact, as we will see, in 1 Corinthians 6:9 and 1 Timothy 1:10 the apostle Paul condemns homosexual activity in a way that draws directly on the prohibitions of Leviticus 18 and 20. He does so by using the Greek word <i>arsenokoitai</i>, which is a compound of the words used to condemn homosexual activity in the Septuagint version of the Levitical prohibitions. This confirms that Paul viewed the teaching of these Old Testament texts as still binding on Christians (for a more detailed discussion of this special Greek word and its link with the Levitical prohibitions, see below).</p>	<p>사실상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고린도전서 6:9 과 디모데전서 1:10 에서 사도 바울은 동성애 행위의 레위기 18 장과 20 장의 금기 사항과의 연관성 때문에 규탄합니다. 그는 70 인역 성경의 레위기 금기사항에서 동성애 행위를 비난하는 합성어인 헬라어 알세노코이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규탄하였습니다. 이는 바울이 구약 본문의 가르침이 여전히 기독교인들을 구속한다고 보는 것을 확증합니다 (이 특별한 헬라어에 대한 더욱 자세한 논의 및 레위기 금기사항들과의 연관성은 아래를 참조하시오).</p>
<p>It is true that a few revisionists question this link between Paul's use of <i>arsenokoitai</i> and the Levitical texts, asserting that such a connection is "speculative and lacks external confirming evidence."¹⁷⁷ It is also true, however, that the vast majority of biblical scholars, including leading revisionists, find this connection to be obvious and beyond doubt.¹⁷⁸</p>	<p>몇몇 소수의 수정주의자들이 그러한 연관성은 "의심스럽고 외부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바울의 알세노코이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과 레위기 본문 간의 연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¹⁷⁷ 그러나 대표적인 수정주의자들을 포함한 성경 학자 중 대다수가 이 연관성을 분명하고 의심할 바 없는 것으로 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¹⁷⁸</p>
<p><i>C. The testimony of Jesus</i></p>	<p>C. 예수님의 증언</p>
<p>When one turns to what the New Testament says about homosexual activity, revisionists typically separate the testimony of Jesus from the testimony of Paul. The result of such a distinction almost always is the same: there exists a conflict or contradiction between Jesus and Paul whereby Jesus reflects an attitude of love and tolerance, while Paul reflects an attitude of judgment and</p>	<p>누군가 신약 성경은 동성애 행위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관심을 가질 때, 수정주의자들은 보통 예수님의 증언을 바울의 증언과 다른 것으로 구분합니다. 그러한 구분의 결과는 거의 항상 똑같습니다. 바울은 정죄하고 속이 좁은 태도를 보이는 반면에 예수님은 사랑과 관용의 태도를 반영하는 식으로 예수님과 바울 사이의 충돌 혹은</p>

¹⁷⁷ Brownson, p. 271.

¹⁷⁸ See, for example, William Loader, *The New Testament on Sexuality* (Grand Rapids, Mich.: Eerdmans, 2012), p. 331 (for 1 Cor. 6:9), p. 334 (for 1 Tim. 1:10).

<p>narrow-mindedness. The church has always rejected separating the words of Jesus from those of other biblical authors, as if the rest of the Bible was not also inspired by the Holy Spirit as a word from the Lord. What Paul has to say about homosexuality is just as much the “word of God” (1 Thess. 2:13) and thus authoritative as what Jesus says, or in this case, does not say.</p>	<p>대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나머지 성경 말씀이 주님의 말씀과 달리 성령의 영감을 못 받았다는 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성경저자들의 말과 따로 떼어 놓는 것을 항상 반대해 왔습니다. 바울이 동성애에 관해 말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이며 (살전 2:13)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위가 있거나 이 경우에는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p>
<p>Nevertheless, this has not prevented revisionists from appealing to the silence of Jesus on homosexual conduct, arguing: “If homosexual activity is so bad, why didn’t Jesus say anything about it?”</p>	<p>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수정주의자들이 “동성애 행위가 그렇게 나쁜 것이면 왜 예수님은 그에 대해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는가?” 라고 주장하며 예수님의 동성애 행위에 대한 침묵에 호소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p>
<p>Careful reflection reveals how weak that argument actually is. First, Jesus was a Jew, and the Judaism of his day was unanimous in denouncing homosexual activity. <i>All</i> Jewish writings from the ancient world—those in the Bible as well as the many writings from that time period that were not included in the Bible—uniformly rejected homosexual and lesbian behavior.¹⁷⁹ Such widespread agreement in Judaism is quite remarkable, given the diversity of Jewish views on all kinds of topics. It is highly unlikely, therefore, that Jesus would differ from that view, unless he explicitly stated that he did. Yet Jesus never even hints at an affirmation of homosexual activity.</p>	<p>세심하게 살펴보면 이 주장이 사실은 얼마나 연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예수님 시대의 유대주의는 동성애 행위를 만장일치로 비난했습니다. 고대 시대의 성경은 물론이고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그 시대의 많은 문서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 문서는 한결 같이 동성애 행위, 레즈비언 행위를 비난합니다.¹⁷⁹ 모든 여러 종류의 주제에 대한 유대인 관점의 다양성을 고려해 볼 때, 유대주의에 널리 퍼진 그와 같은 동일한 인식은 꽤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 이러한 관점과 달랐을 확률은 매우 떨어집니다. 또한, 예수님은 동성애를 한 번도 긍정하신 적이 없습니다.</p>

¹⁷⁹ See, for example, Philo, *Special Laws*, 3:37-42; *Contemplative Life*, 59-60; Josephus, *Antiquities*, 1.11.3; *Against Apion*, 2.273-275; *Pseudo-Phocylides*, 190-192, 213-214; *Sibylline Oracles*, 3.184-187;

5.166; *Letter of Aristeas*, 152; 2 *Enoch*, 34:1-2; *m. San.*, 7:4; *t. Abodah Zarah*, 2:1; 3:2.

<p>Second, Jesus never says anything against several sexual sins. One looks in vain for Jesus to condemn prostitution, incest, pederasty, or bestiality. Yet no one concludes from Jesus' silence that he was tolerant of such behaviors. This illustrates the danger of what is often called an "argument from silence"—the fallacy of drawing a conclusion not on the basis of what someone does say but rather on the basis of what that person does <i>not</i> say. Jesus is almost certainly silent about homosexuality because he lived at a time and in a culture where everyone agreed that homosexual activity, like prostitution, incest, pederasty, and bestiality, was immoral. He had no need to comment on the matter. As Preston Sprinkle has observed: "Why preach to the choir about something everyone agrees on? No mathematician spends time arguing that $2 + 2 = 4$, and no Jew came to Rabbi Jesus asking whether same-sex sexual relations were sin. The answer was self-evident within first-century Judaism."¹⁸⁰</p>	<p>둘째, 예수님은 여러 가지 성적인 죄악에 대해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매춘, 근친상간, 남색, 수간을 비난하셨던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해 봤자 헛수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침묵이 그러한 행위들에 대한 관용이라고 결론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종종 "묵증(argument from silence)"(누군가가 한 말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은 것을 근거 삼아 결론을 내리는 오류)이라고 불리는 위험을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매춘, 근친상간, 남색, 수간과 같이 동성애가 부도덕하다고 동의하는 시대와 문화에서 사셨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 거의 확실하게 침묵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따로 언급을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프레스턴 스프링클은 "모두가 동의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굳이 또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2+2=4$ 를 증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수학자는 없으며 랍비 예수님께 와서 동성애가 죄인지 물어보는 유대인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1 세기 유대주의 내에서 자명한 것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¹⁸⁰</p>
<p>Third, in Mark 7:21-23 Jesus lists several things that defile a person, and at the head of the list is "sexual immorality" (NIV 2011). This translation in English is a bit misleading because the Greek term used here, <i>porneiai</i>, is actually plural: "sexual immoralities." This reminds us that Jesus, as a rabbi who knew the Torah (or Old Testament law) well, was referring to many different sexual sins forbidden in texts like Leviticus 18 and 20—texts that condemn all kinds of unlawful sexual relations, including homosexual relations (Lev. 18:22; 20:13).</p>	<p>셋째, 마가복음 7:21-23 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히는 여러가지를 열거하셨는데 그 목록의 첫번째가 "성적 부도덕" (NIV2011)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포르네이아가 사실은 복수 ("성적 부도덕들")이기 때문에 이 영어 번역본은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이는 토라 (혹은 구약 율법) 를 아시는 랍비이신 예수님이 레위기 18 장 및 20 장과 같은 성경 본문 (동성애 관계를 포함한 율법에 반하는 모든 성적인 관계를 비난하는)에서 금지한 여러 다른 성적인 죄악을 지칭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레 18:22, 20:13).</p>

¹⁸⁰ Preston Sprinkle, "Why Didn't Jesus Mention Homosexuality?"; centerforfaith.com/resources

<p>Fourth, in answering a question from the Pharisees on divorce, Jesus cites both Genesis 1:27 and 2:24: “Haven’t you read,’ he replied, ‘that at the beginning the Creator “made them male and female,” and said, “For this reason a man wi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be united to his wife, and the two will become one flesh”? So they are no longer two, but one flesh. Therefore what God has joined together, let no one separate”’ (Matt. 19:4-5; also Mark 10:6-8). What is significant for our understanding of Jesus’ position on homosexuality is the fact that he includes the quote from Genesis 1:27 (“made them male and female”), whereas only the quote from Genesis 2:24 was directly relevant to the Pharisees’ question about divorce. Jesus could have easily omitted the quote from Genesis 1:27 from his answer. The fact that he included it reveals that Jesus considered sex difference (“made them male and female”) to be important and that he did, in fact, expect marriage to be between a man and a woman.</p>	<p>넷째, 이혼에 대한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답할 때 예수님은 창세기 1:27 과 2:24 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마 19:4-5 및 막 10:6-8). 예수님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창세기 2:24 인용 구절만 바리새인들의 이혼에 관한 질문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반해 예수님이 창세기 1:27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을 인용하셨다는 것이 무슨 중요성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답변하실 때, 간단히 창세기 1:27 을 인용하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도 포함하셨다는 것은 성 차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사실상 결혼을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것으로 기대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p>
<p>The appeal to Jesus’ silence on the issue of homosexual conduct and the portrayal of Jesus as someone who would be open to certain kinds of homosexual relationships, therefore, lacks any persuasive evidence, and is in fact contradicted by the available evidence. As Robert Gagnon puts it: “The portrayal of Jesus as a first-century Palestinian Jew who was open to homosexual practice is simply ahistorical. All the evidence leads in the opposite direction.”¹⁸¹</p>	<p>그러므로 예수님의 동성애 행위 이슈에 대한 침묵에 호소하고, 예수님을 특정한 종류의 동성애 관계에는 열린 분으로 묘사하는 것은 설득력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 드러난 근거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 사실입니다. 로버트 개그넌이 말했듯이 “1 세기 팔레스타인 유대인인 예수님을 동성애 행위에 열린 분으로 묘사하는 것은 그야말로 반역사적인 것입니다. 모든 증거가 반대의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¹⁸¹</p>
<p><i>D. The testimony of Paul</i></p>	<p>D. 바울의 증언</p>

¹⁸¹ Gagnon, p. 228.

<p>Paul, like Jesus, was a first-century Jew and thus would have been similarly influenced by the unanimous condemnation of same-sex acts found in the Jewish writings of his day. As David Garland observes, “Though homosexual acts were generally accepted in the ancient world, Hellenistic Jewish texts are unanimous in condemning them and treat them and idolatry as obvious examples of Gentile moral depravity. Not surprisingly, Paul shares this Jewish aversion to idolatry and homosexual acts.”¹⁸²</p>	<p>예수님처럼 바울은 1세기 유대인이며 따라서 그 시대의 유대인 문서에서 발견된 한결같은 동성애에 대한 비난에 영향을 비슷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데이빗 갈랜드는 “고대 사회에서 동성애 행위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해도 헬레니즘 유대인 문서들은 하나 같이 이를 규탄하고 이방인의 도덕적 타락의 분명한 예로써 우상숭배로 여겼습니다. 바울이 우상숭배 및 동성애 행위에 대한 이러한 유대인의 혐오를 공유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¹⁸²</p>
<p>The apostle’s position on sexual matters was generally strict. For example, he writes to the Thessalonians, “It is God’s will . . . that you should avoid sexual immorality; that each of you should learn to control your own body in a way that is holy and honorable, not in passionate lust like the pagans” (1 Thess. 4:3-5). He strongly rebukes the Corinthian church for tolerating a sexual relationship between a man and his step-mother (1 Cor. 5:1-11). He further admonishes the believers in Corinth for tolerating certain members who were paying prostitutes for sex (1 Cor. 6:12-20), leading him to issue the strong command that they “flee from sexual immorality” (6:18). The first item in the apostle’s list of vices for both the Galatians and the Colossians to put to death is “sexual immorality” (Gal. 5:19; Col. 3:5). He exhorts the Ephesians, “Among you there must not be even a hint of sexual immorality, or of any kind of impurity, or of greed, because these are improper for God’s holy people” (Eph. 5:3).</p>	<p>성적 문제에 대한 사도들의 입장은 보통 엄격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살전 4:3-5).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남자와 그의 새엄마와의 성적 관계를 관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책망했습니다 (고전 5:1-11). 그는 나아가 고린도의 신자들이 성관계를 위해 창기에게 돈을 지불하는 몇몇 교인을 관용하는 것을 꾸짖었고(고전 6:12-20), 이는 바울로 하여금 “음행을 피하라” (6:18)는 명령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와 골로새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죽이라고 말한 악의 목록의 첫 번째가 “음란”이었습니다 (갈 5:19, 골 3:5).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엡 5:3).</p>

¹⁸² David E. Garland, *1 Corinthians* (Grand Rapids, Mich.: Baker Academic, 2003), p. 213.

<p>In light of the apostle's Jewish background and his general statements on sexual conduct, therefore, it would be surprising if Paul were shown to be approving of homosexual activity. However, Paul does not leave us guessing. He deals explicitly with homosexual practice in three places: Romans 1:24-27; 1 Corinthians 6:9; and 1 Timothy 1:10.</p>	<p>그러므로 사도의 유대인 배경과 그의 성적 행실에 관한 일반적 진술들의 견지에서 살펴볼 때, 만약에 바울이 동성애 행위를 승인하는 것으로 보여졌다면 그것이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를 그저 추측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울은 명쾌하게 그가 쓴 성경 세 군데에서 동성애 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24-27, 고린도전서 6:9. 디모데전서 1:10).</p>
<p>1. 1 Corinthians 6:9-10 and 1 Timothy 1:10</p>	<p>1. 고린도전서 6:9-10 and 디모데전서 1:10</p>
<p>We begin by looking at the two shorter texts first: 1 Corinthians 6:9 and 1 Timothy 1:10. These two texts address homosexual activity by using two Greek words: <i>malakoi</i> and <i>arsenokoitai</i>.</p>	<p>먼저 짧은 본문인 고린도전서 6:9 과 디모데전서 1:10 부터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두 본문은 말라코이와 알세노코이타이 라는 헬라어 단어 두 개를 사용하여 동성애 행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p>
<p>Or do you not know that wrongdoers wi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Do not be deceived: Neither the sexually immoral nor idolaters nor adulterers nor men who have sex with men [<i>malakoi</i> and <i>arsenokoitai</i>] nor thieves nor the greedy nor drunkards nor slanderers nor swindlers will inherit the kingdom of God.</p>	<p>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말라코이 및 알세노코이타이, <i>malakoi</i> and <i>arsenokoitai</i>] 도적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p>
<p>(1 Cor. 6:9-10)</p>	<p>(고전 6:9-10)</p>
<p>We know that the law is good if one uses it properly. We also know that the law is made not for the righteous but for lawbreakers and rebels, the ungodly and sinful, the unholy and irreligious, for those who kill their fathers or mothers, for murderers, for the sexually immoral, for those practicing homosexuality [<i>arsenokoitai</i>], for slave traders and liars and perjurers—and for whatever else is contrary to the sound doctrine that conforms to the gospel concerning the glory of the blessed God, which he entrusted to me.</p>	<p>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p>

	자[알세노코이타이]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1 Tim. 1:8-11)	(딤후 1:8-11)
Revisionists typically claim one of the following two things with respect to these texts. Some assert that it is impossible to determine the precise meaning of these two Greek words with certainty, and therefore we should not draw any conclusions about homosexuality from them. David Gushee, for example, asserts: “Very high-level scholarly uncertainty about the meaning and translation of these two Greek words . . . undermines claims to the conclusiveness of <i>malakoi</i> and <i>arsenokoitai</i> for resolving the LGBT issue.” ¹⁸³ But although some revisionist academics have raised doubts about the origin and sense of these two key terms, it is nevertheless also the case—as demonstrated in the discussion below—that there exists a widespread scholarly consensus as to their meaning. ¹⁸⁴	수정주의자들은 이 두 본문과 관련하여 보통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를 주장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두 헬라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확신 있게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단어로부터 동성애에 관한 어떠한 결론도 도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빗 구쉬는 “이 두 헬라어 단어의 의미와 번역에 관한 매우 높은 레벨의 학문적인 불확실성이...성소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라코이 와 알세노코이타이의 확정성에 대한 주장을 약화시킵니다” 라고 말합니다. ¹⁸³ 하지만 몇몇 수정주의 학자들이 이 두 핵심 단어의 기원과 의미에 대해 의심을 했더라도 아래의 논의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두 단어의 의미에 대한 광범위한 학술적 합의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¹⁸⁴
Revisionists more often claim that these two Greek words refer narrowly to <i>abusive</i> forms of homosexual activity—namely, man-boy relationships (pederasty) and prostitution. According to this view, Paul is rejecting the exploitative nature of these specific kinds of homosexual acts that were common in his day. Thus, it is claimed, 1 Corinthians 6:9 and 1 Timothy 1:10 cannot be used to condemn the consensual, monogamous same-sex	수정주의자들은 이 두 개의 헬라어 단어가 좁은 의미로 동성애 행위의 폭력적 형태만을 지칭한다고 많이들 주장합니다. 즉, 남자성인-소년의 관계 (남색) 및 매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바울은 그의 시대에 흔했던 이러한 특정한 종류의 동성애 행위의 억압적인 특성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9 과 디모데전서 1:10 은 우리 현대 시대의 합의 하에

¹⁸³ David P. Gushee, *Changing Our Mind* (Canton, Mich.: David Crumm Media, 2015), p. 79.

¹⁸⁴ See especially the recent publication of John Granger Cook in *New Testament Studies* 65 (2019), pp. 332-52, arguably the most

prestigious academic journal for issues related to the New Testament.

relationships characteristic of our contemporary age. Richard Horsley, for example, states: “The terms in question probably referred to ‘masturbators’ and ‘male prostitutes.’ Certainly the terms Paul uses here were not references to an ancient equivalent of modern homosexual relations. The list in 6:9 thus provides no indication that Paul considered such a relationship to be sinful.” ¹⁸⁵	이루어지는 일부일처의 동성애 관계를 책망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예를 들면 리차드 호슬리는 “문제의 용어들은 아마도 ‘자위’와 ‘남창’을 지칭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단어들은 현대 동성애 관계와 대등한 고대의 용어들이 분명히 아닙니다. 따라서 6:9의 목록은 바울이 그러한 관계가 죄라는 암시를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¹⁸⁵
Similarly, Martti Nissinen asserts:	마찬가지로 말티 니시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The modern concept of “homosexuality” should by no means be read into Paul’s text, nor can we assume that Paul’s words in 1 Corinthians 6:9 “condemn all homosexual relations” in all times and places and ways. . . . Regardless of the kind of sexuality meant in 1 Corinthians 6:9 and 1 Timothy 1:10, in their current contexts they are examples of the exploitation of persons. What Paul primarily opposes is the wrong that people do to others. ¹⁸⁶	현대의 “동성애”라는 개념을 바울의 글에서 같은 개념으로 읽거나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방식으로 고린도전서 6:9의 “모든 동성애 관계를 책망하라”는 뜻으로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6:9과 디모데전서 1:10에서의 의미하는 성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들 시대의 배경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타인을 착취하는 예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우선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잘못에 관한 것입니다. ¹⁸⁶
One more example of this revisionist view of 1 Corinthians 6:9 is found in the recent book by Sylvia Keesmaat and Brian Walsh, who claim that “Paul is talking about some form of pederasty here, some form of sexual predation on prepubescent boys.” They conclude that this text does “not at all” apply to monogamous same-sex relationships today. ¹⁸⁷	고린도전서 6:9에 대한 수정주의자 관점의 또 하나의 예는 “바울은 남색의 몇몇 형태, 사춘기 전의 소년들에 대한 성적 착취의 몇몇 형태를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실비아 키스맷과 브라이언 왈쉬가 최근 쓴 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본문이 “전혀” 오늘날 일부일처제의 동성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¹⁸⁷

¹⁸⁵ Richard A. Horsley, *1 Corinthians* (Nashville, Tenn.: Abingdon, 1988), p. 89.

¹⁸⁶ Martti Nissinen, *Homoeroticism in the Biblical World: A Historical Perspective*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98), p. 118.

¹⁸⁷ Sylvia C. Keesmaat and Brian J. Walsh, *Romans Disarmed: Resisting Empire, Demanding Justice* (Grand Rapids, Mich.: Brazos, 2019), p. 331.

<p>This interpretation suffers from at least four major problems. First, if Paul had in view only exploitative same-sex relationships like pederasty, he could have easily made this clear by using any one of several Greek words that refer specifically to pederasty. For example, there is the word <i>paiderastês</i>, from which we get the English word “pederast.” Another good word choice to make this point would be the word-pair <i>erastês</i> (older man) and <i>erōmenos</i> (younger man). The fact that Paul did not use any of these terms, all of which were commonly known and used in the writings of his day, suggests that he was not thinking only of abusive forms of homosexual activity but of any type of homosexual activity.</p>	<p>이러한 해석은 최소한 네 가지 중요한 문제로 골치를 앓습니다. 첫째, 만약 바울이 남색과 같은 폭력적인 동성애 관계만을 염두에 두었다면 그는 구체적으로 남색을 지칭하는 여러 헬라어 단어들 중 하나를 골라 사용하여 이 점을 명확하게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 “남색”의 기원인 파이데라스테스 <i>paiderastês</i>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알맞은 단어 선택은 에라스테스 <i>erastês</i> (나이든 남자) 와 에로메노스 <i>erōmenos</i> (젊은 남자)라는 한 쌍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단어들이 그 시대에 흔히 알려져 있었고 그 당시 문서에서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바울이 이 중 어떠한 단어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동성애 행위 중에서 폭력적인 형태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모든 동성애 행위를 염두에 두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p>
<p>Second, it is helpful to let the longer and clearer text of Romans 1:24-27 clarify the meaning of the brief and less clear texts of 1 Corinthians 6:9 and 1 Timothy 1:10. Paul refers in Romans 1:26 to women who have sexual relations with women (i.e., lesbianism). Since pederasty in the ancient world only involved sexual relations between an older man and a younger man or teen and never involved sexual relations between an older woman with a younger woman, it is highly unlikely that the apostle in 1 Corinthians 6:9 and 1 Timothy 1:10 has in view only the narrow and abusive form of same-sex sex involved in pederasty.</p>	<p>둘째, 더 길고 명쾌한 본문인 로마서 1:24-27 이 더 짧고 불분명한 고린도전서 6:9 과 디모데전서 1:10 의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6 에서 여자들이 여자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지칭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색이 나이 든 남자와 어린 남자 혹은 청소년과의 성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나이 든 여자와 어린 여자와의 성적 관계를 일컫는 것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9 과 디모데전서 1:10 에서 사도가 남색에 관계된 좁은 의미의 폭력적인 형태의 동성 성관계만을 염두에 두었을 확률은 매우 떨어집니다.</p>
<p>This is confirmed by Paul’s reference in Romans 1:27 to men who have sex with other men who “were consumed with passion <i>for one another</i>.” The phrase “for one another” indicates that the apostle is referring to</p>	<p>이는 바울이 로마서 1:27 에서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며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는 남자들에 대한 언급에서 입증됩니다. “서로 향하여”라는 구절은 사도가 합의 하에 맺는 성관계를</p>

<p>consensual sex and that he finds fault with both persons involved in the same-sex act (note also the use of the plurals in the rest of the verse: “receiving in <i>themselves</i> the due penalty for <i>their</i> error”). This makes it impossible to believe, as revisionists claim, that Paul is referring narrowly in 1 Corinthians 6:9 and 1 Timothy 1:10 to the abusive aspect of pederasty in which an older man sexually exploits a younger man. As William Loader observes: “The reference to lesbian relations which does not fit pederasty, and Paul’s depiction in [Rom.] 1:27 of mutual desire (<i>eis allêlous</i> ‘for one another’) suggest that what he [Paul] has in mind is not primarily exploitative pederasty and certainly not limited to it.”¹⁸⁸</p>	<p>지칭하고 있고 동성애 행위에 연루된 양 측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나머지 부분에서의 복수 사용에도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는 수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바울이 좁은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6:9 과 디모데전서 1:10 을 나이든 남자가 성적으로 어린 남자를 이용하는 폭력적 형태의 남색을 말하고 있다고 믿기가 어렵게 만듭니다. 윌리엄 로더가 말했듯이 “남색에 맞지 않는 레즈비언 관계에 대한 언급과 바울이 로마서 1:27 에서 묘사한 상호간의 정욕 (<i>eis allêlous</i> ‘서로를 향하여’) 은 바울이 주로 염두에 둔 것이 착취하는 남색 관계가 아니며 그에 제한하여 생각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¹⁸⁸</p>
<p>Third, there is the Old Testament allusion to Leviticus 18:22 and 20:13 in Paul’s use of the special word <i>arsenokoitai</i> in both 1 Corinthians 6:9 and 1 Timothy 1:10. This word is unique because the apostle is the first person known to have used it. In other words, there are no known occurrences of the word <i>arsenokoitai</i> before Paul’s use of it in two of his letters. This means that either it was a recently coined word or, as most scholars assume, Paul himself created it on the basis of the Greek translation (Septuagint) of Leviticus 18:22 and 20:13.</p>	<p>셋째, 고린도전서 6:9 과 디모데전서 1:10 양 쪽 모두에서 바울이 사용한 특별한 단어 알세노코이타이는 구약의 레위기 18:22 과 20:13 에 대한 암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사용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매우 특별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그의 두 서신에서 사용하기 전까지 알세노코이타이라는 단어는 사용된 적이 있다고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는 이 단어가 신조어였거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처럼 바울 자신이 레위기 18:22 과 20:13 의 헬라어 번역 (70 인역)에 근거하여 만든 단어였다는 의미입니다.</p>
<p>Another instance of the apostle similarly creating a new word and doing so on the basis of an Old Testament text can be seen in 1 Thessalonians 4:9, where he coins the term “God-taught” (<i>theodidaktoi</i>) in a clear allusion to Isaiah 54:13 in the Septuagint: “And I will cause</p>	<p>사도 바울이 이와 비슷하게 새 단어를 만들었거나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새 단어를 만들었다는 또 다른 예는 바울이 70 인역의 이사야 54:13 를 분명히 암시하며 “하나님이 가르치신”(테오디닥토이 <i>theodidaktoi</i>) 이라는 단어를 만든</p>

¹⁸⁸ William Loader, *The New Testament on Sexuality* (Grand Rapids, Mich.: Eerdmans, 2012), p. 325.

<p>all your sons to be taught of God” (<i>didaktous theou</i>). The fact that Paul does not explain the meaning of the special word <i>arsenokoitai</i> and includes it in a vice list shows that he assumes his original readers would have no difficulty in understanding what he meant. The rhetorical force of such a list required that the vices listed were well known.</p>	<p>데살로니가전서 4:9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게 할 것이다” (디dak토우스 테오 <i>didaktous theou</i>). 바울이 이 알세노코이타이라는 특별한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고 죄악의 목록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은 그의 원래의 독자들이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그가 추측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목록의 수사법은 열거된 죄악들이 잘 알려진 것이라는 것을 요구합니다.</p>
<p>This special word, <i>arsenokoitai</i>, is a compound term made up of two parts: <i>arsên</i>, which means “male,” and <i>koitê</i>, which literally means “bed” but euphemistically refers to sexual acts that take place on a bed. On the basis of these two parts, the standard academic Greek lexicon defines the singular form <i>arsenokoitês</i> as “a male who engages in sexual activity with a person of his own sex.”¹⁸⁹ Even the person who does not know Greek can easily see how the two parts of the compound word <i>arsenokoitês</i> comes from the Greek translation (Septuagint) of Leviticus 18:22 and 20:13:</p>	<p>이 알세노코이타이라는 특별한 단어는 “남자”를 의미하는 알센 <i>arsên</i> 과 문자적으로 “침대”를 의미하지만 완곡 어법으로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성적 행위들을 지칭하는 코이테 <i>koitê</i> 두 부분으로 구성된 합성어입니다. 이 두 부분에 근거하여 표준 학술 헬라어 사전은 알세노코이테스의 단수형태를 “그와 같은 성의 사람과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남자”라고 정의합니다.¹⁸⁹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조차도 알세노코이테스라는 합성어의 두 부분이 어떻게 70 인역 성경 레위기 18:22 과 20:13 의 헬라어 번역에서 나왔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p>
<p>Leviticus 18:22 <i>kai meta arsenos ou koimêthêsê koitên gynaios</i> “And with a male you shall not sleep as with a woman”</p>	<p>레위기 18:22 <i>kai meta arsenos ou koimêthêsê koitên gynaios</i>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p>
<p>Leviticus 20:13 <i>kai hos an koimêthê meta arsenos koitên gynaios</i></p>	<p>레위기 20:13 <i>kai hos an koimêthê meta arsenos koitên gynaios</i></p>

¹⁸⁹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p. 135.

<p>“And whoever will sleep with a male as with a woman”</p>	<p>“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p>
<p>David Wright, who has written the definitive study on the origin and meaning of <i>arsenokoitai</i>, has described the link between this special Greek word and the two Levitical texts as “inescapable.”¹⁹⁰</p>	<p>알세노코이타이의 기원과 의미에 대해 결정적 연구를 한 데이빗 라이트는 이 특별한 헬라어 단어와 이 두 레위기 본문의 연관성을 “불가분한” 것으로 묘사했습니다.¹⁹⁰</p>
<p>Why is it significant that the special word Paul uses in two key texts dealing with homosexual activity comes from Leviticus 18:22 and 20:13? Since these Old Testament texts deal with <i>all</i> types of same-sex acts, not just exploitative ones like pederasty and prostitution (note Lev. 20:13 which explicitly states, “<i>both</i> of them have done what is detestable”), Paul’s use of this word indicates that he is thinking of the Mosaic law in which any kind of sexual relationship between two males is forbidden. In fact, in 1 Timothy 1:8-9, just before he mentions <i>arsenokoitai</i>, Paul refers twice to the “law,” suggesting yet again that he has the Old Testament comprehensive prohibition of homosexual intercourse in view.</p>	<p>동성애 행위를 다루는 이 두 핵심 본문에서 바울이 사용한 특별한 단어가 레위기 18:22 과 20:13 에서 왔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구약 본문들은 단지 폭력적인 남색과 매춘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동성애 행위를 다루기 때문에 (레위기 20:13 에서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이라는 명쾌한 언급을 참조하십시오)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두 남자 간의 모든 성적 관계를 금지하는 모세의 율법을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상, 알세노코이타이를 언급하기 바로 직전에 바울이 디모데전서 1:8-9 에서 “율법”을 두 번이나 언급했다는 것은 그가 구약의 동성 성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금지를 염두에 두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입니다.</p>
<p>Fourth, the pairing of the two words <i>malakos</i> and <i>arsenokoitai</i> in 1 Corinthians 6:9 is significant. There is wide-spread agreement among grammarians and New Testament scholars that the first term, which literally means “soft” or “effeminate,” refers metaphorically to males who played the female role in sex and allowed</p>	<p>넷째, 고린도전서 6:9 에서 말라코스과 알세노코이타이 두 단어를 짝지어 놓은 것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어가 다른 남성들에게 성기를 삽입하는 것을 지칭하는 반면에 “부드러운” 혹은 “여성적인”을 문자 그대로 뜻하는 첫 번째 단어가 성관계 중 여자 역할을 하는 남자를 비유적으로 지칭하는 것이고 다른 남자가 삽입하는 것을 허용한다는</p>

¹⁹⁰ David F. Wright, “Homosexuals or Prostitutes: The Meaning of *arsenokoitai* (1 Cor. 6:9; 1 Tim. 1:10),” *Vigiliae Christianae*, Vol. 38, No. 2 (1984), pp. 125-53.

themselves to be penetrated by other males, while the second term refers to males who penetrate other males.	것을 의미한다는 것에 문법학자들과 신약학자들은 폭넓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This consensus is reflected in the New International Version (2011) and the English Standard Version (2016) translations, which both have exactly the same textual note on this verse: “The words <i>men who have sex with men</i> translate two Greek words that refer to the passive and active participants in homosexual acts.” Paul, by pairing these two words, is referring not narrowly to pederasty or prostitution but comprehensively to both the passive and active partner in any same-sex relationship.	이 합의는 NIV (2011) 과 ESV(2016) 영어 번역 성경에 반영되어 이 구절에 대하여 두 성경은 정확히 일치하는 메모를 달았습니다. “남자와 성관계 하는 남자”라는 단어는 동성애 행위에 수동적, 능동적인 참여자들을 지칭하는 헬라어 단어 두 개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두 단어를 짝 지음으로써 바울은 남색 혹은 매춘을 좁은 의미에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성애 관계에서든지 수동적, 능동적 파트너 양 쪽을 종합적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Paul’s pairing of the two words <i>malakos</i> and <i>arsenokoitai</i> reveals his opposition to the contemporary Roman attitude towards same-sex sex. The key issue in the broader honor-shame culture of that day centered on whether a man played the active, penetrating “male” role in sex (with either a woman or a man), or if he played the passive “female” role of allowing himself to be penetrated. There was no shame connected with the active role, regardless of whether the partner in the sex act was female or male, but there was shame associated with the passive role. As Roy Ciampa and Brian Rosner explain:	바울의 말라코스와 알세노코이타이 두 단어를 짝 지은 것은 동시대의 로마 사람들의 동성 성관계를 향한 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시대의 보다 넓은 명예-수치 문화에서 핵심 쟁점은 남자가 삽입하는 능동적인 “남자”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수동적으로 삽입 당하게 허락하는 “여자” 역할을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파트너가 성관계에서 여자 역할을 하든 남자 역할을 하든지 관계없이 능동적인 역할에 연관된 수치는 없지만 수동적 역할에 관련해서는 수치가 있었습니다. 로이 시암파와 브라이언 로스너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Romans did not think in terms of sexual orientation or identities, but that proper masculinity was to be expressed in taking the active, dominant role in any sexual act. To desire or willingly play a passive homosexual role was considered shameful, but it was	로마인들은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과 관련해서 생각하지 않았지만 바람직한 남성성은 성적 행위 중의 능동적이고 지배적인 역할 속에서 표현되어야 했습니다. 동성을 욕망하거나 수동적인 동성 역할을 기꺼이 하려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지만 같은 지위

expected that men of stature would penetrate people of lesser status (whether women or men) but not be penetrated themselves. ¹⁹¹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지위가 높은 남자들이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여자들 남자들) 삽입하는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¹⁹¹
Paul's pairing of <i>malakos</i> with <i>arsenokoitai</i> , therefore, signals his rejection of the common Roman attitude of his day. The apostle makes clear to his first-century readers that it is not simply the hierarchy of a homosexual relationship that he condemns. Regardless of whether a person's role is active or passive, their participation in homosexual intercourse is contrary to God's will and to membership in his kingdom.	그러므로 바울이 말라코스를 알세노코이타이와 짝 지어 보는 것은 그 시대의 흔한 로마인들의 태도를 바울이 거절하는 표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1세기 독자들에게 그가 단순히 동성애 관계의 계급을 책망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간에 그들의 동성 성관계에 참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에 반하는 것입니다.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however, that people who engage in homosexual activity are no worse than other people. The biblical texts list homosexual sex alongside of many other things that are equally forbidden for followers of Jesus. For example, 1 Corinthians 6:9 lists the "greedy" shortly after "men who have sex with other men" as those who wi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This suggests that the church should be just as concerned about people who pile up wealth yet fail to share with others in need as it is about people who engage in homosexual sex.	그러나 동성애 관계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 문서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금지된 다른 많은 것들과 함께 동성간의 성관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6:9 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로 "탐욕을 부리는" 자를 "남색하는 자" 바로 뒤에 두었습니다. 이는 교회가 부를 쌓아두고서도 다른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할 때 동성간의 성관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 할 때와 같이 정의롭게 해야 합니다.
2. Romans 1:24-27	2. 로마서 1:24-27
The third Pauline text that deals with homosexual activity is Romans 1:24-27. This passage is the most important because of its length, its explicit reference to	세 번째로 바울이 동성애 행위에 관해 쓴 문서는 로마서 1:24-27 입니다. 이 본문은 그 길이와 게이 및 레즈비언 행위 모두를 노골적으로 지칭한 것과 그 논증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¹⁹¹ Roy E. Ciampa and Brian S. Rosner, *The First Letter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Mich.: Eerdmans, 2010), pp. 241-42.

<p>both gay and lesbian conduct, and its argumentation. Whereas 1 Corinthians 6:9 and 1 Timothy 1:10 demonstrate Paul's strong opposition to homosexual intercourse, Romans 1:24-27 spells out the reason <i>why</i> the apostle rejects such behavior:</p>	<p>고린도전서 6:9 과 디모데전서 1:10 이 바울이 동성간의 성관계를 강력히 반대한 것을 보여주는 데에 반해 로마서 1:24-27 은 왜 사도 바울이 그러한 행위를 거절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드러내고 있습니다.</p>
<p>Therefore God gave them over in the sinful desires of their hearts to sexual impurity for the degrading of their bodies with one another. They exchanged the truth about God for a lie, and worshiped and served created things rather than the Creator—who is forever praised. Amen. Because of this, God gave them over to shameful lusts. Even their women exchanged natural sexual relations for unnatural ones. In the same way the men also abandoned natural relations with women and were inflamed with lust for one another. Men committed shameful acts with other men, and received in themselves the due penalty for their error.</p>	<p>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p>
<p>The larger context (Rom. 1:18-32) shows that Paul's primary goal in these verses is not to condemn homosexual sex but to show how homosexual sex is another example—in addition to idolatry (1:21-23, 25)—of the degree of human sin and of why God's wrath for such sin is justified. Nevertheless, the apostle's words here are pointed and clear: women having sexual relations with other women and men having sexual relations with other men are sinful acts deserving of God's wrath.</p>	<p>더 큰 문맥 (롬 1:18-32) 은 이 구절에서의 바울의 주된 목표가 동성 간의 성관계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동성 간의 성관계가 어떻게 우상숭배에 더하여 인간의 죄의 정도를 드러내는 예가 되고 왜 하나님의 그러한 죄에 대한 분노가 합리화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예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말은 날카롭고 명확합니다. 여자가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과 남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마땅한 죄된 행동인 것입니다.</p>
<p>Revisionists typically argue that Paul's words ought to be understood according to what can be labeled the "excessive-desire interpretation." They claim that the apostle is not addressing all forms of homosexual activity</p>	<p>수정주의자들은 보통 바울의 말이 "지나친-욕망 해석"으로 꼬리표가 붙을 수 있는 것에 따라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모든 유형의 동성애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p>

but only a specific type of homosexual conduct characterized by excessive desire and a lack of self-control. Straight women were so filled with sexual desire—that is, lust, the argument runs—that they had sexual relations with other women. Similarly, straight men were so filled with lust that they had sexual relations with other men.	지나친 욕망과 자제력 부족으로 특징지어지는 특정한 유형의 동성애 행위만을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성애자인 여성이 음욕으로 가득 차다보니, 즉, 성욕이 지나쳐서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성애자인 남성이 음욕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다는 주장입니다.
This argument appeals to such references in Romans 1:24-27 as “desires” (1:24), “shameful lusts” (1:26), and people being “inflamed with lust” (1:27) to support the claim that the apostle is not rejecting normal desire, whether homosexual or heterosexual, but excessive desire, or lust. James Brownson, for example, states: “It is not desire itself that Paul opposes, but excessive desire, which directs itself toward what is not rightly ours, overcoming self-control and obedience to God.” ¹⁹² The corollary of this interpretation is that the apostle would not object to homosexual sex as long as it stems from normal desire and self-control, which is also required in heterosexual activity.	이 주장은 사도 바울이 동성애든 이성애든 정상적인 성욕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성욕, 음욕을 거절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로마서 1:24-27의 “정욕” (1:24) “부끄러운 욕심” (1:26), “음욕이 불일듯 하매” (1:27)에 호소합니다. 예를 들면, 제임스 브라운슨은 “바울은 욕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제력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무너뜨리는 무언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지나친 욕망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¹⁹² 이러한 해석의 인과관계는 이성애 행위에서도 요구되는 정상적인 욕망과 자제력에서 나온 것이기만 하면 사도바울이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If the problem that Paul is addressing were, in fact, excessive sexual desire or lust in 1:24, Paul could have made this clear by adding the adjective “much” before the word “desire” (<i>epithumia</i>) as he did in 1 Thessalonians 2:17 (“in much desire,” <i>en pollē epithumia</i>).	사실상 바울이 말하는 문제가 1:24의 지나친 성욕 혹은 음욕이라면 바울은 그가 데살로니가전서 2:17에서 그랬던 것처럼 “더 큰”이라는 형용사를 “욕망” (<i>epithumia</i> , 에피수미아) 앞에 붙여서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i>en pollē epithumia</i> “열정으로 더욱,” 엔 폴레 에피수미아)
Further, the problem that the apostle identifies involves not one of wrong <i>degree</i> (excessive behavior) but	더욱이 사도 바울이 밝힌 문제는 잘못된 정도 (지나친 행동)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대상 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¹⁹² Brownson, p. 164.

<p>of wrong <i>object</i>. The preceding verses of Roman 1:19-23 deal with the sin of idolatry, and Paul's argument here does not involve degree (as if normal idolatry is acceptable but excessive idolatry is wrong) but object: people worship created things rather than the Creator. Similarly, the sin of lesbian and gay sex discussed in 1:24-27 does not involve degree (the idea that normal desire for same-sex sex is acceptable but excessive desire or lust is wrong) but object: women are having sex not with men but with women, and, conversely, men are having sex not with women but with men.</p>	<p>로마서 1:19-23 은 우상숭배의 죄를 다루는데 여기서 바울의 주장은 정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 우상숭배는 괜찮지만 지나친 우상숭배는 잘못이라는 듯이)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창조주가 아닌 신을 만들어 경배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1:24-27 에서 말하는 레즈비언과 게이의 성관계 죄는 정도 (동성간의 성관계를 향한 정상적 욕망은 괜찮지만 지나친 욕망 혹은 음욕은 잘못이라는 생각) 와 관계가 없고 대상이 문제인 것입니다. 즉, 여자가 남자가 아닌 여자와 성관계를 맺고, 반대로 남자가 여자가 아닌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p>
<p>Yet another key weakness of the “excessive desire” interpretation lies in the short but important phrase “against nature” (Greek: <i>para physin</i>) in Romans 1:26 (many translations render the phrase “unnatural”). Revisionists argue that this phrase refers to one's <i>sexual nature</i>—that is, one's sexual orientation: women, who have a natural heterosexual attraction for men, nevertheless were so full of passion that they acted in an unnatural (“against nature”) way by having sex with other women; similarly, men, who have a natural heterosexual attraction for women, nevertheless also (“in the same way”) acted in an unnatural manner by having sex with other men. According to this construal, Paul is narrowly condemning “unnatural sex”—heterosexuals who ignore their natural desire for the opposite sex and are “inflamed with lust” for members of the same sex. Such a reading leaves the door open for the apostle approving of other, more noble forms of homosexual relationships in which lesbians and gays follow their “natural” same-sex orientation.</p>	<p>그러나 “지나친 욕망”으로 하는 해석의 또 다른 중요한 약점은 로마서 1:26 에 짧지만 중요한 구절인 “순리에 어긋나게” (헬라어: <i>para physin</i> 파라 피진)에 있습니다 (많은 번역본들이 이를 “역리”라고 번역했습니다). 수정주의자들은 이 구절이 사람의 성적 본능을 지칭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한 사람의 성적 지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에 대해서 순리적인 이성적 끌림을 갖는 여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욕으로 가득 차서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식의 역리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자에 대해서 순리적인 이성적 끌림을 갖는 남자도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욕으로 가득 차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식의 역리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바울은 “역리의 성” 즉, 그들의 이성을 향한 순리의 욕망을 무시하고 동성에 대해 “음욕이 불 일듯 한” 이성애자들을 좁은 의미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해석은 바울이 “순리적인” 동성에 지향성을 따르는 레즈비언과 게이들의 좀 더 고상한 형태의 동성애 관계를 지지하도록 가능성을 열어 두는 셈입니다.</p>

<p>This nuanced and novel interpretation, however, assigns to the word for “nature” (Greek: <i>physis</i>) a meaning which it has nowhere else in Greek. It is doubtful whether people in the first century were familiar with the concept of sexual orientation as we understand it today (that is, as an involuntary disposition to be attracted to people of one’s own gender), and, in any case, the Greek word <i>physis</i> is never used to refer to it.</p>	<p>“순리적, 헬:<i>physis</i>”이라는 의미를 단어에 부여하는 이렇게 미묘하고 참신한 해석은 헬라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세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과연 성적 지향성 (즉, 자기 스스로의 성의 사람들에게 끌리는 비자발적인 경향성) 이라는 개념에 친숙했는지 미심쩍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헬라어 단어 피지스는 이것을 지칭하는데에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p>
<p>Further, this interpretation is contradicted by Paul’s key argument in these verses: homosexual activity is wrong because it violates God’s created order for male-female relationships. The word for “unnatural” refers not to heterosexuals acting against their natural desire for the opposite sex but to homosexual conduct that violates one’s <i>created</i> nature—God’s design for men and women established in creation. That Paul does, in fact, have the Genesis creation account in mind is obvious from his multiple allusions to it in Romans 1:24-27:</p>	<p>게다가 이 해석은 이 구절들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핵심 주장과 충돌합니다. 즉, 동성애 행위는 하나님의 남자-여자와의 관계라는 창조 질서에 위반되는 잘못된 것입니다. “역리”라는 단어는 이성애자들이 이성에 대한 그들의 자연스러운 욕망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 행위가 사람이 창조된 자연 질서, 즉, 하나님이 창조 때 남자와 여자를 위하여 설정하신 설계에 어긋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실상 바울이 로마서 1:24-27 에서 여러 번 넌지시 암시한 것을 통해서 보면 그가 창세기의 창조 내러티브를 염두에 두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p>
<p>- 1:20 refers to “the creation of the world”</p>	<p>- 1:20 은 “이 세상의 창조”를 의미한다.</p>
<p>- 1:23 has the three-fold combination of “birds and animals and reptiles,” thereby echoing Genesis 1:30 (Septuagint)</p>	<p>- 1:23 은 “새와 동물과 파충류”의 삼중적인 조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1:30 과 맞는다 (70 인역).</p>
<p>- 1:25 refers to God not as a “God” or “Father” but as “the Creator”</p>	<p>- 1:25 는 하나님을 “하나님” 혹은 “아버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로 본다.</p>
<p>- 1:26 and 1:27 refer to “women” and “men,” which in the Greek text literally are “females” (<i>thêleiai</i>) and “males” (<i>arsenes</i>), thereby alluding to Genesis 1:27, where we read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p>	<p>- 1:26 and 1:27 에서 지칭하는 “여자”와 “남자”는 헬라어 문서에서 문자 그대로 “여성” (테레이아이, <i>thêleiai</i>) 과 “남성” (알세네스, <i>arsenes</i>)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읽는 창세기 1:27 을 암시하는 것이다.</p>

<p>Paul's argument, therefore, is clear: sexual acts between a female and another female or between a male and another male are "unnatural" and wrong, because such conduct goes against one's <i>created</i> nature. It is contrary to the way in which God made each sex physically so that male and female fit the other in a "natural" way and can fulfill the Genesis command to be fruitful and multiply.</p>	<p>그러므로 바울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여자와 다른 여자와의 성적 행위 혹은 남자와 다른 남자와의 성적 행위는 그것이 창조된 본성에 반하기 때문에 "역리적"이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성을 물리적으로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순리적"인 방식으로 맞게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의 명령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에 역행하는 것입니다.</p>
<p>One additional point about Paul's words to the Romans should not be overlooked. The apostle ends his discussion with the sober warning that it is not only those engaged in homosexual activity and other sins (such as greed, envy, gossip, slander, strife, disobedience to parents, and murder) who face divine judgement. It is also those who approve of these sins: "Although they know God's righteous decree that those who do such things deserve death, they not only continue to do these very things but also <i>approve of those who practice them</i>" (Rom. 1:32). Homosexual activity is not something that Christians can simply ignore or tolerate.</p>	<p>로마서에서 바울이 쓴 말들에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추가적인 논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동성애 행위와 관련된 행동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다른 죄들 (탐욕, 시기, 험담, 비방, 불화, 부모에 대한 불순종, 살인과 같은)에 대한 냉철한 경고로 그의 논의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들을 용인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롬 1:32). 동성애 행위는 기독교인들이 단순히 무시하거나 관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p>
<p><i>E. Additional revisionist claims</i></p>	<p>E. 수정주의자들의 추가 주장들</p>
<p>Revisionists often make a number of additional claims as to why Paul's statements on homosexuality ought to be interpreted differently or are no longer applicable for the church today.</p>	<p>바울의 동성애에 관한 진술이 왜 다르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혹은 오늘날 교회에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수정주의자들은 종종 여러가지 추가적인 주장들을 펼칩니다.</p>
<p>1. Claim 1: Paul didn't know of any nonexploitative homosexual relationships.</p>	<p>1. 주장 1: 바울은 비착취적인 동성애 관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p>

<p>It is frequently claimed that Paul had no examples of a more “noble” form of homosexuality involving consensual, monogamous, long-term relationships. He only knew of exploitative relationships like pederasty and prostitution. This common assertion, however, is false. The existence of many different types of homosexual relations, including consensual and even monogamous, is well documented in the literature of the period.¹⁹³ Paul, as a well-educated and widely traveled man, would have had ample opportunities to know about these types of same-sex relationships.</p>	<p>바울이 합의 하에 이루어지고, 일부일처제이며, 장기적인 관계를 하는 좀 더 “고상한” 형태의 동성애에 관한 예를 들지 않았다는 것이 종종 주장됩니다. 바울은 남색과 매춘과 같이 폭력적인 관계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흔한 주장은 틀렸습니다. 합의 하에 맺는 관계, 심지어 일부일처 관계를 포함하는 여러 다른 유형의 동성애 관계의 존재는 그 당시 문학에 매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¹⁹³ 많이 교육받고 여러 군데를 여행했던 사람인 바울에게 이러한 유형의 동성애 관계를 알았을 기회는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p>
<p>2. Claim 2: Paul didn’t know about same-sex orientation.</p>	<p>2. 주장 2: 바울은 동성애의 기원에 대해 몰랐다.</p>
<p>It is also often asserted that Paul did not have any understanding of same-sex orientation and that such ignorance relativizes his condemnation of homosexual activity. James Brownson, for example, states: “Writers in the first century, including Paul, did not look at same-sex eroticism with the understanding of sexual orientation that is commonplace today.”¹⁹⁴ Keesmaat and Walsh similarly assert: “Paul would have had no idea of anything like a homosexual orientation.”¹⁹⁵</p>	<p>바울이 동성애 지향성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그러한 무지가 그의 동성애 행위에 대한 책망을 상대화시킨다는 주장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임스 브라운슨은 “바울을 포함한 1 세기의 작가들은 오늘날 흔한 성적 지향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동성애 에로티시즘을 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¹⁹⁴ 키스맷과 왈쉬도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바울은 동성애 지향성 같은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¹⁹⁵</p>
<p>But while ancient writers like Paul did not have a scientific explanation of same-sex orientation, there is strong historical evidence that they did, in fact, recognize same-sex desires as being inborn and fixed. Bernadette</p>	<p>하지만 바울과 같은 고대의 저자들이 동성애 지향성에 대해 과학적인 설명을 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사실상 그들이 동성애 욕망을 선천적인 것이고 고정된 것이라는 것으로 봤다는 강력한 역사적 증거가</p>

¹⁹³ See, for example, T. K. Hubbard, ed. *Homosexuality in Greece and Rome: A Sourcebook of Basic Documents* (Berkeley, Calif.: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L. Crompton, *Homosexuality and Civiliza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¹⁹⁴ Brownson, p. 166.

¹⁹⁵ Keesmaat and Walsh, p. 337.

<p>Brooten, a leading scholar in feminist sexual ethics, asserts: “Contrary to the view that the idea of sexual orientation did not develop until the nineteenth century, the astrological sources demonstrate the existence in the Roman world of the concept of a lifelong erotic orientation.”¹⁹⁶ Preston Sprinkle reviews multiple ancient texts showing that writers in that day “explored and affirmed what could be considered as an ancient version of same-sex orientation.”¹⁹⁷ William Loader similarly states, “It is very possible that Paul knew of views which claimed some people had what we would call a homosexual orientation, though we cannot know for sure and certainly should not read our modern theories back into his world.”¹⁹⁸</p>	<p>있습니다. 여성주의 성 윤리의 저명한 학자인 버나뎃 브루튼은 “19 세기 전까지 성적 지향성이라는 개념이 발달되지 않았다는 관점과 대조적으로 점성술 문헌이 로마 시대의 일생에 걸친 에로틱 지향성의 개념의 존재를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¹⁹⁶ 프레스턴 스프링클은 그 당시 저자들이 “고대 시대의 동성애 지향성으로 여겨질 수 있는지 탐험하고 확인한”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고대의 문서들을 검토했습니다.¹⁹⁷ 윌리엄 로더 또한 이와 비슷하게 “비록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고 우리의 현대 이론을 그 당시 시대를 읽는 데에 사용할 수 없을지라도 바울이 지금의 우리가 동성애 지향성이라고 불렀을 법한 몇몇 사람들의 관점을 알았을 확률이 매우 높다” 라고 말했습니다.¹⁹⁸</p>
<p>It is historically possible, therefore, that Paul knew of men who were born with a sexual desire for other men. Nevertheless, in the apostle’s view, orientation makes no difference: same-sex acts violate the male-female relationship established by God at creation (Rom. 1:24-27) and are contrary to God’s law (1 Cor. 6:9; 1 Tim. 1:10).</p>	<p>그러므로 바울이 다른 남자에 대한 성욕을 가지고 태어난 남자들을 알았을 것이 역사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지향성이 달라지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동성애 행위는 하나님이 창조 때 세우신 남녀관계를 침범하고 (롬 1:24-27)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고전 6:9, 딤후 1:10).</p>
<p>3. Claim 3: Parallelism with the significant church decision in Acts 15</p>	<p>3. 주장 3: 사도행전 15 장의 교회의 중요한 결정과의 유사점</p>
<p>Another argument advocated by some revisionists appeals to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e early church used in Acts 15 to determine whether or not</p>	<p>몇몇 수정주의자들이 내세우는 또 다른 주장은 사도행전 15 장에서 초대교회가 사용했던 의사 결정 과정에 호소합니다. 그 의사</p>

¹⁹⁶ Bernadette Brooten, *Love between Women: Early Christian Responses to Female Homoeroticis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p. 140.

¹⁹⁷ Preston Sprinkle, “Paul and Homosexual Behavior: A Critical Evaluation of the Excessive-Lust Interpretation of Romans 1:26-27,”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25.4 (2015), p. 505.

¹⁹⁸ Loader, pp. 323-24.

<p>uncircumcised Gentiles should be welcomed into the church as Christians. Acts describes how the Holy Spirit came upon Gentiles, thereby prompting the early church to reexamine the Scriptures and determine that these uncircumcised believers ought to be accepted as full members. It is claimed that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Acts 15 is analogical for today. The experience of the Holy Spirit in the lives of practicing gays and lesbians, it is asserted, makes it necessary for the contemporary church to reexamine the scriptural texts dealing with homosexuality and welcome such persons as full members.¹⁹⁹</p>	<p>결정이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서 환영을 받아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셨는지 묘사하여 초대교회가 성경을 다시 검토하게 촉발시키고 이 할례 받지 않은 신자들도 온전한 교인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5 장의 의사결정과정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게이와 레즈비언들의 삶 속에서의 성령의 경험은 현대 교회가 동성애를 다루는 성경 본문들을 다시 검토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온전한 신자로 환영하도록 한다고 주장합니다.¹⁹⁹</p>
<p>These are not parallel cases, however, so this revisionist argument faces several problems. First, the Acts 15 decision of the early church was prompted by special revelation from God: Peter experienced a vision in which God commanded him to eat animals that were unclean, thereby revealing the truth that certain elements of the Mosaic law were no longer morally binding. The church today does not have any special revelation from God that would require the acceptance of same-sex sex.</p>	<p>그러나 이것들이 유사한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이 수정주의자 주장은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사도행전 15 장의 초대교회의 결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에 의해 촉발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으라고 명령하신 비전을 보고 나서 모세의 율법의 특정 부분이 더 이상 도덕적 구속력이 없다는 진실을 밝혔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동성간의 성관계를 수용하라는 특별한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p>
<p>Second, when the early church reexamined Scripture, it discovered prophetic texts that promised the acceptance of the Gentiles into the people of God. James, the head of the early church in Jerusalem, bases his decision not merely on the experiences of Peter, Paul, Barnabas, or the Gentiles, but on the explicit teaching of</p>	<p>둘째, 초대교회가 성경을 재검토 할 때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약속하신 선지자적 본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는 베드로, 바울, 바나바 혹은 이방인의 경험에 단순히 근거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명쾌한 가르침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고보는 야모스 9:11-12 의 말씀에서</p>

¹⁹⁹ See, for example, Luke T. Johnson, *Decision Making in the Church: A Biblical Model* (Philadelphia, Pa.: Fortress, 1983), pp. 95-97; Jeffrey Siker, *Homosexuality in the Church: Both Sides of the Debate*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1994); Sylvia C.

Keesmaat, "Welcoming in the Gentiles: A Biblical Model for Decision Making" in *Living Together in the Church: Including Our Differences*, eds. G. S. Dunn and C. Ambridge (Toronto: ABC Pub., 2004), pp. 30-49; Keesmaat and Walsh, *Romans Disarmed*, pp. 355-61.

<p>Scripture. James quotes the words of Amos 9:11-12, in which God declares that he will restore his people in order “that the rest of humankind may seek the Lord, even all the Gentiles who bear my name.” In contrast, there are no scriptural texts that predict or even allude in a vague way to the acceptance of homosexual activity. As Richard Hays has observed, it is doubtful whether a comparison between the Jerusalem Council’s debate over accepting Gentiles and the contemporary debate over sexuality has the power to overturn the clear evidence in both the Old and New Testaments against accepting same-sex sexual practices.²⁰⁰</p>	<p>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이, 심지어 주님의 이름을 가진 모든 이방인들까지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선포하심을 인용하셨습니다. 이와 반대로 동성애 행위를 승인하는 것을 예언하거나 모호하게라도 암시하는 성경 본문은 없습니다. 리차드 헤이스는 이방인을 수락하는 것에 대한 예루살렘 공의회와 성에 대한 현대의 논쟁 사이의 비교가 과연 구약과 신약의 동성애 행위를 수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증거들을 뒤집을 만한 힘이 있을지 미심쩍다고 밝혔습니다.²⁰⁰</p>
<p>Third, the apostles at the Jerusalem Council in Acts 15, although not requiring Gentiles to be circumcised, nevertheless prohibited them from four specific things (the so-called “Apostolic Decree”): “You are to abstain from food sacrificed to idols, from blood, from the meat of strangled animals and from sexual immorality” (Acts 15:29). There is compelling evidence that these four prohibitions are based on Leviticus 17-18, with its recurring phrase, “any foreigner residing among you” (Lev. 17:8, 10, 12, 13; 18:26). These occurrences explain what non-Israelite foreigners were required to do while living among the Israelites. Strikingly, the order of the four prohibitions in the Apostolic Decree in Acts 15:29 follows the same order in Leviticus 17-18:</p>	<p>셋째, 사도행전 15 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네 가지 금지 사항 (이른 바 “Apostolic Decree”) 을 두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행 15:29). 이 네 가지 금지 사항이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레 17:8,10,12,13; 18:26) 과 같은 되풀이 되어 나오는 구절을 포함하여 레위기 17-18 장에 근거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발생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류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 때 요구되는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놀랍게도 사도행전 15:29 의 Apostolic Decree 의 네 가지 금기 사항의 순서는 레위기 17-18 장의 순서와 동일합니다.</p>
<p>“abstain from food sacrificed to idols”(Lev. 17:7-9)</p>	<p>“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레 17:7-9)</p>
<p>“blood” (Lev. 17:10-12)</p>	<p>“피” (레 17:10-12)</p>

²⁰⁰ Hays, p. 396.

“meat of strangled animals” (Lev. 17:13-14)	“목매어 죽인 것” (레 17:13-14)
“sexual immorality” (Lev. 18:6-23) ²⁰¹	“음행” (레 18:6-23) ²⁰¹
<p>This strongly suggests that the Jerusalem apostles equated the fourth prohibition, against “sexual immorality,” with the sexual prohibitions of Leviticus 18, including the command of 18:22, “Do not have sexual relations with a man as one does with a woman.” If so,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Acts 15, rather than being an analogy for a process by which the church might reevaluate its prohibition of homosexual activity, actually confirms the nonnegotiable character of the church’s historic biblical teaching against sexual immorality, including homosexual activity.</p>	<p>이는 예루살렘 사도들이 음행을 금지하는 네 번째 금지 사항을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18:22의 명령을 포함하여 레위기 18 장의 음행을 멀리하는 것과 동일시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만약 그렇다면 교회나 동성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재평가하는 과정을 위한 유추보다 사도행전 15 장의 의사결정 과정은 교회의 음행을 멀리하는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가르침의 특성과 사실상 협상이 불가능한 것을 확인시켜줍니다.</p>
4. Claim 4: The Holy Spirit is leading the church to a new understanding.	4. 주장 4: 성령께서 교회를 새로운 이해에 이르도록 이끌시고 계신다.
<p>Yet another common claim by revisionists is that as the Holy Spirit has led the church in the past to reinterpret Scripture on various social issues, so the Holy Spirit may be also leading the church today into a new understanding of same-sex sex. Classis Grand Rapids East, for example, in its study report on “Biblical and Theological Support Currently Offered by Christian Proponents of Same-Sex Marriage” (January 2016), observes how the church reinterpreted Scripture in response to the evils of anti-Semitism, slavery, and racism. The report then concludes: “Through these various means,</p>	<p>그런데 수정주의자들이 하는 흔한 주장은 성령께서 과거에 여러가지 사회 문제를 놓고 교회가 성경을 재해석하게 하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오늘날의 교회도 동성간의 성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인도하실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트 그랜드래피즈 노회는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기독교인들이 제시하는 성경 및 신학적 지지” (2016 년 1 월) 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교회가 반유대주의, 노예제, 인종차별주의 라는 악에 대응하여 어떻게 성경을 재해석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뒤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여러가지</p>

²⁰¹ See especially Richard Bauckham, “James and the Gentiles (Acts 15:13-21)” in *History, Literature, and Society in the Book of Ac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p. 154-84, esp.

pp. 172-78; Bill T. Arnold, “Lessons of the Jerusalem Council for the Church’s Debate over Sexuality,” *Asbury Journal* 69 (2014), pp. 63-83.

the church was led to better interpretations of parts of Scripture. Comparing the issue of same-sex marriage to these other historical cases suggests that this might be another occasion in church history when the Holy Spirit is prompting a re-examination of Scripture” (p. 7).	수단을 통해서 교회는 성경의 부분들에 더 나은 해석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동성결혼 이슈를 다른 역사적 사례들과 비교하는 것은 교회사에서 성령께서 성경을 재해석하라고 촉구하시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7 페이지).
It is one thing to reexamine Scripture, but it is quite another thing to ignore the clear and consistent teaching of Scripture in order to reach an alternative reading of the key texts and then claim that this all happened through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Is it not equally possible that all this happened through the guidance of another “spirit”—the “spirit” of our secular age and contemporary culture (1 John 4:1-3)? Is it not equally possible that what the Holy Spirit is leading the church to do today is not to change its interpretation of Scripture (after all, it is the same Holy Spirit speaking to the church today as to the church of Paul’s day) but to challenge contemporary Christians to love better and minister more effectively to those who are attracted to the same sex?	핵심 본문들에 대한 대체 가능한 해석에 도달하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가능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재해석하는 것과 성경의 명확하고 지속적인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또 다른 “영”(세속적 시대와 현대 문화의 “영”)의 인도를 받아 이 모든 것이 발생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요일 4:1-3) 오늘날 성령께서 교회에게 명하시는 바가 성경의 해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동성간의 성관계에 끌리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을 더 효과적으로 목양하라고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성령께서 도전을 주시는 것이 마찬가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i>F. The testimony of progressive voices</i>	F. 진보주의적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증언
As a corrective “check” against the possibility that traditionalists might be stubbornly clinging to an interpretation of Paul’s writings that is determined by a biased perspective and not genuinely open to alternative plausible interpretations, it may be helpful to consider the perspective of certain scholars who, despite affirming that the church should accept homosexual relationships today, nevertheless agree that the apostle clearly condemns all forms of homosexual relations.	전통주의자들이 고집스럽게 편향된 관점과 정말 대체 가능하고 이치에 맞는 해석에 열려 있지 않은 태도에 의해 결정된 바울의 서신에 대한 해석에 매달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교정적 차원의 “확인”을 할 때, 교회가 오늘날 동성애를 수용해야 한다고 단언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모든 형태의 동성애 관계를 비난했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특정한 학자들의 관점을 고려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p>William Loader is arguably the leading scholar in the world on the subject of sexuality in Judaism and early Christianity, having written eight academic monographs and dozens of articles on the subject.²⁰² He is a strong proponent of the church's need to accept same-sex behavior and marriage. Loader recognizes that many revisionists hold a high view of Scripture that requires them to treat Paul's discussion of homosexuality as authoritative. This makes it necessary for them to reinterpret that teaching to bring it into line with the affirmation of homosexual relationships, however implausible such reinterpretation might be. After reviewing the various arguments proposed by revisionists, Loader observes: "For those of us whose understanding of Scripture does not entail such belief [i.e., that the biblical writers were correct in what they wrote], we can only stand and wonder at the <i>extraordinary maneuvers</i> which have been undertaken to re-read Paul as not condemning homosexual relations at all."²⁰³</p>	<p>윌리엄 로더는 유대주의 및 초기 기독교의 성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세계에서 저명한 학자로 8 권의 학문적 책을 썼고 수 십 개의 아티클을 출판했습니다.²⁰² 그는 교회의 동성애 행위와 결혼을 수용해야 할 필요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주창자입니다. 로더는 많은 수정주의자들이 바울의 동성애에 관한 논의를 권위적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을 만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러한 해석이 얼마나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을지와 관계 없이 수정주의자들이 내 놓은 다양한 주장들을 검토한 후 로더는 "믿음을 수반하는 성경 이해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 [예: 성경 저자들이 그들이 쓴 것에 대하여 옳다라는 이해] 우리는 바울이 동성애를 전혀 책망하지 않았다고 바울을 다시 읽는 기이한 술책에 놀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²⁰³</p>
<p>Another progressive voice comes from the late Louis Crompton, a gay scholar whose work pioneered LGBTQ</p>	<p>또 다른 진보적인 목소리는 최근의 게이 성소수자 학문의 영역에서 개척자적인 학자인 루이스 크람프턴에게 나옵니다. 그의</p>

²⁰² See, for example, William Loader, *The Septuagint, Sexuality, and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ch.: Eerdmans, 2004); *Sexuality and the Jesus Tradition* (Grand Rapids, Mich.: Eerdmans, 2005); *Enoch, Levi, and Jubilees on Sexuality* (Grand Rapids, Mich.: Eerdmans, 2007); *The Dead Sea Scrolls on Sexuality: Attitudes towards Sexuality and Related Literature at Qumran* (Grand Rapids, Mich.: Eerdmans, 2009); *Sexuality in the New Testament*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2010); *The Pseudepigrapha on Sexuality: Attitudes towards Sexuality in Apocalypses, Testaments, Legends, Wisdom, and Related Literature* (Grand Rapids, Mich.: Eerdmans, 2011); *Philo, Josephus, and the Testaments on*

Sexuality: Attitudes towards Sexuality in the Writings of Philo, Josephus, and the Testaments of the Twelve Patriarchs (Grand Rapids, Mich.: Eerdmans, 2011); *Making Sense of Sex: Attitudes towards Sexuality in Early Jewish and Christian Literature* (Grand Rapids, Mich.: Eerdmans, 2013); *The New Testament on Sexuality* (Grand Rapids, Mich.: Eerdmans, 2013).

²⁰³ "Reading Romans 1 on Homosexuality in the Light of Biblical/Jewish and Greco-Roman Perspectives of Its Time," *Zeitschrift für die Neutestamentliche Wissenschaft* 108 (2017), p. 120; emphasis added.

<p>studies. In his award-winning book <i>Homosexuality and Civilization</i>, Crompton writes: “Some interpreters, seeking to mitigate Paul’s harshness, have read the passage [Rom. 1:24-27] as condemning not homosexuals generally but only heterosexual men and women who experimented with homosexuality. According to this interpretation, Paul’s words were not directed at “bona fide” homosexuals in committed relationships. But such a reading, however well-intentioned, seems <i>strained and unhistorical</i>. Nowhere does Paul or any other Jewish writer of this period imply the least acceptance of same-sex relations under any circumstances. The idea that homosexuals might be redeemed by mutual devotion would have been wholly foreign to Paul or any Jew or early Christian.”²⁰⁴</p>	<p>수상작인 동성애와 문명화라는 책에서 크람프톤은 “바울의 거칠음을 완화하고자 몇몇 해석자들은 일반적인 동성애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실험해 보는 이성애자인 남자와 여자만을 책망하는 것이라고 성경 본문 [롬 1:24-27]을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바울의 말은 애정관계에 서로 헌신한 “진짜” 동성애자들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은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할지라도 기이하고 반역사적으로 보입니다. 바울 혹은 그 시대의 다른 유대인 저자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성애 관계를 최소한이라도 받아들이는 것을 암시한 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동성애가 상호 헌신에 의해 구속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바울이나 다른 유대인 혹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완전히 생경한 개념이었을 것입니다.²⁰⁴</p>
<p>G. <i>Conclusion of the biblical evidence</i></p>	<p>G. 성경적 증거의 결론</p>
<p>This survey of relevant biblical texts has shown that Scripture teaches in a clear, consistent, and compelling way that homosexual acts of any kind are sinful and not in agreement with God’s will for his covenant people. The debate about same-sex sex, therefore, is not a situation in which there are two equal and opposing interpretations of the biblical evidence. Although a variety of revisionist arguments have been made, none of them are convincing but, rather, ought to be justly judged as “strained and unhistorical” and evidence of the “extraordinary maneuvers” involved in the attempt to reread Scripture.</p>	<p>관련된 성경 본문에 대한 조사는 성경이 모든 동성애 행위는 죄이며 그의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한다는 것을 명확하고 지속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동성간의 성관계에 대한 논의는 성경적 증거에 대한 두 가지의 일치하고 반대되는 해석이 존재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비록 수정주의자들의 다양한 주장이 있어왔지만 그 중 어느 것도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역사기록에 없으며” 성경을 다시 읽으려는 시도에 관련된 “기이한 술책”의 증거로 마땅히 판단 받아야 합니다.</p>

²⁰⁴ Louis Crompton, *Homosexuality and Civilization* (Cambridge, Mas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p. 114; emphasis added.

<p>It is important to conclude our consideration of Scripture's teaching on homosexuality by emphasizing the fact that although Scripture condemns homosexual sex, it does not condemn people who are attracted to the same sex. Nor does it condemn all those who have engaged in homosexual activity. Indeed, Paul's primary point in mentioning homosexuality in 1 Corinthians 6 is to remind the Corinthian believers that because of God's grace such sinful conduct belongs to the past: "And that is what some of you were. But you were washed, you were sanctified, you were justified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by the Spirit of God" (1 Cor. 6:11).</p>	<p>비록 성경이 동성간의 성관계를 책망한다고 해도 그것이 동성에게 끌리는 사람들이나 동성애 행위에 관련된 사람들 모두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고찰의 결론을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6 장에서 동성애를 언급할 때의 주된 쟁점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죄악된 행위가 과거에 속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전 6:11).</p>
<p>This is the gift of God that we have through faith. Through faith in Christ, all of us, whether attracted to the same sex or not, are adopted as the children of God, sons and daughters united in the intimate communion of the body of Christ. The good news of the gospel is that through his Holy Spirit God enables all his children—heterosexual and homosexual alike—to be freed from the destructive forces of sin and to live a life of holiness to God (1 Thess. 4:3-8).</p>	<p>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동성애에 끌리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몸과 친밀한 연합을 하는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복음의 좋은 측면은 그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성애자나 동성애자나 그의 모든 자녀들을 파괴적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살전 4:3-8).</p>
<p>This does not mean that people who are attracted to the same sex will lose their same-sex orientation this side of Christ's return. Nor does it mean they will cease being tempted, even as Jesus himself was tempted. All believers can expect to battle our deepest temptations to selfishness, lust, pride, arrogance, violence, and all others sins until we see Jesus' face.</p>	<p>이는 동성애에 끌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그들의 동성애 지향성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유혹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들이 이제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모든 신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 이기심, 탐욕, 오만, 교만, 폭력 및 모든 다른 죄에 대한 강한 유혹과 씨름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p>

<p>What it does mean is that God has promised to restore us fully to himself at the resurrection on the last day, and that even in this life,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e will be enabled to live in chastity and self-control as part of the justified and sanctified people of God. There are times when we will sin, but sin will not have mastery over us. And even when we do sin, God promises that if we confess our sin and turn from it, he will forgive us for Jesus' sake (1 John 1:9; 2:1-2). And if he has granted us forgiveness in Christ, how will he not also give us all things? We can be confident, then, that the Holy Spirit will enable us to overcome even the most deeply rooted sin.²⁰⁵ We can consider ourselves dead to sin and alive to God in Christ, because sin's power over us has been broken (Rom. 6).</p>	<p>이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할 때 온전히 그 자신이 되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지금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롭고 성화된 백성으로서 순결하고 자제력 있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겠지만 그 죄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은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면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요일 1:9; 2:1-2). 그리고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깊이 뿌리 박힌 죄 조차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²⁰⁵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롬 6) 스스로를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로 여길 수 있습니다.</p>
<p>In the world's eyes it is outrageous to expect those who are attracted to the same sex not to express those desires in a sexual relationship, just as it is outrageous to refuse to use pornography or to refuse to have sex outside of marriage. This is why Jesus explains that in order to enter the kingdom of God a person must be born from above. He invites us to be born again by the Holy Spirit (John 3:1-21). Thus we join a new family of forgiven sinners, each of whom must rely on the power of God and the support of the community in holy living.</p>	<p>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포르노를 보는 것을 거절하거나 혼외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충격적인 것처럼 동성에 끌리는 사람들이 성적 관계에서 욕망을 표현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설명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 3:1-21). 따라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죄인들로 이루어진 새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가족 구성원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공동체의 지지를 받아야만 합니다.</p>

²⁰⁵ Article 29 of the Belgic Confession says of those who belong to the church, "Though great weakness remains in them, they fight against [sin] by the Spirit all the days of their lives, appealing

constantly to the blood, suffering, death and obedience of the Lord Jesus, in whom they have forgiveness of their sins, through faith in him."

XIII. Homosexuality: Pastoral care	XIII. 동성애: 목양적 돌봄
<p>Philip* went to Sunday school as a child in the church his parents occasionally attended. Coming out in university, Phillip had no particular interest in Christianity until he became an activist for housing and other justice concerns in the city. Here he met some Christians who lived in a house together and routinely offered hospitality to their low-income neighbors. Through their faith, Philip met Jesus and experienced deeper friendships than he'd ever known. Philip was impressed by how these Christian friends supported each other in their marriages or in living celibate lives through prayer and honest conversations about their struggles. Eventually Philip's sexuality and his Christian faith were in real conflict. He ultimately broke up with his partner, realizing that their values were so different. Although some years are harder than others, Philip found community and has followed Jesus day by day for ten years now. Philip is one of the strongest leaders in his church.</p>	<p>필립*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가끔 나가시던 교회의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그가 사는 도시의 주택 공급 및 기타 정의 문제들과 관련한 운동가가 되기 전까지 필립은 기독교에 특별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즈음 필립은 한 집에 같이 살았던 몇몇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저소득 이웃들을 정기적으로 초대하고 환대 하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필립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더 깊은 차원의 우정을 경험했습니다. 필립은 어떻게 이 기독교인 친구들이 결혼 안에서 서로를 지지하는지 혹은 독신의 삶을 사는 친구들은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기도하고 정직한 대화로 극복하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결국 필립의 성과 그의 기독교 신앙은 진짜 충돌했습니다. 그는 그의 파트너와 가치관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헤어졌습니다. 비록 평소보다 더 힘든 날들도 있지만 필립은 공동체를 찾았고 이제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 산지 10 년 가량 되었습니다. 필립은 그의 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리더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p>
<p>Darrell,* 32 (white), is an openly gay residence hall director at a large secular university. His staff of undergraduate resident assistants included two people who were part of a local Christian Reformed congregation. Darrell, who was unchurched, started visiting Sunday worship and soon developed a good relationship with the pastor and several other single adults, despite knowing about the church's sexual ethic of celibacy and opposition to same-sex marriage. While he continued to explore Christianity, Darrell, at his request, was added to the rotation of volunteers who read Scripture and made</p>	<p>대럴* (32 세, 백인)은 규모가 큰 일반 대학교에서 게이 기숙사의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에 거주하며 그를 돕는 학부생 직원들 중에는 지역 북미주 개혁신교회에 다니는 두 학생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던 대럴은 교회를 방문하기 시작했고 교회의 독신에 대한 성윤리와 동성 결혼에 대한 반대를 알면서도 곧 목사님과 다른 여러 독신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대럴은 계속해서 기독교를 알아가면서 예배 중 성경 봉독을 하고 광고를 돌아가면서 하는 자원봉사자들 중의 한 명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럴은 목사님에게 대학 캠퍼스에 이 교회가 게이에게 친절한 교회라는 것을</p>

<p>announcements during worship. Soon afterward Darrell told the pastor that he was getting the word out around the university campus that the congregation was gay-friendly. The pastor was surprised and urged Darrell to make sure any gay friends he invited were aware of the church's teaching about sex. Darrell explained that because the church was friendly and honest, he felt comfortable attending and thought that others would too.</p>	<p>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깜짝 놀라며 대럴이 초대하는 게 이 친구들이 꼭 교회의 성에 대한 가르침을 꼭 알고 오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대럴은 교회가 친절하고 정직해서 자신이 마음 편히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p>A. <i>A word to congregations</i></p>	<p>A. 회중에 대한 권면</p>
<p>1. Repentance</p>	<p>1. 회개</p>
<p>The church's response to homosexuality must begin with confession and lament. Despite repeated and strong exhortations of past study committee reports to love and care for brothers and sisters who are attracted to the same sex as equal members of the body of Christ, the church has all-too-often ostracized, shunned, or ignored such Jesus-followers. Congregations need to honestly examine their attitudes and actions toward people who are attracted to the same sex and need to repent when such attitudes and actions are sinful: treating homosexuals as if they are worse sinners than those who are caught up in pornography, premarital, or extramarital sex; overlooking them for positions of leadership, including those of pastor, elder, and deacon instead of considering whether they are, like all officebearers need to be, living holy and godly lives; keeping them physically and emotionally at a distance because they make some feel uncomfortable; failing to stand in solidarity with them as fellow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For all of these and many other inappropriate ways the church has typically treated persons in its midst</p>	<p>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반응은 반드시 고백과 개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동등한 지체로 동성에 끌리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야 한다는 과거 연구위원회 보고서들의 반복적이고 강력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너무나 자주 배척하고, 피하거나 무시해왔습니다. 회중들은 동성에 끌리는 사람들을 향한 자신들의 태도와 행동을 정직하게 점검해야 하며 그러한 태도와 행동들이 죄라면 회개해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포르노 사용, 혼전 성관계, 혼외 성관계를 하다가 걸린 사람들보다 더 최악의 죄인인 것처럼 대우하는 것, 모든 직무자들에게 요구해야 하듯이 그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지 고려하지 않고 목사, 장로, 집사를 포함한 리더십 직무에서 동성애자들을 배제하는 것, 몇몇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동성애자들에 대해 물리적,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자매로 그들과 연대하지 않는 것). 교회가 전형적으로 동성에 끌리는 사람들을 대해 온 이 모든 방식들과 다른 여러 부적절한</p>

who are attracted to the same sex, congregations must recognize their attitude and actions for what they are—sin—and ask God for forgiveness and healing.	방식들을, 회중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태도와 행동이 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용서와 치유를 구해야 합니다.
2. Teaching	2. 가르침
<p>Congregations need to be clearly taught or reminded that the experience of attraction to the same sex is not sinful in itself. Some fifty years ago the first CRC report on homosexuality explained that sexuality is “the desire to give and receive in intimacy so that the ‘aloneness’ of a person is abrogated.” The report then mad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longings for such intimacy and sexual activity. It also called on the church to welcome godly Christians who are attracted to the same sex into the use of their spiritual gifts and to include them in every way.²⁰⁶ One of the great harms the church has done is to refer to anyone who is attracted to the same sex as a sinner simply because of the experience this attraction. The fact that some church members are especially aware of and emotionally drawn to the same sex in the same way that most others are drawn to the opposite sex is not in itself sinful desire, nor is it even sexual temptation. Instead, the Bible teaches that to act upon that wrongful sexual desire is sin (James 1:13-15). Jesus says that to even look at someone lustfully is sin (Matt. 5:28). Indeed, it is sin to nourish sexual desire for someone to whom we are not married. Sexual attraction becomes sin when we allow ourselves to desire a specific person or sexual act, unless it is our spouse with whom we are entering into the sexual act. Martin Luther reputedly</p>	<p>회중들은 동성에 끌리는 경험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정확하게 배우거나 주의를 받아야 합니다. 50 여 년 전 동성애에 관한 첫 CRC 보고서는 성이란 “서로 친밀함을 주고 받아서 사람의 “고독”을 파기하려는 욕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보고서는 그러한 친밀감과 성적 행위에 대한 열망을 분명하게 구분한 것입니다. 또한 이는 교회가 동성에 끌리는 경건한 기독교인들을 그들이 영적 은사를 사용하도록 환영하고 그들을 모든 방면에 포함시키도록 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²⁰⁶ 교회가 저지른 최악의 잘못은 동성에 끌리는 사람을 끌렸다는 경험만으로 죄인이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반대의 성에 끌리는 것과 똑같이 몇몇의 교인들이 자신의 끌림을 잘 알고 감정적으로 동성에 끌린다는 사실 그 자체는 죄된 욕망이 아니고 성적 유혹도 아닙니다. 그 대신, 성경은 잘못된 성적 욕망을 행하는 것이 죄라고 가르칩니다 (마 5:28). 우리가 결혼하지 않은 누군가에 대한 성적 욕망을 키우는 것이 진짜 죄입니다. 우리가 성적행위를 하는 배우자가 아닌 특정한 누군가에게 성적 욕망을 품고 성적 행위를 하도록 스스로를 허용할 때 성적 끌림이 죄가 됩니다. 마틴 루터는 “새들이 당신의 머리 위에서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새들이 당신의 머리 위에 동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성적 끌림을 경험하든지 간에 성숙한 신자들은 성적 욕망이 행위로 가려는 최초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을 배웁니다.</p>

²⁰⁶ Acts of Synod 1973, pp. 611-12, 631.

said, “You can’t stop the birds flying over your head, but you can keep them from nesting in your hair.” No matter how often they experience sexual attraction, mature believers learn to reject the initial temptation toward acting on their sexual desire. Peter repeatedly calls us to discipline our minds in this way. ²⁰⁷	베드로는 우리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훈련하라고 여러 번 촉구합니다. ²⁰⁷
3. False expectations	3. 잘못된 기대들
<p>Congregations need to recognize that promoting the idea that believers who are attracted to the same sex can expect to experience attraction to the opposite sex as they mature spiritually is not just wrong but can be very harmful. When the “ex-gay” umbrella organization Exodus dissolved in 2013, they publicly apologized for promoting the idea that people could change their orientation from homosexual to heterosexual. The slogan of Exodus was “Change is possible.” Yet for decades many of its ministry leaders had hidden not only ongoing attraction to the same sex but even a return to gay relationships. At the same time, numerous believing men and women trying desperately to be heterosexual felt shame that they were not spiritual enough to change. Much of the church embraced and pushed this fallacious notion of change, wounding countless vulnerable children of the church.</p>	<p>회중들이 동성에 끌리는 신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짐에 따라 반대의 성에 끌리는 경험을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부추기는 것은 단지 틀린 생각일 뿐 아니라 매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탈 게이” 산하 기구 엑소더스(Exodus)가 2013년에 해체하면서 그들은 사람들이 동성에 지향성을 이성애 지향성으로 바꿀 수 있다고 선전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였습니다. 엑소더스의 슬로건은 “변화는 가능하다”였습니다. 하지만 수 십 년 동안 이 사역의 많은 리더들이 동성에 대해 계속 끌리고 있는 것을 숨겼을 뿐 아니라 게이 관계로 돌아가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간절하게 이성애자가 되려고 노력했던 수 많은 믿는 남자와 여자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변화가 없다는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된 변화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밀어붙이며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의 수많은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p>
<p>The Bible talks about the sexual behavior of believers but does not describe an orientation to homosexuality or to heterosexuality. While most Christians describe a lessening of sexual temptations as they practice the spiritual disciplines of prayer, mutual</p>	<p>성경은 신자들의 성적 행위에 대해서 말하지만 동성애 지향성인지 이성애 지향성인지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기도, 상호 고백, 예배, 말씀 묵상 등의 영적 훈련을 연습해 나가면서 성적 유혹의 감소를 이야기하는 반면에 성경은 악한</p>

²⁰⁷ 1 Pet. 1:13; 2:11; 4:1-2, 7.

confession, worship, and meditation on the Scriptures, the Bible tells us that the evil one wages war against our souls. Thus all believers can expect to battle their deepest temptations to selfishness, lust, pride, arrogance, and violence. Yet the church community offers to all the grace of God to enable holing living. All believers can be confident that, like Jesus, the Holy Spirit will help to keep us from sexual sin. As children of our heavenly Father, we are now free to obey God because sin's power over us has been broken (Rom. 6).	자가 우리의 영혼과 전쟁을 벌인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신자들은 이기심, 탐욕, 오만, 교만 및 폭력에 매우 깊은 유혹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거룩한 삶을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성령께서 우리가 성적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실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를 얹어 매는 죄의 능력이 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롬 6).
4. Practical advice	4. 실질적인 충고
Congregations must create genuine fellowship and community for single and married people of all ages by practicing hospitality, holiness, honesty, and humility:	교회는 환대, 거룩, 정직, 그리고 겸손을 실천하여 모든 연령대의 미혼 및 기혼자들을 위한 진실된 교제와 공동체를 형성해야 합니다:
- Practice hospitality by welcoming both fellow believers and non-Christian neighbors into your living spaces and your lives (2 Cor. 6-7; Heb. 13).	- 함께 믿는 신자들과 불신자 이웃들 모두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생활 속으로 환영하여 환대를 실천하십시오 (고후 6-7; 히 13).
- Seek sexual holiness for yourselves and encourage it in your sisters and brothers with your prayers and practical support (Heb. 12; Rom. 12).	- 성적인 경건을 추구하라. 그리고 당신의 자매와 형제에게도 기도와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주며 경건을 격려하라. (히브리서 12 장, 로마서 12 장)
- Honestly admit your own constant need of grace and ask fellow believers for support (James 5; 1 John 1-5).	- 여러분 자신에게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함께 믿는 신자들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약 5; 요일 1-5).
- Humbly ask other believers for help with your deepest temptations (James 5; 1 Pet. 5).	- 여러분이 깊이 느끼는 유혹에 대해서 함께 믿는 신자들에게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약 5; 벰전 5).

<p>Pastors, elders, and deacons should lead the way in this, serving by example. They should regularly confess their sins, acknowledge their struggles, and offer forgiveness and encouragement to others. They should talk about the ways in which God has enabled them to battle various temptations or besetting sins. This will encourage the members of the body to do the same, having the assurance that they too will be received with grace. The officers of the church and other mature Christians should seek out those who seem most vulnerable, praying with them and demonstrating hospitality and friendship. They should be prepared to offer spiritual and material support wherever needed.</p>	<p>목사, 장로, 집사들이 솔선 수범하여 앞장 서야 합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와의 싸움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 가지 유혹 혹은 그들을 괴롭히는 죄악과 싸울 수 있게 하시는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는 한 몸의 지체들도 은혜로 용납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유혹과 죄들과 싸울 수 있다고 격려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무를 맡은 사람들과 성숙한 신자들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환대와 우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필요한 곳 어디든 영적, 물질적 후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p>
<p>In practical terms, congregations should seek to build intimacy among believers. This can take place in small groups who come together for prayer, worship, food, recreation, and mutual support. Such groups should consist of singles, couples, and families, including people of a broad range of ages. It might also come in the form of friendships in which two or more persons are committed to helping each other navigate the challenges and joys of life.</p>	<p>실질적으로 교회는 신자들 간의 친밀함을 형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기도, 예배, 식사교제, 친목 및 상호 도움을 주고 받기 위해 함께 모이는 소그룹에서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소그룹들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독신, 커플, 가정 등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는 둘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를 도와 삶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기쁨을 나누는 것에 헌신된 우정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p>
<p>However supportive fellowship comes about, as congregations we must ensure that all believers are included in the network of such relationships. Make a concrete action plan to develop a loving community that includes people of every age and marital status. Encourage groups of believers to gather for meals in homes. Urge them to spend holidays or special occasions with people who do not belong to their family or network of friends, as Jesus commanded us to do (Luke 14:12-14).</p>	<p>얼마나 서로를 든든하게 지지하는 교제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회중으로서 모든 신자들이 그러한 관계들의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연령대와 미혼, 기혼자들을 포함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발전시켜나갈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신자들의 그룹들이 가정에서 식사모임으로 모일 수 있도록 격려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눅 14:12-14) 가족이나 친구와 모이지 못하는 사람들과 휴일 혹은 특별한</p>

Mature Christians should model and encourage friendships between people of all ages and genders.	날을 함께 보내라고 촉구하십시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연령과 성별의 사람들 간의 우정의 본보기가 되고 그것을 격려해야 합니다.
Congregations must also call people who are attracted to the same sex into recognized positions of service and leadership. Having been ostracized for so long, many will need support and encouragement in using their gifts for the good of the body. They should be encouraged to use their unique experiences—including their attraction to the same sex—to help others. The church needs more godly people who are attracted to the same sex to serve as pastors, elders, and deacons.	회중들은 또한 동성에 끌리는 사람들도 눈에 띄는 봉사 리더십의 직분을 맡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외면당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해 그들이 가진 은사를 사용하려면 지지와 격려가 필요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들의 특별한 경험을 (동성에 끌리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하려면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로 섬기는 동성에 끌리는 경건한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Gay immigrant Han,* 35, was so used to hiding his sexuality that he referred to his longtime boyfriend back in South Korea as his girlfriend when he first met some people from the local church. They had invited him to dinner and then to hang out with them and some church members. Han came to a couple of Sunday gatherings and noticed that the church was full of single people and that a good number of them seemed to be gay. This gave him courage to talk to one seemingly same-sex couple and show them a picture of his boyfriend back home. Han was surprised to find out that these two Jesus-followers lived together but were not romantically involved and that the church was not affirming of same-sex marriage. Nevertheless, Han soon became a regular participant in worship, social events, and prayer meetings, as he drew nearer to Jesus.	게이이면서 이민자인 한* (35 세)은 지역 교회의 몇몇 사람들과의 첫 만남에서 한국에 남겨둔 자신의 오랜 남자 친구를 여자친구라고 지칭하면서 자신의 성을 숨기는 것에 매우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을 저녁에 초대해서 그들이 다니는 교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였습니다. 한은 주일예배에 몇 번 참석하면서 그 교회에 많은 독신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 중 꽤 많은 사람들이 게이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용기를 얻어서 동성 커플로 보이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고향에 있는 남자친구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지만 로맨틱한 관계를 맺지 않고 있으며 그 교회가 동성 결혼을 긍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한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서 정기적으로 예배, 사회 이벤트,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i>B. A word to church leaders</i>	<i>B.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권면</i>

1. How to promote sexual holiness in the entire church	1. 교회 전체에서 성적 거룩함을 촉진시키는 방법
a. Regularly talk about sex and the Christian life in various contexts. Give as many examples from single lives as from married lives. Preach and host discussions about the Bible's positive view of sexuality as well as the difficulties and temptations that all believers face in this area of their Christian life.	a. 다양한 상황에서 성과 기독교인의 삶에 대하여 정기적인 대화를 나누십시오. 기혼자들의 삶에서 예를 드는 것만큼 미혼자들의 삶에서도 예를 끌어내십시오. 모든 신자들이 기독교인의 삶의 이 영역에서 직면하는 어려움과 유혹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성경의 긍정적인 관점에 대해서도 설교하고 토론을 이끄십시오.
b. As council members, develop a regular practice of sharing weaknesses and confessing sins to each other, and encourage this practice also among the congregation. This will enable you to be humble, honest, and helpful if you must initiate difficult conversations about sexual sin with individual church members.	b.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서로 연약함을 나누고 죄를 고백하는 정기적인 훈련을 하고 이 훈련을 회중들도 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이러한 훈련은 만약 여러분이 교인 개개인과 성적 죄에 대한 어려운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면 여러분을 겸손하고 정직하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c. Foster life as a community of sisters and brothers. Encourage groups of believers to gather for meals together in homes on major holidays instead of just gathering together with your biological family. Implement small groups that are made up of both singles and couples, are mixed in age, or are arranged geographically instead of, or in addition to, small groups that are couple-oriented or geared specifically to youth, singles, or older adults.	c. 형제자매의 공동체로서 삶을 발전시키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과만 함께 모이지 말고, 주요한 명절 휴일에 신자들의 모임들을 격려하여 함께 가정에서 식사모임을 하도록 하십시오. 부부 중심이거나 청소년, 미혼, 혹은 노인들 중심으로만 한정된 소그룹들과 더불어, 혹은 그런 소그룹들 대신에 미혼, 기혼자들,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소그룹들을 만드십시오.
d. Offer healing prayer teams. Issues of sexual identity as well as past memories of sexual abuse, hurt, and sin often result in destructive feelings of shame, which in turn inhibit spiritual intimacy with God and others. Books and other resources are widely available to equip small,	d. 치유 기도 모임을 제공하십시오. 성적 학대, 상처, 죄에 대한 과거의 기억과 성적 정체성이라는 문제들은 종종 수치심이라는 파괴적인 느낌을 남겨서 하나님과 타인과의 영적 친밀함을 방해합니다. 소규모의 훈련된 팀들이 다양한 책과 리소스들을 이용하여 한 번

trained teams to help people work through these issues by offering both one-time and ongoing prayer support.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 후원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낼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e. Model and encourage intimate nonsexual relationships with people of the same sex and the opposite sex. Demonstrate and refer to friendships between people of all ages and both sexes. Such friendships can be fostered by, but are not limited to, various small-group Bible studies, ministry teams, and prayer partnerships.	e. 동성 및 이성과의 성적이지만 않으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갖는 본보기가 되고 그런 관계를 격려하십시오. 모든 연령대의 남녀 모두와의 우정을 보여주고 참조하십시오. 그러한 우정은 다양한 소그룹 성경 공부, 사역팀, 기도 동역자들에 한정되지 않지만 이들에 의해 강화될 수 있습니다.
f. Advocate for and give practical support to communal housing options in which families and singles live together. Christians from various denominations are learning from old and new monastic traditions how to support each other spiritually by sharing housing, meals, and prayer rhythms and by providing practical help with childcare.	f. 가정과 미혼자가 함께 사는 공동주택 옵션을 주창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십시오. 다양한 교단의 기독교인들은 구식, 신식 수도원 전통으로부터 배워 주택, 식사, 기도 리듬을 공유하고 보육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서로 영적으로 도울지 배우고 있습니다.
g. As elders or mature believers, visit with singles to see if there are specific ways they would like help following Jesus in their sexuality.	g. 장로 혹은 성숙한 신자로서 미혼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도움을 원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미혼들을 방문하여 알아보십시오.
2. How to minister well to lesbian, gay, and bisexual people in the church	2. 교회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들에게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a. Listen to and learn from members who are attracted to the same sex or from the families of gay people who have left the church. Set up an evening gathering at which you can hear such stories. Seek to understand the realities of your sisters and brothers. Assume that many of us have wrestled with the Scriptures	a. 동성에 끌리는 교인들 혹은 교회를 떠난 게이 교인들의 가족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배우십시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녁 모임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의 현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씨름해 왔으며 당신보다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에서 어떤 지지를 받고 싶은지

<p>and may know far more than you about what the Bible teaches and about what support we would like to find in the church. Know that we are individuals who have different opinions and needs. Some of us would like to live in a community of other believers; others want to live with an intimate friend; still others hope to marry, or already have married, someone of the opposite sex. Some of us identify as gay or lesbian because we find freedom in our same-sex attraction being known; others of us prefer not to be labeled because we think that God made us male or female but not homosexual or heterosexual; still others of us define ourselves in additional ways.</p>	<p>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의견과 필요를 가진 개인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다른 믿는 사람들과의 공동체 안에서 살고 싶어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친밀한 친구와 살기 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결혼하기를 소망하거나 이미 이성의 다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동성에 끌리는 것에서 자유를 발견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게이 혹은 레즈비언으로 밝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 혹은 여자로 만드셨지 이성애 혹은 동성애자로 만들지 않으셨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추가 방식으로 정의합니다.</p>
<p>b. Develop relationships with believers attracted to their own sex who affirm same-sex marriage. Take time to hear their story, their hurts, and how they came to their decision. Know that they may have become spiritually and emotionally weary of trying to live celibately in a church community that prioritizes marriage. Ask if the church or you in particular have hurt them; if so, be ready to apologize. Encourage their relationship with Jesus and affirm them for continuing in their faith.</p>	<p>b.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동성에 끌리는 신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십시오. 그들의 이야기, 상처,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에 대해 듣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결혼을 우선시하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독신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들이 영적, 감정적으로 지쳐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교회 혹은 당신이 특별히 그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만약 있다면 사과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들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긍정하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확언을 하십시오.</p>
<p>c. Develop relationships with believers attracted to their own sex who obey the historically orthodox teaching on sex and thus reject same-sex marriage. Listen to their story, their hurts, and their explanation of their position. Encourage them to use their spiritual gifts in and outside the church. If they desire to live celibately, explore with them possibilities such as living in intentional community or committed friendships (celibate partnerships). If they hope to marry someone of the opposite sex, help them to be</p>	<p>c. 성에 대한 역사적인 정통 가르침에 순종하여 동성에 끌리지만 동성결혼을 거절하는 신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십시오. 그들의 이야기, 상처, 그들의 위치에 대한 설명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가진 영적 은사를 교회 안팎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십시오. 만약 그들이 독신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들과 함께 목적 있는 공동체 혹은 헌신된 우정의 관계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들을 탐색해 보십시오. 만약 그들이 반대의 성과 결혼하기를 소망한다면 지속적인 성적 유혹에</p>

realistic about ongoing sexual temptation and encourage their honesty with dating partners.	대해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데이트 하는 상대방에게 정직할 수 있도록 격려하십시오.
d. Be proactive. As church leaders, work through potential scenarios so that you are ready to respond honestly and lovingly when a gay couple wants to join your church or have their newborn baby baptized; when a lesbian couple attending your church asks to be married or wants prayer for adopting a child; when members of your church ask you to participate in or simply attend their same-sex wedding; when a member of the church tells you they are sexually active.	d. 적극적으로 되십시오. 교회 리더로서 가능한 시나리오를 탐색해서 게이 커플이 당신의 교회에 오고 싶어하거나 그들의 아기에게 세례를 주기 바랄 때, 레즈비언 커플이 교회에 와서 결혼하고 싶어하거나 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할 때, 여러분의 교회의 교인들이 동성 결혼에 관여하거나 단순히 참석하기를 원할 때, 교인 중 누군가가 성적으로 활발하다고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정직과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e. Actively call all members of the congregation and people interested in membership to the standard of sexual holiness taught in the Scriptures and exemplified by Christ.	e. 회중 전체 교인과 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그리스도로 본을 보여주신 성적인 거룩함에 대한 기준을 적극적으로 가르치십시오.
3. Practical ways to make the church inclusive	3. 교회를 포용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
a. Use language that describes the church community as the <i>family</i> of God. The church is a new community of Christ's followers who are single or married, heterosexual or homosexual, and from all varieties of backgrounds. In other words, ensure that the language used to describe the church clearly reflects the truth that it is not merely a collection of biological families but a gathering of a spiritual family united together through a common relationship to Christ. Since the church is a new community, it needs to provide a home—a safe haven—for all its members.	a. 교회공동체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묘사하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교회는 미혼자나 기혼자, 이성애자나 동성애자, 그리고 모든 다양한 배경에서 온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묘사해 오던 언어가 단지 혈육의 가족의 집합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와의 공통의 관계를 통해 함께 연합된 영적 가족의 모임이라는 진실을 명확하게 반영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십시오. 교회는 새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든 교인들을 위해 가정 (안전한 곳)을 제공해야 합니다.

b. Model leadership by godly single members. Seek out for service as elders, deacons, and pastors those who are single and/or who are known to be attracted to the same sex and celibate.	b. 경건한 미혼 교인들을 통해 리더십의 본을 보이십시오. 미혼 그리고/혹은 동성에 끌리면서도 금욕의 삶을 사는 장로, 집사, 목사들의 섬김의 본을 보이십시오.
c. Foster confession of sin and prayer for healing in which willing members talk publicly about battling specific temptations to deception, idolatry, slander, greed, and sexual sin.	c.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다양한 연약함과 평생 반복되는 죄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신 믿음의 이야기들을 격려하십시오.
d. Encourage faith stories of God's power at work in our various weaknesses and in healing us from lifelong patterns of sin.	d.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다양한 연약함과 평생 반복되는 죄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신 믿음의 이야기들을 격려하십시오.
e. Consider holding a special service to acknowledge the church's local lack of hospitality and its hypocrisy in singling out same-sex sexual practice as sinful while remaining silent about other sexual sins (pornography, premarital sex, extramarital sex, etc.).	e. 교회의 환대 부족 및 다른 성적 죄 (포르노, 혼전 성관계, 혼외 성관계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동성애 행위만을 죄라고 지적하는 위선을 인식하는 특별한 예배를 계획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f. During corporate worship, plan congregational prayers that include the health and well-being of single Christians as well as of couples and families. As part of the time of confession, refer by name to specific sins, including homosexual practice. Train liturgists/worship leaders to use language indicating that every kind of sin displeases God but that no sin is beyond God's forgiveness. As part of the sermon, talk about a variety of sexual sins, including all sexual practices outside of marriage (premarital, extramarital, same-sex). Give examples of God's grace and comfort to listeners who struggle with brokenness, especially examples of people who have been freed from the power of different kinds of sexual sin.	f. 연합예배 중 부부와 가정들 뿐만 아니라 미혼 기독교인들의 건강과 웰빙을 포함하는 회중 기도를 계획하십시오. 죄를 고백하는 시간에 동성애 행위를 포함하여 특정한 죄를 이름으로 언급하십시오. 예배 집례자/예배 인도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지 않게 하는 모든 죄를 가리키면서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을 지칭하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훈련하십시오. 설교 중 일부는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행위들을 (혼전, 혼외, 동성 성관계) 포함하여 다양한 성적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예들을 제시하고, 깨어짐으로 괴로워하는 청중들을 위로하며 특별히 여러

	다양한 성적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들의 예들을 나누십시오.
4. Mission	4. 사명
<p>a. Only when we have become comfortable in close relationships with people who are attracted to the same sex, both inside and outside of the church, will we be able to minister faithfully to people. We should continually be seeking to establish and foster relationships with people who are different from us in our neighborhoods, schools, workplaces, and recreational settings. Our primary goal in these interactions should not be to change their behavior but to love and serve them as befits followers of Christ. Just as you would not expect to offer unsolicited biblical advice to a colleague living with her boyfriend or your soccer teammate who gambles on the weekend, so you should not expect to do so with an unchurched gay neighbor or acquaintance. Such familiarity requires trust and respect, and building trust and respect takes time.</p>	<p>a. 교회 안팎의 동성에 끌리는 사람들과 가까운 관계 속에서 편안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충실히 목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 학교, 직장, 여가의 상황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우고 발전시키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들 속에서의 우리의 주된 목적은 그들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기에 걸맞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남자친구랑 동거하는 동료에게나 주말마다 도박하는 축구팀원에게 그들이 청하지 않은 성경적인 충고를 주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를 안 다니는 게이 이웃이나 지인에게도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친숙함은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신뢰와 존중을 쌓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p>
<p>b. Acquaintances who are attracted to the same sex may seem uninterested in the gospel, or even antagonistic, but this should not hinder our ability to befriend them. Rather, as you show kindness in ways that encourage trust and respect, be prepared to give a reason for the hope that is in you. Seek opportunities to connect them to the body of Christ and to the Scriptures. Trust the Holy Spirit to work in their hearts. If they are drawn to the way of life reflected in you and in your church, they may become willing to hear more about the gospel. The more honest you can be about your own struggles in following</p>	<p>b. 동성에 매력을 느끼는 지인들이 복음에 흥미를 못 느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심지어 적대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신뢰와 존중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가 친절을 베풀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의 근거를 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성경으로 그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기회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들의 마음 속에 역사하실 성령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 안에 심겨진 삶의 방식으로 그들이 이끌린다면 복음에 대해서 더 듣고자 의지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의 삶의</p>

<p>Jesus, and about the practical ways God has given you power and joy, the more credible your faith will be.</p>	<p>어려움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과 기쁨의 실질적인 방식들에 대해 여러분이 정직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더 믿을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p>
<p>c. Expect to answer questions and explain why you and your church believe that homosexual activity is wrong. Always be prepared to summarize the gospel as it applies to same-sex relationships and to the way in which Christians have often mistreated gay and lesbian people. Take the time to speak carefully, even if that means inviting someone to chat over coffee or a meal. Be clear and consistent, loving and generous. Be up front about the fact that your church does not recognize same-sex marriage. Make your theological stance obvious and accessible and always show how it arises out of the good news of Christ. Highlight the many ways in which God's will for sexuality is good for all people. Remember that faithful Christlike leadership does not require you to compromise truth or love. If you tend to surrender one or the other, confess your sin to God, pray, and work hard to develop a more Christlike approach.</p>	<p>c. 왜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가 동성애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믿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십시오. 동성애 관계에 적용되고 기독교인들이 종종 게이와 레즈비언들을 잘못 대하는 방식에 적용할 수 있는 복음을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십시오. 누군가를 초대해서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시간을 내서 조심스럽게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신학적 입장을 뚜렷하게 밝히고 접근 가능하게 하며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그것이 나온 것인지 항상 보여주십시오. 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에게 선한 여러 가지 방식을 강조하십시오. 신앙심이 깊은 그리스도와 같은 리더십에는 진리 혹은 사랑과 타협할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가지 혹은 또 다른 한 가지에 항복하는 경향이 있다면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며 좀 더 그리스도와 같은 접근을 계발하도록 열심히 노력하십시오.</p>
<p>d. If a gay couple starts attending your church, treat them as you would any other visitors. That is to say, show them hospitality! How would you treat a young man and woman who are living together outside of marriage, or a college student who does not believe in God, or a wealthy person who has spent their money on selfish and materialistic ends? Remember that we are all sinners in need of grace and love and that God wants all people to enjoy his salvation and full life in his kingdom (John 10:10;</p>	<p>d. 게이 커플이 여러분의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면 그들을 여느 다른 방문자들과 같이 대하십시오. 즉, 그들에게 환대를 보이십시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젊은 남녀를 혹은 하나님을 안 믿는 대학생을 혹은 자기 돈을 이기적이고 물질주의적인 목적을 위해 쓰는 부자를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은혜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그의 나라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p>

<p>1 Timothy 2:4). Invite them to participate in events and ministries and to build relationships with the members of your congregation. Show them the love by which Jesus said his disciples would be known (John 14:34-35). Again, do not focus on changing their behavior. Give them the freedom to wrestle with what it would mean to become disciples in a spirit of love and grace.</p>	<p>것을 기억하십시오 (요 10:10, 딤후 2:4). 그들을 교회 행사와 사역에 초대하고 여러분의 교인들과 관계를 세워가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요 14:34-35). 다시 말하자면, 그들의 행동을 바꾸는데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사랑과 은혜의 정신으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들 스스로 씨름하도록 자유를 주십시오.</p>
<p>e. If a gay couple asks about membership, explain why church members are held accountable to following Jesus in their sexuality and in other areas of life. If they want to become members, make sure they are committed to following Christ's teaching in their lives, including their sexuality. But don't devote all of your attention to their same-sex desires, as if that were the only thing that God cares about. Ensure that they understand the grace of church discipline, how it works, and why it is beneficial. At the same time, remind them that membership is not for the perfect but for the repentant. Give them confidence that they will be supported in grace even when they stumble and fall.</p>	<p>e. 만약 게이 커플이 교인이 되는 것에 대해 묻는다면 왜 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의 성과 다른 삶의 영역에 있어 책임을 져야하는지 설명하십시오. 그들이 교인이 되기 원한다면 성을 포함한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에 그들이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십시오. 하지만 그들의 동성애가 하나님이 신경 쓰는 오직 한 가지인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주의를 그들의 동성에 대한 열망에 기울이지 마십시오. 교회의 훈련의 은혜와 작용 방식 및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를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와 동시에 교인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이 되는 것임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넘어질 때 조차도 은혜 안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심어주십시오.</p>
<p>f. As they learn about the gospel and the cost of discipleship, some people may decide not to pursue membership. If so, continue to treat them with grace and love, just as you should any other person who has not yet become a Christian. You do not know when God may work in their lives to reconcile them to himself, whether through your church or through another church. Others may struggle to overcome their feelings of fear or hurt due to the ways in which they have been treated by Christians—</p>	<p>f. 그들이 복음과 제자도의 기회비용을 배워감에 따라 그 중 몇몇은 교인이 되지 않기로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직 기독교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하듯이 그들을 계속해서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나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언제 그들의 삶가운데 역사하실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 중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그게 여러분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당한 것 때문에</p>

<p>possibly even your church—in the past. This may even be the case if your church has confessed or repented of its sin. If so, you should be understanding, affirm their desire to be in relationship with Christ and his people, and encourage them to find another church. Do what you can to keep the communication lines open in case there might be reconciliation in the future.</p>	<p>두려움과 상처의 감정을 극복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 죄를 고백했거나 회개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열망을 이해하고 긍정해야 하며 다른 교회를 찾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앞으로 화해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연락할 수 있는 통로들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p>
<p>Sarah,* white and in her sixties, became a Christian in college through a campus ministry. When she met Kristine in her mid-thirties, she had drifted from the Christian community and from her previous spiritual disciplines of Bible study and prayer. Yet Sarah prayed about dating Kristine and believed God was answering her need for companionship. Ten years later, two colleagues invited Sarah to help their church in a professional capacity, and she started to have spiritual conversations with them and also with their pastor, since each of them showed great respect for her thinking and her experiences. Gradually Sarah became a member of a large, welcoming church. Soon after Kristine also started following Jesus, she became uncomfortable with the nature of their relationship, and they stopped being lovers. Now describing themselves as “spiritual friends” who have been together for decades, Sarah and Kristine gratefully experience the powerful presence of the Holy Spirit in their lives. The two are heavily involved in local ministry, and Sarah is a longtime deacon in the church.</p>	<p>60 대의 백인 사라*는 캠퍼스 사역을 통해 대학시절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30 대 중반에 크리스틴을 만났을 때 그녀는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이전의 성경 공부와 기도의 영적 훈련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크리스틴과 데이트하는 것에 대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동반자를 원하는 그녀의 필요에 대답하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10 년이 지나 두 명의 동료와 그들의 교회에 필요가 있어 사라를 전문가 자격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명이 모두 사라의 생각과 경험에 굉장한 존중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라는 그들과 그 교회 목사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사라는 어느 규모가 크고 그들을 환영하는 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크리스틴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들 관계의 특성으로 인해 그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하여 그 둘은 연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수 십 년간 함께 있었던 “영적 친구” 로 그들 관계를 묘사하며 이제 사라와 크리스틴은 그들 삶 가운데의 성령의 능력 있는 임재를 감사로 경험합니다. 두 사람은 지역 사역에 깊이 관여하며 사라는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p>

<p>Raised in the church, medical student Angela* (white) initially told no one about her two-year relationship with a woman. When her lover left her, she was bitterly angry and despairing of her future. At the same time, Angela began to feel drawn to walk closely with God. She threw herself into a Christian community and changed the kind of movies she watched and the music she listened to. Afterward she told a new Christian friend that focusing on spiritual things and friendships with deep Christians had freed her to make a completely new start and to follow Jesus. In medical practice later, she married a man and had children while continuing to develop strong, nonsexual friendships with women and other men.</p>	<p>교회에서 자란 의대생 안젤라* (백인)는 처음에 아무에게도 여자와의 2 년동안 이어진 관계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애인이 그녀를 떠났을 때, 그녀는 비통하게 분노했고 그녀의 미래에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안젤라는 하나님과 가까이 걷는 삶에 이끌리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기독교인 공동체에 자신을 던져 그녀가 보아왔던 영화를 바꾸고 들어왔던 음악의 종류를 바꾸었습니다. 그 후 안젤라는 그녀의 새로운 기독교인 친구에게 영적인 것에 집중하고 신앙심이 깊은 기독교인들과의 우정에 집중하는 것이 그녀를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의사가 되어 안젤라는 계속해서 끈끈하면서도 성적이지만 않은 우정관계를 여자들 및 남자들과 세워가는 한편 한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고 있습니다.</p>
<p><i>C. A word to church members who are attracted to the same sex</i></p>	<p>C. 동성에 매력을 느끼는 교인에게 대한 권면</p>
<p>1. Undeserved shame</p>	<p>1. 억울한 수치심</p>
<p>God wants to release you from the shame that you do not deserve. You have been chided or scorned for being different from others around you. You carry a burden of shame because many in the church equate your longings with sin. Know that your sexual attractions do not make you sinful any more than your temptations to pride, selfishness, or idolatry make you sinful. Take comfort in the fact that Jesus knows your struggles, since he himself was tempted in all ways as we are yet was without sin (Heb. 4:14-16). Some of us find ourselves naturally inclined toward gluttony or to slander but, unless we act on those impulses, we are not sinning. Scripture makes clear</p>	<p>하나님은 억울한 수치심으로부터 여러분이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책망과 멸시를 받아왔습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열망을 죄와 동일시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수치심의 짐을 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성적 끌림이 여러분이 오만, 이기심, 우상숭배에 대해 유혹을 느껴 죄를 짓게 되는 것보다 더 여러분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님을 아십시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와 같이 모든 면에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힘겨움을 아신다는 사실에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히 4:14-16). 우리 중 몇몇은 탐식 혹은 남에 대한 비방으로</p>

that God wants to take away our shame and give us dignity.	자연스럽게 기우는 자신을 발견하지만 우리가 그런 충동으로 행동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자존감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 Identity	2. 정체성
<p>a. We are all made in the image of God, so, to God, you have great worth and value just as you are. You are not less female if you are not interested in the same things as most other women are. You are not less male if you don't fit into the traditional boxes that contemporary culture wants to put you in. You are called to imitate Christ—not the culture's ideas of masculinity or femininity. Jesus himself was both gentle and strong, humble and bold, submissive and a leader. Your maleness or femaleness depends not on any human ideas of how you should act but on the biological reality of how God has created you.</p>	<p>a.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굉장한 가치를 가졌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여자들처럼 똑같은 것에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여자이기에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현대의 문화가 여러분을 집어넣기 원하는 전통적 상자에 여러분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남자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부르심을 받았지 남성성 혹은 여성성이라는 문화적 개념대로 살라고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겸손하면서도 담대했으며 순종적이면서도 리더이셨습니다. 여러분의 남성성 혹은 여성성은 어떻게 여러분이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인간의 생각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생물학적 현실에 달린 것입니다.</p>
<p>b. Once you chose to love and follow Jesus, you became a child of God. As a child of God, you are also part of a family who are all forgiven sinners. Whatever the sins are that you leave behind, in this community your new identity is as one of the sanctified: "That is what some of you were [the greedy, sexual sinners, drunkards, thieves, slanderers, swindlers]. But you were washed, you were sanctified, you were justified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by the Spirit of our God" (1 Cor. 6:11).</p>	<p>b.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로 선택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은 또한 모두 용서받은 죄인들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남기고 온 죄가 무엇이든지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은 성화된 사람인 것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탐욕을 부리는 자, 음행하는 자, 술 취하는 자, 도적,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주</p>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전 6:11).
3. Minister to others	3. 타인에 대한 사명
<p>God has given you spiritual gifts and the ability to serve other people. Get involved in ministry teams or initiatives in areas that interest you. Allow God to use what you have suffered to make you more compassionate to others and also to seek justice for people who are oppressed in various ways. Pray regularly with and for the people in your home, your church, and in the communities around you.</p>	<p>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영적 은사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사역팀에 들어가거나 여러분이 관심있는 영역을 주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겪었던 고통의 경험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로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의를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여러분 주변의 공동체들의 사람들과 함께 또 그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하십시오.</p>
4. Community of Jesus followers	4.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
a. Find a local church that values you and equips you for ministry.	a.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사역할 수 있도록 구비시키는 지역교회를 찾으십시오.
b. Seek out other godly Christians with whom you can have deep spiritual friendships, supporting each other daily in prayer and in common interests.	b. 매일 기도로 서로 돕고 공통의 관심사로 지지하는 등 여러분이 깊은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경건한 기독교인들을 찾으십시오
c. Explore the wider community of believers who support each other in following Jesus through community-wide ministries, blogs, websites, and books (see suggested resources below).	c. 공동체 전체의 사역, 블로그, 웹사이트, 책 등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서로를 지지하는 신자들의 보다 넓은 공동체를 탐색하십시오.
5. Power over temptation and sinful patterns	5. 죄에 대한 유혹과 죄악의 패턴을 이기는 능력

<p>a. You are free. In common with every believer, your guilt and shame are taken away by the cross. But in the cross Christ also “disarmed the rulers and authorities . . . triumphing over them” (Col. 2:15, NRSV). This means that with the presence and power of Christ you have power over any lifelong patterns of bitterness, lust, rage, or other sins. Most longtime Jesus-followers also describe a lessening of the power of their same-sex attraction as they seek holiness, although it is unusual for an attraction to the same sex to completely disappear. Some also find themselves sexually attracted to an opposite-sex friend who knows their deepest struggles and joys, and they are able to marry.</p>	<p>a.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다른 모든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죄책감과 수치심은 십자가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또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 2:15). 이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으로 여러분은 평생 반복되는 쓴 뿌리, 탐심, 증오 혹은 기타 죄악들을 이길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동성에 대한 끌림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흔치 않다 할지라도 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대부분의 신자들 또한 그들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동성에 덜 끌린다고 말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또한 그들의 깊은 고통과 기쁨을 아는 이성 친구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여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도 합니다.</p>
<p>b. You are being made new.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ho lives in you, the old sinful self will be transformed, but it is a process. “His divine power has given us everything needed for life and godliness” (2 Pet. 1:3). God promises that one day you will be like Jesus, but it will take work and prayer. Since the Bible cautions us that nourishing evil desires leads to sin (James 1:13-16), that looking lustfully at another person is sin (Matt. 5:28), and that we must abstain from sinful desires (1 Pet. 2:11), we must be careful to avoid situations and environments that might lead to the sins that so easily entangle us (Heb. 12:1).</p>	<p>b.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옛 죄된 자아가 변화될 것이지만 여러분은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벧후 1:3). 하나님은 언젠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과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악한 욕망을 키우는 것이 죄가 되고 (약 1:13-16), 다른 사람을 음욕을 품고 보는 것이 죄가 되고 (마 5:28), 우리가 죄악의 욕망을 피해야 한다고 (벧전 2:11) 주의를 주기 때문에 우리를 죄 짓게 하여 손쉽게 몰아 매게 하는 상황과 환경을 피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히 12:1).</p>
<p>c. You are not alone. Jesus is <i>Immanuel</i>, which means “God with us” (Matt. 1:23). Jesus lives up to this name as he promises,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Matt. 28:20, NIV). So you are not alone, but Jesus is always with you. What’s more, Jesus</p>	<p>c.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 1:23)를 의미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약속하신대로 그 이름 대로 살아내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20). 그러므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p>

has experienced what you are going through, so he is able “to empathize with our weaknesses. . . . Let us then approach God’s throne of grace with confidence, so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us in our time of need” (Heb. 4:14-16).	예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 4:14-16).
6. Intimate relationships	6. 친밀한 관계
Although many North American adults live alone, the full life Jesus offers is a <i>communal</i> life. From monastic and Christian communities, both ancient and contemporary, we learn that living with others can provide deeply meaningful human connections, allow us to serve others in practical ways, and challenge our natural tendency to selfishness.	비록 북미의 많은 성인들이 혼자 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온전한 삶은 공동체적 삶입니다. 수도원에서부터 기독교인 공동체까지, 고대 및 현대 모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사는 것이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의 본능적인 이기적 경향에 도전을 주는 등 인간들이 연결 되는 삶이 깊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배웁니다.
a. Community houses	a. 공동 주거
Some Christians may choose to buy or rent living space with shared space for cooking, eating, and socializing. Others may choose to live as singles and couples or families together in one large house, often with the intent to care for each other while also serving their neighborhoods. ²⁰⁸ If neither your congregation nor a neighboring church already has such households, consider raising these housing possibilities with other singles or married couples. <i>Caution:</i> Accountability and support from a church or believers outside your household will be essential to help when communication difficulties arise or if community members experience sexual attraction to each other.	몇몇 기독교인들은 요리, 식사, 교제를 위한 공동 공간이 있는 주거지를 사거나 세를 들어 사는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기독교인들은 이웃들을 섬기면서 서로 돌보기 위해서 독신으로, 커플로 혹은 가족으로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²⁰⁸ 여러분의 교회 혹은 이웃 교회 중 어느 곳에도 그러한 가구들이 없다면 다른 독신 혹은 결혼한 부부들과 함께 이러한 가구를 형성하는 가능성을 고려해 보십시오. 주의사항: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나 공동체 멤버가 서로에게 성적 매력을 경험한다든지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분 가정 밖의 교회나 신자들로부터 책임과 지지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²⁰⁸ gcbchurch.ca/blog/new-monasticism-an-old-idea-in-a-new-form

<p>Patrick,* a single, white Christian who is attracted to men shares a house with Rose, Eric, and their infant daughter, who are Chinese Canadians. Although Patrick had always wanted to raise his own children, he has found great joy in being loved by this baby—and later by two other siblings who join her. Patrick eats meals together with the family several days a week and also feels comfortable inviting his friends and some of his neighbors to join them. Sometimes Patrick has long conversations with Rose, while at other times he hangs out with Eric. For their part, Rose and Eric benefit greatly from Patrick’s presence and help; they find that another adult in the house makes things in their hectic family life run more smoothly. At times Patrick finds himself longing for his own spouse, yet he derives great satisfaction in being intimately involved in the lives of this young family.</p>	<p>동성에 매력을 느끼는 패트릭*은 미혼의 백인 기독교인으로 중국계 캐나다인 가족인 로즈, 에릭 부부와 그들의 신생아 딸과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비록 패트릭은 항상 자신의 자녀를 기르고 싶었지만 이 아기와 이후에 태어난 두 명의 아기로부터 사랑받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패트릭은 이 가족과 한 주에 며칠은 함께 밥을 먹었고 자신의 친구들과 다른 이웃들도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는 것이 편했습니다. 때때로 패트릭은 에릭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로즈와 긴 대화도 나눕니다. 로즈와 에릭의 입장에서 패트릭이 있어 주는 것과 그가 도와주는 것에서 큰 유익을 누립니다. 그들은 어른 한 명이 더 있는 것이 정신없는 가족의 삶을 좀 더 부드럽게 돌아가게 해 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끔씩 패트릭도 자신의 배우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이 젊은 가족의 삶에 친밀하게 연결되어 사는 삶에서 큰 만족을 느낍니다.</p>
<p>b. Living with another Christ-follower of the same sex²⁰⁹</p>	<p>b. 동성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과의 동거²⁰⁹</p>
<p>Some Christians who are committed to holiness report that by living in a nonsexual relationship with another believer of the same sex, they are actually freer from sexual temptation than when living alone, even if they could potentially find their housemate sexually attractive. This might seem dangerous or counterintuitive to some people. Yet virtually all believers struggle with sexual temptation at times, no matter their attraction or</p>	<p>거룩한 삶에 헌신된 몇몇 기독교인들은 다른 동성의 신자와 함께 성적이지 않은 관계로 살 때 혼자 사는 것보다 성적 유혹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물론 잠재적으로 동거인에 대해 성적으로 매력을 느끼게 될 수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이런 삶이 몇몇 사람들에게는 위험하거나 직관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모든 신자들이 그들의 매력의 대상이나 생활 여건에</p>

²⁰⁹ Note: Not all committee members affirm the possibility of the living arrangement envisioned in this paragraph on the grounds that Christ-followers are exhorted to resist temptation (James 4:7) and that such a housing situation may cause other believers to stumble (Rom. 14).

They would consider instances of such a living arrangement permissible only with the prior agreement of a counseling pastor and the knowledge of the local community of faith who can hold the relevant persons accountable.

<p>living situation. And many single believers living alone find that loneliness triggers temptation toward sexual sin via porn use, hook-ups, or other ungodly relationships. In contrast, the ordinary daily interaction of meals, chores, and prayers with a fellow Christ-follower can be a healthy way to meet the basic deep-rooted need for intimacy that all humans share. If the two persons share a desire to follow Jesus, they can support each other and can also use their home in hospitable ministry to others. <i>Caution:</i> If you know that the person you would live with is also attracted to the same sex, honesty with yourself and with that person concerning your intentions for the relationship will be essential. In that case, other believers who know the status of your relationship and are holding you accountable will also be important in helping your living relationship to be healthy.</p>	<p>관계없이 때때로 성적 유혹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많은 미혼의 신자들은 혼자 살다보면 외로움이 포르노 사용, 즉석 성관계를 하는 만남 혹은 다른 경건하지 않은 관계에 빠지는 등 성적인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한다고 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기독교인과의 식사, 집안 일, 기도를 함께 하는 일상적인 매일의 관계는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내면 깊은 곳에 갖는 친밀함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건강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을 나눈다면 그들은 서로를 도우며 그들의 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환대의 사역을 하는 곳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여러분이 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도 동성에 끌리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이 관계에 대한 여러분의 의도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과 상대방에게 솔직한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의 관계의 상태를 알고 여러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아는 다른 신자들도 여러분과 상대방 간의 관계가 건강하도록 돕는 데 있어 중요할 것입니다.</p>
<p>[12th-century Cistercian abbot] Aelred of Rievaulx's little treatise <u>On Spiritual Friendship</u> . . . helped me to see that, although Christian discipleship is costly, it need not be lonely. Our culture has become very fixated on sex, but sex and romance are not the same as love. Nor is Christian love the same as the kind of casual friendship that is common in our culture (Facebook informs me that I currently have 554 "friends"). . . . Aelred helped me to see that obedience to Christ offered more to me than just the denial of sex and romance. Christ-centered chaste friendships offered a positive and fulfilling—albeit at times challenging—path to holiness.</p>	<p>[12 세기 시토수도회의 수도사] 리보의 앨레드의 저서 영적 우정론은... 비록 기독교인의 제자도에는 기회 비용이 크지만 그 길이 외로움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 문화는 성관계에 매우 고정되어 있지만 성관계와 로맨스가 사랑과 같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사랑이 우리 문화에 흔한 가벼운 우정과 같은 것도 아닙니다 (페이스북은 저에게 현재 554 명의 "친구"가 있다고 알려줍니다)...앨레드는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 성관계와 로맨스를 단지 거절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다고 깨닫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순결한 우정은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거룩함으로 가는 긍정적이고 보람된 길을 제공해 줍니다.</p>
<p>(Posted by Ron Belgau at spiritualfriendship.org/2012/08/29/spiritual-friendship-in-300-words)</p>	<p>(Posted by Ron Belgau at spiritualfriendship.org/2012/08/29/spiritual-friendship-in-300-words)</p>

c. Marriage to an opposite-sex partner	c. 이성 파트너와의 결혼
<p>Some Christians who are attracted exclusively to the same sex and who long for sexual intimacy and the blessing of children pray that God will allow them to be drawn to a partner of the opposite sex. They then find themselves sexually attracted to an opposite-sex friend who knows their deepest struggles and joys, and they are able to get married. Many men and women in such marriages continue to experience regular attraction toward members of the same sex, but the fact that they continue to face temptation is hardly unique. Like all faithful Christians, they are able to resist these temptations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Caution:</i> It is essential that a person is completely honest with their potential spouse about their sexual attractions. If they are not, their partner will inevitably feel deeply betrayed. In addition, honesty is essential if they are to find the support and accountability they need. Realistic expectations are likewise crucial. Anyone considering such a marriage should be aware that this relationship is unlikely to remove a person's same-sex desires, although it may diminish them. Sometimes a spouse may reveal that they are attracted to the same sex after they are already married. This may cause feelings of hurt and betrayal, and the couple will need a high level of pastoral support, counseling, and prayer.</p>	<p>동성에게만 끌리고 성적 친밀감을 열망하고 자녀의 축복을 받기 바라는 몇몇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성에 끌리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깊은 고통과 기쁨을 아는 이성친구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이성과 결혼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남자와 여자들은 그러한 결혼 생활에서 계속해서 동성 교인들에 대한 유혹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유혹을 느낀다는 사실은 그다지 특이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앙심이 깊은 기독교인들처럼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유혹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주의: 그들의 잠재적 배우자에게 자신의 성적 끌림에 대해 완전히 솔직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그들의 배우자는 깊은 배신감을 느끼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에게 필요한 지지와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정직은 필수적입니다. 현실적인 기대 역시 마찬가지로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결혼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관계가 한 사람의 동성애 욕구를 줄일 수는 있어도 제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이미 결혼한 후에 배우자가 동성에 끌린다는 것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처와 배신감을 유발하게 되고 이 부부에게는 고강도의 목양적 지지와 상담, 기도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p>
<p>A radical feminist living in a lesbian community house, Suzanne,* white and in her twenties, met some Christian activists of various ethnic backgrounds and started hanging out with their Christian friends. Although she</p>	<p>레즈비언 공동주택에서 사는 급진적 페미니스트 수잔느*는 20 대의 백인이며 다양한 인종적 배경의 기독교인 활동가들을 만나고 그들의 기독교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기</p>

<p>gently mocked those who were attracted to the same sex for not having lesbian lovers, encouraging them to “live freely and fully,” she appreciated their companionship. Some years later, she wrote to ask the pastor of that Christian community to officiate at her wedding to a man and to renew her interest in the Jesus Way.</p>	<p>시작했습니다. 비록 그녀는 동성에 끌리면서도 레즈비언 애인을 두지 않는 친구들에게 “자유롭고 보람되게” 살라고 살짝 핀잔을 주긴 했지만 수잔느는 그들의 동료애를 좋게 보았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기독교 공동체의 한 목사에게 그녀의 남자와의 결혼식 주례를 해달라고 부탁했으며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녀의 흥미를 새롭게 하였습니다.</p>
<p>Breaking up a two-year relationship with a man because he couldn't reconcile it with his love for Jesus and the Bible's teaching, David,* white and in his late twenties, went to seminary and gradually began to date some women. Always honest with these women about his sexual desire for men, David had some good relationships, but none led to marriage. Over the years, especially when traveling alone, David sometimes has experienced deep longings for a romantic relationship with a man. In the meantime, however, he has become a dynamic and beloved leader of growing new Christian communities. David's union with Christ has deepened as he has sought the constant presence of the Holy Spirit through sung worship, meditating on Scripture, and intercessory, healing prayer for new believers and nonbelievers. Sometimes sharing space with other single men, and sometimes living alone, David is a sought-after companion by many because of his warmth and genuine love for others.</p>	<p>예수님의 사랑과 성경의 가르침과 도저히 조화를 이룰 수 없어서 한 남자와의 2 년간의 연인 관계를 끝내고 20 대 백인인 데이빗*은 신학교에 진학했고 몇몇의 여자와 만남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에 대한 그의 성적 욕망에 대해서 언제나 만나는 여자들에게 정직했고 데이빗은 좋은 관계를 이어갔지만 결혼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수 년 동안 특히 혼자 여행을 할 때면 데이빗은 남자와의 로맨틱한 관계에 대한 깊은 열망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그는 성장하는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의 역동적이고 사랑받는 리더가 되어 갔습니다. 데이빗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찬양예배, 성경묵상, 새신자 및 불신자들과의 중보기도, 치유기도를 통해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를 구하면서 깊어져 갔습니다. 때때로 다른 미혼 남자들과 공간을 공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 살기도 하면서 데이빗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그의 따뜻하고 진실된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p>
<p><i>D. Selected resources</i></p>	<p>이 부분은 한국 사역팀의 결정에 따라 번역되지 않았습니다.</p>
<p>1. Books</p>	
<p>Allberry, Sam. <i>Why Does God Care Who I Sleep With?</i> (Purcellville, Va.: The Good Book Company, 2020).</p>	

Burk, Denny. <i>What Is the Meaning of Sex?</i> (Wheaton, Ill.: Crossway, 2013).	
Butterfield, Rosaria. <i>Secret Thoughts of an Unlikely Convert: An English Professor's Journey into Christian Faith</i> (Pittsburgh, Pa.: Crown and Covenant Publications, 2012).	
DeYoung, Kevin. <i>What Does the Bible Really Teach about Homosexuality?</i> (Wheaton, Ill.: Crossway, 2015).	
Forston, S. Donald, and Rollin G. Grams. <i>Unchanging Witness: The Consistent Christian Teaching on Homosexuality in Scriptures and Tradition</i> (Nashville, Tenn.: B&H Academic, 2016).	
Gagnon, Robert A. <i>The Bible and Homosexual Practice: Texts and Hermeneutics</i> (Nashville, Tenn.: Abingdon, 2001).	
Grenz, Stanley J. <i>Welcoming but Not Affirming: An Evangelical Response to Homosexuality</i>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8).	
Hill, Wesley. <i>Washed and Waiting: Reflections on Christian Faithfulness and Homosexuality</i> , revised ed. (Grand Rapids, Mich.: Zondervan, 2011).	
Hirsch, Deborah. <i>Redeeming Sex: Naked Conversations about Sexuality and Spirituality</i>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2015).	
Shaw, Ed. <i>Same-Sex Attraction and the Church: The Surprising Plausibility of the Celibate Life</i>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2015).	
Sprinkle, Preston. <i>People to Be Loved: Why Homosexuality Is Not Just an Issue</i> (Grand Rapids, Mich.: Zondervan, 2015).	
2. Websites and blogs	

Pastoral letter from Rev. David Beelen, “A Letter to Madison Church: Same-Sex Attraction” (madisonsquarechurch.org/wp-content/uploads/2015/10/15.10.28-Letter-from-Pastor-Dave.pdf).	
A Queer Calling (aqueercalling.com) features the journey of a self-described queer Christian couple committed to sexual abstinence.	
Center for Faith, Sexuality, and Gender (centerforfaith.com) provides articles and other help for Christians to engage questions about faith, sexuality and gender.	
Hole in My Heart Ministries (himhministries.com) features Laurie Krieg, a same-sex attracted woman who ultimately married a man and started both a family and a ministry focused on teaching the church how to approach sexuality with the gospel.	
Living Out (livingout.org) involves gay Christians talking about homosexuality from a biblical perspective. Includes stories, resources, and questions.	
Spiritual Friendship (spiritualfriendship.org) features the writings of several gay Christians committed to celibacy and others who hold a historically orthodox view of sexuality.	
3. Videos	
Sam Allberry, “You Are Not Your Sexuality,” youtube.com/watch?v=WnI2Vr4UIA4&feature=youtu.be	
Deborah Hirsch, “Redeeming Sexuality,” youtube.com/watch?v=Jb96CCg5e50	

XIV. Reflections on singleness, premarital sex and cohabitation, polyamory, and divorce	이 부분은 한국 사역팀의 결정에 따라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As part of our mandate, we have been asked to “provide concise yet clear ethical guidance for what constitutes a holy and healthy Christian sexual life, and in light of this to serve the church with pastoral, ecclesial, and missional guidance that explains how the gospel provides redemptive affirmation and hope for those experiencing sexual questioning, temptation, and sin.” In preceding sections of this report we have summarized biblical teaching on sexuality and addressed the issues of pornography, gender identity, and homosexuality in substantial detail. In this section we offer some reflections on other matters of concern to the church: sex and singleness, polyamory, and divorce. We are aware that our study and discussion of these matters is less thorough than with those other issues. However, because these additional matters are so important to a balanced assessment of sexuality and the Christian life, we believe it is important to offer at least some guidance in these areas.	
<i>A. Singleness</i>	
According to the 2017 report of the U. S. Census Bureau, about 50 percent of all American adults are unmarried. Millennials are the most likely to be single, with close to 59 percent of millennials unmarried. This is partly the result of young people delaying the age at which they marry. The average age of marriage for a male in 2017 was 30, and for women it was 28, an increase of about five years for men and six years for women since 1980. But	

<p>being single is not necessarily a factor of age. About 45 percent of persons 65 and older are single.</p>	
<p>For a large part of church history, especially the first few centuries, unmarried persons were held in high honor. To encourage and validate singleness, leading church figures such as Ambrose, Gregory of Nyssa, and John Chrysostom invoked Jesus' words about marriage after the resurrection (Matt. 22:29-32), his praise for people who become eunuchs for the sake of the kingdom (Matt. 19:12), and Paul's encouragement and validation of singleness (1 Cor. 7:25-35). Drawing specifically on 1 Corinthians 7, the early church recognized that people who are married will have divided interests with respect to the Lord. By contrast, single people are less restricted by "the affairs of this world" and are free to pursue "the Lord's affairs" (1 Cor. 7:32-34).</p>	
<p>Endorsing celibacy (the Latin word <i>caelibatus</i> literally means "unmarried state" or "singleness") in the early centuries of the church was radically countercultural. Marriage was not considered optional. Young men and women were expected to do their duties to their families and to society by marrying young, raising children, and establishing a prosperous household. For women in particular, life often consisted of marriage during a girl's teenage years, a decade or two of producing many children, and often death in childbirth. Whereas many Christians today experience singleness as a burden, many in the early church experienced it as liberation. Women and men who did not marry were free from a plethora of social constraints to pursue the cause of the kingdom of</p>	

<p>God. They encouraged it as “an entire way of life . . . that is open to <i>any</i> who seek it.”²¹⁰</p>	
<p>Sexual desire is a healthy and normal part of being human. Scripture teaches that we have been created for relationship with God and other humans. One mark of this capacity for relationship is the desire for intimacy with others. Sexual intimacy is just one form of this. The Oxford English online dictionary defines intimacy as “the state of having a close personal relationship with someone.” Intimacy is present in many different types of relationships, including among friends and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 sisters and brothers, and a husband and wife. On the other hand, although all of these relationships may involve intimacy, intimacy is not necessarily a component of any of them.</p>	
<p>Just as emotional intimacy need not include sexual intimacy, so sexual intimacy is often present without emotional intimacy. In fact, the irony of our time is that despite an amazing level of connectedness, particularly through social media, and despite widespread permissive attitudes toward sexuality, loneliness is reported to be at epidemic levels.²¹¹ One recent study even claims that “loneliness is a prevalent and urgent public health issue.”²¹² In 2018 Prime Minister Theresa May of the United Kingdom declared loneliness to be one of the great health issues of our time, even going so far as to appoint a Minister of Loneliness to help address the problem.²¹³</p>	

²¹⁰ Kathryn Wehr, “Virginity, Singleness, and Celibacy: Late Fourth Century and Recent Evangelical Visions of Unmarried Christians,” *Theology and Sexuality* 17.1 (2011), p. 78.

²¹¹ Report of the U.S. Census Bureau, 2017.

²¹² “The Loneliness Epidemic”, hrsa.gov/enews/past-issues/2019/january-17/loneliness-epidemic, accessed 9-19-19.

²¹³ gov.uk/government/news/pm-launches-governments-first-loneliness-strategy, accessed 9-19-19.

Many single adults are lonely. At the heart of this loneliness is not simply a desire for casual friendship, a handshake on Sunday morning, or participation in a “singles group” at church. Rather, singles, like all people, desire deep and lasting intimacy with other humans. Wesley Hill, a celibate gay Christian, writes,	
The love of God is better than any human love. Yes, that’s true, but that doesn’t change the fact that I feel – in the deepest parts of who I am – that I am wired for human love. . . . And the longing isn’t mainly for sex (since sex with a woman seems impossible at this point); it is mainly for the day-to-day, small kind of intimacy where you wake up next to a person you pledged your life to, and then you brush your teeth together, you read a book in the same room without necessarily talking to each other, you share each other’s small joys and heartaches. ²¹⁴	
Hill notes that as human beings we desperately need “love, affection, companionship, permanent intimacy, life-giving community, a deep sense of belonging, a safe haven, a home.” ²¹⁵ Unfulfilled, these longings are like a gaping wound and terribly painful.	
Part of the problem, Hill argues, is that the church has come to emphasize marriage and family rather than friendship as the most significant relationships in people’s lives. Single people’s need for intimacy is almost completely ignored. Further, even many married people are lonely. While there is nothing wrong with celebrating marriages, families, and all that goes with them, the church	

²¹⁴ Wesley Hill, *Washed and Waiting: Reflections on Christian Faithfulness and Homosexuality*, (Grand Rapids, Mich.: Zondervan, 2010), p. 105.

²¹⁵ Ibid., p. 92.

<p>also needs to find ways to foster friendship and intimacy outside of marriage and family. Hill himself has written extensively about what he calls “spiritual friendship.”²¹⁶</p>	
<p>Hill’s point is well taken. All too often our friendships are limited to the members of our families or to people with whom we have common interests and hobbies. They exclude people who are not our age, gender, or socioeconomic status. Yet it is through friendship that we most often find genuine intimacy with one another. Friendship leads us to take responsibility for one another, bearing each other’s burdens and encouraging, exhorting, challenging, and rebuking one another to seek what is good. If, as Christians, we are not ultimately created for marriage but for friendship in the family of God, how is it that we have come to emphasize marriage and family more than the friendship to which all of us are called?</p>	
<p>According to Christian teaching, to be an unmarried follower of Jesus is to be called to celibacy regardless of age.²¹⁷ Sexual relationships outside of marriage, whether casual or committed, are immoral. Celibate singleness is often difficult; it can be very difficult to accept and is often a call that materializes over time. Kathryn Wehr observes that over a period of years a person might gradually move from rejecting the call, to reluctantly accepting it, to accepting it with joy.²¹⁸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for many people the call to lifelong marriage is difficult as well, albeit in different ways.</p>	

²¹⁶ See Wesley Hill, *Spiritual Friendship: Finding Love in the Church as a Celibate Gay Christian* (Grand Rapids, Mich.: Brazos, 2015).

²¹⁷ This is not just a problem for the young; many senior adults are choosing not to marry for financial reasons.

²¹⁸ Wehr, p. 88.

<p>There are a number of things the church must do to help single people who are committed to honoring God with their bodies. We should recognize that our overemphasis on marriage and family has been hurtful and exclusive. We can focus not just on creation but also on resurrection, as Mary Hulst puts it, “rejecting the Gnostic notion that we can do what we want with our bodies because they are dust, and instead embrace that we will do what God wants with our bodies because they are his.”²¹⁹ We can encourage singles to base their sexuality not on a potential future mate, but on their “present relationship to God.”²²⁰ In addition, we can preach about sex and include in our pastoral prayers those who are struggling with loneliness and sexual temptations of various kinds. We can preach about celibacy and singleness, holding up Jesus and the apostle Paul as examples for Christians to follow. We can welcome those who struggle and fail by making clear that grace happens in the church.²²¹ We can say to the singles in our church, “We see you, single people, and we know how challenging it is to follow Jesus in your sexuality, and we know that our emphasis on families and the idolatry of marriage has hurt you. Your singleness matters to God, and it matters to your church.”²²²</p>	
<p>One way the church can offer helpful teaching in the area of sex and singleness is to approach it as a matter of</p>	

²¹⁹ Mary Hulst, “Belong,” a presentation at Inspire 2019, a binational gathering of ministry leaders in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held in Windsor, Ont., Aug. 1-3, 2019; soundcloud.com/crcna/inspire-2019-2019-08-01-mary-hulst; accessed, 8-21-20.

²²⁰ Ibid.

²²¹ Ibid.

²²² Ibid. These are just a few of the ideas that Hulst presents.

<p>virtue. Virtue ethics focus on habits that enable a person to flourish in accord with his or her created purpose. The emphasis does not fall on rules but on practices and dispositions.²²³ The virtuous life is characterized by struggle, for it takes discipline to put vices to death and to turn new practices into virtuous habits. But this struggle to stay morally on target can be, as one author puts it “a sign of health—the growing pains of character.”²²⁴ When the new practices do become habitual, they bring joy. They enable a person to flourish in a way that honors the creator.</p>	
<p>In the area of sex and singleness the most important virtue is that of chastity. To practice chastity is to live out one’s sexuality in a way that conforms to God’s created purpose for human beings as male and female, whether married or single. Practicing chastity is characterized by seeking the flourishing of the persons with whom we are in relationships, the health of these relationships, and the honor and glory of God, who has created us for such relationships. As DeYoung puts it, “Proper use and enjoyment of our sexual nature should track the way sexual desire and its fulfillment can enhance our relationships with God and each other.”²²⁵ This leads us to refuse to objectify other people or treat them as means to the end of our own sexual satisfaction. Simon notes: “Chastity, as a virtue, is not just the ability to ‘do without sex’ for weeks or months. More importantly, it keeps our</p>	

²²³ For a more complete description of virtues, see DeYoung, pp. 14-18.

²²⁴ Caroline J. Simon, *Bringing Sex into Focus: The Quest for Sexual Integrity* (Downer’s Grove, Ill.: IVP, 2012), p. 73.

²²⁵ DeYoung, p. 163.

sexual desires from making us view others as collections of sexually arousing body parts.” ²²⁶	
<p>The vice of lust, in contrast to chastity, makes sex primarily about me and my pleasure, rather than about God and my neighbor. “In lust, my own pleasure is the goal, and I decide where to get it, and when, and with whom,” DeYoung writes.²²⁷ Lust is powerful because it is deceptive. It feels right. We often confuse it for love. Yet it is never loving to enter into a sexual relationship that is outside of the will of God. Such a relationship can never lead to genuine flourishing, even if for a time it feels like it does. Thus unchaste sexual activity—sexual activity that exhibits the vice of lust—includes such things as any sexual behavior prohibited by Scripture, living together in a sexual relationship outside the covenant commitment of marriage, having sexual partners outside of the marriage covenant, use of any form of pornography, prostitution, going to sexually charged environments like strip clubs, fantasizing about sex with persons to whom one is not married, and the list goes on. “Lust is always in pursuit and ends as empty-handed as it began.”²²⁸ It does not ultimately satisfy, and it often causes tremendous harm by alienating a person from God or from other people, destroying relationships, even at times provoking a person to commit sexual violence or other abusive behavior. It can also lead to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and infections, as well as psychological, emotional, and spiritual harm.</p>	

²²⁶ Simon, p. 76. For a more complete description of the virtue of chastity, see Simon, pp. 71-79.

²²⁷ DeYoung, p. 167.

²²⁸ Henry Fairlie, *The Seven Deadly Sins Today* (Notre Dame, Ind.: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5), p. 179.

<p>The virtue of chastity involves both married and single persons. Sex, as God designed it, is both psychologically and biologically good and purposeful. The penultimate ends of sex are, first, bonding two people into a one-flesh union, and, second, creating new life, something symbolized in the birth of children, in whom what God has joined together literally cannot be separated.²²⁹ In other words, sex is potentially both unitive and procreative. The effects of original sin as well as our own actual sin can thwart those potentials. Though marriage is not a guarantee of perfect intimacy, sexual or relational, sex in its proper context and directed toward its intended purpose is a wonderful gift.</p>	
<p>Given that our society emphasizes sexual intimacy as the truest form of intimacy, it is no wonder that so many people feel that they have to have sex in order to have intimacy. But genuine intimacy need not take sexual expression. As a church, we need to reflect much more on how we can encourage and support one another to establish deeper friendships. Single and married people alike should be taught to invest in friendships with one another that are both chaste and intimate. Christians who are mature and who have mature friendships with other Christians should be held up as examples from whom the rest of us can learn. God has called us his friends. We need to learn to be friends with one another.</p>	
<p><i>B. Premarital sex and cohabitation</i></p>	

²²⁹ DeYoung, p. 164.

<p>In contemporary North American culture, where casual sex is commonplace and premarital sex is assumed to be part of a dating relationship, most younger people considering marriage are already sexually involved and would not consider marrying without first living together. Cohabitation is seen as a first step of commitment—a move toward faithfulness and a stable shared life. Analysis of national surveys indicates that while many choose to marry before they have children, permanent cohabitation with no plans for marriage is increasingly the norm.²³⁰</p>	
<p>While a slim majority of black Protestants, as well as most white evangelicals, still believe that people should not live together unless they plan to marry, both serial monogamy in dating relationships and cohabitation have become the norm in the church.²³¹ Recent research reveals that virtually all never-married members of conservative denominations have had premarital sex, and most with several partners.²³² Many Christians plan to marry eventually but cite financial concerns as their reason to postpone marriage (until they can afford a wedding, provide for children, afford a house, etc.). Some avoid a legal marriage altogether so as not to lose tax benefits they currently rely on in retirement. Others use the time living together as a couple to assess their potential spouse's sexual and relational compatibility and general reliability. Still others express uncertainty about their own readiness for marriage but desire daily intimacy to combat loneliness.</p>	

²³⁰ Pew Research Center, "Marriage and Cohabitation in the United States," Nov. 5, 2019; pewsocialtrends.org/2019/11/06/marriage-and-cohabitation-in-the-u-s/psdt_11-06-19_cohabitation-00-010

²³¹ Ibid.

²³² David J. Ayers, *Christian Marriage: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Bellingham, Wash.: Lexham Press, 2018), p. 68. See also Ayers's review of General Social Surveys 2014-2018, ifstudies.org/blog/sex-and-the-single-evangelical.

Pastors report hearing, from adults of all ages, such comments and questions as “Why can’t we make a life commitment without getting married?” “My parents don’t want me to get serious with anyone until I’m through grad school and am financially stable.” “I know adultery is wrong, and I would never cheat on a spouse, but where does the Bible teach that premarital sex is wrong?”	
So does the Bible address sex without benefit of marriage?	
The Old Testament forbids adultery, incest, and sex between people of the same sex, making it clear that only sexual activity within the context of marriage pleases God. Thus, when a man seduced an unbetrothed woman, he was required to marry her, and if the father refused to let the man marry her, he was still required to pay the dowry price (Ex. 22:16-17). On the other hand, the Hebrew Scriptures celebrate the joys of married sex, beginning with the intimate and exclusive bond it produces, “That is why a man leaves his mother and his father and is united with his wife, and they become one flesh” (Gen. 2:24). It suggests the lifelong pleasure it can provide: “May you rejoice in the wife of your youth. . . . May her breasts satisfy you always, may you ever be intoxicated with her love” (Prov. 5:18-19). The sexually explicit love poem Song of Songs also makes clear that sexual intimacy and commitment go hand in hand. The woman exhorts her potential lover: “Place me like a seal over your heart, like a seal on your arm; for love is as strong as death, its jealousy unyielding as the grave. It burns like blazing fire, like a mighty flame” (Song of Songs 8:6-7).	

<p>Jewish tradition has always explicitly forbidden extramarital sex,²³³ considering marriage itself to be holy. Emerging from that context, Jesus and the New Testament writers speak even more directly, both to encourage sex in marriage and to condemn all sex outside of marriage as immorality. Jesus reiterates the Creator's intention for sexual partnerships to be enduring and monogamous when he references the one-flesh union of Genesis 2 and adds, "So they are no longer two, but one flesh. Therefore what God has joined together, let no one separate" (Matt. 19:6).</p>	
<p>Similarly the writer of Hebrews tells us, "Marriage should be honored by all, and the marriage bed kept pure, for God will judge the adulterer and all the sexually immoral" (Heb. 13:4). Paul also specifically delineates marriage as the site for all sexual expression in his first letter to the Corinthians: "Since sexual immorality is occurring, each man should have sexual relations with his own wife, and each woman with her own husband" (1 Cor. 7:2). Paul even tells both husbands and wives that they have a marital duty to have sex with each other and should not deprive their partner (7:5). Though Paul recommends the celibate life that he himself lives, and he exhorts believers to control their own bodies (1 Thess. 4:3-5), he does command single believers to marry if they cannot control themselves (1 Cor. 7:9). In each of those texts, and many others in the New Testament, the Greek word</p>	

²³³ Michael J. Broyde and Michael Ausubel, eds., *Marriage, Sex, and Family in Judaism*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2005), p. 96.

<p><i>porneia</i>, usually translated as “fornication” or “immorality,” refers to all sexual activity outside of marriage.</p>	
<p>The biblical writers acknowledge our physical and emotional longings for sexual intimacy. But whether we are single or married, we are called to use our bodies for God instead of immorality. We are called to seek to please the God who cherishes us. “Do you not know that your bodies are temples of the Holy Spirit, who is in you . . . ? You are not your own; you were bought with a price. Therefore, honor God with your bodies” (1 Cor. 6:19-20; see also Gal. 5:17-26; Eph. 5:3-20; 1 Pet. 4:1-7; 1 John 2:3-4). The God to whom we belong, and who has freed us from sin, makes it possible to walk in holiness,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living in us. “Walk by the Spirit, and you will not gratify the desires of the flesh [sinful nature]” (Gal. 5:16). “Live as children of light” and “be filled with the Spirit” (Eph. 5:8, 18).</p>	
<p>In short, the Bible teaches that sex unites a man and woman in body, soul, and spirit; that this good gift belongs in marriage and only in marriage; and that being born again by the Spirit makes holiness and joy outside of marriage possible.</p>	
<p>Whether in dating relationships, hook-ups, or cohabitation, premarital sex is perhaps the most common sinful sexual practice in the contemporary church. Mores have so changed, even within the church, that some parents support its practice by allowing adult children and partners to save money for a house or a wedding by living together with them. And the practice is not confined to the young. Older divorced or widowed people, now</p>	

accustomed to sexual intimacy, choose to have sex with their dating partners, even if they were not sexually active before their original marriage. Yet even while most single church members, as well as those who live together, now have sex outside of marriage, the church has done little to address it pastorally.	
Elders and other mature Christians should disciple people who are sexually active outside of marriage into the freedom of life in the Spirit. Jesus' encounter with a Samaritan woman at a well in John 4 is a good model of such pastoral care. Jesus began building a relationship through respectful dialogue, responding to the woman's questions. He then gently confronted her sinfulness without shaming her. Finally, Jesus offered her grace. He invited her to a new life in which her deepest needs would be met in relationship with God. Her reaction was to run, leaving her water jar, back to her village to share the good news about her life-giving interaction with Jesus.	
In the same way, loving Christians can help fellow believers to discern whether or not they want to be in a committed relationship with someone with whom they are sexually involved, and if they do, to work toward discovering ways to remove financial, family, or other obstacles to marriage. If they decide they are not ready for marriage, it's important to help them understand the boundaries God has put around sex, explaining what it means to follow Jesus and inviting them to be filled with the powerful Spirit who will lead them and draw them into intimacy with Jesus, the living water (John 4:10).	
<i>C. Polyamory</i>	

<p>Sarah*²³⁴ found herself attracted to her co-worker, Robert. At first she resisted her feelings and his rather obvious flirtations because she knew that he was married to Jill. After a Christmas work party, however, she gave in to her desires and started an ongoing, intimate relationship with Robert. This went on for three months until Robert unexpectedly invited Sarah to move in with him and his wife. Sarah's immediate reaction was to reject the idea. But not wanting to break off her newfound relationship with Robert, she gave him—and polyamory—a shot. She reasoned to herself: "I love him and really believe that he loves me. If parents can love more than one child, is it really crazy to believe that a great guy like Robert can love me even while he still loves his wife? Plus, now our relationship will be in the open, and I won't have to feel so guilty about hiding things from Jill."</p>	
<p>Sam* and Becky,* both white, had been married for two years. Each grew up in a Christian home and considered themselves to be Christians, even though they only infrequently attended a local church. One of Sam's good friends, Justin, who was single, started spending more and more time at Sam and Becky's place and found himself increasingly attracted to his friend's wife. Becky reacted positively to the advances of Justin but did not want to begin a secret relationship with him behind her husband's back. She and Justin instead shared their true feelings with Sam and asked him to consider polyamory, in which Justin would be added to their marriage relationship as a significant other. Sam ultimately agreed to this</p>	

²³⁴*Names and minor details of the account have been changed.

<p>proposal. When Christian friends of Sam and Becky learned about this new relationship, they could not help voicing their concern and objections. Sam and Becky, however, pushed back, arguing that their situation did not really qualify as adultery since everything was in the open and all three persons involved agreed to this relationship. Further, they argued, polygamy was practiced by many Old Testament heroes of the faith, and, as far as they could tell, they couldn't find any explicit rejection of these relationships in the New Testament.</p>	
<p>Consensual nonmonogamy (CNM), or what is more commonly called polyamory (from the Greek <i>poly</i>, meaning “many” and the Latin <i>-amory</i>, meaning “love”), refers to a mutually agreed-upon sexual relationship between three or more people. (The first verifiable use of the word <i>polyamory</i>, according to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occurred in 1992.) Some of these relationships are called “vees” (from the letter <i>v</i>), since they involve three people, one of whom is involved sexually with the other two, while the other two are not intimate with each other. This is slightly different from “triads,” which involve three people, all of whom are sexually involved with each other. Another type of these consensual nonmonogamous relationships is a “quad,” which involves four people, typically two couples who have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each other.</p>	
<p>Within these different types of polyamorous relationships there are varying degrees of commitment and exclusivity. Some polyamorous relationships are explicit in identifying one sexual partner as “primary” and others as “secondary.” Other relationships do not make such</p>	

<p>distinctions among their members. Most of these polyamorous relationships expect the different members to be sexually active only with the members of their relationship. Other relationships do not have this restriction. The biggest feature that all polyamorous relationships have in common is a commitment to openness and honesty. The partners insist on being open and honest with each other about expectations and about the setting of ground rules with which everyone agrees.</p>	
<p>Polyamory may sound strange and puzzling to many people. Nevertheless, polyamorous relationships are quickly becoming more common, not only in the broader culture but even among some Christians. It is hard to obtain definitive numbers because the phenomenon of polyamory is relatively new, and so far there have been few studies involving large sample groups. Yet the studies that exist show a range of 3-5 percent of people in North America currently living in a consensual nonmonogamous relationship. They suggest that 12-20 percent of Americans have been in some kind of open sexual relationship at some point in the past.²³⁵ Sociologist Mark Regnerus has claimed that 24 percent of people who identify themselves as Christians believe that polyamorous relationships are morally permissible,²³⁶ although he subsequently qualified this claim by saying that only 6</p>	

²³⁵ See M. L. Hauptert, Amanda N. Gesselman, Amy C. Moors, Helen E. Fisher, and Justin R. Garcia, "Prevalence of Experiences with Consensual Nonmonogamous Relationships: Findings from Two National Samples of Single Americans,"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43.5 (2017), pp. 424-40; Heather Smith, "National Survey

Reveals Generational Differences in Consensual Nonmonogamy," *Institute for Family Studies* (Sept. 11, 2019).

²³⁶ Mark Regnerus, *Cheap Sex: The Transformation of Men, Marriage, and Monogam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 186.

percent of Evangelicals and 19 percent of Catholics consider polyamorous relationships to be acceptable. ²³⁷	
A variety of different arguments have been forwarded by people who identify themselves as Christians to defend the practice of polyamory. What follows below is a survey and evaluation of the most commonly used of these arguments. ²³⁸	
1. Old Testament polygamy	
The most common argument used to justify polyamorous relationships involves an appeal to the numerous instances of polygamy in the Old Testament. Many of the Old Testament heroes of faith had more than one wife: Abraham, Jacob, Gideon, Saul, David, and Solomon. In fact, over forty key individuals in the Old Testament were married to more than one woman. Since so many persons in the Old Testament were in nonmonogamous relationships, it is claimed, similar consensual nonmonogamous relationships should be permitted today.	
There are two main responses to this argument. The first involves distinguishing what is “descriptive” in the Bible—the report of something that happened—from what is “prescriptive” in the Bible—the positive or negative judgment about what happened. The fact that many Old	

²³⁷ Mark Regnerus, “How the Rise in Unreligious Americans Affects Sex and Marriage: Comparative Evidence from New Survey Data”; thepublicdiscourse.com/2019/08/55179.

²³⁸ The following section draws heavily from the excellent review of biblical arguments for polyamory by Branson Parler, “The Bible, Polyamory, and Monogamy,” available from The Center for Faith, Sexuality, and Gender (centerforfaith.com).

<p>Testament figures took multiple wives is <i>descriptive</i>. There is nothing in the Bible, however, that indicates that polygamy is good and acceptable and ought to be practiced. In other words, these examples are not prescriptive. In fact, in the case of many Old Testament figures the Bible describes the pain, division, and strife that emerged within these polygamous relationships, thereby implying significant disapproval.</p>	
<p>The second and more important response to the appeal to Old Testament polygamy as a justification of modern polyamory is that the rest of Scripture makes clear that God's intention is for sex to take place only in a marriage relationship between one man and one woman. This divine intent is revealed in the creation account of Genesis 1-2, in which God provides Adam with <i>one</i> other person. It is confirmed in the New Testament in Jesus' double citation of this creation account: "'Haven't you read,' he replied, 'that at the beginning the Creator "made them male and female" [Gen. 1:27], and said, "For this reason a man wi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be united to his wife, and the two will become one flesh" [Gen. 2:24]?"' (Matt. 19:4-5). God's expectation that marriage be between one man and one woman is assumed in Paul's exhortation to husbands and wives in Ephesians 5:21-33. His extended discussion concerning marriage in 1 Corinthians 7 asserts that each man should have his own wife (not wives) and each woman her own husband (not husbands).</p>	
<p>2. Certain Old Testament laws</p>	

<p>The second argument for polyamory is an extension of the first one. Proponents of polyamory sometimes claim that the laws of Deuteronomy 17:17 and Deuteronomy 21:15-17 show that God accepted polygamy. In a similar way, it is argued, God also accepts nonmonogamous relationships like that of polyamory. Deuteronomy 17:17 requires that the king of Israel “must not take many wives, or his heart will be led astray.” This command seems to prohibit marrying an excessive amount of wives, but that leaves open the possibility of marrying a few wives. Deuteronomy 21:15-17 deals with the inheritance rights of the oldest son in a family in which the father has sons from two different wives.</p>	
<p>It is true that neither of these Old Testament laws prohibits polygamy, but it is also true that neither one sanctions the practice. Such laws ought to be viewed as the regulations of sinful practices that God tolerated due to the hardness of human hearts. Here the parallel with divorce is helpful. Jesus makes clear that the Old Testament law permitting divorce did not reflect God’s will for the permanence of marriage but, rather, was a divine concession: “Moses permitted you to divorce your wives because your hearts were hard. But it was not this way from the beginning. I tell you that anyone who divorces his wife, except for sexual immorality, and marries another woman commits adultery” (Matt. 19:8-9).</p>	
<p>Although God allowed divorce and regulated it through Old Testament laws, that did not mean such divorce was in accord with his will. Divorce was tolerated under the old covenant, but the new covenant reaffirms the creational requirement of lifelong fidelity between a</p>	

husband and wife. In a similar way, although God tolerated polygamy and regulated it through Old Testament laws, this was not his original intent for marriage; nor is it in accord with his will.	
3. Certain New Testament commands	
There are a few occasions in the New Testament where the apostle Paul commands that an elder must be “the husband of one wife” (1 Tim. 3:2; Titus 1:6, RSV) and that a deacon must be the “the husband of one wife” (1 Tim. 3:12). Some claim that, since Paul had to issue a special law against polygamy among those in leadership positions, this implies that the Old Testament toleration of polygamy remained in place in the New Testament church.	
The key phrase in all these three texts, however, is capable of several different meanings. The phrase, which literally reads “a man of one woman,” can mean that an elder and deacon must either (1) be married rather than single, (2) be monogamous rather than polygamous, or (3) be faithful in his marriage. The first option is not likely, given Paul’s strong commendation of singleness (1 Cor. 7:7-8; 7:38) as well as his own single state (1 Cor. 9:1). The second option is also not likely. The exact same phrase occurs in 1 Tim. 5:9 but refers to “a woman of one man.” Here polygamy cannot be in view, since there are no examples in the ancient world of a woman having more than one husband. The meaning of the key phrase, then,	

is most likely the third option—namely, the need to be faithful in one’s marriage. ²³⁹	
Even if the phrase were a reference to polygamy, however, that would not mean Paul intended to lay down a requirement that applies only to church leaders and not to all believers.	
4. Divine relationships	
Another argument used to justify polyamory involves an appeal to divine relationships, including (1) the relationship that the members of the Trinity—Father, Son, and Holy Spirit—have with each other, and (2)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his people. Chuck McKnight, who self-identifies as a “progressive Christian,” argues that “God is not in any sense monogamous” and tries to prove this point by appealing to three things: the Trinity, God’s relationship with Israel, and Christ’s relationship with the church. ²⁴⁰	
McKnight appeals to the Trinity as the most intimate and loving relationship imaginable, shared equally and eternally between three divine persons. But although Christians ought to model the unity of the Trinity (John 17), there is no indication in Scripture that the relationship among the divine persons is intended as the paradigm for human sexual relationships.	

²³⁹ See George W. Knight III, *Commentary on the Pastoral Epistles* (Grand Rapids, Mich.: Eerdmans, 1992), pp. 156-59.

²⁴⁰ Chuck McKnight, “Is God Polyamorous?” (Oct. 2, 2017); patheos.com/blogs/hippieheretic/2017/10/is-god-polyamorous.html

<p>McKnight also appeals to two Old Testament texts in which God is portrayed as having more than one wife. Jeremiah 3 describes God as being married to both the southern kingdom of Judah and her sister,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Ezekiel 23 portrays both Jerusalem and Samaria as God's two adulterous wives. When these two texts are compared to the testimony of Scripture as a whole, however, it is clear that Judah and Israel (and their capital cities, Jerusalem and Samaria) are both part of the one people of God. They were not supposed to be divided. Further, the language of marriage and adultery in these texts is used metaphorically, not literally. There is no justification for concluding, as McKnight does, that these two texts "portray God as polygamous," and there is even less justification for inferring from these texts that consensual nonmonogamous relationships mirror God's relationship with his people.</p>	
<p>Finally, McKnight also appeal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 and the church as described in terms of a marriage relationship in Ephesians 5. He wonders how the marriage between Christ and the church ought to be understood in the light of God's previous marriages, as he calls them, to Israel, Judah, Jerusalem, and Samaria. He also stresses that although the church is a single, corporate whole, "God has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each and every one of us. Christ's marriage to the church is ultimately a marriage to billions of individuals." This leads him to conclude that "polyamory does at least provide a more-accurate picture of God's relationships than monogamy."</p>	

<p>The logic of this reasoning is extremely dubious. First, we are once again dealing with a metaphor, so it would be dangerous to conclude too much from this image about actual marriage relationships. Second, the metaphor identifies the bride of Christ not with each individual believer but as the collective body of believers. The bride is the church. Third, Paul quotes Genesis 2:24 in the middle of this metaphor (Eph. 5:31), thereby stressing that marriage is a relationship between one man and one woman.</p>	
<p>5. “Born this way”</p>	
<p>A more common argument used by proponents of polyamory appeals to biology. This argument claims that some people have a sexual orientation that makes them predisposed against monogamy and gives them an innate desire for sexual relationships with more than one person. For people with such a polyamorous orientation, monogamy is unnatural. Nonmonogamy is not just something that they <i>do</i>. It is who they <i>are</i>. The argument that polyamory should be legally recognized as a sexual orientation has even appeared in a peer-reviewed law journal.²⁴¹</p>	
<p>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re is no evidence for the claim that polyamory is a biologically rooted sexual orientation. Yet even if it could be proven that polyamory is a genetically caused sexual orientation, it would not logically follow that consensual nonmonogamy is morally</p>	

²⁴¹ Ann E. Tweedy, “Polyamory as a Sexual Orientation,” *University of Cincinnati Law Review* 79 (2011), pp. 1461-1515.

permissible for Christians. As we noted in our discussion of homosexuality, people are born with all kinds of biologically caused proclivities and desires that Scripture identifies as sinful. As disciples of Jesus, we are called to overcome these inclinations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D. Divorce</i>	
In Matthew 19:8-9 (NIV) Jesus declares, “Moses permitted you to divorce your wives because your hearts were hard. But it was not this way from the beginning. I tell you that anyone who divorces his wife, except for sexual immorality, and marries another woman commits adultery.” Since breaking the marriage covenant is sin and given the high divorce rate, the church must act more intentionally to call married partners to reconciliation and renewed commitment to the marriage covenant.	
Synod 1980 of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received a study report on divorce and remarriage. The authors of that report provided a thorough study of scriptural teaching on the topic. They concluded by calling the church to “reaffirm the general biblical principle that divorce and remarriage constitute adultery” (<i>Acts of Synod 1980</i> , p. 484).	
The 1980 report also included guidelines to do the following:	
Deal pastorally with those who have failed to keep the biblical principle by	
- Refraining from a strictly legal approach to remarriage that tries to provide a basis for judgment that certain categories of	

remarriage are always compatible or incompatible with the teachings of Scripture.	
- Seeking to bring persons contemplating remarriage to a genuine awareness of what is involved in the covenant of marriage. The teaching of Scripture concerning marriage, grace, love, loyalty, vows, forgiveness, hope, and promise should be openly discussed.	
- Calling persons contemplating remarriage to an examination of their intentions in the light of the biblical teaching concerning reconciliation with the former spouse, the possibility of the single life, and remarriage.	
- Counseling firmly and compassionately against any remarriage that conflicts with the biblical teaching concerning marriage and divorce.	
- Exercising formal discipline when persons in hardness of heart refuse to heed the admonitions of the consistory and do not acknowledge and repent of their sins involved in divorce and remarriage.	
(Acts of Synod 1980, pp. 484-85)	
Despite the 1980 report's emphasis on the "general biblical principle that divorce and remarriage constitute adultery," divorce and remarriage have become widespread in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As a committee, we therefore call upon the church to recover the teaching of that report and to hold one another accountable to practicing the teachings of Jesus on divorce and remarriage.	
E. Selected resources	
1. Books	
De Young, Rebecca Konyndyk. <i>Glittering Vices: A New Look at the Seven Deadly Sins and Their Remedies</i> (Grand Rapids, Mich.: Brazos, 2009).	

Fairlie, Henry. <i>The Seven Deadly Sins Today</i> ,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5).	
Hill, Wesley. <i>Washed and Waiting: Reflections on Christian Faithfulness and Homosexuality</i> (Grand Rapids, Mich.: Zondervan, 2010).	
Lasgaard, Mathias, Karina Friis, and Mark Shevlin. "Where Are All the Lonely People? A Population-Based Study of High-Risk Groups across the Life Span," <i>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i> 51 (2016), pp. 1373–84.	
Simon, Caroline J. <i>Bringing Sex into Focus: The Quest for Sexual Integrity</i> (Downer's Grove, Ill.: IVP, 2012).	
Smit, Laura A. <i>Loves Me, Loves Me Not: The Ethics of Unrequited Love</i> (Grand Rapids, Mich.: Baker Academic, 2005).	
Wehr, Kathryn. "Virginity, Singleness, and Celibacy: Late Fourth-Century and Recent Evangelical Visions of Unmarried Christians" in <i>Theology and Sexuality</i> 17, no. 1 (2011), pp. 75-99.	
2. Internet	
Mary Hulst, "Belong," soundcloud.com/crcna/inspire-2019-2019-08-01-mary-hulst; accessed 10-1-19.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The Loneliness Epidemic," hrsa.gov/enews/past-issues/2019/january-17/loneliness-epidemic, accessed 9-19-19.	
"PM Launches Government's First Loneliness Strategy," gov.uk/government/news/pm-launches-governments-first-loneliness-strategy, accessed 9-19-19.	
3. Extended bibliography	

Clark, Elizabeth A. "The Celibate Bridegroom and His Virginal Brides: Metaphor and the Marriage of Jesus in Early Christian Ascetic Exegesis," <i>Church History</i> 77.1 (March 2008), pp. 1-25.	
Colón, Christine A., and Bonnie E. Field. <i>Singled Out: Why Celibacy Must Be Reinvented in Today's Church</i> (Grand Rapids, Mich.: Brazos Press, 2009).	
DeYoung, Rebecca Konyndyk. <i>Glittering Vices: A New Look at the Seven Deadly Sins and Their Remedies</i> (Grand Rapids, Mich.: Brazos, 2009).	
Dunylak, Barry. <i>Redeeming Singleness: How the Storyline of Scripture Affirms the Single Life</i> , (Wheaton, Ill.: Crossway, 2010).	
Fairlie, Henry. <i>The Seven Deadly Sins Today</i>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5).	
Geiger, A. W., and Gretchen Livingston. "8 Facts about Love and Marriage in America," in <i>FactTank: News in the Numbers</i> ; pewresearch.org/fact-tank/2019/02/13/8-facts-about-love-and-marriage , accessed 8-8-19.	
Henderson, Verna E. F. "Gender, Generation and Virginitiy in Cappadocian Theology," <i>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i> 47.1 (April 1996), pp. 38-68.	
Hill, Wesley. <i>Washed and Waiting: Reflections on Christian Faithfulness and Homosexuality</i> (Grand Rapids, Mich.: Zondervan, 2010).	
Hulst, Mary, "Belong," soundcloud.com/crcna/inspire-2019-2019-08-01-mary-hulst , accessed 10-1-19.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The Loneliness Epidemic," hrsa.gov/enews/past-issues/2019/january-17/loneliness-epidemic , accessed 9-19-19.	

Kidder, Annemarie S. <i>Women, Celibacy, and the Church: Toward a Theology of the Single Life</i> (New York: Crossroad, 2003).	
McNamara, Jo Ann. <i>A New Song: Celibate Women in the First Three Christian Centuries</i> (New York: Harrington Park Press, 1985).	
Maxwell, Paul. "The Single Person's Good Desire for Sex" at <i>For the Church</i> , ftc.co/resource-library/blog-entries/the-single-persons-good-desire-for-sex (Aug. 19, 2015).	
Regnerus, Mark, and Jeremy Uecker. <i>Premarital Sex in America: How Young Americans Meet, Mate, and Think about Marrying</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M Launches Government's First Loneliness Strategy," gov.uk/government/news/pm-launches-governments-first-loneliness-strategy , accessed 9-19-19.	
Simon, Caroline J. <i>Bringing Sex into Focus: The Quest for Sexual Integrity</i> (Downer's Grove, Ill.: IVP, 2012).	
Smit, Laura. <i>Loves Me, Love Me Not: The Ethics of Unrequited Love</i> (Grand Rapids, Mich.: Baker Academic, 2005).	
Wehr, Kathryn. "Virginity, Singleness, and Celibacy: Late Fourth-Century and Recent Evangelical Visions of Unmarried Christians" in <i>Theology and Sexuality</i> 17, no. 1 (2011), pp. 75-99.	
Wang, Wendy. "The State of Our Unions" at ifstudies.org/blog/the-state-of-our-unions-marriage-up-among-older-americans-down-among-the-younger , accessed 8-9-19.	
Winner, Lauren. <i>Real Sex: The Naked Truth about Chastity</i> (Grand Rapids, Mich.: Brazos Press, 2005).	
XV. Sexual desire: Bodies, bonding, and boundaries in the Song of Songs	이 부분은 한국 사역팀의 결정에 따라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p>Inspired by a loving Creator who made us male and female in his image, the Song of Songs evokes the intensity, longings, delights, and pleasures of sexual love. Enduring centuries of scholarly debates about its authorship, its interpretation, and its primary value as a metaphor for God's relationship with his covenant people or as a vivid picture of human love, the Song of Songs remains a vivid and exuberant piece of sexual love poetry. In an era of incessant media depictions of unrestrained lust, contrasted by segments of the Christian church, which speak mostly negatively—or not at all—about sexuality, the Song of Songs celebrates the beauty of bodies and the boundaries of sexual love. This erotic love poem is centrally located among the books of the Christian Bible, and for the following reasons the church would be wise to give it a central place in our understanding of the Creator's intent for sexual intimacy.</p>	
<p>A. <i>Song of Songs helps us recover a theology of the body rooted in creation and resurrection theology</i></p>	
<p>"I believe in . . .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we confess with the global and historical church. Jesus, who "is the firstborn from among the dead" (Col. 1:18) is God become human. The mysterious incarnation dignifies our humanity because the Creator is now also a creature. Created in God's image, male and female, we are not just embodied souls but physical beings who will live forever in glorified bodies. Somehow in our very fleshiness we image God. Through the apostle Paul, God also tells us, "Your bodies are temples of the Holy Spirit, who is in you. . . . Therefore honor God with your bodies" (1 Cor. 6:19-20),</p>	

and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pleasing to God—this is your true and proper worship” (Rom. 12:1).	
The capacity for sexual desire is a gift from God. However, the church sometimes lapses into a form of the heresy of Gnosticism, believing that the material world is evil and the sexual act is itself shameful—or, more simply, that the soul is more valuable than the body and therefore sexuality is not spiritual. Unfortunately the church has also been deeply influenced by Augustine, who believed that all passion was lust, even within marriage. Indeed, like other powerful desires such as hunger, sexual desire can easily lead us into sin.	
But the Song of Songs unabashedly celebrates the physical nature of sexual love. God designed our bodies to be stimulated and aroused by the touch of the beloved other (“Let him kiss me with the kisses of his mouth—for your love is more delightful than wine”—1:2), as well by the aroma (“Awake, north wind . . . ! Blow on my garden, that its fragrance may spread everywhere”—4:12), tastes (“his fruit is sweet to my taste”—2:3), and sight of that desirable body (“You are altogether beautiful, my darling; there is no flaw in you”—4:7). An entire biblical book devoted to sexual love, Song of Songs is neither crude nor degrading because it portrays sex as a gift from God for the joy and intimacy of material beings.	
Thus the Song of Songs can free us from shame in our bodily desires and teach us to savor the act of love with joy and gratitude. The striking physicality of the Song of Songs can also remind the whole church of the hunger	

those of us without the privilege of sexual touch are likely to have for casual affectionate touches from others with whom we feel comfortable, as well as “greetings with a holy kiss” and supportive hugs.	
<i>B. The poem addresses the intense longing we feel for a beloved when we are apart</i>	
“I am faint with love. His left arm is under my head, and his right arm embraces me” (2:5-6). How much we might sacrifice or endure in order to be in the same physical space with a lover. “I looked for him but did not find him. I will get up now and go about the city. . . . I will search for the one my heart loves” (3:1-2).	
This intensity of desire holds up a mirror to human nature and reminds the church of the longings of all of those who are not in sexual relationships but wish they were. Whether it be the longing of unrequited love or for a lover who never appears, the loss of sexual love by those who are divorced or widowed, or the longing of those who have chosen celibacy. The church can become willing to talk candidly about the physical remedy of masturbation people often choose as well as the ways to cultivate and support deep emotional intimacy within the church among sisters and brothers in the family of God.	이 부분은 한국 사역팀의 결정에 따라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i>C. The song focuses on the uniqueness and value of the beloved one</i>	
Repeatedly we hear the woman and the man refer to each other as “my beloved” and “my love.” “You have stolen my heart . . .” the man cries. “How delightful is your	

love" (4:9,10). "When I found the one my heart loves . . ." the woman remembers, "I held him and would not let him go till I had brought him to my mother's house" (3:4).	
As it did in the ancient world, Song of Songs confronts the common idea that sex is about self-pleasure and meeting our own needs. Instead the poetry shows the lovers actually seeing and valuing each other. Although every aspect of their physical bodies is accentuated in loving detail, neither man nor woman is objectified; instead, they are described in terms of love and eagerness for being bonded.	
<i>D. This poetry highlights equity between female and male lovers</i>	
The allure, physical virtues, and sexual beauty of both the woman and the man are extolled. The song is written in the woman's voice at least as often as the man's and shows a degree of male-female equality that brings us back to Genesis 1:26-31 before the fall into sin and anticipates Jesus' treatment of women and Paul's strikingly identical teaching about sexuality to women and men in 1 Corinthians 7.	
In addition, the woman chooses to give of herself. She is not given. "Let my beloved come to his garden, and eat its choicest fruits," she says (4:16). (See 4:1-5:1.) In this way the Song of Songs challenges the contemporary commodification of the (usually female) body as well as the connection our culture has made between sex and conquest or domination.	

<p>The woman demonstrates the giving of oneself, not being taken and not being bought (8:7-14). Sexual intimacy will not be coerced or forced. She declares, “If one were to give all the wealth of his house for love, it would be utterly scorned” (8:7). Instead “my own vineyard is mine to give,” she says (8:12). It is not for Solomon to buy with his money or to take. But to the one she loves and longs for, she calls, “Come away, my beloved.”</p>	
<i>E. Exclusivity of sexual love</i>	
<p>Contemporary culture shouts about the pleasures of sex, frequently without any reference to being in a permanently committed context. In contrast, the Song of Songs teaches us to celebrate the sensuality of human sexual love without licentiousness.</p>	
<p>By demonstrating a woman’s openness to a man with the unashamed sharing of her naked self, we are reminded of how wonderfully such vulnerability builds trust. “Let my beloved come into his garden, and taste its choice fruits” (4:16). When we know we are loved and cherished, we dare to offer more of ourselves. When we risk such openness and are not rebuffed but received with appreciation, the fruit is increased confidence in the relationship.</p>	
<p>This is why the poem warns us against sexual love without commitment. “Do not arouse or awaken love until it so desires” (3:5). Instead the woman calls for a covenantal relationship. “Place me as a seal over your heart, like a seal on your arm” (8:6) And if you would be my lover, you must always be my lover, she implies, for “love is as strong</p>	

<p>as death, its jealousy unyielding as the grave. It burns like blazing fire, like a mighty flame” (8:6). This alerts us to the potential that strong emotions like jealousy and perhaps violence could be evoked if we enter into physical intimacy with someone and then betray their love, whether it is by physical adultery or abandonment, adultery of the heart through porn, or simply not following through into permanent public commitment. The Song of Songs enables us to see that the boundaries around love give us freedom.</p>	
<p><i>F. In the Song, God sings the intensity of God’s love for us</i></p>	
<p>Across history the church has viewed the poem in two ways: “as a double love story: vertical and horizontal; divine and human.”²⁴² Elsewhere Scripture also compares the relationship of God and God’s people to lovers, spouses, affianced couples. These examples highlight the exclusivity of our relationship with God. In the same way, the Song of Songs affirms that this covenant of love precludes our having any other gods because God is a jealous God.</p>	
<p>The Song’s fleshly example of sexual delight also enables us to understand just how intimate God wants to be with us. As the Song of Song’s lovers long for each other, so God longs for deep connection with his people together as well as with each one of us. (See also “deep calls to deep”—Ps. 42:7.) Moreover, just as the Bible tells us we are God’s inheritance and God is ours, so the Song</p>	

²⁴² Peter Kreeft, *Three Philosophies of Life* (San Francisco, Calif.: Ignatius, 1989), p. 100.

of Songs assures us, “I am my beloved’s and my beloved is mine” (6:3). As the woman seeks out her beloved, so God seeks us out when we become distant. We can be vulnerable with God, bare ourselves to God, knowing that this Lover delights in us fully. And, of course, this metaphor is also our reality. The children of God are God’s Beloved. Jesus actually is the Bridegroom who is preparing the Bride for the consummation of our love when he returns. “Let him lead me to the banquet hall, and let his banner over me be love” (2:4).	
XVI. Confessional status	이 부분은 한국 사역팀의 결정에 따라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Our committee has been asked to evaluate “whether or not, with respect to same sex behavior and other issues identified in the study, it will be advisable for future synods to consider . . . declaring a <i>status confessionis</i> ” (<i>Acts of Synod 2016</i> , p. 920). This raises the question, What is a <i>status confessionis</i> ?	
Very simply, this Latin phrase means “confessional status.” To raise the question of confessional status is to wonder whether some teaching or ecclesiastical practice, if adopted, would violate the teachings of the confessions of the church. This is important because the teachings of the confessions are understood to represent biblical teaching on the matter in question.	
Confessional status can affect doctrines that are directly asserted in a creed, such as the two natures of Christ or, in the case of the Reformed confessions, the doctrine of providence. Confessional status can also extend to broader teachings that contradict the	

<p>confessions in some way. So one can raise the question about whether some stance on a moral or political issue, if accepted by the church, would constitute a violation of the teaching of the historic creeds and confessions of the church.</p>	
<p>Sometimes the church has to consider whether a particular teaching ought to have confessional status, even though it currently does not. For example, in 2012 the church was asked to consider adding the Belhar Confession to the list of historical documents to which all officebearers in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are bound. In 2017 the church decided that, while the issues addressed in this document are serious, the document itself does not rise to the level of a confession.</p>	
<p>Two considerations might push one to consider whether an issue should be raised to the level of a confessional teaching. First, one might ask whether the teaching in question violates a clear teaching of Scripture. Second, one could consider whether the issue involves the heart of the message of the gospel. For example, in the case of the Belhar Confession, the church's rejection of institutionalized racism in South Africa could be understood to have confessional status because it involves the heart of the message of the gospel of reconciliation. Alan Boesak suggested as much in 1982 when he asserted at the synod of the Dutch Reformed Mission Church of South Africa that apartheid was "anti-evangelical" because it takes "as its point of departure the irreconcilability of people of different race groups."²⁴³</p>	

²⁴³ See *The Acts and Proceedings of the 201st Regular Session of the General Synod of 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New York:

Reformed Church Press, 2007), p. 279; images.rca.org/docs/mgs/2007MGS-complete.pdf.

The CRC in the 1970s articulated several levels of authority of doctrinal and moral teaching:	
- Scripture	
- creed	
- confession	
- Church Order	
- synodical decision	
Other levels might include testimonies, decisions of a classis, and decisions of local congregations.	
Scripture is the first and final authority to which all other levels of authority are subservient. The ecumenical creeds are broad statements of faith that are adopted or affirmed by a large portion of the universal church. They address the basics of the Christian faith and identify the essential teachings of a Christian church. They succinctly articulate to the world what we as Christians believe to be true and indispensable to our faith.	
Confessions are statements that identify who we are within the larger body of the universal church. Thus, the Reformed confessions (in the case of the CRCNA, the Three Forms of Unity) identify this particular body of the church as Reformed and not, for example, Lutheran or Baptist, even though we share many things in common with these brothers and sisters.	
Part of the work of synod is to decide on the proper interpretation of Scripture on any given topic (abortion was one such topic). Synod is also charged with deciding	

whether the confessions accurately represent the teaching of Scripture. For example, in 1958 synod replaced several paragraphs in Belgic Confession Article 36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urch and the state. Sometimes synod is asked to consider whether the confessions represent other traditions or teachings fairly. For example, Synod 2006 chose to bracket Heidelberg Catechism Q&A 80, which misrepresented the teaching and practice of the Roman Catholic Church about the mass.	
Even if a teaching has confessional status, that does not mean there is no room for disagreement within the bounds of that teaching. In addition, the church sometimes allows for pastoral accommodations. For example, our confessions say that the children of believers should be baptized. Yet some congregations are willing to allow members not to baptize their children.	
If a teaching is declared to have confessional status, questions arise about what that means for those who sign the Covenant for Officebearers (CFO) in the CRCNA. Will those who have already signed it need to accept this new item as having confessional status? What happens if they don't? Will those who subsequently sign the CFO need to accept this new item?	
<i>A. The confessional status of church teaching on sexuality</i>	
To repeat the issue at hand, we have been asked to consider "whether or not, with respect to same-sex behavior and other issues identified in the study, it will be advisable for future synods to consider . . . declaring a	

<p><i>status confessionis</i>.” However, this raises the question, Does the church’s teaching that homosexual activity, as well as premarital sex, extramarital sex, adultery, pornography, and polyamory already have confessional status?</p>	
<p>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 question is not whether a particular <i>action</i> violates the confession but whether a particular <i>teaching</i> violates the confession. To put it another way, is it a violation of any of our current confessions to teach that it is acceptable for Christians to use pornography? Is it a violation of our confessions to teach that it is acceptable for Christians to engage in homosexual activity, extramarital sex, or adultery?</p>	
<p>Heidelberg Catechism Q&A 108, which explains the meaning of the seventh commandment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states that “God condemns all unchastity, and that therefore we should thoroughly detest it and live decent and chaste lives, within or outside of the holy state of marriage.” By the word “unchastity” the catechism intends to encompass all sexual immorality, including homosexual activity. 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acknowledged this in 2017, affirming that in the catechism “God condemns ‘all unchastity,’ which includes same-sex sexual activity.”²⁴⁴</p>	
<p>Ursinus, one of the authors of the Heidelberg Catechism, confirms this in his commentary on Q&A 108. He writes that the first class of lusts included in unchastity “are those which are contrary to nature and from the devil.</p>	

²⁴⁴ *The Acts and Proceedings of the 211th Regular Session of the General Synod of 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New York:

Reformed Church Press, 2017), p. 161; images.rca.org/docs/mgs/2017MGS-Complete.pdf.

<p>... The lusts of which the apostle Paul speaks in the first chapter of his Epistle to the Romans are of this class, as the confounding of sexes, [and] also abuses of the female sex.” He goes on to say that unchastity includes incest as well, even though this sin is not mentioned in the catechism by name.²⁴⁵ As a committee, we note that pornography, polyamory, and all forms of premarital and extramarital sex are also encompassed in the catechism’s condemnation of unchastity.</p>	
<p>It is also worth noting that the Belgic Confession affirms that church discipline is one of the essential marks of a true church. Article 29 declares that the true church “practices church discipline for correcting faults.” Heidelberg Catechism Q&A 81 declares that people “who are unrepentant” should not come to the Lord’s table lest they “eat and drink judgment on themselves.” For this reason, Q&A 82 adds, the church is required to “exclude such people, by the official use of the keys of the kingdom, until they reform their lives.”</p>	
<p>We conclude, then, that the church’s teaching against sexual immorality, including homosexual sex, <i>already</i> has confessional status. According to our confessions, the church may never approve or even tolerate any form of sexual immorality, including pornography, polyamory, premarital sex, extramarital sex, adultery, or homosexual sex. On the contrary, the church must warn its members that those who refuse to repent of these sins—as well as of idolatry, greed, and other such sins—will not inherit the</p>	

²⁴⁵ Zacharias Ursinus, *Commentary on the Heidelberg Catechism*, p. 1043; rcus.org/wp-content/uploads/2013/09/UrsinusZ_HC-Commentary-17-NEW-HC.pdf.

kingdom of God (1 Cor. 6:9-11). It must discipline those who refuse to repent of such sins for the sake of their souls (1 Cor. 5-6).	
As a committee, we also wrestled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the church's teaching on premarital sex, extramarital sex, adultery, polyamory, the use of pornography, or homosexual sex ought to have confessional status. We did so by asking two questions.	
First, does teaching that affirms such behavior violate the clear teaching of Scripture? The biblical portion of our report is clear. Marriage between one man and one woman is the only appropriate place for sex. Anything that deviates from that teaching is contrary to Scripture. Thus premarital sex, extramarital sex, adultery, polyamory, the use of pornography, and homosexual sex all fall under the heading of sexual immorality and are therefore morally impermissible. To teach that any of these behaviors is permissible undermines the teaching and authority of Scripture. Whenever the church teaches that a form of behavior forbidden in Scripture is morally permissible, it is guilty of false teaching.	
Second, does teaching that affirms premarital sex, extramarital sex, adultery, polyamory, the use of pornography, or homosexual sex involve the heart of the message of the gospel? At the heart of the gospel is the call to repentance and faith in Jesus Christ. Through the power of Christ's death and resurrection we receive the forgiveness of sins and the gift of righteousness.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e are enabled to practice this righteousness, putting our old sinful nature to death and	

<p>being conformed more and more into the image of Jesus. We are “washed . . . sanctified . . . [and] justified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by the Spirit of our God” (1 Cor. 6:11).</p>	
<p>This new life is characterized by ongoing repentance, a daily dying and rising with Christ. If the church chooses to call any form of immorality, including sexual immorality, permissible, it places a dangerous stumbling block in the path of our sanctification. Scripture repeatedly warns us against deceiving ourselves in this way, specifically naming the sins of homosexual sex, sexual immorality, and adultery. As Paul puts it in 1 Corinthians 6:9-10, “Do you not know that wrongdoers wi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Do not be deceived: Neither the sexually immoral nor idolaters nor adulterers nor men who have sex with men nor thieves nor the greedy nor drunkards nor slanderers nor swindlers will inherit the kingdom of God.”</p>	
<p>Likewise in Ephesians 5:5-7 he warns, “Of this you can be sure: No immoral, impure or greedy person—such a person is an idolater—has any inheritance in the kingdom of Christ and of God. Let no one deceive you with empty words, for because of such things God’s wrath comes on those who are disobedient. Therefore do not be partners with them.” In Galatians 5:19-21 he warns, “The acts of the flesh are obvious: sexual immorality, impurity and debauchery; idolatry and witchcraft; hatred, discord, jealousy, fits of rage, selfish ambition, dissensions, factions and envy; drunkenness, orgies, and the like. I warn you, as I did before, that those who live like this wi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p>	

<p>In fact, the New Testament repeatedly warns us that in the latter days false teachers will come who will deceive the people by telling them that they are free to practice various forms of sin, including sexual immorality. Jude 4 warns against “ungodly people, who pervert the grace of our God into a license for immorality.” In 2 Timothy 4:3 Paul also warns that “the time will come when people will not put up with sound doctrine. Instead, to suit their own desires, they will gather around them a great number of teachers to say what their itching ears want to hear.”</p>	
<p>The Old Testament similarly asserts that if a prophet does not warn the people of their sin, God will hold that prophet accountable for that sin. God declares to Ezekiel, “When I say to the wicked, ‘You wicked person, you will surely die,’ and you do not speak out to dissuade them from their ways, that wicked person will die for their sin, and I will hold you accountable for their blood” (Ezek. 33:8). As leaders of the church, we must take this warning seriously.</p>	
<p><i>B. Conclusion</i></p>	
<p>As a committee, we conclude, therefore, that <i>the church’s teaching on premarital sex, extramarital sex, adultery, polyamory, pornography, and homosexual sex already has confessional status</i>. As such, there is no need for a new declaration. We also conclude that this status is warranted because these sins threaten a person’s salvation. The Scriptures call the church to warn people to flee sexual immorality for the sake of their souls and to encourage them with God’s presence and power to equip them for holy living. A church that fails to call people to</p>	

repentance and offer them the hope of God's loving deliverance is acting like a false church.	
In coming to this conclusion, we observe that we stand with the majority church worldwide, including the Roman Catholic Church, all branches of Orthodoxy, the non-Western global church, and a majority of active Protestants in North America and Europe. Indeed, the global church finds the Western church's challenges to biblical teaching on human sexuality incomprehensible and offensive. ²⁴⁶ To refuse to uphold Christian teaching on sexual immorality would signal that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is deviating not only from Scripture but from the shared confession of the historic and worldwide church.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orking in us, may the Great Shepherd of the sheep lead us together into the joyful freedom of obedience. "To him who is able to keep you from stumbling and to present you before his glorious presence without fault and with great joy—to the only God our Savior be glory, majesty, power and authority,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before all ages, now and forevermore! Amen" (Jude 24-25).	
XVII. Recommendations	이 부분은 한국 사역팀의 결정에 따라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A. That synod grant the privilege of the floor to the following members of the committee: Mary-Lee Bouma, Jim Vanderwoerd, and Jeff Weima.	

²⁴⁶ See, for example, various statements by non-Western bishops in the United Methodist Church at their 2019 General Assembly.

<i>B.</i> That synod recommend the foregoing report to the churches as providing a useful summary of biblical teaching regarding human sexuality, as well as offering sound pastoral advice concerning this area of our lives.	
<i>C.</i> That synod encourage the churches to make use of the curriculum prepared by Pastor Church Resources, in conjunction with members of the committee and The Colossian Forum, to help small groups study and discuss aspects of the committee's report which may be controversial.	
<i>D.</i> That synod declare that the church's teaching on premarital sex, extramarital sex, adultery, polyamory, pornography, and homosexual sex already has confessional status.	
<i>E.</i> That synod declare that Church Order Article 69-c is to be interpreted in the light of the biblical evidence laid out in this report.	
<i>Ground:</i> A change in the main text of the Church Order is (1) not necessary and (2) would require an overture to synod.	
<i>F.</i> That synod <i>not</i> appoint a team of individuals to draft a statement of faith on human embodiment and sexuality that reflects and secures the conclusion of the present report.	
<i>Grounds:</i>	

1. Such a team of individuals would in effect duplicate the work of the present committee.	
2. It seems unwise to give the conclusions of the present report the quasiconfessional authority of a statement of faith.	
3. There are existing contemporary statements on human sexuality, such as the RCA Great Lakes Catechism on Marriage and Sexuality, which are in broad agreement with the conclusions of the present report, and which could be adopted or adapted by a future synod.	
Committee to Articulate a Foundation—laying Biblical Theology of Human Sexuality	
Mary-Lee Bouma	
Charles Kim	
Jose Rayas	
Paula Seales	
Mary Stewart	
Van Leeuwen (<i>promotor fidei</i>)	
Mary Vanden Berg	
Jim Vanderwoerd	
Jeff Weima (cochair)	
Al Wolters (cochair)	
Appendix A	이 부분은 한국 사역팀의 결정에 따라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What Can Science Tell Us about the Biological Origins of Sexual Orientation?	

I. Preamble: Reasons for the turn to biology	
<p>Biological theories about the origins of sexual orientation have a long history, but for much of the 20th century they were eclipsed, both academically and clinically, by <i>psychoanalytic</i> and <i>behavioral</i> explanations. While each of these theories is not without some supporting evidence, each also has significant weaknesses, and these helped to “spur the search for other <i>biological</i> explanations,” beginning around the final third of the 20th century.²⁴⁷</p>	
<p>Psychoanalytic, or depth-psychological, explanations focus on unconscious emotional conflicts that, according to the theory, need to be identified and addressed in order to relieve symptoms of anxiety, the cause of which, to the sufferer, is not clear. Sigmund Freud (1856-1939) theorized that such conflicts were rooted largely in early childhood family dynamics—of a sexual nature (for classical Freudians), or in more general failures of attachment between a child and its caretakers (for theorists and clinicians of a more neo-Freudian bent). Freud’s theory was not systematically tested beyond clinical cases from his middle-class, turn-of-the-20th-century, mostly German patients. And not a few critics have cast him as a “pseudo-scientist,” since he tended to explain away challenges to his theory by proposing (equally untested) auxiliary hypotheses to shore it up.²⁴⁸</p>	

²⁴⁷ Simon LeVay, *Gay, Straight, and the Reason Wh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 27 (emphasis added).

²⁴⁸ Most famously, the philosopher of science Karl Popper in his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 (London: Hutchinson, 1959).

<p>The general problem with psychoanalytic theories about the genesis of sexual orientation is not so much “that they’ve been proven wrong; it’s just that there’s no good reason to think they’re right. In that situation, their implausibility and complexity count against them.”²⁴⁹ Thus alternative theories about the causal origins of homosexuality have arisen and generated their own bodies of research. Simon LeVay,²⁵⁰ as a neuroscientist, was among those who joined forces to look for possible biological causes. In the meantime, others explored environmental explanations, drawing on behaviorist principles such as those originally set forth by B.F. Skinner (1904-1990).</p>	
<p>In stark contrast to psychoanalytic theorists, early behaviorists renounced the quest to understand what was happening in the mind, on the grounds that it was at best inaccessible and at worst constantly changing in response to any attempts to study it. It would be more scientific, they said, to study outwardly observable <i>behavior</i> and the ways in which it was influenced by observable (and more easily controllable) events in the <i>environment</i>. On this account, one’s eventual sexual orientation is the product of one’s reinforcement history – the result of positive and/or punitive feelings that have accompanied early sexual experiences. Undergirding Skinnerian behaviorism is a largely Lockean view of the child’s mind as a blank slate, whose future contents are almost entirely determined by subsequent environmental events.</p>	

²⁴⁹ LeVay, p. 33.

²⁵⁰ LeVay, chap. 2.

<p>The weaknesses of both psychoanalytic and behavioral explanations for sexual orientation have resulted,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in a turn toward biological explanations as a plausible alternative.</p>	
<p>II. Biological research on sexual orientation</p>	
<p>Given the variety of previously discussed definitions for homosexuality (desire, attraction, self-identity, behavior) and the different prevalence rates each measure yields, it might seem strange for biologists to make statements of any confidence about what causes it. Nevertheless, many adherents of brain organization theory (BOT) do this and more, claiming that sexual orientation <i>and</i> gender identity <i>and</i> gender role behavior in humans are a “package deal.” That is, they are <i>all</i> seen as minimally affected by cultural factors and largely determined by prenatal (and, to a lesser extent, later pubertal) hormonal processes. To complicate matters, there are many “quasi-BOT” sympathizers who strongly reject the BOT claim that gender-stereotypical <i>roles</i> in men and women are more biologically than culturally driven, but who are quite ready to believe (often in the interest of supporting the rights of sexual minorities) that gender <i>identity</i> and sexual <i>orientation</i> have been “proven” to be almost completely determined by biology.</p>	
<p>The reverse is also the case. Some conservative (including Christian) groups are quite prepared to believe the part of brain organization theory that biologically essentializes stereotypical gender roles (and for some, the status differences between the sexes that have historically accompanied them), but not the part that does the same</p>	

for homosexual identity formation (since one could hardly “blame” anyone for a condition if it was predetermined before birth). But in either case, this selective overconfidence in brain organization theory is based largely on animal research, the applicability of which to humans should not be overstated.	
What arguments are advanced for thinking that sexual orientation in humans might be biologically driven to the same extent that it seems to be in animals? Here is a summary of the main arguments:	
<i>A. The timing of fetal reproductive development vs. brain development</i>	
In human fetuses, the development of reproductive structures is completed several months before the brain begins to differentiate. So it is conceivable that even after reproductive structures have developed in a standard way, something might disrupt standard sex-hormonal circulation in the brain or (alternately) to the brain’s sensitivity to normal hormone levels. This might explain why a physically and physiologically ordinary person could have a homosexual rather than a heterosexual orientation. Though the disrupting “something” (or things) in humans is not yet definitively known, animal—and some human clinical—research suggests testosterone as a prime candidate.	
<i>B. The sexually dimorphic brain nucleus and other brain structures</i>	

<p>Since the early 1990s, studies of brain structure and sexual orientation have been done both by the examination of post-mortem human brains and, more recently, by the use of imaging techniques (such as PET and MRI scans) on the brains of live adults. Note again that, as in animal studies, more of this research has been done with males than with females. Note also that imaging studies (for all their technological impressiveness) are not much better than any other nonexperimental method for ascertaining causality. They can show structural and functional correlations, but as limited “snapshots” at only one point in time they cannot ascertain causal connections.</p>	
<p><i>C. Other physical differences correlated with sexual orientation</i></p>	
<p>Androgenic hormones are known to affect not just the development of reproductive structures <i>in utero</i>; they also prime male and female fetuses for average differences in bone development. One result is that adult males are on average taller than females (the long bones of their limbs have had more androgenic priming). Androgenic priming <i>in utero</i> may also account for the fact that, on average, males’ ring fingers are longer than their index fingers, whereas in females, the length of these two digits is more likely to be more equal. (This is sometimes called the D2:D4 ratio difference.) Several studies assessing these digit ratios in both heterosexual and lesbian women have found that the latter have D2:D4 ratios closer to those of heterosexual men, which could (like their homosexual “brain sex”?) be the result of higher than usual testosterone circulating at some point <i>in utero</i> after their</p>	

standard female reproductive structures have been laid down.	
Another sex difference (in humans and other mammals) that may be the result of prenatal androgenic priming is a phenomenon called oto-acoustic emissions, or OAEs. These are miniscule clicks that are emitted by the inner ear, but on average less often at lower amplitude in males than females—unless those females happen to be lesbian, in which case their OAE pattern is much closer to that of heterosexual men. Again, the BOT “package deal” inference is that abnormal androgenic priming could be jointly responsible for the lesbian sexual orientation <i>and</i> their “more masculine” D2:D4 finger ratios <i>and</i> their “more masculine” OAE emissions pattern. However, neither D2:D4 ratios <i>nor</i> OAE emission patterns show any correlation with measures of <i>male</i> homosexuality. This is awkward for brain organization theory, which would presumably expect an obverse pattern—i.e., that male homosexual D2:D4 ratios and OAE patterns would more resemble those of heterosexual women. So far, no hypothesis has been advanced for this gender asymmetry of results.	
<i>D. “Unplanned” experiments such as Congenital Adrenal Hyperplasia (CAH)</i>	
As noted in Appendix B: Disorders of Sexual Development and Their Implications, this intersex syndrome is caused by abnormally high amounts of adrenal androgen circulating during fetal development, resulting in partially to completely masculinized external genitals if the fetus is a girl. Whether wisely or not, plastic	

<p>surgery is often used to “refeminize” the genitals shortly after birth—but of course that does not alter the fact that the girl had extra testosterone circulating not just during early genital development but also, presumably, at a later fetal stage when the brain was developing. This has been often been taken as a quasiexperimental test of the brain organization theorists’ “package deal” model. So BOT researchers ask this question: Compared to normal control girls (e.g., their own sisters), how likely is it that, despite being raised as girls, CAH females end up (a) acting more like boys in terms of gender roles in childhood, and (b) developing homosexual desires and/or identities and/or behaviors after puberty? According to BOT researchers’ reading of the relevant literature, all of these occur often enough to support the theory that higher fetal testosterone levels have “masculinized” not only CAH girls’ external genitals but probably also their brains. In sum, BOT adherents suggest that in the case of genitally normal lesbians, only prenatal <i>brain</i> masculinization has occurred—whereas in the case of CAH females, <i>both</i> genital sex <i>and</i> “brain sex” have been masculinized.</p>	
<p>In the opinions of many other brain researchers, as well as of social psychologists, the evidence for such a conclusion is thin. For starters, the parents of girls with surgically “re-feminized” genitals obviously know about their child’s original anatomical ambiguity, and thus may or may not socialize their daughters in a standardly “feminine” way. Unlike a true clinical trial (for example, of an experimental drug), this quasiexperiment is not done “blind,” since those raising the child are not ignorant of her medical history. Hence nature and nurture are confounded: if the child is “tomboyish,” is this due to her</p>	

hormonal history, to expectations on the part of her parents, or both? We don't know.	
<p>Second, gender differences in behavior are historically and culturally a moving target, and they show more variation within than between the sexes. BOT researchers have underplayed such findings and, as it turns out, to their own detriment. For example, in normal populations of males and females, there is a modest bu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some spatial skills, in the direction of slightly higher average scores for males. (These are the sort of skills that help you figure out how to fit jigsaw puzzle pieces together, or to find your way through a maze.) BOT researchers attribute this to greater prenatal, testosterone-related brain organization in males, and the researchers hypothesize that it should therefore also occur in CAH females. But when assessing CAH females, most studies either show no advantage, or (more embarrassingly) <i>poorer</i> spatial skills in CAH females than in normal XX controls.²⁵¹ Nor are CAH girls reliably more aggressive, assertive, competitive, or socially dominant than their non-CAH peers. Nor are they more likely than girls in general to engage in rough-and-tumble play as children, or to prefer male playmates in childhood, or to seek out female sexual partners in adulthood. And all this is <i>despite</i> the fact that, having been born with</p>	

²⁵¹ This is also the case with CAH males, who, like CAH girls, have also had extra testosterone supposedly “organizing” their brains *in utero*, even though it has not affected their internal or external sexual anatomy. Some BOT theorists have tried to explain these counterintuitive findings by suggesting that the “dose-response” relationship between testosterone and spatial skills is curvilinear (an inverted “U-shape”) rather than linear. That is to say, the best spatial skills might be associated with *intermediate* rather than *very high*

levels of testosterone, such as those associated with both boys and girls who have CAH. However, there is as yet no empirical study that has supported (or negated) this “auxiliary hypothesis.” In the meantime, invoking it to “explain away” the unexpectedly low spatial abilities of CAH children suspiciously resembles the kind of refusal to accept falsifying results that BOT researchers originally leveled against Freudians.

<p>masculinized genitals, there may be the expectation by parents and others who know of their condition that they <i>will</i> be stereotypically more like boys. Remember, you can't do a double blind experiment when you're raising children.²⁵²</p>	
<p>One exception to these disconfirmations of brain organization theory is that CAH girls, compared to matched controls, are more likely to say they prefer stereotypical boys' toys, such as building blocks or vehicles, to toys like dolls or cooking sets. But here we run into two problems. The first is that what people say and what they do are often discrepant, and few studies have looked at what toys CAH girls actually <i>do</i> play with in comparison to normal controls. A 2003 study that did so (in an individualized playroom setting) found that CAH girls were indeed more likely than others to play with a toy garage, cars, and Lincoln logs than with baby dolls. This was taken as support for a version of BOT that sees people with testosterone-organized brains as more likely to be "systematizers" (interested in how things are put together, both concretely and abstractly) than "empathizers" (interested in understanding other</p>	

²⁵² Because studies of girls with CAH are assumed to be the "ideal" quasiexperimental test of brain organization theory, hardly any developmental tracking has been done of the hormonally "opposite" syndrome—namely, XY children who have androgen insensitivity syndrome (AIS) from the time of fetal development and throughout life, and thus have been born with partially or completely feminized external genitals. BOT adherents assume that (a) these XY infants' brains were already "demasculinized" *in utero* (due to their androgen insensitivity) and (b) they continue to have a "demasculinized" (i.e., feminine) upbringing as girls, and hence are not suitable test subjects for BOT theory. (See Jacques Balthazart, *The Biology of*

Homosexu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chap. 6.) But as with the case of CAH girls, there may be expectancy effects in the parents. That is, if parents *know* that their child was born with an XY karyotype—and also with internal testicles (that may or may not have been removed postnatally), their "feminine" expectations of their (sex-reassigned) "daughter" may be muted. That XY females with complete AIS remain, on average, pretty strongly female-identified in spite of a possibly gender-ambiguous upbringing might arguably be even better evidence for brain organization theory than the convoluted case made on the basis of CAH girls.

<p>people).²⁵³ However, a closer look at the data shows that even the normal control girls spent three times as much time playing with the garage and cars as with the baby doll, and six times as much with the Lincoln logs. And at the end of the play period, when offered the choice of a doll, a car, or a ball to take home, they chose the doll least often, by a wide margin.</p>	
<p>If you're wondering why, in 2003 (well after girls started playing soccer in droves) BOT researchers were coding "masculine" and "feminine" toys the same way they did in the 1950s, that's another problem. It reflects the essentialist presumption that gendered behaviors, along with gendered genitals and brains, are parts of a fixed package, so their measures can remain as unchanging as measures of genital anatomy. It presumes that normal girls with low testosterone can be only minimally influenced by cultural shifts to start preferring Lincoln logs to baby dolls (once an empathizer, always an empathizer) even when data gathered by BOT researchers indicate otherwise.</p>	
<p>In the face of such contradictions some BOT researchers have over the years quietly changed their definitions of what is "natural." For example, the BOT view of "natural" female sexuality originally excluded things like masturbation, erotic dreams, and initiating sex, all of which were regarded as quintessentially masculine. These days BOT researchers treat all of these as "natural" for both sexes. But they did not make this shift because they suddenly admitted that cultural forces (for example, the second wave of feminism) might be stronger than they</p>	

²⁵³ A chief proponent of this theory is Cambridge researcher Simon Baron-Cohen. See his volume *The Essential Difference: Men,*

Women, and the Extreme Male Brain (London: Penguin Science Press, 2004).

previously thought. Instead, they underplayed the changes they'd made to accommodate those very same cultural forces, and they continued to embrace a biologically essentialist paradigm. The result is that current definitions of female sexuality are treated as equivalent to past ones for purposes of supporting the theory, when in fact they are more like apples and oranges. ²⁵⁴	
<i>E. Genetic studies</i>	
As early as the mid-19th century, even before Gregor Mendel's pea plant experiments suggested the existence of what we now call genes, scientists were taking advantage of another "experiment" of nature—namely, the occasional occurrence of twins—in an attempt to assess the relative effects of nature and nurture on human traits. Identical twins share each other's genes virtually completely (and are always of the same sex) whereas fraternal twins (whether of the same or opposite sex) are no more genetically similar than ordinary sibling pairs. So, for example, it has been shown that if one of a pair of identical twins is diagnosed as schizophrenic, the likelihood that the other twin will be is close to 50 percent (and this holds true even for identical twins who have been reared separately). By contrast, the schizophrenia "concordance rate" (as it is called) for same-sex fraternal twins is only around 15 percent. The fact that the concordance rate is so much higher for identical than for fraternal twins suggests that nature (in the form of genetic factors) contributes considerably to the risk for	

²⁵⁴ Rebecca M. Jordan-Young, *Brainstorm: The Flaws in the Science of Sex Differences* (Boston,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 chap. 6. Jordan-Young's critique of brain organization theory is

based on an analysis of approximately 300 studies and detailed interviews with two dozen BOT researchers.

<p>schizophrenia. But the fact that the concordance rate for identical twins is <i>not</i> 100 percent, in spite of their identical genes, suggests that nurture (in the form of prenatal and/or postnatal environments) also plays a part.</p>	
<p>Twins of either kind are, of course, a rare enough occurrence—and twin pairs in which one or both are homosexual are even rarer. As a result, early studies using twins to ascertain the contribution of nature vs. nurture to homosexuality relied on opportunistic sampling (e.g., finding twin pairs by word-of-mouth contacts from people who frequented gay bars or read gay newspapers) instead of randomly sampling the wider population. This made any conclusions about homosexual prevalence rates suspect, due to possible sampling bias and often small sample sizes. In opportunistic studies of this sort, the lowest homosexuality concordance rate for identical male twins has been 47 percent, and for females, 48 percent, suggesting (as in the example of schizophrenia) a strong genetic influence on sexual orientation.</p>	
<p>More recent studies have tried to better approximate random sampling by using data banks called twin registries, of which there are several in modern Western countries, including the government-funded Australian Twin Registry. Since the early 1980s both identical and fraternal twin pairs of all ages and classes have registered at this office, resulting in a data bank of over 25,000 twin pairs that is fairly representative of the wider Australian population. A study team in the late 1990s surveyed over 4,000 sets of twins from this registry, from whom they obtained measures of sexual orientation. It found homosexuality concordance rates substantially lower than</p>	

<p>those reported by earlier opportunistic studies. They were only around 25 percent for both male and female identical twins, and less than half that for fraternal twins, showing that sampling methods matter a great deal to the outcome of such concordance studies.²⁵⁵</p>	
<p>Another way to assess a possible genetic contribution to homosexuality is to do genealogical studies to see if homosexual persons have other homosexual relatives, and, if so, where in the family. Most of these studies show that a gay male has a higher probability of having a gay ancestor on his mother's side than on his father's side, and this has led to the suggestion that something on the gay male's X chromosome (which all males get from their mothers) might be responsible. Recent molecular genetic studies have tried to narrow down the area of the X chromosome that might be involved in such "maternal transmission" cases, and several have found that about 50 percent of the gay males with gay maternal (but not paternal) relatives share a common set of markers on the end of one arm of the X chromosome (called region Xq28). If that gay relative is a brother, the likelihood that both brothers share this regional marker goes up to over 60 percent.</p>	
<p>Molecular geneticists point out that the Xq28 region is quite broad and probably contains many genes, none of which have been individually identified. Thus popular</p>	

²⁵⁵ J. Michael Bailey, Michael P. Dunne, and Nicholas P. Martin,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on Sexual Orientation and Its Correlates in an Australian Twin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8, No. 3 (2000), pp. 524-36. The authors point out that even though their sample was larger and more random

that that of previous studies, it still yielded only a modest percentage of twin pairs in which at least one member identified as homosexual, which lessens the power of their concordance measures. They indicated interest in doubling the sample size for a future replication study, possibly by using twin registries from other countries.

<p>claims about the discovery of a “gay gene” are unjustified exaggerations. For one thing, complex behavioral (and even physical) traits almost always involve multiple, not single, genes. For another, those genes might not all be on the X chromosome. Recently, regions of some nonsex (autosomal) chromosomes have also been correlated to male homosexual orientation, with maternal <i>and</i> paternal contributions being about equal. By contrast, genealogical studies with lesbians have shown that they are more likely (but not exclusively) to have lesbian relatives on their <i>father’s</i> side of the family. These results are harder to interpret, because women inherit two X chromosomes—one from each parent—either or both of which might be influential. But we don’t know, because molecular-level studies of XX (and other) chromosomes in lesbians have not yet been done.²⁵⁶</p>	
<p>A 2019 study published in <i>Science</i> examined genetic markers in nearly half a million participants and concluded that the influence of a person’s genetic makeup on their sexual orientation was about 32 percent and, further, that this genetic influence was not from one gene but many²⁵⁷. Although one of the largest studies of its kind, its sample was still not representative of the general population. Nevertheless, this study affirms findings of previous research that together raise questions about the genetic basis for claims that persons who experience same-sex attraction are “born that way.”²⁵⁸</p>	

²⁵⁶ Balthazart, chap. 10.

²⁵⁷ Andrea Ganna et al., “Large-Scale GWAS Reveals Insights into the Genetic Architecture of Same-Sex Sexual Behavior”, *Science* (Aug. 30, 2019).

²⁵⁸ Paul Sullins, “‘Born That Way’ No More: The New Science of Sexual Orientation”, *Public Discourse* (Sept. 30, 2019); thepublicdiscourse.com/2019/09/57342.

F. <i>Progressive maternal immunization (or “the older brother effect”)</i>	
<p>Intriguingly, the factor that is the most consistently correlated with male homosexuality is one that is less often cited, and rather different from all the others that have been put forward. It is simply the number of older brothers that a man has. An analysis of fourteen birth-order studies involving a total of about 10,000 people has shown that for each older brother that a man has, the probability of his being gay (compared to the actual rate of gays in the population at large) increases by about 33 percent. The probability that the fourth boy in a family being gay becomes about twice as high as it would be if he were a firstborn son. The overall “older brother” effect on prevalence rates for homosexuality is actually fairly small, but still larger than other factors that have been studied. Moreover, it is not altered by the age spread of the boys in the family, or the number of sisters—older or younger—or the age of the parents when a boy is born, or the number of younger brothers any given man has. It is specifically and only correlated with the number of brothers previously born to the same mother. And it is specific to men: there is no increase in the likelihood of homosexuality in women that correlates with the number of brothers or sisters she has, whether born before or after her.²⁵⁹</p>	
<p>An explanation advanced by those studying this phenomenon is that with each successive fetal son a woman carries, she builds up some kind of as-yet-</p>	

²⁵⁹ Raymond Blanchard, “Quantitative and Theoretical Analyses of the Relation between Older Brothers and Homosexuality in Men,” *Journal of Theoretical Biology*, Vol. 230 (2004), pp. 173-87.

<p>unidentified immune response (hence the term “maternal immunization effect”) that does not occur when she carries a daughter. This may seem intuitively implausible, but there is a well-attested clinical phenomenon that provides an analogy—namely, the accumulation of antibodies an Rh-negative woman builds up if she carries successive fetuses (of either sex) that have an Rh-positive blood type. The first child is hardly affected by this blood-type discrepancy, but later ones may be so severely affected by the accumulation of maternal antibodies from previous pregnancies that they need an entire postnatal transfusion of new blood to avoid life-threatening damage.</p>	
<p>Just <i>why</i> a cumulative immunization effect might occur due to discrepant blood types in a mother and her successive children—or the sex discrepancy between a mother and her male children—remains a mystery. But the maternal immunization hypothesis in the case of “the older brother effect”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some mothers who have successive sons accumulate antibodies against as-yet-unidentified male fetal proteins, and that these antibodies affect later sons’ fetal brain development in ways that might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a postnatal homosexual orientation.²⁶⁰ But for now, this remains an intriguing hypothesis without systematic empirical support. Moreover, when we turn to the research literature on <i>bisexuals</i>, the debate about the origins of sexual orientation becomes even more complex.</p>	
<p>III. Bisexuality and sexual fluidity</p>	

²⁶⁰ Anthony F. Bogaert and Malvina N. Skorska, “Sexual Orientation, Fraternal Birth Order, and the Maternal Immune Hypothesis: A

Review of the Evidence,” *Front Neuroendocrinol*, Vol. 32 (2011), pp. 247-54.

<p><i>Bisexuality</i> is formally defined as having romantic and/or sexual attraction to, and/or having sexual experiences with, both men and women, and/or self-identifying as bisexual. The definition is complicated, as is the definition of homosexuality—and for some of the same historical reasons.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it was generally assumed that people were either completely heterosexual (the majority) or completely homosexual (a small minority). Scholars often referred to homosexuals as “inverts”—a term that reflects this essentialist, either/or way of thinking. Alfred Kinsey departed from this assumption with his development in 1948 of a seven-point sexual orientation scale, aimed at measuring self-reported sexual behavior, from “completely heterosexual” (0) to “completely homosexual” (6). Kinsey’s work confirmed that there were indeed degrees of orientation between these extremes, with point 3 (for example) indicating more or less equal sexual experience with both men and women. As with the study of homosexuality, the use of Kinsey’s scale (and others like it) was later expanded beyond measuring only bisexual <i>behavior</i> to measuring bisexual <i>romantic attraction</i> and <i>sexual desire</i>. Each of these may or may not coincide with others, just as they may or may not do so for self-identified homosexuals or heterosexuals.</p>	
<p>However, bisexuality is still a comparatively under-researched topic, for reasons both methodological and political. In both arenas, it is far from settled as to who should “count” as a “true” bisexual. Should we only count those who rate themselves a “3” (right in the middle of the Kinsey scale)? What about people who rate themselves as 1 or 2 (closer to, but not completely heterosexual)? Or those who rate themselves as a 5 or 6 (closer to, but not</p>	

<p>completely homosexual)? Are any or all of the former just trying to get the best of both worlds, keeping one foot in the safe, socially normative heterosexual camp, while dabbling—perhaps just out of curiosity—in the other (i.e., homosexual activity)? Are some or all of the latter complete but timid homosexuals, unwilling to embrace their true orientation because of the social and political burdens it may entail? On the research level, debates like these have resulted in inconsistent use of the Kinsey scale’s intermediate categories, and consequent difficulties in comparing results across studies. As a result, many sexual orientation researchers have simply avoided including bisexuals in their studies, either because of definitional problems or because they suspect bisexuality is too fluid a state to qualify as a ‘real’ phenomenon.²⁶¹</p>	
<p>Moreover, activist groups for sexual minorities are often hostile to self-identified bisexuals, suspecting them of false consciousness about their “true” orientation or of being political opportunists trying to get the best of both worlds. Nevertheless, the continued sidelining of bisexuality as a research topic is puzzling, particularly since the 1994 <i>Sex in America</i> study found that in its large, population-based sample—and especially among women—significantly more people reported bisexual attractions than reported exclusive attraction toward their same sex.²⁶²</p>	

²⁶¹ Earlier exceptions to this neglect of bisexuality include John Money, *Gay, Straight, and In-Between: The Sexology of Erotic Orient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and Martin S. Weinberg, Colin J. Williams, and Douglas W. Pryor, *Dual Attraction: Understanding Bisexu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²⁶² Edward O. Laumann, John H. Gagnon, Robert T. Michael, and Stuart Michaels, *The Social Organization of Sexuality: Sexual Practices in the United Stat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This finding has since been replicated in other national-sample surveys in other nations.

<p>The challenge of recognizing and measuring bisexuality may also help to explain the underrepresentation of women in sexual orientation research. Neither the old, dichotomous categorization of sexual orientation nor Kinsey's seven-point scale allows for the possibility that one's self-categorization might change over time. The implicit assumption has been that adults will be stably homosexual, heterosexual, or (more vaguely) bisexual. Indeed, this is seen as one of the strongest reasons for expanding civil and ecclesiastical privileges to sexual minorities. (How can you penalize people for a condition that is innate and unchangeable?) It is also, as we have seen, a key assumption of brain organization theory. However, as documented by University of Utah psychologist Lisa Diamond, evidence of change over time, especially among women, "has circulated in the scientific literature for decades, though it has tended to be submerged in data rather than explicitly theorized."²⁶³ One set of post-Kinsey researchers, headed by American psychiatrist Fritz Klein, did develop a complex measure of sexual orientation in the early 1980s that included changes over time—but it never really caught on among researchers.²⁶⁴ Most have continued to measure only current sexual behaviors, attractions, and/or identities on the assumption that the direction of one's sexual attraction is an early-developing and stable trait—due to</p>	
---	--

²⁶³ Lisa M. Diamond, *Sexual Fluidity: Understanding Women's Love and Desir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8), p. 3. This book received the 2009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Issues Distinguished Book Award by Division 44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hich represents scholars and clinicians who work on these topics.

²⁶⁴ Klein used a spreadsheet-like grid and had respondents rate themselves simultaneously on degrees of attraction, desire, and behavior—and how each of these had changed (if at all) over time. See Fritz Klein, Barry Sepekoff, and Timothy J. Wolf, "Sexual Orientation," *Journal of Homosexuality*, Vol. 14 (1-2), 1985, pp. 35-49.

nature, nurture, or the interaction of both. But, observes Diamond,	
What few people realize is that these assumptions are based on men's experience, because most research on sexual orientation has been conducted on men. Although this model of [early developing, fixed adult] sexual orientation describes men fairly accurately, it does not always apply so well to women. ²⁶⁵	
<i>Sexual fluidity:</i> Diamond uses this term to refer specifically to women's somewhat greater flexibility regarding the targets of their romantic and sexual attraction. It refers to the finding that a significant percentage of women can, under certain circumstances, find themselves experiencing desire for a person not of the sex that they are usually attracted to—for example, a longtime lesbian may find herself unexpectedly attracted to a particular man, or a longtime heterosexual woman to a particular woman. ²⁶⁶ By contrast, the proportion of men showing such sexual-attraction fluidity is much smaller. Both gay and straight men are more likely to say they experience their sexual orientation as innate and fixed, while women—regardless of stated or felt orientation—are more apt to say that changed circumstances have led (or might lead) them on occasion to be strongly attracted to a person not of the sex they are usually drawn to. ²⁶⁷	

²⁶⁵ Diamond, p. 2. Chapter 1 of this book summarizes the previous social science research literature on this topic.

²⁶⁶ See, for example, Martin S. Weinberg, Colin J. Williams, and Douglas W. Pryor, *Dual Attraction: Understanding Bisexu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and Roy F. Baumeister, "Gender Differences in Erotic Plasticity: The Female Sex Drive as Socially Flexible and Responsive," *Psychological Bulletin*, Vol. 126 (2000), pp. 247-74.

²⁶⁷ Diamond, chap. 2. See also Richard Lippa, "Sex Drives, Sociosexuality, and Height across 53 Nations: Testing Evolutionary and Social Structural Theorie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Vol. 38, No. 5 (2009), pp. 631-51; and Roy F. Baumeister, "Gender and Erotic Plasticity: Sociocultural Influences on the Sex Drive," *Sexual and Relationship Therapy*, Vol. 19, No. 2 (2004), pp. 1468-79.

Diamond notes that this known but rarely publicized gender asymmetry may be one reason for the dearth of research on women's sexual orientation: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early studies investigating biological causes of sexual orientation included both men and women. Over time, it appears, researchers shifted their emphasis to men because the findings for men were so much more consistent and promising than the findings for both sexes considered together. ²⁶⁸	
Diamond (who is a self-identified lesbian) examined the assumption that one's direction of sexual attraction is both rigidly fixed and gender-symmetrical, by conducting a ten-year longitudinal study on almost a hundred same-sex attracted women—aged 16 to 23 at the outset, and self-identified as lesbian, bisexual, or simply “unlabeled”—and a comparison group of self-identified heterosexual women. ²⁶⁹ All were interviewed in depth about their sexual attractions, desires, and behavior five times over the ten-year period of the study, including assessment of these three indicators using a scale similar to Kinsey's. One of	

²⁶⁸ Ibid., p. 18. The tendency to confine natural and social science research studies to male subjects extends well beyond the study of sexual orientation. The American National Institutes for Health finally set up a corrective to this skewed practice (in the form of its Office of Research on Women's Health) only in 1990. In spite of such efforts, it is still very common to do male-only research (whether with humans or animals) on the assumption that the results will be equally applicable to both sexes—though few seem to think (if that is the theoretical assumption) that studies could equally well be done drawing on female-only populations. The same point applies to the underrepresentation of non-Caucasian ethnic groups in health (and other) research. See for example the four editorials under the heading “Putting Gender on the Agenda,” *Nature*, Vol. 465, No. 7299 (June 10, 2010), pp. 665, 668-90.

²⁶⁹ Those of her respondents who preferred to be “unlabeled” might, in other circumstances, have identified themselves as “queer”—that is, rejecting not just dichotomies such as gay/straight but even the trichotomy of gay/straight/bisexual, and asserting instead complete randomness and/or arbitrary choice in human sexual attraction. Diamond is careful to point out that her overall study sample is not a random one, since recruiting (and funding for a 10-year study) a random sample of bisexuals would be prohibitively expensive. Her respondents were recruited mainly from northeast U.S. university classes and from ongoing LGBT events, so they are disproportionately middle class, educated, and Caucasian. Consequently, she regards this as a preliminary and exploratory study, though a needed one in light of the paucity of research on sexual orientation shifts across time.

<p>her main findings was that fully two-thirds of the women who initially identified as other than heterosexual changed their identity label at least once over the 10-year study period—usually as the result of a relationship they had entered between interviews. So, for example, some of the initially self-identified lesbians later reidentified as bisexual, unlabeled, or heterosexual, and some of the initially self-identified bisexuals or unlabeled later reidentified as lesbian or heterosexual.²⁷⁰</p>	
<p>Diamond concluded that this was probably not evidence of an orientation change <i>per se</i>, since her respondents' attraction and desire measures tended to stay within a consistent and fairly narrow range throughout the study. That is, most originally self-defined lesbians continued to score in much the same range for same-sex attraction over the ten-year study, despite sometimes changing both their behavior and self-identity in a heterosexual direction. The same was true for those originally self-identified as bisexual or "unlabeled."²⁷¹ While cautious about taking sides in the nature/nurture controversy concerning the origins and stability of sexual orientation (her own study was mainly an investigation over time of a large group of women's lived experiences), Diamond suggests that sexual orientation is not a single, unvarying point on a feeling scale that unvaryingly predicts</p>	

²⁷⁰ The capacity for sexual fluidity was also evident in Diamond's heterosexual controls, but the sample size was small (10 women) and revealed no instances of actual change in self-labeling during the ten-year study period.

²⁷¹ By the end of the ten-year study, Diamonds says, "It became quite clear that the [main, nonhetero- sexual] sample could be divided into two groups: 1) lesbians who had been exclusively attracted to and involved with women throughout the study, and who

were least likely to change their identities; and 2) everyone else. [Regardless of initial self-labeling] these other participants consistently reported non-exclusive attractions, increasing other-sex behavior [i.e., emotional and/or sexual involvement with men], and were the ones most likely to change their identities. Clearly, the women who were changing their identities were not undergoing change in their orientations. They had been attracted to both women and men all along" (*Sexual Fluidity*, pp. 67-68).

which sex(es) a person will be attracted to. It is rather a generally stable range of feeling—hetero-, homo-, or bisexual—from which departures can occur. And when they do occur, they are likely to come as a surprise and not be seen as any more willful than one's normally experienced sexual orientation.	
What accounts for the possibility of such sexual fluidity and the fact that it is more common in women than in men, regardless of their dominant sexual orientation? Biology has a role, Diamond theorizes, but not in the testosterone-explains-everything fashion that is assumed by brain organization theory. Even if one accepts the BOT hypothesis that sexual orientation is caused by prenatal disruption in the circulation (or alternately the uptake) of testosterone in the developing brain, there are two other biological processes that may account for observed fluidity differences in men's and women's sexual expression, regardless of sexual orientation. The first has to do with the distinction between two types of sexual arousal—namely, <i>proceptivity</i> and <i>receptivity</i> . The second has to do with the distinction between <i>romantic love</i> and <i>sexual desire</i> —and the biological contributors to each. Again, these processes have been explored more extensively in animals than in people, though the animal models suggest human parallels. And in contrast to most sexual orientation research, females are given much more sustained attention.	
IV. Proceptivity vs. receptivity	이 부분은 한국 사역팀의 결정에 따라 번역되지 않았습니니다.

<p>Mammalian researchers coined the terms <i>proceptivity</i> and <i>receptivity</i> to distinguish between two different modes of female sexual behavior. Some mammalian species engage in sexual behavior only when the female is “in heat.” While the males’ relatively steady levels of androgens keep them ready for sex just about any time, the females only go into estrus, or “heat,” around the time they are ovulating. Motivated by rising levels of estrogen (and smaller rises of androgens), females in the ovulatory period will actively seek out sexual contact with males, and then cease being sexually proactive as their estrogen levels decrease after ovulation. Thus in many mammalian species there is a gender-asymmetry in the process of “feeling horny”: more constant in males, but clearly cyclic in females. In either case, this hormonally driven, proactive sexual urge is what animal researchers have labeled <i>proceptivity</i>.</p>	
<p><i>Receptivity</i> is a term coined to describe another, specifically female, sexual behavior observed in many other mammals, including primates. In these species, a “receptive” female may respond to sexual overtures even if she is not in estrus. In other words, even if she is hormonally less motivated to initiate sexual contact, she may be induced by certain environmental cues to accept it. These nonovulating females are more choosy about potential mates than when they are in estrus, and the external cues inducing them to respond may be any or all of visual, vocal, smell, or tactile stimuli associated with a preferred male.²⁷² And in humans, social and cultural</p>	

²⁷² Frank A. Beach, “Sexual Attractivity, Proceptivity, and Receptivity in Female Mammals,” *Hormones and Behavior*, Vol. 7 (1976), pp. 105-38; Kim Wallen, “Desire and Ability: Hormones and the

Regulation of Female Sexual Behavior,” *Neuroscience and Biobehavioral Review*, Vol. 14 (1990), pp. 233-41.

<p>factors interact with biology to facilitate even more variation in sexual behavior so that the processes of proceptivity and receptivity operate in both sexes. “In fact,” Diamond observes, “any particular instance of sexual desire probably involves some degree of each. A sudden, automatic feeling of lust might be primarily driven by proceptivity, whereas a gradual increase in sexual arousal while watching a romantic movie might be primarily driven by [receptivity]. Most experiences fall somewhere between these two extremes.”²⁷³</p>	
<p>As in other mammals, normal-range levels of testosterone in men correlate with non-cyclic [read: fairly steady] proceptive sexual feelings, while cyclic, ovulatory rises in estrogen are correlated with the same urges in women.²⁷⁴ Interestingly, men who have lost testicular function (due to chemical castration, disease, or other damage) and who thus have the lowest possible levels of testosterone, also lose their proceptive desire: they cease to have spontaneous sexual urges, and they no longer seek out sexual stimuli or activities. But they are still capable of receptivity—that is, they can be aroused when presented with familiar sexual stimuli. This is further evidence of the role learning plays in human sexual</p>	

²⁷³ Diamond, p. 206. Note that she uses repeated qualifiers (“might,” “probably”), which she continues to do throughout her report. This is to remind readers that even though her theory of sexual fluidity is more nuanced than brain organization theory, it is likewise based largely on animal models, the application of which to humans is still underresearched. Likewise, her theory must rely on less-intrusive research techniques than those that can be used with animals, thus yielding more correlational than causal findings.

²⁷⁴ D.B. Adams, A.R. Gold, and A.D. Burt, “Rise in Female Sexual Activity at Ovulation and Its Suppression by Oral Contraceptive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Vol. 299 (1978), pp. 1145-50. However, increased testosterone levels are less reliable predictors of proprioceptive arousal in women: clinically, they work for some women who are experiencing low levels of libido, and not for others. Moreover, oral contraceptives change the nature of the menstrual cycle, such that ovulation—and hence the increase in proprioceptive arousal that would commonly accompany it—do not occur.

arousal. ²⁷⁵ In addition, the balance of proceptive and receptive influences may be different for most women and men, Diamond suggests:	
<p>If female proceptivity peaks for only a few days per month, then during the rest of the time a woman's sexual desire will be primarily driven by [receptivity] and therefore will be dependent on her exposure to various situational cues. These cues should have comparatively less influence on men's day-to-day sexual desires because men have such consistent levels of hormonally driven proceptivity. This is not to say that men's sexuality is not influenced by situational factors and cues—it most certainly is! Yet the balance of influences is different for men versus women, in that situational factors play a bigger role for women.²⁷⁶</p>	
<p>Diamond seems to concur with brain organization theorists that sexual orientation results from standard or nonstandard hormonal circulation in the prenatal brain. But she theorizes that it affects only the proceptive—not the receptive—aspects of sexual attraction.²⁷⁷ From a purely reproductive point of view, if enough males and females have “proceptive sex” when both members of the pair are optimally aroused (on average, more cyclically for females, more steadily for males) that would suffice to keep the human race going. Receptivity, by contrast, is “gender-neutral,” in the sense that it works alongside (but largely</p>	

²⁷⁵ Marie Kwan, Walter J. Greenleaf, Jay Mann, Lawrence Crapo, and Julian M. Davidson, “The Nature of Androgen Action on Male Sexuality: A Combined Laboratory-Self Report Study on Hypogonadal Men. *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Vol. 57 (1983), pp. 557-62. The receptivity-inducing stimuli “could be almost anything—different images, environments, smells, or ideas—and they will vary not only from culture to culture but from individual to individual, as a function of someone's particular pattern of sexual experiences, expectations, memories, and attitudes” (Diamond, *Sexual Fluidity*, p. 207).

²⁷⁶ Diamond, p. 209. For a review of studies examining these differing (average) differences in men's and women's arousal patterns, see Baumeister, “Gender Differences in Erotic Plasticity.”

²⁷⁷ From an evolutionary perspective, Diamond writes, “It makes sense for proceptivity [in both men and women] to be intrinsically targeted to other-sex partners, to ensure that these desires result not only in sexual activity, but *reproductive* sexual activity. In this model, homosexual and bisexual orientations represent (at least in some cases) intrinsic deviations from this program” (*Sexual Fluidity*, p. 210).

<p>independent of) the strong proceptive urges that ensure sexual reproduction. It is far less dependent on hormones like estrogen and testosterone than on conditioning to a wide range of cultural, situational, and interpersonal cues—music, clothing, interpersonal compatibility, frequency of contact, etc. And since women—whatever their dominant sexual orientation—usually spend less time than men in a state of urgent proceptive arousal, they will likely develop a wider range of conditioned receptive responses to such cues. As a result, Diamond suggests, regardless of their dominant sexual orientation, we should expect “more women than men to report more abrupt disjunctures in their desires and behaviors as a result of changes in their environments and relationships; and more women than men to report that their same-sex desires are linked to a specific individual—one of the most potent and common cues for same-sex receptivity. [And] this is exactly what has been found in extensive research on female sexuality.”²⁷⁸</p>	
<p>V. Romantic love vs. sexual desire</p>	
<p>A second factor relevant to sexual attraction fluidity in women is the distinction between romantic love and sexual desire. Here again, biological research with animals dominates, so generalizations to humans should be taken as tentative. That said, there is a recent and substantial body of research on two neuropeptide hormones—<i>oxytocin</i> and <i>vasopressin</i>—that originate separately from sex hormones and that appear to be implicated in long-term “pair bonding” in mammals, including humans.</p>	

²⁷⁸ Diamond, p. 212.

<p>Variations on these two hormones appear in all vertebrates, and they are related to each other both in location (the genes responsible for them are in the same chromosomal region) and in biochemical structure (suggesting a common ancestor gene).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two of oxytocin's important functions in female mammals—including humans—were identified. Specifically, oxytocin is released during labor to aid birth contractions, and later during breastfeeding to promote the milk “let down” reflex. Later studies showed that oxytocin, while not implicated in sexual arousal <i>per se</i>, is released during orgasm in both men and women, and contributes to the sense of well-being and connection that follows.²⁷⁹ A vital function of vasopressin, also identified around the mid-20th century, is to regulate water retention in bodily tissues—so it is often referred to as the “antidiuretic hormone.” But recent mammalian research suggests that it also plays a role in facilitating pair bonding.</p>	
<p>Much of the work on these hormones' relationship to pair bonding originated in the field observation of two intriguing species of small rodents known as mountain voles and prairie voles. The first of these, as is the case in many rodent species, mates promiscuously; but its cousins—the prairie voles—form permanent monogamous bonds. Further examination showed that these behavioral differences are correlated with differences in the amounts of oxytocin and vasopressin available to each of the types of voles, as well as differences in the concentration of</p>	

²⁷⁹ See, for example, Marie S. Carmichael, Valerie L. Warburton, Jean Dixen, and Julian M. Davidson, “Cardiovascular, Muscular, and

Oxytocin Responses during Human Sexual Activity,” *Archives of Sexual Behavior*, Vol. 23, No. 1 (1994), pp. 54-79.

<p>brain receptors for these two hormones.²⁸⁰ Later experimental work showed that chemical tinkering with these hormones could reverse the mating patterns of the two species: experimentally reduce them in the prairie voles, and they will start mating promiscuously like their mountain cousins. Experimentally inflate them in the mountain voles, and they will abandon their promiscuous ways and settle down in monogamous pairs.²⁸¹</p>	
<p>In both humans and other mammals, oxytocin is implicated in the formation of other social bonds too, particularly those associated with caregiving. Analogous to the experiments with reproductive pairs of voles, administering oxytocin enhances infant-parent attachment, whereas chemical interference with its natural levels disrupts the formation of such bonds. And the causal pathways run both ways: oxytocin leads to caregiving behavior, and caregiving behavior (e.g., physical closeness and tactile activities such as licking) leads to an increase in circulating levels of oxytocin, both in the caregiving animal and the one cared for.²⁸² In fact, oxytocin levels are associated with more general social affiliation in</p>	

²⁸⁰ While both oxytocin and vasopressin influence pair bonding—or its absence—in both male and female voles, oxytocin has a greater effect on females while vasopressin appears to be more influential in males.

²⁸¹ Thomas R. Insel, James T. Winslow, Zuoxin Chan, and Larry J. Young, "Oxytocin, Vasopressin, and the Neuroendocrine Basis of Pair Bond Formation," *Advances in Experimental Medicine and Biology*, Vol. 449 (1998), pp. 215-24.

²⁸² In humans, hormonally mediated attachment processes characterize both maternal and paternal parents to a greater degree than in other mammals. See for example Sandra J. Berg and Katherine E. Wynne-Edwards, "Changes in Testosterone, Cortisol,

and Estradiol Levels in Men Becoming Fathers," *Mayo Clinic Proceedings*, Vol. 76, No. 6 (2001), pp. 582-92; Johanna H. Hume and Katherine E. Wynne-Edwards, "Parental Responsiveness in Bipotential Dwarf Hamsters Does Not Require Estradiol," *Hormonal Behavior*, Vol. 49, No. 4 (2006), pp. 533-44; Ilana Gordon, Orana Zagoory-Sharon, James F. Lechman, and Ruth Feldman, "Oxytocin and the Development of Parenting in Humans," *Biological Psychiatry*, Vol. 68, No. 4 (2010); and Adrian V. Jaeggi, Benjamin C. Trumble, Hillard S. Kaplan, and Michael Curven, "Salivary Oxytocin Increases Concurrently with Testosterone and Time Away from Home in Tsimane Hunters," *Biology Letters*, Vol. 11, No. 3 (2015).

both adult humans and other mammals, and even in cross-species relationships, such as those between humans and pets. ²⁸³	
<p>Although it makes intuitive sense that male-female pair bonding (mediated by hormones like oxytocin and vasopressin) would enhance sexual desire, and sexual desire (mediated by hormones like testosterone and estrogen) would enhance pair bonding, the two systems do not necessarily have a common biological origin. Many biologists and social scientists argue that the strong emotions associated with human pair bonding—what we call romantic love—originated “not in the context of mating, but in the context of <i>infant-caregiver attachment</i>, a biologically based bonding program that evolved to ensure that highly vulnerable mammalian infants stayed close to their caregivers to improve their odds of survival.”²⁸⁴ Attachment formation between primate (including human) infants and their caregivers is characterized by the infant’s increasingly selective preference for the primary caregiver, regular pursuit of physical contact with the caregiver, increasing distress when separated, and a gradual reduction of distress when contact is resumed.²⁸⁵ And in the best-case scenario, these emotions become reciprocal,</p>	

²⁸³ For a review of the pertinent literature, see, for example, C. Sue Carter and E. Barry Keverne, “The Neurobiology of Social Affiliation and Pair Bonding,” in J. Pfaff, A.P. Arnold, A.E. Etgen, and S.E. Farbach, eds., *Hormones, Brain and Behavior*, Vol. 1, pp. 299-377 (New York: Academic Press, 2002). As a cautionary note, it should be said that the clinical psychological use of oxytocin with humans may be proceeding at too fast a pace. In light of the genomic discovery that persons with autism or schizophrenia often have defects in genes responsible for oxytocin production and/or reception, it became something of a vogue to administer intranasal oxytocin in order to facilitate these persons’ social skills, with varying levels of success. However, this practice has been tested only over short-term administration of the hormone, and recent animal research has shown that long-term administration of oxytocin in

voles eventuates in the reverse effect: it impairs their adult social relationships, for reasons not yet completely understood. This suggests that enthusiasm for “the love hormone” (as oxytocin is popularity called) should be tempered pending further research into its long-term (as opposed to short-term) effects, also in humans. See Karen L. Bales, Allison M. Perkeybile, Olivia G. Conley, Meredith H. Lee, Caleigh D. Guynes, Griffin M. Downing, Catherine R. Yun, Marjorie Solomon, Suma Jacob, and Sally P. Mendoza, “Chronic Intranasal Oxytocin Causes Long-Term Impairments in Partner Preference Formation in Male Prairie Voles,” *Biological Psychiatry*, Vol. 74, Iss. 3 (Aug. 2013).

²⁸⁴ Diamond, p. 224 (emphases added).

²⁸⁵ John Bowlby,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London: Tavistock, 1979).

which is why we often speak of parents “falling in love” with their infants.	
What has this to do with sexual fluidity and its greater likelihood in women? Note that the above-mentioned emotions (intense fixation, frequent contact, distress over separation, and relief when reunited) also typify romantic attachments between adults. This is why, in the late 1980s, social psychologists Cindy Hazan and Philip Shaver proposed that human romantic love—long assumed to be driven simply by the same hormonal processes as sexual desire—might instead be a later-life version of infant-caregiver attachment. ²⁸⁶ Indeed, it can be observed in close, same-sex adolescent and adult friendships, and even in friendships between prepubescent children, even though they are still in a state of sex-hormonal latency. This widespread occurrence of “romantic” or “passionate” attachment beyond sexually involved adult pairs has led Lisa Diamond to describe it in terms of “the unorientation of love.” ²⁸⁷	
Going from attachment-based love to sexual desire seems to be a “biosocial-psychological” process in the case of sexually fluid women. For starters, cultures vary in the degree to which they encourage the expression of intimacy, and for the past century or more Western society has assigned women—much more than men—to be the interpersonal attachment specialists. If you combine this with the asymmetry of proceptive desire (more cyclic in women, more steady in men), then, Diamond suggests, women will often spend much of their receptive-stage time developing nonsexual attachment bonds, often with people of both sexes. “If so,” she writes, then	

²⁸⁶ Cindy Hazan and Philip R. Shaver,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2 (1987), pp. 511-24.

²⁸⁷ Diamond, pp. 223-31. On the breadth of romantic (or passionate) love, also among prepubertal children, see Elaine Hatfield,

“Passionate and Companionate Love,” in Robert J. Sternberg and Michael Barnes, *The Psychology of Love*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88), pp. 191-217.

<p>It makes sense that when individuals form unexpected attachments to people who are the wrong gender for their sexual orientation, they might also end up developing sexual desires for these individuals. Because these “cross-orientation” desires should be dependent on the emotional and biological processes of attachment, they should be specific to the relationship in question. This . . . is exactly what so many women have described, in my own study as well as in many others. It certainly fits with [their reports] of being first attracted to the person, not the gender. . . . [This] may in fact be the psychological experience of attachment formation, with its associated experiences of preoccupation, fixation, separation distress, possessiveness, and so on.²⁸⁸</p>	
<p>That this process can happen in men as well as in women is attested to by a substantial minority of same-sex attracted men married to heterosexual women who say that their wives were (and are) the only women for whom they had developed sexual attraction.²⁸⁹ But Diamond hypothesizes that women’s greater sexual-attraction fluidity may be facilitated by their higher levels of estrogen, because estrogen stimulates the release of oxytocin from the hypothalamus and also increases uptake in its brain receptors.²⁹⁰</p>	
<p>Given the ethical restrictions on doing intrusive experimental research on humans, doing a longitudinal study is regarded as at least a quasiexperimental way of getting at</p>	

²⁸⁸ Diamond, pp. 230-31.

²⁸⁹ See, for example, Joel Kort, “Straight Women and Their Gay Husbands, *Psychology Today* (Jan. 14, 2015); Warren Throckmorton and Mark A. Yarhouse, “Sexual Identity Therapy: A Framework for

Addressing Sexual Identity Issues”; sitframework.com (accessed 9-12-2017).

²⁹⁰ Alexandra Acevedo-Rodriguez, Shalla K. Mani and Robert J. Handa, “Oxytocin and Estrogen Receptor *Beta* in the Brain: A Review,” *Frontiers in Endocrinology*, Vol. 6 (2015), Art. 160.

<p>causal connections, in that there are “before” and “after” measures of the variables (e.g., relationship involvement and direction of sexual attraction) thought to be causally connected. However, unlike laboratory studies with animals, the human participants in a longitudinal study cannot be randomly assigned to treatment conditions (nor randomly drawn from a wide societal population), so such studies remain “quasi”—not true—experiments. Diamond is well aware of—and regularly affirms—these limitations to her research, seeing it as provisional and suggestive of further work to be done on sexual orientation with more representative groups of people. But in addition to its use of longitudinal methodology—gathering repeated measures across time to demonstrate the fluidity of sexual attraction—it helps to correct the skewed attention to males over females in sexuality research, and it helps to bring attention to other hormonal systems (those associated with attachment behavior and romantic love) that may interact in complex ways with both sex (male or female) and sexual orientation. In this way it challenges and complicates brain organization theory—with its singular focus on the supposed effects of testosterone—while also acknowledging the importance of cultural forces on the shaping and expression of sexuality.</p>	
<p>Appendix B</p>	<p>이 부분은 한국 사역팀의 결정에 따라 번역되지 않았습니다.</p>
<p>Disorders of Sexual Development and Their Implications</p>	
<p>I. Introduction and background</p>	
<p>“Standard” (or “normal”) sex development in both females and males is usually taken to mean the alignment of certain biological elements in a developmental sequence, from conception to birth, through childhood, adolescence, and then adulthood. A certain pattern of sex chromosomes (XX or XY) at conception leads to a differing balance of hormones (e.g., estrogen, progesterone, and testosterone), a differing pattern of internal sex organs (e.g., ovaries, uterus, and fallopian tubes in females; testicles, seminal vesicles, and prostate gland in males), and at birth a set of differing external genitals (e.g.,</p>	

clitoris, labia, and vagina in females; penis and scrotal sac in males). When childhood merges into puberty, a new surge of hormones—again in different ratios for girls and boys—leads to differing secondary sex characteristics (e.g., breasts in girls, beards in boys) and to the possibility of parenthood, as ova mature on a cyclic basis in girls, and boys begin to produce sperm.	
Of course, this summary of sex development masks the sheer complexity of the pre- and postnatal processes that take place from conception to standard adult reproductive maturity. To understand various disorders of sex development and their medical, psychological, legal, and pastoral implications, it helps to know in more detail the process of standard reproductive development. It is when that course of development takes a different turn—for one reason or another, at one developmental stage or another—that a disorder of sex development results.	
Both a mother's and father's gametes (ova and sperm) are needed to conceive a child. The mother's ovum—always formed from an X chromosome—combines with a sperm from the father that is formed from <i>either</i> an X or a Y chromosome. If two X-chromosome gametes (one from each parent) unite, the eventual child is usually an anatomically and physiologically normal girl. If an X and a Y combine (from mother and father respectively), the child is usually a normal boy. A father's gametes are thus responsible for the sex of the child: a father's X plus a mother's X results in a girl; a father's Y plus a mother's X results in a boy.	
The developmental processes by which this happens are complex and not neatly separable along parallel "X-directed" or "Y-directed" paths <i>in utero</i> . Right from conception, normal male reproductive development requires something more than just a Y chromosome: it requires vital cooperation from a range of genes on the X	

chromosome. In addition, reproductive development in both sexes also needs the help of many genes not located on the sex chromosomes at all, but rather on various nonsex (or “autosomal”) chromosomes.	
However, none of this begins to happen until toward the second trimester of pregnancy because, for the first several weeks, male and female embryos share a single, undifferentiated developmental platform. Indeed, if we were to examine a tiny fetus that miscarried around the ninth week of pregnancy, we could not tell by examining either its external or internal structures whether it was female or male.	
Externally, we would see only an undifferentiated “urethral groove” and a bump called the “genital tubercle” that is neither penis nor clitoris. Internally, we would find neither testes nor ovaries. Instead, attached to the indifferent gonads would be two sets of tubes—one looking like a tiny set of combs (the Wolffian ducts), the other like a pair of slender trumpets (the Mullerian ducts). Wolffian ducts are the precursors of male internal reproductive structures, such as the prostate gland and the seminal vesicles. Mullerian ducts are the precursors of female internal reproductive structures, such as the uterus and fallopian tubes. But the normally developing fetus with XX or XY chromosomes comes preloaded, so to speak, with both. And that is why almost all of us have vestigial remnants of one or the other on our gonads even now.	
It is at this point that standard male/female sexual differentiation begins to take place, continuing in a step-wise (or we could also say “domino”) fashion until birth. In	

<p>other words, certain processes need to occur at the right time and in the right order for a standard newborn girl or boy to result. But these processes do not occur in a completely symmetrical fashion for boys and girls. Biological research seems to show that, for humans as well as other mammals, the fertilized zygote's default setting is to produce a female. In other words, male development requires certain additions along the way if it is not to default toward the female direction.</p>	
<p>The first of these asymmetries occurs in those early, bean-shaped "indifferent gonads." If they are to become testes, an additional substance (known as H-Y antigen, which is controlled by genes on the Y chromosome) needs to kick in. In the rare instances where this does not occur, the indifferent gonads will become ovaries, regardless of the XY sex-chromosomal makeup of the fetus. Moreover, there does not seem to be an analogous antigen needed for the indifferent gonads in an XX fetus to begin developing as ovaries: around the eighth week, they just begin to do so without any (so far known) additional input.</p>	
<p>Only about a week later, a second asymmetry occurs when the tiny Wolffian or Mullerian ducts are ready to start developing, respectively, as male or female internal sexual anatomy. With the help of another biochemical substance (called MIS, or Mullerian-Inhibiting Substance), the comb-like Wolffian ducts in the male fetus start differentiating into structures like the prostate gland and seminal vesicles, while the accompanying Mullerian ducts (the precursors of internal female development) regress until they become vestigial remnants on top of the now-developing testes. In female fetuses the male-leaning Wolffian ducts regress</p>	

<p>and become vestigial remnants on the now-developing ovaries, apparently without any added biochemical help, while the uterus and fallopian tubes also begin to form.</p>	
<p>If these standard processes occur without interference, the now-differentiated ovaries and testes will begin to produce sex hormones, one of whose main jobs (from about the ninth week) is to turn the undifferentiated external genital area of the male fetus into a penis and scrotum. This too is a complex process. It is misleading to refer to these reproductive hormones (which include testosterone, estrogen, and progesterone) as “female” or “male,” since all of them are normally produced, though in different ratios, by both ovaries and testes—and in the case of testosterone, in smaller amounts by the adrenal glands. In optimal amounts, testosterone is crucial at this stage for the formation of the external genitals and the prostate gland in the male fetus—but also for egg development in the ovaries of the female, showing again how interwoven are the processes of girls’ and boys’ prenatal sex development.</p>	
<p>At this stage, a third asymmetry between male and female development occurs. Testosterone—normally produced in greater quantities by a male than a female fetus—is needed to masculinize a boy’s originally undifferentiated external genitals. But to complete the process, a kind of “super testosterone”—called DHT, or dihydrotestosterone—must also be added. DHT is formed when a certain enzyme acts on ordinary testosterone, and in very rare cases, when DHT is absent, the fetal male’s penis is apt to be small and also to lack the seam</p>	

underneath it that normally encloses the earlier, open urethral groove into the scrotal sac.	
<p>If the above-described fetal developmental processes proceed in the usual male or female direction, they will result in standard male or female internal/external anatomy at birth, and in the physiological potential for fertility in adulthood. Knowing about these processes in somewhat more detail should now make it easier to understand how they may depart from the norm to become various disorders of sex development. It is customary to divide these conditions between those that result from 'chromosomal anomalies,' which occur before the zygote even becomes a developing embryo, and those that result from "hormonal anomalies," which occur in the postconception stages of development.</p>	
<p>More will be said below about the frequencies of various disorders of sex development, but overall, some estimates suggest that a disorder of sex development of some sort may be found in as many as one in a hundred people (see Table 1). Estimates vary, depending on the populations sampled and the sampling methods used. Either way, these conditions are frequent enough that it is likely almost all of us know someone who has one, even if we have not been told about it.</p>	

Table 1. Selected Chromosomal and Hormonal Disorders of Sexual Development and Estimated Incidence

Chromosomal DSDs		Hormonal DSDs	
Name	Estimated Incidence	Name	Estimated Incidence
De la Chapelle Syndrome	1 in 20,000	Androgen Insensitivity Syndrome	1 in 20,000
Jacob's Syndrome	1 in 500	Congenital Adrenal Hyperplasia	1 in 15,000
Klinefelter Syndrome	1 in 500	5-Alpha Reductase Deficiency	"very rare" ²⁹¹
Metafemale Syndrome	1 in 1,100		
Swyer Syndrome	1 in 80,000		
Turner Syndrome	1 in 2,000		

II. Sex chromosomal anomalies	
A sex chromosomal anomaly is a condition in which the affected person is conceived with other than the standard number of sex chromosomes for a female (XX) or male (XY). This can also happen with nonsex chromosomes: most of us, for example, know about Down Syndrome, or Trisomy 21, where an individual has three instead of the standard two copies of chromosome 21.	
A. <i>Turner Syndrome (Monosomy X, or XO)</i>	
Earlier we mentioned that a zygote with a single Y (but no X) chromosome cannot survive in utero beyond that stage, but that the opposite case—persons who have only a single X (but no accompanying X or Y) chromosomes are not uncommon. Known as Turner Syndrome, it is estimated to occur in 1:2,000 or 3,000 births. Its fetal developmental journey is largely that of a	

²⁹¹ G. Kumar and J.J. Barboza-Meca, "5-Alpha Reductase Deficiency,"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Mar. 24, 2019); ncbi.nlm.nih.gov/books/NBK539904.

<p>standard female in terms of both internal and external anatomy—except that the ovaries are underdeveloped, often to the point of being just streaks of undifferentiated tissue. Streak ovaries usually cannot produce sufficient amounts of hormones like estrogen and progesterone needed for later breast development, fertility, and menstrual cycle regulation. Children with Turner Syndrome tend to be short in stature and to have broader than average chests and a weblike neck, but are otherwise not noticeably different from their female peers. They are, however, at risk for heart defects, thyroid disease, diabetes, and/or other immune disorders, and a small percentage exhibit signs of mild cognitive retardation.</p>	
<p>Until the advent of hormone replacement therapy, Turner syndrome children were unlikely to undergo puberty, and thus were not likely to menstruate or develop breasts. Estrogen replacement therapy has changed this, and it is even possible for some Turner persons to gestate a child via egg donation. The possibility of such interventions is usually welcomed, as most Turner persons have a quite stable female gender identity. Is a Turner person, with only single-X chromosomes, someone who <i>should</i> be routinely expected to undergo estrogen replacement therapy? After all, the original missing chromosome was just as likely to have been a Y as an X, so perhaps testosterone therapy beginning in adolescence should be a routine possibility for Turner persons who might prefer to look and function more like a male. Or what if no hormone intervention at all is preferred, no matter what the result might be for adult bodily appearance?</p>	
<p><i>B. Metafemale Syndrome (Trisomy X, or XXX)</i></p>	

<p>At the other extreme from XO Turner persons are women who have an extra X chromosome—hence the designation XXX, or Trisomy X (analogous to Trisomy 19 for Down Syndrome persons). More rarely, this syndrome can appear as XXXX, or even XXXXX. Its frequency is estimated to be about 1:1,000 persons and (like Down Syndrome) is more likely to occur in the children of older mothers. Women with Trisomy X (or its variations) tend to have longer legs and more slender torsos, but otherwise present as standard females in terms of internal and external sexual anatomy, secondary sex characteristics, fertility, and childbearing potential. Historically, before the advent of microbiology, these woman would not have been identified as out of the ordinary at any stage of their life, though they did (and do) have a greater than ordinary chance of premature ovarian failure.</p>	
<p><i>C. Jacob's Syndrome (XYY or Metamales)</i></p>	
<p>As females can be conceived with one or more extra X chromosomes, so can males be conceived with an extra Y chromosome (XYY) or, more rarely, two (XYYY). The frequency of XYY males is estimated at between 1:1,000 and 1:2,000, and, like females with extra X chromosomes, there is little to distinguish them from standard chromosomal males, other than the likelihood of being taller than average, and sometimes having mild cognitive developmental delays. The same is not true for (the very rare) XYYY males, who are more likely to have skeletal abnormalities, delayed bodily development, and much lower intelligence scores than either multi-X females or males who have only one or one extra Y chromosome.</p>	

Since mandated chromosome checks of newborns are usually just the ones needed to identify intersex syndromes with serious health implications (of which XYY is not one), a large percentage of XYY males live ordinary lives not even knowing about their extra Y.	
<i>D. Klinefelter Syndrome (XXY males)</i>	
Klinefelter Syndrome males have an extra X chromosome (or, much more rarely, an extra two or three). The classic XXY version is one of the more common sex chromosomal anomalies, with a frequency of about 1:500. Like XYY males, XXY males are not usually identified by a chromosomal check in the delivery room, and so may go through childhood or even beyond without being detected. Their external appearance at birth is standardly male, because although their extra X chromosome results in a lowered level of fetal testosterone, it is not usually low enough to visibly affect external genital appearance.	
However, lower testosterone production also occurs prior to puberty, with the result that secondary sex characteristic development is slow or incomplete. Klinefelter adolescents may have less developed musculature, less facial and bodily hair, weaker bones and somewhat broader hips. They may also develop breast tissue (a condition known as gynecomastia). By adulthood their appearance is similar enough to fit within the standard male range, though they tend to be above average in height, and to have a lanky build and youthful facial appearance, or alternately, a rounded body with some continuing gynecomastia. They also have reduced	

(or sometimes no) sperm production, and it may only be if they are unsuccessful in fathering children that their XXY condition is detected.	
Klinefelter syndrome is not life threatening, though it does increase the risk of health problems more typical of women, such as breast cancer, osteoporosis, and autoimmune disorders. In terms of gender identity, most people with Klinefelter syndrome identify as male and are less apt to be homosexual than somewhat asexual. Many of their physical challenges can be alleviated by testosterone replacement therapy. Their biggest challenge may be gaining acceptance by others despite having less than stereotypically masculine appearance and interests.	
<i>E. XX Males (de la Chapelle Syndrome)</i>	
Strictly speaking, the last two syndromes to be discussed are not sex chromosomal anomalies in the sense that they do not involve nonstandard numbers of sex chromosomes. But because they can be clinically mistaken for other sex chromosomal or hormonal anomalies, it seems appropriate to deal with them here.	
From the earlier discussion about standard male development, you may recall that a gene on the Y chromosome, called the SRY (or sex-determining region of the Y) is a necessary—but not sufficient—condition to produce a standard male child at birth. But in rare instances (about 1:20,000), this area of the Y chromosome breaks off during meiosis (when XY cells divide to form the two types of sperm in the father's testes) and attaches to its neighboring X-chromosome instead. If the SRY-added	

<p>X chromosome from the father fertilizes a standard X chromosomal egg from the mother, the result will be what is called an XX (or de la Chapelle syndrome) male.</p>	
<p>De la Chapelle, or XX, males are born with a penis and testes but no internal female reproductive structures, such as ovaries and uterus. However, their testes are sterile and sometimes remain undescended after birth, and the urethra sometimes appears on the underside—rather than on the tip—of the penis (a condition known as hypospadias). Yet most de la Chapelle children have the external appearance of a standard male, and almost always grow up with a male gender identity. The condition is often not diagnosed until after puberty, when the smaller size of their testes, their failure to produce sperm, and the development of breast tissue become causes for concern. Sometimes, in the absence of further tests, they may be misdiagnosed as XXY (Klinefelter) males.</p>	
<p><i>F. XY Females (Swyer Syndrome, or XY Gonadal Dysgenesis)</i></p>	
<p>Swyer syndrome is more or less the opposite of de la Chapelle's syndrome, in that it also involves problems with the Y chromosome's SRY gene—not when that gene is transferred to the X chromosome, but rather when it fails to function on its own Y chromosome due to certain genetic mutations. It is rarer than de la Chapelle's syndrome, with a frequency of about 1:80,000. Swyer fetuses, despite their XY chromosomal makeup, illustrate the principle that, in the absence of a functional SRY gene, the embryo will travel along the female path, developing a uterus, fallopian tubes, cervix, vagina, and standard female external</p>	

genitalia at birth. However, Swyer syndrome gonads are neither ovaries nor testes, but merely “streak gonads” which can produce neither gametes nor sex hormones of any kind.	
<p>Swyer newborns are rarely diagnosed as such at birth, and are raised as girls, typically with female gender identification. When menstruation and female secondary sex characteristics (other than pubic hair, thanks to the adrenal testosterone) fail to appear, an initial diagnosis of (X0) Turner syndrome, or AIS (androgen insensitivity syndrome, which is discussed below) may be considered. But when karyotyping reveals an XY chromosomal pattern, and internal body imaging tests confirm the presence of streak gonads, a diagnosis of Swyer syndrome may be made. As with most intersex conditions, this syndrome is not life threatening. But because the streak gonads are at some risk of becoming cancerous, they are often surgically removed.</p>	
<p>As in Turner syndrome, both menstruation and breast development can be induced in these XY females with estrogen and progesterone replacement therapy, and some may become pregnant with a donor egg or embryo.</p>	
III. Sex hormonal anomalies	
<p>Sex hormonal anomalies do not involve nonstandard numbers of sex chromosomes but occur in persons conceived with the usual XY male or XX female sex chromosomal pattern. They begin instead when something hormonally unusual happens during postembryonic fetal development. In a sense, there are both fewer and more of</p>	

<p>them compared to sex chromosomal anomalies. In their classic forms, there are three syndromes—but all three come in various gradations, and thus are divided into what are called “partial” and “complete” types. Indeed, part of the problem of making accurate frequency estimates of these syndromes may stem from ongoing discussions about how (or if at all) to subdivide the “partial” types into more and less severe forms. Moreover, of all the disorders of sex development (both chromosomal and hormonal), these three are probably the most heavily “politicized” in discussions of sex and gender.</p>	
<p><i>A. Androgen Insensitivity Syndrome (AIS) in XY fetuses</i></p>	
<p>Intersex persons with Androgen Insensitivity Syndrome have an XY sex chromosomal pattern but (in its complete form) are born with standard female external genitals at birth. However, their internal reproductive anatomy, including gonads, is that of a standard male. They are almost always raised as female, have a strong female gender identity, and in adolescence undergo normal-range female breast development. Complete AIS (CAIS) persons, who identify as female (as almost all do) often marry and have “normal heterosexual” relations with their (standard XY) husbands. Because there are few health risks to this syndrome, sex chromosome karyotyping at birth is not always mandated, so CAIS infants may nonetheless leave the delivery room having been recorded as ordinary XY males. The combined frequency of CAIS and Partial AIS (PAIS) births is estimated at about 1 in 20,000.</p>	

<p>How does AIS come about? Testosterone in optimal amounts is needed in an XY male fetus to complete the conversion of the early, undifferentiated genital area into a standard penis and scrotal sac after the testes, prostate, and other internal male structures have been laid down. But in a CAIS fetus, there is a mutation on the X chromosome that makes the fetal body unable to use any of the testosterone being produced by the testes or (in smaller amounts) by the adrenal glands. So normal-range testosterone is being produced, but it is functionally unusable. This means that the rest of the fetus's reproductive development defaults to the female direction, and the penis and scrotal sac do not form.</p>	
<p>We might well ask why AIS persons develop breasts at puberty, and this is where another complexity of hormonal ratios needs to be explained. We know that both ovaries and testes—though normally in differing ratios—produce the complete range of reproductive hormones, including testosterone, estrogen, and progesterone. This is the case both in fetal development, and later again at puberty. Because AIS is a lifelong condition, and not just limited to fetal development, the adolescent CAIS person is producing testosterone in the amounts needed to bring about male secondary sex characteristics—but again, the body cannot use any of it, so the voice does not deepen, nor does a beard grow or other bodily hair thicken. Instead, the smaller amounts of progesterone and estrogen (which are <i>not</i> affected by the original genetic mutation, and so can be taken up by the body's cells) get to work and do what they do in standard XX adolescent females: they produce breast tissue.</p>	

<p>What they do <i>not</i> do (as you may have already guessed) is produce a menstrual cycle, which cannot occur in the absence of a uterus. So it is in adolescence that CAIS may be identified, if a diagnosis has not been previously made. Medically speaking, the only thing to be concerned about are the still-undescended testes, which are at some risk for cancer, and thus are usually removed.</p>	
<p>So far we have been discussing only Complete Androgen Insensitivity Syndrome (CAIS). In its less common, “partial” form (PAIS), for reasons still largely unknown the original X-chromosome genetic mutation is only partially operative. This means that functional fetal testosterone levels are reduced, but not to a zero level of effectiveness. The result at birth is a varying level of external genital ambiguity—from not quite standard male, to not quite standard female. This of course means that the requisite chromosomal and internal scanning tests for AIS will be done, and a diagnosis made shortly after birth. But that can also lead to difficult decisions.</p>	
<p>In the centuries before cosmetic surgery became safer and more technically sophisticated, persons born with ambiguous external genitals simply grew up with them. Now it is possible to surgically “feminize” the ambiguous genitals of a PAIS infant to look like those of a more standard female. But should it be done if the parents request it? Should it wait until the child is old enough to state a preference? Moreover, such genital surgery in infancy is a delicate business, and can result in (often seriously) reduced sexual arousability in adulthood, if a penis-like clitoris has been surgically reduced for reasons of appearance. There are many adults who, having had</p>	

such surgery when they were too young to consent to it, are vocally angry about the problems—not life threatening, but still serious—that have resulted, including not just reduced genital sensitivity, but also the development of painful scar tissue. It is becoming more common in medical circles to recommend delaying surgery (if any) to well beyond infancy, then raising a PAIS child to have a (provisional) gender identity as either male or female, and making a decision about surgery on a case-by-case basis, with various people—including parents, the child, medical, and often psychological personnel involved.	
<i>B. Congenital Adrenal Hyperplasia (CAH) in XX fetuses</i>	
In a rough sense, this hormonal anomaly is the reverse of the one just discussed, in that in its extreme form (Complete CAH) a fetus with XX or standard female chromosomes is born with standard male external genitalia. In its less extreme form (Partial CAH), the external genitals may be ambiguous to varying degrees, just as they are in Partial AIS births—and this leads to the same challenging decisions regarding genital surgery in infancy and/or how to raise the child initially in terms of gender assignment.	
The mechanism behind Congenital Adrenal Hyperplasia, however, is quite different, though its awkward name summarizes what it is: <i>congenital</i> means that the syndrome occurs before birth and continues beyond; <i>adrenal</i> means that the adrenal glands are involved; and <i>hyperplasia</i> means that those adrenal glands are overproducing something. In this case it is testosterone, which is usually only produced in minute	

<p>amounts in standard female and male adrenals. But in CAH, due to the mutation of a recessive gene on one of the nonsex (autosomal) chromosomes, the adrenal glands overproduce testosterone greatly. Because it is a recessive gene, both the child's mother and father must have it in order for CAH to occur. When this happens in a XX fetus (whose gonads and internal reproductive structures have already differentiated as female), the remaining external genital development will be partially or completely male.</p>	
<p>CAH can occur in either a female or a male fetus, and it occurs in about 1 in 15,000 births. It is also involves a serious health risk in that it is accompanied by salt imbalances that, without appropriate medical treatment, can cause bodily dehydration and death. For this reason, it is one of the conditions usually tested for among newborns in hospital delivery settings—although even today, about 25 percent of Complete CAH cases are not diagnosed until later. In boys it has no effect on external genital appearance, but it can lead to premature puberty (with a growth spurt and secondary sex characteristics) as early as about age seven. And the same can happen in girls: pubertal development is too early and too typically male—all this in addition to the partial or complete masculinization of external genitals that is present at birth.</p>	
<p>Medically, the solution for both the risky salt imbalances and the overproduction of adrenal testosterone is to prescribe various forms of cortisone (continuously) and other medications (temporarily) to slow down the premature pubertal growth spurt. Girls with CAH most</p>	

often have a female gender identity and if successfully treated medically will be fertile and able to bear children.	
<i>C. 5-Alpha Reductase Deficiency Syndrome (5-ARD) in XY fetuses</i>	
One of the hormones needed to complete external genital formation (i.e., the closing of the underseam of the penis and scrotal sac) is a kind of “super testosterone” known as dihydrotestosterone, or DHT. This hormone is formed when an enzyme known as 5-Alpha Reductase acts on ordinary testosterone. But in very rare instances this does not occur, due to a recessive gene mutation on a nonsex chromosome. As with CAH, the condition depends on inherited genetic factors, but the recessive gene must occur on both the father’s and the mother’s chromosome in order for 5-Alpha Reductase Deficiency (5-ARD) Syndrome to occur—and when it does, it only affects male, not female, fetuses. As in two previously described syndromes, it results in partially to completely feminized external genitals in an XY male infant, even though the internal reproductive anatomy, including gonads, is that of a standard XY male. However, it is unique in one respect: when puberty arrives, the renewed surge of testosterone (for reasons that are still unclear) is enough to make the previously internalized testes descend, and the penis to enlarge, and its underlying seam to be completed. Typically male secondary sex characteristics also appear, and sperm production begins.	
There have been a few 5-ARD cases identified in North America, and slightly more have come from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and the Far East. But the	

<p>largest frequency is found in an isolated village located in the Dominican Republic, where about one in 90 males are affected. These males are almost always raised as girls. But with the arrival of almost complete masculinization in puberty (the locals sometimes call it “Penis-at-Twelve”), they must decide whether to switch to a male identity. Most of them do, are accepted as such, and many go on to marry and father children.</p>	